忠南文化

제4호 2000년

全國文化院聯合會 忠淸南道支會

"지 역 문 화 선 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복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 문화 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 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 감수성의 역량이 곧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 문화 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 문화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요롭게 될것이다.

둘째, 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 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 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 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 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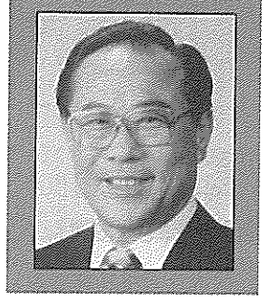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 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 자치 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2 **발간사**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김현구
3 **축간사** /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4 **충남의 향토사 연구**
4 천안지역 월경지(외면)연구 / 천안문화원 사무국장 이정우
44 보령 토진곶 목장성 연구 / 대천문화원 회원 황의호 · 황의천
85 백제불교의 전래경로와 그 성지조성에 대하여 / 태안향토문화연구소장 박춘석
95 **충남의 인물**
95 번암 채제공 선생 생애 / 청양문화원
102 이상제 / 서천문화원
105 **충남의 향토사연구**
82년 전 일본인들의 교육용 책자 발견 / 청양문화원장 안종일
115 **충남의 민속**
115 성삼문 / 홍성문화원
118 갈신리 장승제 / 예산문화원
121 황도 붕기 풍어제 / 태안문화원
125 기지시 줄다리기 / 당진문화원
127 **충남의 전설**
127 사사처(射蛇處)의 전설 / 아우내문화원
128 남산 바위와 도영지(倒影池) / 성환문화원
130 **충남의 문화제**
130 봉선홍경사갈비 / 천안문화원
134 성주사지 / 대천문화원
136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 대천문화원
137 성주사지 서 3층 석탑 / 대천문화원
138 성주사지 중앙 3층 석탑 / 대천문화원
139 **충남의 문화축제**
139 헤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 서산문화원
153 논산 딸기 축제 / 논산문화원
156 **문화칼럼**
156 공동체와 함께 하는 풍류 문화 /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안용산
160 연기군의 역사와 문화 / 조치원문화원장 장영
163 우리 민속 예술의 대표인 농악 그 원류의 기능을 찾자!
/ 청양문화원장 안종일
165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 명단**
166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자**
170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173 **충청남도 각 문화원 활동상황**

발 간 사



문화의 세기 지역 문화로부터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김 현 구

우리 『충남문화』가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새 천년을 맞는 설레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민족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국토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냉전의 적대 관계로 대치해 오던 남북이 정상 회담을 통해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고,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새 천년을 여는 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국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새로운 세기에 무한한 가능성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어 나라의 큰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의 세기는 인간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못지 않게 우리의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문화는 지방의 지역 문화를 근간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발전이란 지역 문화 발전을 벗어나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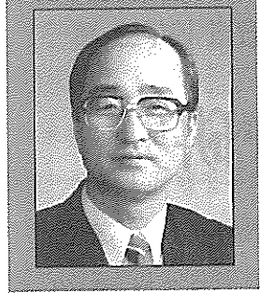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의 회복은 창조적인 국민의 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세계로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로의 진출은 결국 우리의 문화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 문화에 대한 한국의 공헌 역시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한 각 지방 문화원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충남문화』는 후대에 사료적 가치로서 보존될 것이며, 그 동안 충남 지역 문화의 발전과 활성화에 물심 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김재봉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각 문화원장님들과 본지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주신 박만진 시인께도 감사 드립니다.

축 간 사



새로운 지방문화 창조의 길잡이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지역 문화 발전의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고 있는 『충남문화』4집이 발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향토문화 宣揚을 위해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이처럼 유익한 책자도 펴내 주시는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란한 백제문화의 産室로서 고유의 지방문화가 잘 발달된 우리 고장에 이러한 문화 안내 책자가 발간되고 있는 것은 여간 반갑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매호마다 실리는 충실하고 새로운 자료는 일반인은 물론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모든 분에게 아주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만, 이제 문화는 그 자체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토문화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나갈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 유산인 전통문화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으로서, 이의 傳承과 보전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물질문명 사회에서 옛것을 지키고 가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代價 없는 땀과 정성을 쏟아야만 합니다. 『충남문화』를 발간하시는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자 발간과 각종 문화사업 추진에 열정을 쏟으시는 모습은 지역문화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道가 문화의 고장이라는 긍지를 살리면서 정체성 있는 새로운 지방문화 창조를 위해 백제 문화권 개발 사업과 古都 옛 모습 살리기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데에도 여러분의 이러한 뒷바침은 더없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문화 예술 역량 함양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 동안 지역민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의 幅을 넓히고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오신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김현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발간된 '충남문화' 제4집도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읽히기를 기대합니다.

天安地域 越境地(外面) 硏究

천안문화원 사무국장 이 정 우

〈目　　次〉

一. 요　약

一. 緖　論
1. 연구의 동기
2. 연구방법 및 한계
1) 선행 연구의 조사
2) 연구방법
3) 연구의 한계

二. 越境地에 對한 이해
1. 用語의 정리
2. 越境地의 형태

三. 越境地의 형성과 발전
1. 越境地의 由來와 廢縣, 鄕 所 部曲
1) 越境地의 由來
2) 鄕 所 部曲
2. 越境地의 형성과정

四. 朝鮮時代의 越境地政策
1. 越境地의 불합리성과 실상
1) 위치로 인한 폐해
2) 行政 制에 의한 폐단
2. 朝鮮時代 越境地 정책
3. 越境地 存續의 배경

五. 天安地域 越境地
1. 天安地域 越境地의 實相
2. 天安郡의 越境地
1) 新宗面
2) 德興面
3) 頃義面
4) 毛山面
3. 稷山縣(郡)의 越境地
1) 慶陽面
2) 安仲面
3) 堰里面
4) 外也串面
4. 天安郡 稷山縣의 월경지 연혁 총정리

六. 越境地의 소멸

七. 硏究의 종결과 제언

요　약

1. 본 연구의 필요성

월경지란 현대적 개념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편제였다.

無根飛入 界不相接이란 구절로 설명된 월경지는 제국주의 국가의 해외 식민지와 같은 형태로 高麗, 朝鮮 두 왕조 1000년에 걸쳐 존속되었음은 지방 행정구역 제도사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역사적 사실이었다. 특히 天安은 타지방에 비해 월경지를 많이 보유한 고장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시도한 월경지의 특성, 주민의 신분, 형성과정, 존속배경 등을 토대로 위치적 특성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현재의 위치와 현 명칭을 살피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월경지의 형태

월경지를 최종으로 정리한 법령 光武十年 "地方行政區域整理의 件" 이란 勅令을 발표하면서 "甲郡의 行政區域이 乙郡의 境內에서 일정 구역을 이루는 곳을 飛入地(越境地)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실례로 천안군의 월경지가 예산군 경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월경지는 당연히 예산의 행정 관할이 되어야 하는데 천안의 任內가 되어 오랜 기간 속현의 역할을 했으니 무려 1000여 년간을 지속했던 것이다.

3. 월경지의 형성

위치적으로 불합리한 월경지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형성되어 존속되었는 지가 연구 대상이다.

월경지는 廢縣 鄕 所 部曲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 鄕 所 部曲은 新羅時代에 이미 형성되었고 高麗時代에는 工匠의 집단 거주지로 경제 특구를 형성한 지역 단위였다.

신라에서 고려초기까지는 州郡縣의 행정구역은 구획되었으나 왕실과 토호들이 점유한 공장들의 집단 거주지는 고을 수령들의 지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 구역이었다.

이렇게 왕실이나 토호의 재력 기반이 된 鄕 所 部曲이 高麗顯宗 9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그들의 지배권에서 벗어나 州郡縣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때 主邑의 경계 밖에 있던 鄕 所 部曲은 월경지가 되어 主邑의 官需를 도왔는데 이것이 월경지의 형성의 주된 요인이었다.

다음은 몽고난리 때 內陸의 큰 고을들이 해도로 피난하였다가 귀환한 후에도 피난 연고지를 계속 점유하여 월경지가 된 사례가 있으며 폐현이 되어 인근 郡縣과 통합하였다가 통합 사유가 해소되어 독립되었을 때 통합했던 고을이 경제적 이권이 있는 지역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지배한 사례도 있다.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큰 고을에서 점유하여 월경지로 삼는 경우와 국경지대에 관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생산 특구를 월경지로 편입하는 정책적인 경우이다.

이런 사실은 조선조 高宗시대까지도 現代的 意味의 行政區域 制度가 정립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데 고을을 치리하는 守令들이 월경지를 보유하는 데 주력하였다기보다 지역 양반 세력들이 앞장서서 월경지 강점의 주체가 되었는데, 예로 安東, 尙州, 全州, 淸州, 公州의 兩班 세력들은 守令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막강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4. 越境地 政策과 實相

고려 시대 후기에 이르러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이 월경지를 정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내우 외환에 시달리는 조정이 이 방대한 지방구역 개편에는 손을 쓰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개국 초인 太祖 三年부터 일부 월경지 정리에 착수하였으나 오히려 정치적 필요에 의해 월경지를 새로 형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149개소의 월경지 중 73개로 축소 정리시켰지만 완전 정리시키지 못한 채 이 제도는 韓末 光武 十年까지 존속케 된다.

월경지의 실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경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공, 부역을 위하여 가까운 官衙를 두고 며칠씩 걸리는 주읍에 드나들어야 했고 소송이나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을 휴대하고 主邑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월경지 임내에 戶長을 두었으나 파견된 吏屬들이 대리 권한을 행사하는 폐단이 생기면서 가렴 주구가 생겨났는데 일반 행정구역보다 월경지가 심하였다.

반면에 이렇게 불합리한 월경지 제도 속에서도 主邑이 양반 향임으로 월경지 백성들도 양반 고을 백성 행세를 할 수 있는 잇점도 있었다. 安東府의 奈城과 春陽의 월경지를 奉化郡에 통합코자 할 때 奈城과 春陽의 百姓들이 "차라리 安東의 백성이 되어 죽을지언정 奉化의 백성이 되어 편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여 決死 反對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월경지를 貫鄕으로 하는 姓氏는 本邑을 관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例를 들면 奈城某氏가 安東某氏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신분 사회에서 貫鄕은 重要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월경지는 철폐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天安地域의 월경지

천안군과 직산현에 각 4개소씩 8곳의 월경지가 있었다.

천안의 월경지였던 新宗面은 高麗初 禮山郡이 天安의 屬縣이 된 데 원인이 있으며 德興 部曲은 몽고난 때의 피난 연고지였다.

稷山의 월경지 慶陽縣은 廢縣되어 귀속된 사례이며 天安郡 頓義面과 毛山面, 직산현의 安仲面, 堰里面, 大也串面은 그 발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高麗時代부터 천안과 직산의 월경지가 되어 있었다.

특산물 산지로서의 월경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본다면 예산군의 신종면은 도자기이며, 대야곶은 소금이었다. 또한 新宗만 제외하고는 모두 어업이 풍성했던 고장이며 신종도 일부 갯고랑을 끼고 있었다.

조선시대 월경지 정리의 조류 속에서도 천안의 8곳 월경지는 최종까지 존속되었는데 그 이유를 동국문헌비고 관방조에서 살펴볼 때 천안 직산은 작은 고을이었지만 使行이 빈번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늦게까지 존속되었다고 하였다.

천안의 월경지가 최종까지 존속되었다고는 하지만 직산의 언리, 대야곶, 안중은 실상 명목 뿐인 월경지였다.

아무튼 당시 천안과 직산의 월경지였던 8곳의 위치는 조사 결과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마을 명칭은 예전 명칭이 사라진 채 새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많았다.

6. 硏究의 結論과 提言

본 연구가 149곳이나 되는 월경지의 행정구역 역사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전국의 월경지를 살펴보면, 100여곳 정도 주군현에 존재하였다. 따라서 월경지를 보유했던 主邑인 고을과 월경지를 속하고 있던 타군까지도 모두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학자들이 중앙 중심의 역사를 연구하는 현실에서 이렇듯 중요한 월경지 문제는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토 사학계의 몫이 아닐 수 없다.

지방행정구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이 월경지 제도를 향토사학자 또는 연구자들이 더 인멸되기 전에 밝혀내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천안지역 월경지의 沿革과 현재의 위치, 명칭을 확실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말미에 8개소 월경지의 연혁을 총정리하여 첨부한다.

一. 緖　論

1. 연구의 동기

최근 高麗史를 열람하다가 의문이 제기되

는 史實을 발견하였다.

『恭讓王 二十年 六月에 倭敵의 침범이 있자 知密直司 尹師德과 柳龍生이 寧州의 道高山에서 백여 명 왜구의 목을 베는 전과를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寧州는 天安의 옛 지명인데 천안은 바다에 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구가 침범하기 어려운 고장이다. 더욱이 天安地域에는 道山이란 山이 없다. 도고산은 고려시대 新昌縣에 있는 산이며 현재는 牙山市 道高面에 위치하는데 面名을 이 산 이름을 따서 道高面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도고산은 牙山郡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음으로 고려말 왜구의 침범이 빈번했던 곳이다. 그러면 도고산 아래에서 왜구를 섬멸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寧州(天安)라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천안과 아산의 옛 地誌書를 살펴보았는데 高麗 恭讓王 당시 도고산 아래 마을들은 德興部曲이었으며 寧州(天安)의 越境地로 천안의 행정관할 구역이었음을 밝혀내면서 外面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관할 구역은 현대적 개념으로 고찰할 때 연속된 한 경계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군현의 경계를 뛰어넘어 관할 구역이 있다는 것이 좀처럼 납득할 수 없었다.

東國與地勝覽의 天安 古跡條에 「德興部曲은 郡의 서쪽에 있으며 거리는 六十八里이다. 위치는 신창현 西村을 뛰어넘어 소재한다라고 하였다. (德興部曲 在郡西 六十八里 越入 新昌縣西村) 또한 천안의 옛 군지인 寧城誌에는 德興面[1]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고려 이래로 越境地, 또는 飛入地로 불리우는 특수행정 구역이 있었음을 밝혀 주는 사실이다. 그래서 世宗大王地理誌, 東國與地勝覽 등 地誌를 調査해 보니 전국 백여 개 府, 郡, 縣이 越境地를 관할하고 있었으며 우리고장 天安郡에 4개소, 稷山縣에 4개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越境地 制度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越境地였다는, 특수행정 구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

이 制度의 始源은 명확하지 않으나 韓國官報를 찾아보면 光武 十年(1897) 九月 二十四日 『地方區域 整理의 件 勅令 49로 全國 各 郡에 소속된 越境地를 인접한 군에 移屬한다』고 공포하였던 점에 비추어 1백여 년 전까지도 존속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越境地는 官衙에서 다른 고을을 넘어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었음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불편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방 세력의 분산, 경제 특구의 조성 등 많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越境地의 설치 유래뿐만 아니라 그 위치조차 확인하기 힘들다. 이 제도가 폐지된 지 불과 백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빈번히 변경된 행정 구역과 수없이 바뀐 마을 이름이 그 흔적을 찾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읍지의 방리조에 기재된 마을 명칭들이 소멸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天安 越境地의 始源, 特性, 位置 등을 조사 연구해서 잊혀져 가는 지방 역사를 밝히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天安市만 해도 구 천안군 4개소, 직산현 4개소 등 넓은 지역을 월경지로 관장하고 있었으며 이들 지역은 모두 工匠의 집단 거주지로 많은 工産品이 생산되는 경제력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당시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의 대표적 공산품인 소금, 요업, 冶鐵 등은 모두 특설工匠[2] 區域인 越境地에서 생산되었으며 어업과 일반 공업도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사실을 간직한 越境地에 대해 조사, 연구함으로 전국 백여 개 고을에 소속되었던 월경지 연구에 대하여 관심을 촉구코자 이 연구를 진행한다.

2. 研究方法 및 限界

1) 先行研究의 調査

越境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목록[3]과 한국사연구휘호를 열람해 보니 수만 편의 역사관계 저술과 논문 중에서 월경지와 관련이 있는 논문은 불과 십여 편 정도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십여 편의 연구도 越境地의 母胎라 할 수 있는 鄕 所 部曲의 경제적 특성이나 신분제도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越境地의 위치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日人 學者 旗田巍 교수[4]가 발표한 논문 중 그 全文은 입수하지 못하고 다른 論文에 인용된 내용을 접했을 따름이다.

그 밖에 전국적으로 분포된 越境地 상황을 조사한 것과 犬牙相入地[5]에 대한 연구논문 몇 편과 각 군현의 행정 구역에 관한 것들이었다.

기록이 소루한 것은 옛 典籍들도 다름이 없었다. 우리 나라 地誌를 대표하는 新增東國與地勝覽이나 지방의 郡縣誌에도 월경지의 유래나 특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예로 天安郡

1) 寧城地坊里制

2) 工匠 : 工場의 뜻이 아니고 工業技術者(사람)를 뜻한다.
3) 한국사연구회보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역사연구저술 목록
4) 旗田巍 : 日人학자, 安東府의 월경지를 연구한 사람
5) 犬牙相入地 : 인접해 있는 A군의 영지가 B군 내부 깊숙이 파고들어 간 형국의 지형

新宗部曲의 경우 勝覽 古迹條에 「新宗部曲은 본군에서 팔십리 밖에 있으며 禮山縣 북쪽 마을 넘어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新宗部曲 在郡西八十里 越入 禮山縣 北村

천안군의 寧城誌 坊里條에

新宗面 編戶四里 上新里 下新里

新宗 宅洞 距官八十里

라고 기록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것만으로는 월경지를 이해하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역사 연구이므로 文獻 硏究가 필수적인데 越境地의 위치와 소멸된 취락명을 근거로 현재의 취락명을 찾아내야 하는 일이 우선적이었으며 調査 硏究를 병행해야 했다.

사라진 지명은 그 고장 노인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임으로 증언 청취도 필요한 연구 방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듯한 각종 서적을 열람 조사하고 현지 古老들의 증언 청취와 그 고장 향토사학자, 문화계 인사의 증언을 수집, 연구를 진행하였다.

3) 硏究의 限界

越境地 制度는 光武 十年 九月 二十四日(1906) 勅令 四十九인 「地方區域整理의 件」의 공포로 소멸되었다.

越境地가 소멸될 당시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군현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짧은 백년의 세월 동안에 행정 구역의 잦은 변경, 면·리·동명의 잦은 개칭 등으로 현재의 명칭을 찾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연세가 지긋한 그 고장의 노인들도 희미하게 망각해버렸으며 문화관련 기관에서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관심 밖의 사실을 찾아내어 연구를 진행하는 일이 매우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본 연구를 계기로 특수행정 구역인 越境地 연구를 관심있게 살펴보았으면 한다.

二. 越境地(飛入地)에 대한 이해

1. 用語의 정리

1) 越境地

행정관할 구역이 다른 군현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그 구역의 내부에 한 구획을 정하여 독립적으로 위치한 특수행정 구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高麗 時代와 朝鮮 時代에 걸쳐서 越境地로 불려왔는데 光武十年(1906) 九月 二十四日 공포한 勅令 49 '地域區劃정리의 件'이란 법령에는 飛入地로 표현되고 있다. 당시 두만강 건너 間島 地方에 월경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문제로 청국과 국경 분란이 자주 일어났었다. 이 때 두만강을 건너 만주지방에 잠입한 사람들을 월경 죄인이라 하였다. 이로서 월경 죄인과 월경지가 혼돈될까 염려하여 飛入地로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역사 용어로 사용해 온 越境地로 기술하고자 한다.

2) 犬牙相入地

犬牙相入地는 월경지처럼 독립되어 사방이 모두 타군의 경계로 이루어진 지형이 아니라 사방 가운데 한 방위는 본읍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군현의 내부 깊숙이 파고들어간 지역을 가리키는데 개 이빨이 서로 엇물려 들어간 형국이라 하여 붙혀진 이름이다. 자연적 입지 조건으로 이루어진 곳과 내륙의 큰 고을이 해안을 보유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획하면서 이루어진 곳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월경지와 犬牙相入地를 일괄하여 정책적으로 논의를 한 일이 많았다.

犬牙相入地는 斗入地라고도 하는데 北斗七星처럼 꼬불꼬불 타군에 파고 들어갔다는 뜻으로 붙혀진 이름이다.

3) 坊里

坊은 아랫 단위의 마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洞과 里와 같은 표현이다. 본 연구에 인용하는 坊里란 「마을들」이란 뜻으로 여러마을의 복수칭이다.

4) 本邑 主邑

邑이란 행정 단위는 面이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인구가 2만 이상으로 시군 산하 행정 단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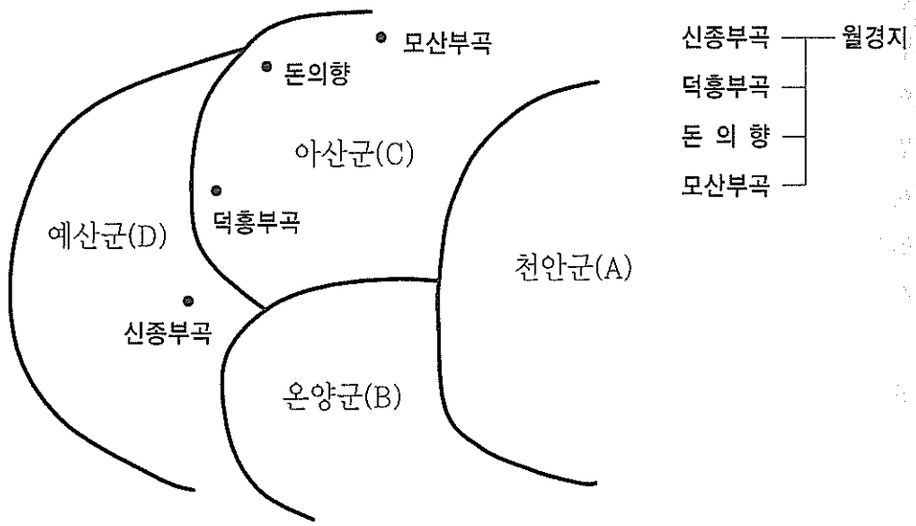
그러나 본래 邑의 뜻은 郡과 같은 뜻으로 고을을 뜻하는 말인데 현재의 지역 단위는 朝鮮總督府에 依하여 1914년 실시한 행정개편 때 비로소 제정된 행정단위 명칭이다. 이 이전에는 고을의 일반 名辭로 사용해 왔다.

본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主邑이나 本邑은 越境地를 관할하는 주인격인 고을을 지칭하는 말이다.

2. 越境地의 형태

越境地 제도는 현대 지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임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용어의 이해에서 대강 설명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납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월경지의 형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위의 도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A郡의 행정 구역이 B郡의 내부에 위치하며, 또는 A郡의 월경지

〈도형1 越境地의 모형도〉



가 B郡을 지나 C郡, D郡에 위치하는 수도 있다.

이런 경우, B, C, D郡 내에 위치하는 고립된 구역을 越境地(飛入地)라 하고 이 越境地를 관할하는 A郡을 主邑, 또는 本邑이라고 부른다.

三. 越境地의 형성과 발전

1. 越境地의 由來와 廢縣, 鄕 所 部曲

1) 越境地의 由來

新增東國與地勝覽에 의하면 越境地는 그 고을의 古跡條에 廢縣 鄕 所 部曲 등의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에 편찬한 郡縣誌 坊里條에는 面과 취락명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越境地는 廢縣 鄕 所 部曲이 변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치적 개념이며 鄕 所 部曲은 신분과 경제의 특성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고찰할 때 鄕 所 部曲이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越境地가 된 것이다. 따라서 越境地의 由來는 鄕 所 部曲에서 發源을 찾는게 타당한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 越境地의 母胎로 廢縣을 들 수 있다. 어느 縣에서 반역자가 출현되면 폐현되어 다른 군현에 예속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치에 따라서 월경지가 되는 것이다. 즉, 폐현이 主邑과 인접해 있으면 월경지라 할 수 없고 다른 군현을 지나 소재하면 월경지가 되는 것이다. 조선 태조 5년에 慶陽縣[6]을 폐현하고 직산현에 예속시키니 경양 폐현은 평택을 경유하고 있기에 월경지가 되었으며 선조 때 평택 현감이 관곡을 축내어 고을을 유지할 수 없다 하자 폐현하여 직산에 통합했다. 이 경우는 직산과 평택이 인접해 있음으로 월경지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廢縣도 越境地가 탄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鄕 所 部曲은 행정 구역의 개혁으로 월경지가 된 후에도 鄕 所 部曲의 特性을 계속 유지하였음으로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鄕 所 部曲의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鄕 所 部曲

鄕 所 部曲은 신라 시대부터 朝鮮 初期에 걸쳐 있었던 지방의 특수행정 구역이다. 이 鄕 所 部曲에 살던 백성들은 일반 양민과는 달리 그 신분이 천민과 노비에 유사하여 특수한 계급에 속해 있었다.

部曲이란 말은 중국에서는 노비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천인이 사는 집단 구역으로 쓰였다. 鄕 所 部曲은 전쟁 포로나 반역죄인과 그 자손들을 집단으로 거주시켜 鑛工業에 종사하는 工匠으로서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국가와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金, 銀, 銅, 鐵, 紙, 墨, 도자기 등을 생산하고 해변의 鄕 所 部曲은 漁業과 소금을 생산하였다. 鄕 所 部曲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큰 단위의 곳은 전체가 工匠으로 形成될 수는 없었기에 農業에 종사하는 百姓들도 혼재해 살았다. 조선 시대에는 鄕 所 部曲의 명칭을 폐지하고 일반행정 구역과 같이 面里制를 채택하면서 士族들도 混居하였다.

鄕과 部曲은 單位가 큰 곳이 많아 工匠들이 일부 살고 있을 뿐, 일반행정 구역과 별로 다름이 없었다.

특수행정 구역으로 오랜 면모를 유지해 온 곳이 所이다. 所는 工匠들만의 구역으로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所도 매우 큰 단위가 있었다. 鳴鶴所가 그 例이다. 魯城縣이 된 鳴鶴所의 천민 亡伊 亡所伊형제가 신분 제도에 불만을 품고 난리를 일으키자 고려 조정은 이들을 달래느라 鳴鶴所를 魯城縣으로 승격시켰다. 亡伊는 재차 반란을 일으킨 후 후일 잡혀 죽었지만, 이를 계기로 다른 천민들의 지위는 향상되었다.

鄕 所 部曲의 형성과 발전 과정은 경제적, 신분적 이유에서 설정된 특수행정 구역이었다.

初期의 所 部曲은 생산노예의 특성이 강

6) 慶陽縣廢縣事由 : 新增文獻備考地理條

하였으며 鄕은 農民들이 섞여 살던 곳이었는데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구별이 없어졌다.

향 소 부곡의 유래는 신라시대부터 찾을 수 있는데 삼국사기지리지[7]에 보면 鄕이란 명칭이 많이 발견된다. 확실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이 鄕이 鄕 所 部曲의 본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2. 越境地의 형성 과정

越境地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각개소마다 형성 원인이 다양하다. 월경지의 형성 원인을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월경지의 발생 과정이라기보다 월경지의 母胎인 鄕 所 部曲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豪族勢力[8]이 강성했던 신라시대에는 각 호족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隸民들을 사역하여 製鹽, 冶鐵, 工匠등을 경영했었다. 또한 王家, 貴族들도 전쟁 포로와 죄인들을 집단 거주시키며 특별경제구를 형성하여 工匠으로 使役시켰는 데 이것이 鄕所 部曲의 胎動이었다고 본다.

중국의 韓高祖 劉邦이 封建諸候의 領頌地를 越境地나 犬牙相入地로 형성하여 세력을 분산시켰는데 「分裂시켜 統治한다」는 것이 그의 統治 政策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 학자 중에서 鄕 所 部曲의 端緖를 韓高祖의 政策에서 찾으려는 이가 있으나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거리가 數日程[9]에 불과했기에 鄕 所 部曲의 발생원인을 통치 쪽보다는 경제면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고려시대부터 조선말기까지 존재했던 越境地 형성의 직접 원인을 살펴보면, 고려 顯宗 9년(1029년) 건국 초의 안렴사제를 없애고 중앙집권적 郡縣制를 실시하였다.[10] 새로이 四都護 八牧 五十六知州郡事 二十八將 二十縣令을 두어 중앙 통제를 강화했다.

이 때에 새로 형성된 고을들은 그 때까지 토호들이 관장하던 鄕 所 部曲을 그대로 관할하게 되니 자연히 월경지 발생의 기초가 된 것이 첫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위치적 개념의 越境地는 이것이 첫 시작이며 많은 수의 월경지가 이 때 발생한 것으로 사려된다.

두 번째는, 고려 高宗 때 蒙古亂을 피하여 각 고을에 海島로 피난하도록 명령하였다.

해도로 피난한 州郡縣이 亂後 本邑으로 귀화한 후도 피난 연고지를 계속 관할하며 보유한 사례이다. 그 사례를 들면 天安府가 新昌縣 仙歲島[11]에 피난했다가 귀환 후에 德興部曲을 설치하여 관할한 사례이다.

세 번째는, 魚鹽과 특산물이 풍부하여 列邑이 다투어 점유한 곳이다. 현 태안군 안면도는 魚鹽과 木材가 풍부하여 洪州 瑞山 泰安이 분점한 사례이다. 이 예에서 洪州와 瑞山은 越境地이고 泰安은 界相接[12]하여 월경지가 아니다.

네 번째는, 특정인을 어느 고을 知郡事로 임명하고 특산물이 풍부한 지역을 割當하여 특혜를 준 사례이다. 이것은 조선 태조 때 明에 使節로 갔다가 공을 세우고 돌아온 宦官 金淵을 稷山知郡事로 임명한 후 慶陽縣을 폐현하고 직산에 예속시킨 사례이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咸鏡道 등지에서 閔防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越境地와 驛站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 특구라 할 수 있는 越境地를 보유하게 한 사례 등이다.

四. 조선시대의 越境地 政策

1. 越境地의 실상과 불합리성

1) 위치로 인한 폐해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 顯宗 9년 郡縣制 실시에서 中央과 地方간 타협의 殘滓로 형성된 월경지와 斗入地[13]제는 시일이 경과할수록 불합리성이 노출되자 개혁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鄕 所 部曲의 신분 제도가 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반대의 소리가 그리 크지는 못했다.

고려후기에 들어 일부의 군현을 통합, 월경지를 줄이기도 했으나 廢縣과 移屬이 계속 일어나 새로운 월경지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으로 월경지는 계속 존속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다시 월경지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개국 초인 太祖 三年에 몇 개소의 월경지를 정비하여 정책 의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때는 군현 통합이 아니라 가까운 군읍에 귀속시키는 소극적 정책이었다.

그러나 태조 5년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온 宦官 金淵을 고향인 稷山知郡事로 제수하면서 평택 임내에 있는 경양현을 폐하고 직산에 귀속시켰다. 직산은 본래 縣이었는데 이 때 군으로 승격시켜 知郡事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慶陽廢縣은 자동으로 직산의 越境地가 된 것이다.

이후 태조의 월경지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태조가 월경지를 정비하려 한 것은 그 위치로 인한 불합리성과 갖가지 폐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비

7) 三國史記地理誌第三 未詳地名參照
8) 豪族勢力 : 新羅에서 高麗初期까지 地方에 割居했던 土豪勢力
9) 數日程 : 도보로 하루 갈 수 있는 거리를 1日程이라 한다.
10) 郡縣制實施 : 顯宗 9년 中央集權的 郡縣制實施. 地方官은 豪族세력의 번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中央에서 差官을 파견함.
11) 仙歲島 : 新昌縣(現 牙山市 仙掌面) 串으로 섬은 아니고 三面이 바다인데 地誌에 仙歲島로 記述함.
12) 界相接 : 境界가 서로 접속되어 있다는 표현, 越境地를 不根越入 界不相接에서 나온 말, 경계가 相接하지 않아야 越境地이다.
13) 斗入地 : 犬牙相入地를 말하는 것으로 勅令 49 에는 斗入地로 표현되어 있다.

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위치에 대한 폐단의 문헌상 기록을 살펴보면,

『越境地는 無根越入[14] 界不相接의 위치에 있어서 本邑에서 수십리 떨어진 것은 예사이고 멀게는 백여리 떨어져 있었다. 보행으로 여행하던 시절이므로 백성이 관아에 용건이 있으면 하루 오고, 하루 가야 하는 것이 예사이다. 백여리 넘는 곳은 수일정이 되어 불편하기 헤아릴 수 없었다. 稅貢을 바치고 부역의무를 이행하자면 짐바리를 싣고 수삼고을을 지나 본읍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민폐는 말할 수 없었다.』

一縣之地 或交入於數郡之境 或絶入於數郡之外 民之貢賦 搖役詞訟 載往來之時

同一官府 而過數郡 馳三四日程之外 必須聽斷 簿書期會之際 差任追徵之時

民多鞭撻 吏 侵漁 同一赤子而勞 苦歇 若是縣絶[15]

문종실록에 위와 같은 월경지 백성의 고초를 우려한 상소문이 올라왔다.

이 상소문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월경지의 위치적 불합리에서 오는 폐단을 지적한 것으로 특별한 것은 없으나 관료들이 이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과 이 곳에 사는 백성이 모두 동일한 赤子임을 강조한 것이 이채롭다.

다음은 越境地의 不合理性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기에 하나 더 수록한다.

淸州屬 德平 在木川 全義 燕岐三邑之外 自作一區 拒州八十餘里 居民 告 搖役 緖訟于州者

糧寄宿 弊固不 全義縣拒此僅八里[16]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淸州의 속현 덕평부곡은 木川, 全義, 燕岐 세 고을의 서쪽에 있어 청주와의 거리는 80여리나 된다. 세공, 부역, 소송 등으로 식량을 휴대하고 며칠씩 숙박하여야 하는 불편이 헤아릴 수 없다. 全義縣은 불과 8리허에 있으니 전의에 이속시킴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2) 行政 制에 依한 폐단

越境地는 定해 놓은 職制가 없으며 中央政府의 差官이 파견되지 않으므로 越境地마다 다른 行政 系가 成立되어 난맥상을 이루었다.

우선, 越境地의 규모가 차별이 많으므로 일률적인 令을 세울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한 취락이 일개 월경지 구획인 곳도 있으며 일개 면, 또는 수개 면을 합친 任內를 보유한 곳도 있다. 또한 큰 곳은 군현과 같은 곳도 있으며 本邑보다 광할한 월경지도 있었다.

廢縣인 越境地는 縣司를 보유하였었고 기타는 民家를 利用하여 吏屬司令 등이 任所로 삼았는데 自治 기구의 형태를 취하여 戶長이 선임되었지만 실질적 지배자는 吏屬이었다.

吏屬과 司令들은 名分上 守令의 감독을 받으나 거리가 원격지에 있어 정보창구가 吏屬 자신들이므로 자연히 폐단이 생겼다.

또한, 本邑 守令에게 政令의 수령, 보고 등을 함에 있어 많은 번폐가 따랐는데 戶長은 職印을 관수하며 해마다 정초가 되면 主邑 戶長을 따라 上京 肅拜하여야 하며 5일마다 吏屬勸農 里正 등이 主邑 관아에 오가면서 守令의 政令을 수령 또는 보고를 해야했다.

앞으로 월경지가 존재하는 배경에서 밝히겠지만 守令이 任內의 任員들을 고과할 때 이속들이 성의껏 本邑 경비를 잘 조달하는 사람이 우수한 이속으로 평가되었다. 다시 말하면, 수탈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吏屬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한편 本邑 守令의 행차도 월경지 주민으로서는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다. 본읍의 백성들처럼 공세와 부역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한 다리 거치는데 作奸이 생기게 마련이다.

월경지는 경제적으로 일반 지역보다 우세한 여건 속에서 수탈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2. 朝鮮時代 越境地 政策

朝鮮의 朝野는 월경지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정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太祖 三年 일부 월경지를 정비하려 했고 세종도 폐단을 짐작하면서 정비 계획을 세웠지만 전면적 정리에 착수하지는 못하였다.

세조는 적극적으로 월경지 정리에 관심을 두어 즉위 초 2년에 郡邑併合事目[17]을 발표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은 「오늘날 할 일이 두 가지 있으니 월경지는 빠짐없이 개정하고 견아상입지는 또한 심사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事目에 의거 상당수 월경지가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 事目에 역행하는 일을 세조 자신이 범하였으니 월경지 정리는 그 후 지속되지 못하였다.

順興府使 李甫欽이 錦城大君과 함께 端宗의 복위를 꾀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는데 이에 順興府는 反逆鄕이라 하여 폐읍되니 자연 월경지가 되었다.

이로서 世祖 郡邑併合事目이 더 進展을 보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는데 順興府는 숙종 때까지 2백여 년간 속현으로 남아 있게 된다.

郡邑併合으로 월경지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세조 이전에 太祖 19년, 世宗 17년에도

14) 無根越入 界不相接 : 근거없이 넘어들어 경계가 서로 접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越境地의 고립상을 표현하는 말
15) 文宗實錄卷四 文宗卽位 十月 庚申
16) 世祖實錄卷四 世祖十三年三月 戊寅
17) 郡邑併合事目 : 越境地가 所在하는 고을과 주읍을 합쳐 월경지를 없애자는 法令, 併合할 여건이 맞지 않는 郡縣이 많음으로 實效性이 적었음.

있었으며 中宗 13년, 宣祖 23年에 다시 있었는 데 완전 정리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그 수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政策 實施의 배경에는 곧은 신하들의 建議에 힘 입은 바 컸다.

충청도 순문사 安純18)의 상소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各官犬牙相入地 越入之地 不可不正
各從附近割屬 移定貢賦 民心便矣

「지방 각 고을의 견아상입지와 월입지를 불가불 고치지 않으면 않됩니다. 각각 부근 군현에 이속하여 공부를 정하여 민심을 편케 해야 합니다」하였다.

다음 도표에 조선시대 월경지 변천 상황을 표하여 월경 정책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時代別 · 道別 越境地 分布表

時代別 \ 道別	慶尙	全羅	忠淸	京畿	江原	黃海	平安	咸鏡	計
世 宗 時 代	49	34	35	5	5	-	1	2	131
大東輿地圖(1864)	32	17	18	5	1	-	5	4	82
光武 10년 『官報』勅令 49號	26	12	18	10	1	-	3	3	73
朝鮮시대에 있었던 越境地 總數	52	34	37	10	5	-	7	4	149
백 분 비 (%)	35.2	22.9	25	6.8	3.3	-	4.8	2	100%

이 표를 분석해 보면 世宗 時代와 光武 10年 월경지를 완전 폐지할 때를 비교하면 월경지가 많았던 충청, 경상, 전라의 삼도는 반으로 줄었으며 平安, 咸鏡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증가한 이유는 國防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3. 越境地 存續의 배경

월경지를 정리하려는 꾸준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한 첫째 이유는 월경지를 없앨 만한 정책 기반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중소 군현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재정이 허약한 군현에 소속된 월경지마저 정리하면 부근 군현의 영지를 할애해야 하는데 상당한 마찰이 따를 것임으로 행정구역 정비가 용이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큰 고을에 소속된 월경지는 魚物, 소금 등 많은 특산물을 공급하였으며 貢物, 進上品 조달에 큰 役割을 했기 때문에 큰 고을 월경지도 손쉽게 정리할 수 없었다.

또한, 大邑은 세력이 막강하여 쉽게 정리에 응하지도 않았다.

세 번째는 월경지 주민이 대읍에 소속되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그 예를 들면, 安東의 奈城과 春陽을 인근 고을인 奉化에 병합하고자 하였다. 이 때, 월경지 거민들은 「차라리 安東의 百姓이 되어 고생을 하며 죽을지언정 봉화의 백성이 되어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결사 반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네 번째는 월경지를 관향으로 하는 姓氏는 모두 本邑을 貫鄕으로 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월경지 제도를 환영하기도 하였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월경지의 폐단을 알면서도 월경지를 완전 정리하지 못한 것은 中央集權的 地方 制度를 정착할 당시 특수한 사정과 타협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五. 天安地域 越境地

1. 天安地域 越境地의 實相

현 天安市는 朝鮮總督令 第 111호로 木川郡, 稷山郡, 天安郡이 합쳐 한 고을이 된 고장이다. 직산은 백제의 위례성이었다 하나 월경지를 빼면 成歡邑 聖居邑 稷山面 笠場面等 4개 면으로 十宅之邑이란 작은 고을이었다. 하지만 慶陽面 安仲面 里面 大也串面을 平澤과 水原에서 保有하여 海運과 魚鹽을 풍족하게 생산하였다. 천안군은 고려시대에 府로 巨郡대접을 받았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천안읍 豊歲面 廣德面의 세 읍면을 관할하는 소군에 불과하였는데 월경지로 新宗面 德興面 頓義面 毛山面을 예산군과 아산군에 영유하여 어염과 도자기를 많이 생산하였다.

天安郡을 형성한 세 군현 중 목천현은 월경지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도리어 淸州의 좌入地(犬牙相入地) 修身面이 任內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었다. 후일 修身面은 勅令 49호로 木川군에 귀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목천을 제외한 天安郡과 稷山郡[19]은 각각 4개소의 越境地를 保有하여 安東, 尙州, 全州, 淸州 洪州 등과 같이 越境地를 많이 保

18) 安純의 상소문 : 郡縣을 併合하여 월경지를 정리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附近郡縣에 합하자는 의견

19) 稷山郡 : 갑오경장 후 현을 폐지하고 군으로 통일할 때 郡이 되었다.

有한 郡이었다. 光武 10년(1906년) 마지막 越境地를 정리할 때 그 때까지 73개소 중 천안 지역이 8개소나 차지하고 있었으니 월경지 연구에서 天安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天安郡의 월경지 頓義面과 毛山部曲, 稷山의 安仲面, 大也串面, 里面은 그 始源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新羅와 高麗 初까지는 鄕, 所, 部曲으로 존속되다가 高麗 顯宗 9年(1029)에 越境地가 되었다는 사실만 드러나 있다.

다음으로 天安郡의 월경지 新宗面의 경우 高麗 初 禮山이 天安 屬縣이었다가 현종 9년 독립되었을 때 部曲이었던 新宗面을 계속 영유한 듯하며 德興面은 蒙亂 때 피난지 연고로 계속 보유한 듯하다. 稷山의 월경지 慶陽面[20]은 朝鮮 太祖 5년에 귀속되었음이 각종 전적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越境地를 保有하고 있으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越境地 정리 대상에 한 번도 천안 직산의 越境地는 거론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천안과 직산은 삼남으로 통하는 통로로 使行과 官員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으며 溫陽 溫泉과 인접해 있어 왕과 왕실의 행차가 빈번하여 官需가 많이 소요되니 이를 充當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리 논의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

또 稷山은 소읍이지만 顯宗과 肅宗의 王駕가 머물렀으며 天安은 王室 行次의 宿所로서 華祝館이라는 巨大한 客官을 세울 정도였다. 따라서 饌需로 魚物등 특산물의 수요도 컷을 것으로 추측된다.

東國文獻備考[21]에 "諸邑之地 錯置於海邊者 爲漕運之所 而陽城 稷山 天安 割給海面者 以在孔道傍 爲使客饌需也"라 하였다.

따라서 越境 地整理 대상에서 天安 稷山이 제외된 것은 三南 大路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작용했음을 증명해 주는 기록이다.

또한 斗溪 李丙燾 선생은 稷山이 馬韓의 盟主 目支國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낙랑 대방 등지에서 乘大船入辰韓의 땅이 稷山이라고 추정하였다. 斗溪는 舟楫이 京畿을 거쳐 牙山으로 들어와 安城川 河口로 들어왔을 것이라 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稷山은 百濟初都 慰禮城이라고 傳하고 있다. 만약 稷山이 慰禮城이었다면 海運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華城郡(水原) 平澤郡의 海岸을 장악하여 樂浪, 帶方 등의 선박 출입이 가능토록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 때 堰里面과 大也串面을 보유하는 연고를 지은 게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稷山 小邑이 水原 같은 大郡의 任內 깊숙히 越境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端緖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소멸된 역사의 장속에서 찾아보려는 의견에서 이런 견해를 피력해 보는 것이다.

한편 光武 十年 九月 二十四日에 公布된 勅令 四十九 地方區域整理件에 보면 天安의 越境地 牛坪을 沔川郡에 歸屬한다고 하였다. 東國與地勝覽이나 天安郡誌인 寧城誌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지명이며 各種 古地圖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지명이다.

唐津郡의 구한국시대의 취락명에도 牛坪이란 面里洞 名은 물론 이삼호의 취락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진 군내 고로들도 牛坪이란 마을을 아는 이가 없었다. 다만 당진문화원에 의해 牛坪이란 地名을 牛江面[22]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받고 조사해 본 결과 牛江面은 옛 지명이 아니고 개칭된 面名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牛江面은 본래 泛川面으로 불리던 면을 개칭한 명칭이다. 牛江面의 地名을 고찰해 보니 牛坪의 牛字와 江門의 江字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牛坪은 취락명이 아니고 들녘의 명칭으로 '소들'이라 한 것은 漢字로 표기한 것이다.

살피건대 越境地는 面, 里, 洞, 村을 구역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들판의 명칭이나 山河의 명칭으로 구역을 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돗개나루(頓津)는 아산만에서 入海를 이루어 新平, 沔川과 牙山군 新昌을 대안으로 깊숙히 파고 들어 禮山의 境內까지 파고들었다. 頓津의 동쪽 대안 新昌縣에 天安의 越境地 德興面이 있었다. 現在 牙山市 仙掌面 頓浦里일대이다.

頓浦里의 頓串은 頓津을 건너 現唐津郡 牛江面(泛川面) 나루까지를 함께 부르는 명칭이다. 牛江面 境內의 頓串은 당시 天安의 德興部曲의 任內로 소들(牛坪)에 있었다.

天安의 越境地 德興의 頓串은 頓津西便은 沔川의 泛川面任內에 位置해 있으며 東便은 新昌縣 任內에 있었다. 光武 10年 越境地整理에서 頓津나루 동편 頓串은 新昌縣에 귀속시키고 西便 頓串은 면천에 귀속시켰다. 西便 頓串은 牛坪(소들)에 있었으므로 牛坪 頓串을 沔川에 귀속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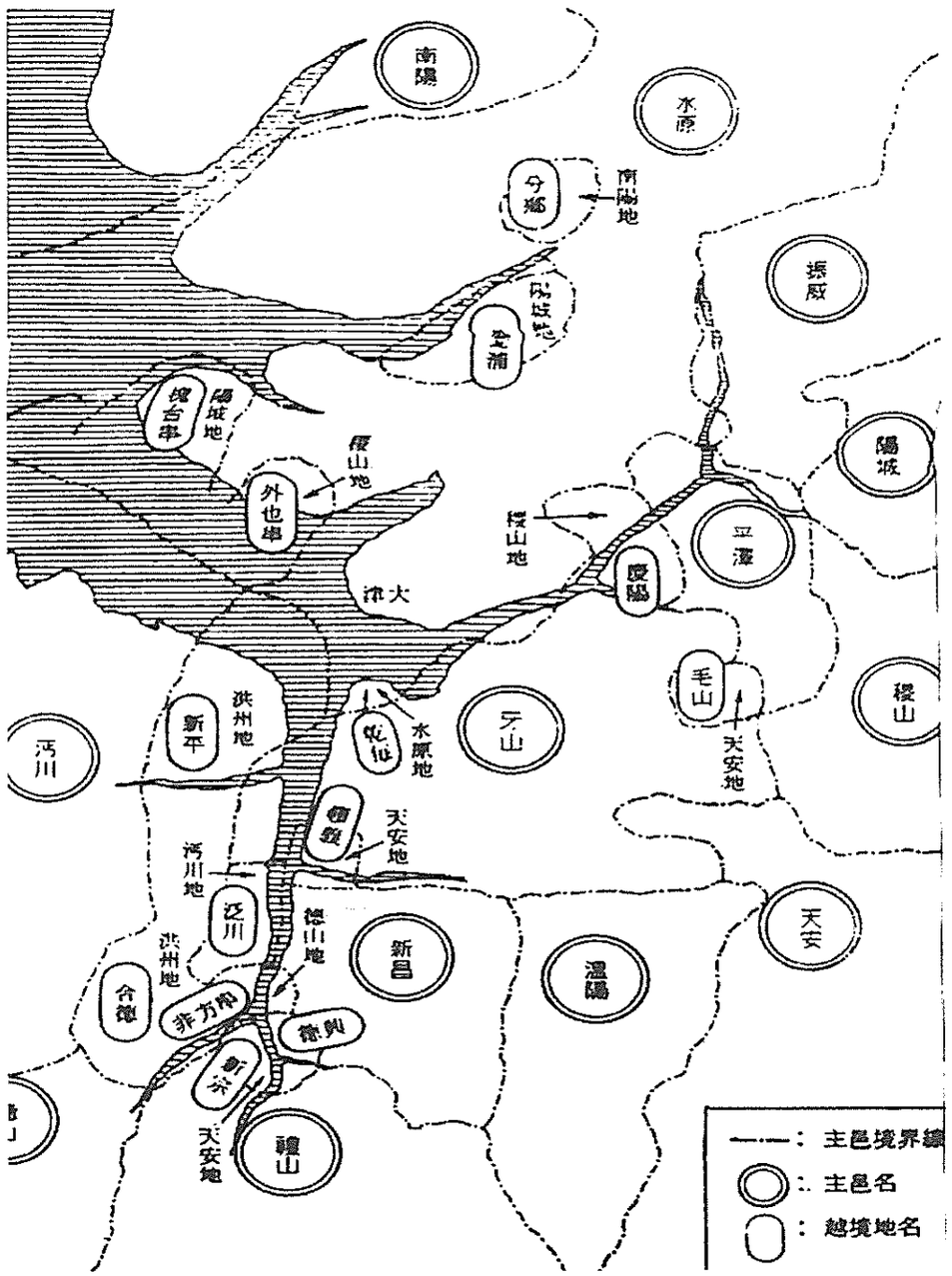
2. 天安郡의 越境地

1) 新宗面

新宗面은 現在 禮山郡 新岩面 新宗里와 新宅里 두 마을인데 光武 10年 9月 24日까지 天安郡의 任內에 소속되었다.

新宗面은 원래 新宗 上新 下新 宅洞의 네

20) 慶陽面 : 高麗의 官立製鹽場이었던 河陽倉이 있었던 곳으로 朝鮮太祖 5年 廢縣하여 직산에 귀속하였음.
21) 東國文獻備考 33 輿地考 21 海防 牙山條 參照
22) 牛江面 : 唐津郡의 面名으로 소들강문(牛坪江門)의 넓은 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川面을 개칭하여 牛江面이라 함. 牛坪과 江門의 윗자를 따서 지은 명칭임.



〈대동여지도 상의 천안 · 직산의 월경지〉

마을이었는데 光武 10年(1906) 9月 24日자로 예산군 신종면이 되었다.

그 후 7년 뒤인 1913년 12월 28일자로 면리제가 바뀌어 신종면은 소멸되니 네 마을은 新安面에 귀속되었다. 당시 面을 확장하여 행정기관 하부 단위로 삼았기 때문이다.

朝鮮 時代의 面은 二白戶를 기준으로 획정하였는데 面任이나 面長이 官長을 보좌하는 非常勤 명예직으로 있었으며 하부 기관은 없었다.

그러나 1914年 1月부터 面에 面長과 面吏員을 배치하여 관내의 戶籍, 農地勸業, 稅金과 一般 業務를 관장하는 행정 기관이 되었다. 예산군 신암면은 新宗面의 新字를 따고 立岩面의 岩字를 따서 지은 명칭이다. 天安郡 越境地 新宗面은 사라졌지만 신암면 명칭의 근원이 되어 역사의 숨결을 전해 주고 있다.

新宗面의 上新과 下新, 新宗里의 일부가 新宗里가 되고 宅洞과 新宗里 일부가 新宅里가 되었다.

新宗面이 天安의 越境地 任內가 된 유래는 高麗 初로 소급해 올라간다.

禮山郡은 百濟의 烏山縣으로 新羅 때 孤山이었으며 高麗 太祖 二年 禮山縣으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禮山은 任城郡의 領縣이었다가 高麗 太祖 때 天安府의 屬縣이 되었다가 顯宗 9年에 獨立하였다. 이 때 天安府는 위치가 가까운 新宗部曲을 계속 영유하여 천안의 월경지로 삼았다.

新宗部曲은 돗개나루를 타고 조금 내려오면 天安府의 德興部曲과 연결되었으며 牙山의 頓義鄕과도 연결되는 위치이다.

新宗部曲과 現 地名인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와 신택리는 고령토 산지로 磁器匠이 설치되었던 명소이다. 天安府는 이러한 요업의 생산지를 예산현이 독립한 후에도 계속 월경지로 보유해 온 것이다.

東國與地勝覽天安郡古跡條에

新宗部曲 在郡西八十里 越入禮山縣北村이라 하였으며 寧城誌에는

新宗面 編戶四里 上新里 下新里 新宗 宅洞 拒官 八十里라 하였다.

2) 德興面

德興面은 高麗時代 部曲이었는데 언제부터 天安郡의 任內가 되었는지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高麗가 蒙古의 침입을 받았을 때 王都를 江華로 옮기면서 전국의 郡·縣도 인근 海島로 피난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이 때 天安府도 온양 신창을 지나 仙藏島에 治所를 옮겨 전쟁에 대비했다고 한다. 이 때가 高麗 高宗 43년(1256년)이다.

東國與地勝覽, 寧城誌와 각종 전적에 仙掌島로 기록하고 있는 데 이 곳은 섬이 아니라 돗개나루 海岸 부락이다. 돗개나루는 한자로 頓津인데 아산만에서 당진과 아산의 경계를 이루며 예산군 신안면까지 파고 들어온 入海

(入江)이다. 돗개나루는 현재 아산군 선장면 頓浦里에서 당진군 우강면 대경리로 건너는 나루로서 그 넓이는 십여 리나 된다. 1960년대까지도 나룻배가 수시로 왕래하였었는데 현재는 아산군 선장의 부락 사람들이 강 건너 마을인 우강면 內鯨里로 왕래하는 데 이용될 따름이다.

德興部曲은 東國與地勝覽에는 區域을 제시하지 않고 위치만 기록하였다. 在郡西六十八里 越入新昌縣 西村이라 하였으며 구역에 대해서는 寧城誌(天安郡志)에 編戶四里 里大井里 廣川 頓串 距官七十里라 하였다.

그러나 高麗史에 恭讓王 2年 6月에 왜구가 침범하자 寧州(天安의 옛 명칭) 道高山에서 尹師德과 鄭龍生이 100여 명의 왜구 목을 베었다고 전한다.

만약 寧城誌의 기록대로 전기 4개 부락만이 德興部曲 관내였다면 道高山을 天安 구역으로 기록한 까닭을 알 수 없다. 또 仙掌 道高 두 면에는 天安의 故地라 전하는 곳이 많은데 홍곶리 등이 그 예이다.

아마도 조선조 500년 동안 德興部曲을 정리하지 않고 존치하였으나 그 임내는 차차로 줄어든 게 아닌가 추측이 되며 寧城誌의 기록 연대는 哲宗 13年(1862년)임으로 이미 축소된 德興面을 기록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牛坪의 頓串과 牙山의 頓串은 개고랑의 양 안에 걸쳐 있는 한 부락이었는데 光武 10年 越境地 정리시에 돗개나루를 경계로 정하여 牛坪, 頓串은 당시 沔川郡 泛川面 內鯨里에 편입되고 동편의 頓串은 牙山郡 椒井面 頓浦里가 되었다. 그 후 沔川郡은 唐津郡에 통합되고 泛川面은 牛江面으로 개칭하였으며 牙山郡 椒井面은 仙掌面으로 개칭되었다.

다음으로 大井里는 현재 仙掌面 大井里이며 里도 이 곳으로 편입되었다.

廣川은 온양문화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 古老들도 廣川이란 마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廣川은 사라진 옛 지명인 듯하다. 돗개나루 양안에 걸쳐 德山郡 菲方面이 있었다 하나 그 부락명조차 찾을 길이 없다.

越境地를 정리할 때 공부상에는 越境地로 남아 있었으나 사실은 이미 인접 지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곳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光武 10年에 越境地를 이속할 때 天安郡 德興面은 그대로 牙山郡 德興面이 되었으며 毛山面은 牙山郡 毛山面이 되었다. 당시 德興面은 新昌과 牙山의 中間에 위치해 있었기에 牙山에 편입된 것이다.

그 후 1913年 越境地 面이 폐지될 때 毛山面은 屯浦面에 德興面은 椒井面에 편입되었다.

1912년 1월 1일자 朝鮮總督府에서 발행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23]에 依하면 牙山郡 德興面은 堰里 大井里 宗德里 新興里 浦南里 十字 里로 되어 있는데 哲宗 13年에 刊行된 寧城誌에는 德興面의 編戶에 있는 廣川은 보이지 않고 十字 里는 생소한 명칭으로 나타났다.

또한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洞名稱一覽[24]에는 十字 里는 德興面地로 頓浦里에 편입한다고 하였다.

牙山의 옛 지명에 천안이라는 곳이 많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06년 越境地 정리 당시 舟運과 어업 기지인 頓串 大井里 등만 천안군의 통제를 받고 寧城誌가 편찬된 哲宗 13年 이전에 이미 新興 浦南 新興 十字堰 등은 아산으로 옮겨가고 공부상에만 남아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頓義面

頓義面은 高麗時代 鄕이었다. 頓義鄕은 高麗時代부터 天安府의 越境地로 지속해 오다 朝鮮時代에 이르러 面으로 개편되었는데 현재 牙山市 仁州面과 文方里, 海岩里를 중심한 일대이다. 東國與地勝覽 고적조에 보면 在郡西六十二里 越入 牙山縣西村이라 하였다. 頓義面은 천안에서 온양, 아산을 넘어 六十二里 밖에 위치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寧城誌에는 七十五里라 하였으니 頓義面의 住所가 바뀌어 거리가 달라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寧城誌 坊里條에 보면, 頓義面 編戶 五里 蟹岩 大寺洞 城洞 堰里 船村 距官 七十五里라 하였다. 위 다섯 마을 중 蟹岩은 게바위라 부르는 마을로 한자로는 蟹岩이라 하였다. 蟹岩은 區域 名稱을 정리할 때 음만 같은 海岩으로 표기하기에 이르렀다. 蟹字를 독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常用 漢字인 海로 변경한 것인데 본래 마을 이름인 게바위의 뜻과는 먼 이름이 되었으며 海岩으로 쓰다보니 갯바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 아무튼 게바위는 大寺洞과 합쳐 현재 牙山市 仁州面 海岩里라 부르고 있으며 堰里는 金谷里와 합쳐 金城里라 부른다.

또한 仁州面 文方里의 防築은 堰里의 일부인 듯한데 현재 천안 말로 전해 온다.

府令 第 111號로 面里洞이 통합 편제될 때 牙山郡 二西面 文旨里, 防築里와 頓義面 應峴里를 합하여 文方里로 편제하였다. 文旨里의 文字와 防築里의 方字를 따서 지은 里名이다. 이 때 防築의 防字를 쓰기 쉬운 方字로 고쳤다 한다.

牙山市誌에 따르면 應峴里는 고종 32년에 天安의 頓義面에서 牙山에 편입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때는 甲午更張의 改革課題로서 越境地 정리가 들어 있을 뿐 實際로 정리는

23)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 朝鮮總督府에서 1912년 1월 1일字에 發行한 것으로 舊韓國時代의 名稱을 수록한 자료

24)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 1913년 12월 28일字로 度更內容을 朝鮮官報에 게재한 것을 越智唯七가 저작한 책으로 주식회사 中央市場이 發行함.

하지 못한 듯하다. 한편 應峴里는 寧城地 頓義面에 없는 名稱이지만 최근까지도 천안말로 불렀다고 古老들이 전하고 있다.

1912年 1月 1日字로 간행된 舊韓國地方區域名稱一覽에는 牙山郡에 敦義面이 있으며 敦義面[25]에 編制된 里名은 大寺洞 城洞 金谷里 應峴里 佳樂里 里 蔡新堰里 洪串里등 8개소가 된다.

이 8개 里 中 佳樂里는 椒井面(仙掌面) 新門里에, 洪串里는 新里와 洪牙串里와 합쳐 洪串里로, 蔡新堰里는 그대로 蔡新堰里가 되었다.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실려 있는 佳樂里 洪串里 蔡新堰里는 仁州가 아닌 椒井面(仙掌)에 編入된 이유를 알 수 없다. 洪串里가 예전에 천안 땅이었는다는 것은 古老들이 증언하는 바이고 온양문화원에서 발행한 각종 향토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무슨 사유로 寧城誌에는 이들 마을 이름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德興面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朝鮮 末期에 越境地 中 일부는 경내 군현에서 사실상 지배하였음으로 寧城誌를 편집한 哲宗 13年 당시 天安郡이 支配한 마을은 5개 리뿐임으로 5개 마을만 수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며 天安의 支配權에서 벗어난 越境地들이 公簿에만 남아 있다가 勅令으로 越境地를 정리할 때 일괄 공식 정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寧城誌에만 나와 있고 行政區域 一覽에 나와 있지 않은 船村은 現地 답사에서도 찾지 못했다. 古老들의 말을 빌리면 배가 드나들던 포구를 船村이라 불렀는데, 交通의 발달로 舟運이 쇠함으로 동네가 없어졌다고 한다. 포변에 산재한 작은 취락으로 民戶는 작으나 舟運을 중시하던 예전에는 이 곳이 중요시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후에 없어졌다.

天安의 越境地 4곳은 모두 끝까지 존속되었었다.

그 이유는 德興部曲의 사례와 다를 것이 없다. 天安府는 都督府의 軍事 都市로 창건하였으나 고을의 기반이 되는 區域이 협소하였음으로 해안 지방의 부곡을 영유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후 高麗 顯宗 9年에 牙山郡과 경계가 확정될 때 德興府曲 頓義鄕 毛山部曲이 天安府의 越境地로 계속 남은 것이 분명하다.

4) 毛山面

고려시대에 部曲으로 天安府의 越境地로 편제되었으며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面으로 개칭되었음은 덕흥, 돈의 등과 같은 예이다.

敦義面 : 頓義面의 頓字가 독해하기 어려우므로 많이 使用되는 敦字로 고침.

寧域誌에 따르면 毛山面은 編戶十七里이며 峯五里, 新垈里, 堂后, 蛤田, 倉里, 世皮洞 松山, 市浦, 館垈, 新里, 文城, 項角, 長者洞, 鳳林村, 竹垈, 加里 등의 마을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읍 관청에서 거리는 40里라 하였다.

東國與地勝覽에

『在郡北三十六里 越入 牙山縣北村』이라 하였다.

德興部曲의 例에서와 같이 寧城誌와 勝覽과는 距里가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띄인다. 寧城誌가 勝覽보다 후에 편찬되었으나 勝覽을 무조건 따른 다른 군현지와는 다른 점이 발견된다.

또한, 1912년 1월 1일자로 발행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毛山面은 當后里, 文城里, 於仁洞, 鳳林里, 蛤田里, 芙容里, 項角里, 長者洞, 竹垈里, 加里洞, 館垈里, 黑川里, 新村, 山直里, 新垈, 峯五里, 松山里, 市浦里의 18개 마을로 편성되어 있다.

寧城誌에 記錄된 마을로 倉里, 世皮洞, 店里가 名稱一覽26)에는 記載되어 있지 않으며 名稱一覽에 記錄되어 있으면서 寧城誌에 수록되지 않은 里名은 於仁洞, 芙容里, 黑川里, 山直里의 4개 마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光武 10年 월경지 정리시 그 월경지가 소재하는 郡에 귀속시켰는데 天安郡 毛山面을 牙山郡 毛山面으로 관할을 변경하였을 뿐, 面里洞의 구역 변경은 하지 않았는데 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 까닭은 현지 답사와 각종 문건을 살펴 보면서 일부 마을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었다. 店村은 옹기를 굽던 마을로,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 工匠들이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게 되자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동해 갔다. 毛山面의 店村은 韓末에 排芳面 公須里로 이동해 와서 옹기 가마를 설치하고 주거를 마련하여 생활하였다. 그래서 公須里의 옹기전 마을을 毛山 사람들이 세운 마을이라하여 毛山 마을로 부르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때 경남철도(현재 장항선)가 개설되자 역명을 毛山이라 하여 유명해졌으나 行政 區域으로 볼 때 그저 자연부락일 따름이다.

倉里는 옛날 倉이 있어 倉里라 불렀는데 모산면 倉은 없어진 지 오래이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牙山郡 白石浦에 있는 貢稅倉이 稅穀의 수집 수송하는 구실을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世皮洞은 현지에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1906년 정리 당시 명칭을 수록한 名稱一覽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新 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27]은 1913년 12월 28일 府令 第 111호로 통합 정리된 명칭 일람을 엮으면서 새로 형성된 시군 면리동을 구한국시대의 명칭을 新 對照형식으로 편집하였다.

26) 名稱一覽 :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년 朝鮮總督府 發行
27) 新 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 日本人 越知唯七씨가 편저한 책으로 한국시대의명칭과 新名稱을 對照하여 化過程을 覽형식으로 엮은 책

이 책에는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나와있는 毛山面 18개 리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데 編著者인 越智唯七氏는 卷頭에서 新名의 행정 구역은 확연하나 구 명칭은 복잡하여 정리하기 매우 어려웠으며 각 도, 군,면에 조회하여 확실을 기하는 데 노력하였다고 적고 있다.

살피건대 寧城誌의 毛山面 17개 里보다 舊韓國新 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의 毛山面 18개 里가 사실과 符合되는 것을 發見할 수 있었다.

이 名稱一覽에 나와 있는 18개 里는 현재 다른 里와 통합되었으나 실제로 있는 부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一覽은 朝鮮總督府가 行政力을 동원하여 작성한 것이고 寧城誌는 章甫들이 편집한 책으로 내려오는 舊邑誌에 있는 내용을 삭제, 첨가하지 않고 원문대로 수록한 듯하다.

그러면 천안의 월경지인 毛山面 18개 里가 지금 어떤 명칭으로 변경되었나를 살펴볼 때 毛山面의 加里洞 一部가 현재 屯浦面, 雲橋里에 편입되어 있으며 松山里와 芙容里는 芙容里로 통합하였다. 그 후 松山里 사람의 異議로 두 부락의 윗 字를 따서 松容里로 개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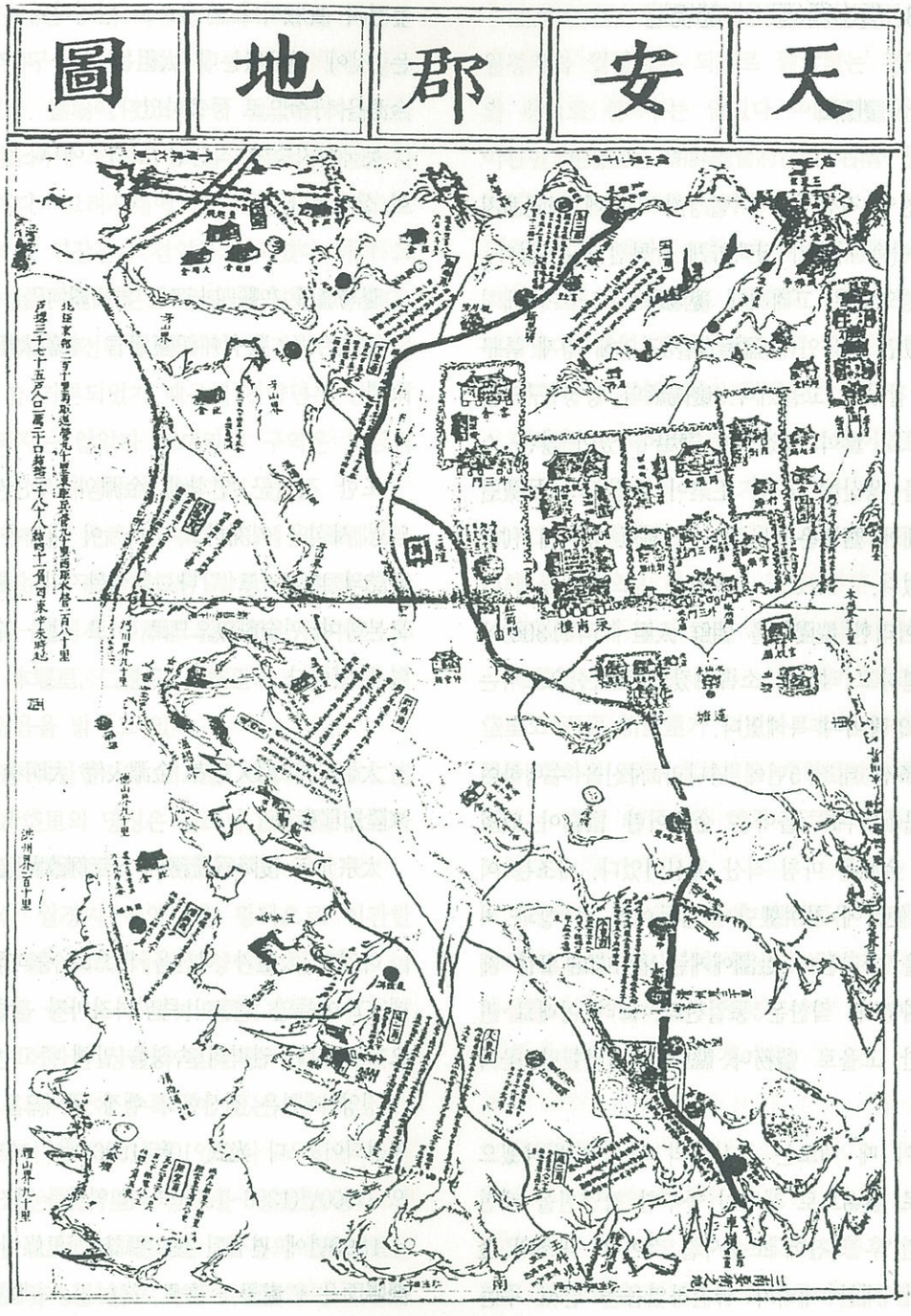
新垈里와 堂后里는 新陽里에 통합되었으며 長在里(長者里), 峯五里, 竹垈里, 鳳林里는 鳳在里로 통합되었다. 館垈里, 黑川里, 加里洞 一部는 합쳐 館垈里가 되었으며 於仁洞과 文城里, 項角里, 新村은 新項里가 되었다.

山直村과 蛤田里가 합쳐 山田里가 되었으며 市浦里는 三北面 市浦里와 합하여 市浦里가 되었다. 市浦里는 三北面 市浦里와 毛山面 市浦里가 한 里로 통합된 것이다.

屯浦面은 총 15개리인데 8개 리가 천안 월경지였던 毛山面의 옛 땅이다.

毛山面은 天安의 越境地 中 제일 넓은 지경을 보유하였으며 평택의 경양면과 마주하며 아산만에 위치한 해변 요지였다. 본읍과 거리도 멀지 않아 천안 경제에 크게 기여한 곳이다.

돈의향과 마찬가지로 毛山部曲이 어떤 이유에서 天安府에 귀속되었는 지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天安府가 창군된 후 府의 官需를 돕기 위하여 할애된 것이 천년의 세월 동안 天安의 越境地로서 역사를 이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규장각 소장 천안군지도〉

3. 稷山縣(郡)의 越境地

1) 慶陽面

천안 직산의 8개 월경지 가운데 慶陽面처럼 귀속 사유가 명백하게 밝혀진 곳은 없다.

경양면은 고려시대 慶陽縣으로 令이 배치되었던 고을인데 鹽場官을 겸임해 경제 특구와 같았던 고을이다. 慶陽縣의 행정 구역은 좁으나 倉이 있었으며 鹽場이 있어 많은 소금을 생산해 냈다. 工業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 鹽場은 큰 생산 업체인 동시에 利權이었다.

이러한 慶陽縣을 朝鮮 太祖 5年(1396)에 폐현하고 직산에 소속시켰으니 직산으로서는 큰 영광이며 특혜였다.

조선 태조 5년에 명나라 사신을 수행하여 공을 세우고 돌아온 金淵이란 宦官이 있었다. 金淵은 마침 직산 출신이었다. 태조는 이 때 使行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리는데 金淵에게는 稷山知郡事를 제수하였다. 직산은 통일신라, 고려 이래로 편소한 고을로 監務나 縣監을 배치했던 곳이다.

이 때 태조는 직산군의 재정이 빈약했으므로 鹽場으로 재정이 풍부한 경양현을 폐현시킨 후 직산에 소속시킨 것이다. 태조의 金淵에 대한 배려가 극진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본시 宦官은 공로가 있으면 위계를 높혔지 實職이나 守令으로 임명하지는 못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太祖는 이를 파기하고 金淵을 守令으로 등용하였다.

동국여지승람 직산현 고적조에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慶陽廢縣 在縣四十四里 本高麗河陽倉
後改今名 置令幷任鹽場官 本朝太祖五年來屬

또한 직산군 연혁에 金淵의 직산지군사 임명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이 내용은 稷山縣誌의 內容과도 같다. 직산현지가 勝覽을 모본하여 편술하였으므로 서로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太祖三年 縣人宦者 金淵入侍 大明奉 使而來陞知郡事
太宗元年 復降爲監務 十三年例改縣監

하지만 太祖가 직산을 郡으로 승격하였는데 그 아들인 太宗이 즉위하자마자 강등시켰으니 무상한 권력의 속성을 말해 주고 있다.

경양 폐현은 직산현의 행정 구역으로 계속 인정되어 오다 光武 10年(1906)에야 폐지되었으니 500년(1396~1906)의 긴 역사를 가진다.

1899년에 편집된 稷山縣誌 面里條에 보면 慶陽面은 仁處里, 倉里, 漁村里, 本堰里, 新垈里의 5개 리였다.

경양면은 고려 시대에 縣으로 令을 배치한 곳인데 구역이 왜 작은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鹽場이 있고 倉이 있었다 하나, 너무 협소하여 어떻게 고을 구실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고려시대에 하양창을 경양현으로 승격하여 염장관을 겸임하게 하였다 하니 그 시대에는 이런 작은 고을도 있었던 모양이다.

조선왕조 전대를 통하여 월경지 정리 정책은 늘 거론되었기 때문에 경양면은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구역은 조금씩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경양면은 光武 10年(1906)에 平澤郡으로 귀속되었다. 朝鮮總督府 발행 舊韓國地方行政名稱一覽에서 平澤郡 慶陽面은 鯨井里, 棹頭里, 本堰里, 仁處里, 新垈里의 5개 里로 편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직산현지와 비교할 때 本堰里, 仁處里, 新垈里의 명칭은 같으나 漁村里, 倉里가 鯨井里, 棹頭里로 바뀌었다.

직산 월경지 경양면을 평택으로 이관한 근거인 勅令 49호에는 경양면을 평택으로 이관하였을 뿐, 소속 里村 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관된 상태의 里洞 名이 朝鮮總督府發行 名稱一覽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서 稷山縣誌에 있으나 一覽에 나와 있지 않는 漁村里와 倉里를 地城 古老와 관심있는 人士에게 문의해 본 결과 漁村里는 인접한 곳에는 없고 北面에 舊倉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北面의 舊倉里를 경양면의 倉里로 본다면 월경지의 월경지가 되므로 舊倉里는 경양면의 창리로 볼 수는 없었다. 이로서 平澤에 이관한 慶陽面은 朝鮮總督府發行 名稱一覽의 기록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平澤郡에 이관된 경양면은 總督府府令 第111호(1913. 2. 28)로 振威郡 西面으로 편제되었다. 당시 평택군이 너무 작아 진위군과 통합하여 진위군이라 하였다.

평택은 그 때까지 충청남도 소속이었는데 진위군으로 통합되어 경기도로 이속된 것이다. 그 후 總督府令 197호(1938. 9. 27)에 의해 평택군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慶陽面 5개 리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棹頭里는 振威郡 西面 棹頭里가 되고 新垈里도 西面 新垈里가 되었다. 本 里와 鯨井里를 합하여 西面 本井里로 개칭하였으며 仁處里는 南面 老下里와 합쳐 西面 老陽里가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慶陽面은 현재 지명에서 완전히 사라져 稷山의 월경지였다는 사실은 거의 잊혀졌다. 105年이란 시간이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2) 安仲面

安仲은 지형적으로 볼 때 서해를 가까이 끼고 있어 해운이 편리하고 어염이 풍성한 곳이며 소사 평야의 넓은 들을 옆으로 구릉 지

대에 자리하여 과일과 五穀이 풍성한 곳이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수원, 화성, 평택, 아산 등과 인접해 있어 시장으로서는 매우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고장의 중심지이다.

이와 같이 지역의 중심지인 安仲面이 稷山縣의 월경지였다. 당시의 安仲面은 稷山縣誌 面里條에 따르면 倉里 松堂里 두 부락에 불과하였다. 직산의 월경지 시대를 거쳐(勅令 49호) 水原郡 佳士面 安仲里가 되었고, 1913년 12월 28일자 府令으로 振威郡 玄德面 黃山里에 소속되었다가 1938년 9월 27일에 府令으로 振威郡이 平澤郡으로 개칭되어 平澤郡 玄德面 黃山里가 되었으나 장터 이름은 계속 安仲장으로 불리었다. 安仲은 市場 명칭으로 계속되었으나 한때는 里格에도 들지 못하였다.

그 후, 平澤郡條例 1130호로 1987년 6월 29일 平澤郡 安仲出張所를 설치하였다. 이어 1989년 3월 3일에는 安仲面으로 승격되어 玄德面에서 분리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으로 볼 때는 직산의 월경지 安仲面과 현재의 安仲面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직산 월경지 安仲面은 현 安仲面의 일부에 불과했었다. 그래서 직산 월경지이던 安仲面 倉里와 松堂里가 직산 말이라 하여 지금도 불리우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安仲面의 由來는 稷山 월경지에서 찾아야 한다.

稷山 월경지 安仲面은 2개 리에 불과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任內 백성들의 가세가 넉넉했기에 당시 직산현 官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듯하다.

安仲里는 稷山縣誌에 倉里 松堂里의 두 마을이라 하였는데 이 마을 이름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上安仲里 下安仲里로 부른다. 또한 년로한 사람들은 稷山村 稷山 장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平澤郡誌에 따르면 上安仲里는 '나윗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稷山, 平澤, 光德面, 水原, 佳士面의 三角地帶에 있어 장터가 크게 열렸는데 지금도 舊 安仲 장터라고 부른다한다.

安仲은 고려시대에 鄕 所 部曲이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주변의 양반들과 충돌이 잦았던 모양으로 양반들이 한때 안중 장터를 폐장시켰다고도 한다.

1906년 월경지 정리 시에 水原市 佳士面 安仲里로 편제하였는데 8년 후인 府令 제 111호로 府郡을 통합할 때는 振威郡 玄德面 黃山里에 소속되었다.

· 黃山里는 安仲里와 이웃한 부락으로 黃氏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安仲里라 불러 黃山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安仲里가 水原에서 할애하여 振威郡에 편입될 때 黃山里로 편입되었다. 安仲里는 黃山里보다 큰 마을이나 타군에서 구역 변경으로 소속된 마을이므로 본래 평택군이었던 황산리에 소속한 것이다.

진위군이 평택군으로 개칭하며 安仲出張所가 생기고 이어 安仲面이 되면서 玄德面 黃山里에서 安仲里 上下 부락만 떼어 安仲面 安仲里로 개편된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직산 월경지 安仲面과 현재 평택군 安仲面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安仲의 직산 월경지 始源은 高麗 以前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생산 특구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자 市場기능으로 변천 발전한 곳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현재의 安仲面은 西海의 작은 거점으로 향후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장이다.

3) 堰里面

堰里面은 稷山縣의 월경지로 現 平澤市 梧城面 大盤里와 堂巨里에 있다.

직산현지 境內面里條에 依하면 堰里面은 高秋院 加羅串 化串 仁浦里 宮堰里 塔峴의 여러 마을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마을 명칭 중에 塔峴만 현재까지 마을 이름으로 남아 있고 다른 마을 이름은 모두 소멸되어 버렸다. 堰里面은 본래 水原府의 任內에 위치해서 전국 월경지가 모두 정리되던 1906년 水原府로 귀속되었다.

이때 전의 면 명칭을 사용하는 게 관례였으나 民戶가 너무 적어 面의 명칭을 부여할 수 없으면 이관받는 府郡에서 里로 편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堰里面은 水原府에 귀속되면서부터 면 명칭이 사라진 것 같다.

水原府는 堰北面에 堰里面을 흡수시켰다. 그 후 朝鮮總督府令 第 111호로 지방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통합 조정할 때, 수원 堰北面은 振威郡(후에 平澤郡)에 이관하였는데 그 때 平澤郡 梧城面에 편제되었다.

堰北面은 梧城面 堂巨里, 倉內里, 新里, 鎬浦里로 되어 있다. 이에 직산 월경지 6개 마을도 이 마을에 소속되었다.

하지만 옛 이름은 현지의 古老들도 아는 이가 없었으며 이 고장의 鄕土史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명칭을 가진 部落은 현재 없으며 어느 부락의 옛 이름인지 쉽게 알 수 없다고 하였다. 高秋院 加羅串 化串 仁浦里 宮堰里는 전혀 찾을 길이 없었다.

다만, 稷山 越境地가 梧城面에 흡수되었음을 증명하는 마을이 있을 뿐이다. 現 平澤郡 梧城面 大般里가 5개 부락으로 편제되었는데 그중 한 부락이 稷山村이었다. 이 마을을 직산말이라 부르고 있는데 속칭 장작골이라 하기도 한다.

이 직산말은 堰里面을 통솔하던 任所가 있었던 곳으로 稷山縣官需인 장작을 공급한 곳이었다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명칭이 소멸된 5개 리는 稷山말 주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로서는 堰里面의 흔적은 직산말과 탑고개 두 곳밖에 없는 셈이다.

堰里面은 振威川 河口에 위치하여 牙山을 거쳐 安城川 河口를 通하여 직산 본읍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어염과 장작 등을 공급하는 경제 특구였던 것이다.

이 堰里面이 언제부터 稷山에 來屬하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堰里面은 東國與地勝覽古跡條에 나와 있지 않으며 高麗시대에 鄕 所 部曲으로써 이름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김정호의 靑丘圖, 대동여지도와 水原府圖, 稷山縣圖[28] 등에 稷山地 堰里面으로 表示되어 있다. 또한 전래해 오는 水原誌 등에는 이 지역은 稷山地라 하여 공백으로 두었다.

이러므로 堰里面의 存續理由는 직산현이 작은 고을이면서 삼남 대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使行이나 王室 行次의 비용을 염출하도록 하는 이유에서 존속된 것이 틀림없다. 다만 始源은 高麗以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일부 鄕土史學者는 직산이 위례성 시대에 이 곳 해변을 장악했던 것이 고려 현종 9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월경지가 되어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직산위례성(백제 초도설)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가 많은 현 시점에서 직산 월경지를 직산 위례성설에 결부한다면 비약일 듯싶다.

4) 外也串面

外也串面은 槐台串과 이웃하여 京畿 , 牙山 의 돌출부에 위치하여 唐津, 沔川, 牙山, 稷山, 平澤을 오가는 항로의 요지이다.

稷山縣誌 面里條에 따르면 직산의 월경지로 편제된 고장임을 밝히고 있다. 部落은 串內里 鹽村의 두 마을로 전국적으로 볼 때 매우 작은 월경지 중 하나인데 水原府로 귀속되었다. 그 후 府令 第 111호로 振威郡(平澤郡)에 이관하였음은 堰里面 安仲面의 경우와 같다.

다만 現在는 平澤 어디에도 大也串이나 串內里 鹽村의 명칭을 가진 부락이 없다. 다만 靑兵圖, 水原府圖 등을 살핀 결과 大也串은 平澤郡 浦升面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 浦升面의 自然部落 名稱을 상세히 조사해 보았는데 新榮里에 稷山洞이란 마을이 있었다. 古老들에 의하면 전에는 직산 땅이어서 직산말이라 불러오다가 지금은 新榮里 二區로 불린다고 하였다. 또한 大也串 串內里 鹽村의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大也串面이나 串內里 鹽村 등 명칭은 水原府로 갔다가 振威郡(平澤郡)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멸되고 신 명칭을 사용한 듯하다.

예전에는 新榮里 해안가에 鹽場이 있었는데 火鹽이었으므로 天日鹽 개발과 함께 폐장되었다 한다. 鹽場이 있었던 취락을 鹽村이라 불렀던 모양이다. 하지만 鹽場은 전답으로 바뀌고 鹽村은 폐촌된 것으로 추측된다. 현 稷山洞은 옛 串內里가 분명하다. 浦升面은 괴태곶, 대야곶 등 돌출부가 많았으므로 串의 안쪽에 위치한다 하여 串內里라 불렀던 모양이다.

稷山洞처럼 主邑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월경지의 任所가 있었던 마을을 직산말 천안말 등으로 불러 지금에 이른 것이다.

大也串이 稷山의 월경지가 된 근원은 알지 못하나 朝鮮 時代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싶다. 朝鮮 時代에 형성된 월경지는 모두 형성 이유가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부터 월경지로 형성되었는지 확실하지 못한 곳은 그 발상을 조선조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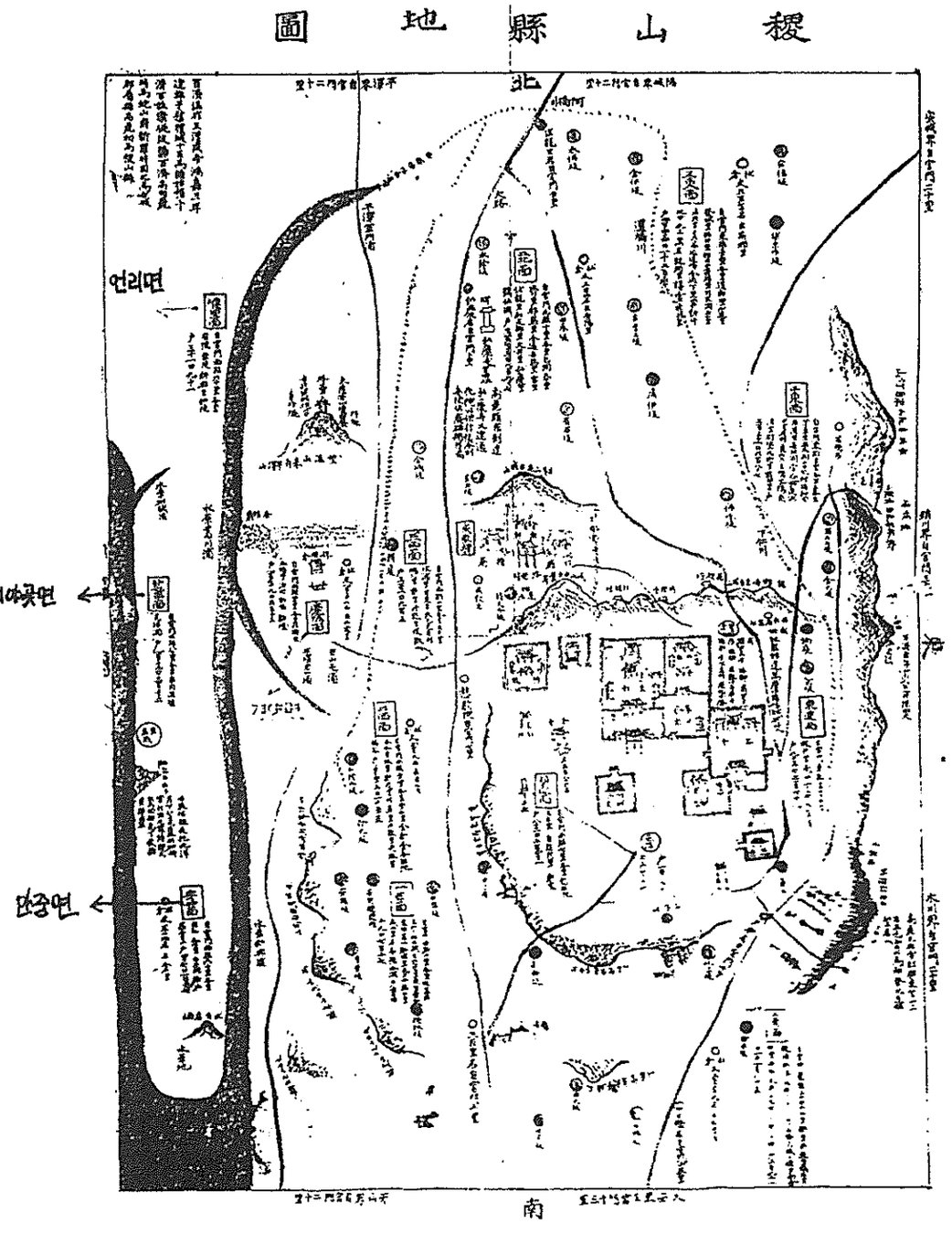
稷山의 월경지 중 慶陽面은 朝鮮 太祖 五年에 형성되었으나 安仲, 堰里, 大也串이 나란히 인접하여 연결이 되어 있는 점에서 직산현이 해상에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두계 李丙燾 선생이 三韓의 新考察[29]에서 稷山이 馬韓의 中心地로 추정한 사실이 있다. 이 때 樂浪, 帶方의 漢地로부터 선박이 왕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두계는 安城川 中流까지 潮水가 드나든 흔적이 있으므로 舟楫이 稷山의 成歡까지 往來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稷山慰禮城時代에 稷山은 牙山 일대의 해안을 장악하여 樂浪等地의 선박이 왕래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大也串面등 월경지 유래를 조선조이전으로 보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28) 靑兵圖(1843) · 대동여지도 : 김정호 소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水原府圖 : 水原市 史編纂室 所藏
稷山縣圖 : 奎章閣 所藏

29) 三韓問題 新考察 : 震檀學報 6~9호에 연재된 李丙燾의 上古史 論文(稷山目支國설을 제기한 논문)



〈규장각 소장 직산현전도〉

4. 天安郡 稷山縣의 월경지 연혁 총정리

1) 新宗部曲(面)

- 고려시대 新宗部曲
- 조선시대 新宗面
- 寧城誌에 나타난 부락명 新宗里 上新 下新 宅洞
- 勅令 49호[30] 禮山郡 新宗面이 됨.
- 府令 17호[31] 禮山郡 新安面에 편입됨.
- 現在, 新宗里의 一部 (上新, 下新) ─ 新安面 新宗里
  新宗里의 一部 (宅洞) ─ 新安面 新宅里

2) 德興部曲(面)

- 고려시대 德興部曲
- 조선시대 德興面
- 寧城誌 堰里 大井里 廣川 頓串
- 勅令 49호 牙山郡 德興面
- 府令 111호 牙山郡 椒井面에 편입
- 現在, 大井里, 堰里 ─ 仙掌面 大井里
  頓串 ─ 仙掌面 頓浦里

30) 勅令 49호 : 光武十年(1906)에 "行政區域整理의 件"이란 勅令을 발표하여 월경지를 정리함.
31) 府令 111호 : 1913년 12월 28일자로 朝鮮總督府令으로 行政區域 통폐합을 단행함.

3) 頓義面

- 고려시대 頓義鄕
- 조선시대 頓義面
- 寧城誌 蟹岩(게바위) 大寺洞
- 城洞 船村 堰里
- 勅令 49호 牙山郡 頓義面이 됨
- 府令 111호 牙山郡 仁州面에 편입됨.
- 現在
  - 蟹岩, 大寺洞 ── 仁州面 海岩里
  - 堰里 ── 金城里에 편입됨
  - 船村은 浦口의 소멸로 폐촌됨.
- 參考
  - 朝鮮總督府가 발행한 舊韓國行政區域 名稱一覽에는
  - 應峴里, 佳樂里, 蔡新堰里, 洪串里도 頓義面이었다 함.
- 現在
  - 佳樂里 - 仙掌面 新門里에 편입됨.
  - 洪串里 - 仙掌面 洪串里
  - 蔡新堰里 - 仙掌面 蔡新堰里

4) 毛山部曲(面)

- 고려시대 毛山部曲
- 조선시대 毛山面
- 寧城誌
  - 峯五里 新垈里 堂后 蛤田
  - 倉里 世皮洞 松山 市浦 官垈
  - 新里 文城 項角 長者洞
  - 鳳林村 竹垈 加里 店村
- 1日韓國地域 名稱一覽
  - 峯五里 新垈里 堂后里 蛤田
  - 松山里 市浦里 館垈里 新村

  - 文城里 項角 長者里(長在洞)
  - 鳳林里 竹垈 於仁洞 黑川里
  - 芙容里 山直里 加里洞
- 現在
  - 加里洞一部 : 屯浦面 雲橋里에 편입됨.
  - 松山里, 芙容里 ── 屯浦面 松容里
  - 新垈里, 堂后里 ── 屯浦面 新陽里
  - 長在洞, 峯五里, 竹垈里, 鳳林里 ── 屯浦面 봉재리
  - 館(官)垈, 黑川里, 加里洞一部 ── 屯浦面 館垈里
  - 文城洞, 項 角, 新 村 ── 屯浦面 山田里
  - 山直村
  - 蛤田里
  - 市浦里 : 屯浦面 市浦里
- 參考
  - 寧城誌의 店村은 排芳面 公須里로 이전하여 옹기점을 개설하고
  - 毛山이라 하여 現在에 이름.
  - 倉里는 폐촌, 世皮洞은 미상

5) 慶陽面

- 고려시대 慶陽縣
- 朝鮮時代 慶陽面(輿地志)
- 稷山縣誌 仁處里 漁村里 本堰里
  倉里 新垈里
- 全國行政區域 名稱一覽
  仁處里 本堰里
  新垈里 鯨井里 棹頭里
- 勅令 49호 慶陽面이 됨.
- 府令 111호 振威郡 西面에 편입됨.
- 現在

新垈里		平澤郡 西面	新垈里
本堰里	┐	〃 西面	本井里
鯨井里	┘		
仁處里		〃 西面	老陽里
棹頭里		〃 西面	棹頭里

6) 安仲面

- 高麗時代 安仲場
- 朝鮮時代 安仲面
- 稷山縣誌 倉里 松堂里
- 勅令 49호 水原郡 佳士面 安仲里
- 府令 111호 振威郡 玄德面 黃山里에 편입됨.
- 現在 平澤郡 安仲面 安仲里

上安仲里	┐	安仲里
下安仲里	┘	

- 參考 倉里 松堂의 명칭은 소멸되어 安仲里가 되었으며 직산말이라 함.

7) 堰里面

- 고려시대 堰里
- 조선시대 堰里面
- 稷山縣誌 高秋院 加羅串 代串
  仁浦里 宮堰里 塔峴
- 勅令 49호 水原郡 堰北面에 편입됨.
- 府令 111호 振威郡 梧城面에 편입.
- 現在 稷山村 ~ 梧城面 大般里
  塔峴 ~ 梧城面 堂巨里에 편입됨.
- 參考 塔峴을 제외하고는 모두 稷山村으로 通稱함.
  現在는 堰里面의 任所가 있었던 部落만 직산말이라 하고
  기타는 새명칭이 부여되었음.

8) 外也串面

- 고려시대 外也串
- 조선시대 外也串面
- 稷山縣誌 串內里 鹽村
- 勅令 49호 水原郡에 편입됨.
- 府令 111호 振威郡 浦升面 新榮里에 편입됨.
- 現在

串內里	┐	稷山洞 ~ 新榮里
鹽 村	┘	

- 參考 직산말과 새로 형성된 마을과 합쳐 新榮里라 함.

六. 越境地의 소멸

越境地의 不合理를 朝鮮 王朝 500년 동안 논의하면서도 打協의 부산물로 꾸준이 존치되어왔지만 甲午更張時에 또 다시 改革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정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10년 후인 光武 10年 勅令 49호로 완전 정리하여 인접한 군현에 귀속시켰다. 新羅 時代에 발원한 鄕所 部曲이 郡縣制 實施 때 越境地로 바뀌어 高麗, 朝鮮에 이르는 千年間 지속되었던 제도가 越境地이다.

이 때까지 殘存했던 월경지는 모두 73個所로 이 령으로 일괄 정리된 것이다.

勅令 49호 地方區域整理件[32]의 공포로 인접 군에 귀속되었는데 이 때, 월경지 시대에 편제된 面制대로 이관되었다. 예를 들면 천안군 소속 월경지인 新宗面이 그대로 禮山郡 新宗面이 되었으며 직산군 소속 월경지 慶陽面이 平澤郡 慶陽面이 된 것이다.

그 후, 1913년 12月 29日자로 공포된 府郡 統廢合令[33]에 따라 行政 區域이 全面的으로 개편되었다. 이 때 面을 대형화 하여 단위 행정 기관을 설치하였다. 수개 면을 통합하여 하나의 面이 되는 바람에 面名도 거의 개칭되었다. 里도 개편하여 새로운 마을 명칭을 붙이니 옛 마을 이름은 거의 소멸되었다. 이 府郡統廢合令으로 越境地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 그 후, 잦은 행정 구역의 廢合과 명칭변경이 이루어져 월경지였던 面里와 취락이 현재 어느 마을인지 쉽게 찾아낼 수 없게 되었다.

월경지제를 정리한 시기가 불과 105년의 세월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1천여 동안 지속되었던 이 월경지 제도와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으며 심지어는 國史大事典[34]에도 鄕所 部曲만 나와 있지 월경지는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이 못내 아쉽다.

七. 研究의 結論과 提言

현 천안시의 조선시대 군현인 天安郡과 稷山縣의 越境地 8개소에 대해서 현재의 위치와 명칭, 그리고 그 배경을 조사 연구했다.

월경지가 소멸된 지 10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인멸 단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조선시대에 월경지로 구획된 곳이 149개소나 되었고 최종 정리할 때까지 73개소나 남아 있었는데 왜 기록이 소루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졌는 지 알 수가 없다.

역사 학자들이 왕실이나 중앙정치 중심의 역사 연구에 치중하면서 지방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인멸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 문헌에는 월경지를 主邑 中心으로 기록했기에 위치적으로 境內인 군현에서 백지 공간으로 취급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古地圖에는 직산지 大也串, 水原地, 傑梅 等으로 作圖되어 現在 位置를 찾기 힘들었다.

한편 돌려받은 府郡에서는 대체적으로 구취락명을 사용하지 않고 越境地였던 사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한 사실도 발견된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볼 때 天安地方의 越境地 연구를 진행하여 그 유래, 특성, 위치, 현재 명칭을 문자로 남긴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研究를 도와주신 분〉

- 향토사학가 임명순 (천안시)
- 온양문화원장 박노을 (아산시)
- 예산문화원 사무국장 김문회 (예산군)
- 천안문화원장 민병달 (천안시)
- 수원시학예연구사 이달호 (수원시)
- 수원시사편찬실 한동민 (수원시)
- 당진문화원장 민영근 (당진군)
-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심후식 (수원시)
-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정영석 (평택시)

- 지역원로 이병기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1구)
- 〃 진병욱 (아산시 선장면 대정리)
- 〃 정남기 (아산시 선장면 홍곶리)
- 〃 김철수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광명시 겨주)
- 〃 미확인 (平澤市 浦升面 신영리)
- 〃 미확인 (〃 오성면 당거리)
- 〃 미확인 (〃 안중면 안중리)

〈參考文獻〉

- 新增東國與地勝覽〈思縝外 編著〉
- 東國文獻備考〈洪鳳漢外 編著〉
- 朝鮮王朝實錄中
- 太祖實錄
- 太宗實錄
- 世宗實錄
- 文宗實錄
- 世祖實錄
- 中宗實錄
- 宣祖實錄
- 肅宗實錄
- 高宗實錄
- 寧城誌(天安邑誌)
- 稷山縣誌
- 天安市誌
- 平澤郡誌
- 牙山郡誌
- 唐津郡誌
- 禮山郡誌
- 水原市誌
-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朝鮮總督府 發行〉
- 新 對照 朝鮮全道面里洞名稱一覽〈越知唯七 編著〉
- 삽교천의 역사문화〈김추윤 저 당진문화원〉
- 韓國行政總攬(1889)〈김지선 편저〉
- 韓國行政總攬(1992)〈김지선 편저〉
- 水原地名總攬〈수원문화원 편저〉
- 大韓國史〈李瑄根 著〉
- 韓國史大系〈千寶宇外 共著〉
- 大東輿地圖〈金正浩 편저〉
- 靑兵圖〈金正浩 편저〉
- 水原府圖〈水原市史編纂院 所藏〉
- 天安郡圖〈奎章閣 所藏〉
- 東輿備考〈慶北文影印本〉
- 先行研究物三編〈落章으로 저자 미확인〉

32) 勅令 49호 地方區域整理件 : 光武十年九月十四公布된 法令으로 官報附錄 光武十年九月二十八日字에 全文 게재 됨.
33) 府郡統廢合令 : 이 法令은 朝鮮總督府令 第 111호로 公布되었으며 당시 官報에 게재됨.
34) 國史大事典 : 李弘稙氏 編著

보령 土津串 牧場城 연구

대천문화원 회원, 웅천중 교감 **황 의 호**
대천문화원 회원, 대천여고 교사 **황 의 천**

〈 目　　次 〉

Ⅰ. 머리말
Ⅱ. 연구 지역의 지리적 환경
Ⅲ. 우리 나라 목장 및 목축업 발달 개요
Ⅳ. 연구 지역의 성이 토진곶 목장성이라는 증거
1. 문헌적 검토
2. 전설에 의한 증거
3. 성의 규모에 의한 증거
4. 축성 방법에 의한 증거
5. 地名에 의한 증거
Ⅴ. 성의 실태
1. 위치의 특색
2. 성의 규모
3. 축성 재료
4. 구간별 구조
Ⅵ. 맺음말
※참고 문헌, 사진 자료

Ⅰ. 머리말

우리 나라는 고대부터 운반 이동 동력의 수단으로 말이나 소가 큰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말이나 소를 기르는 목장의 운영이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되면서 전국에 많은 목장이 설치되었다.

최근 보령 서남부 지역인 웅천읍 소황리 해안에서부터 웅천읍 관당리 무창포 해안까지 약 11㎞에 이르는 옛 남포현 토진곶 목장의 목장성으로 추정되는 성이 발견되었다.

이 성은 웅천읍 소황리 장안마을 동쪽 해안에서 시작하여 웅천읍 소황리·황교리·독산리·죽청리·관당리를 둘러싸고 해안으로 이어지는 石築, 土築, 土石混築으로 되어 있으며 아직도 흔적이 뚜렷하다.

그러나 學界는 물론 지방의 향토사학자들도 성의 규모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근래 일부 구간은 浸蝕이 진행되어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최근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지방도 606호의 개량공사 등으로 성의 일부 구간이 훼손되고 있어 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목장이나 목장성에 대한 연구는 南都泳이 제주도 목장에 대하여 풍부한 여러 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 상황과 연계시키면서 자세하게 연구하였으나, 전체적 연구의 경향은 개별적 목장의 흔적을 찾아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주로 문헌연구 분석을 통한 일반적 실태 파악에 치중되어 왔다[1].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특히 조선 시대의 목장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문헌 분석과 현지 답사를 통한 보령 서남부 지역의 목장성의 실태를 조사하여 과거 보령 지역이 가졌던 역사 지리적 위치를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개별적 목장성 연구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Ⅱ. 연구 지역의 지리적 환경

목장성이 위치하는 지역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의 서쪽 해안 지역으로 과거 남포현의 서남부 지역이다. 북위 36°11′36″에서부터 북위 36°15′08″사이에 위치하고, 서해 바다에서부터 동경 126°34′22″사이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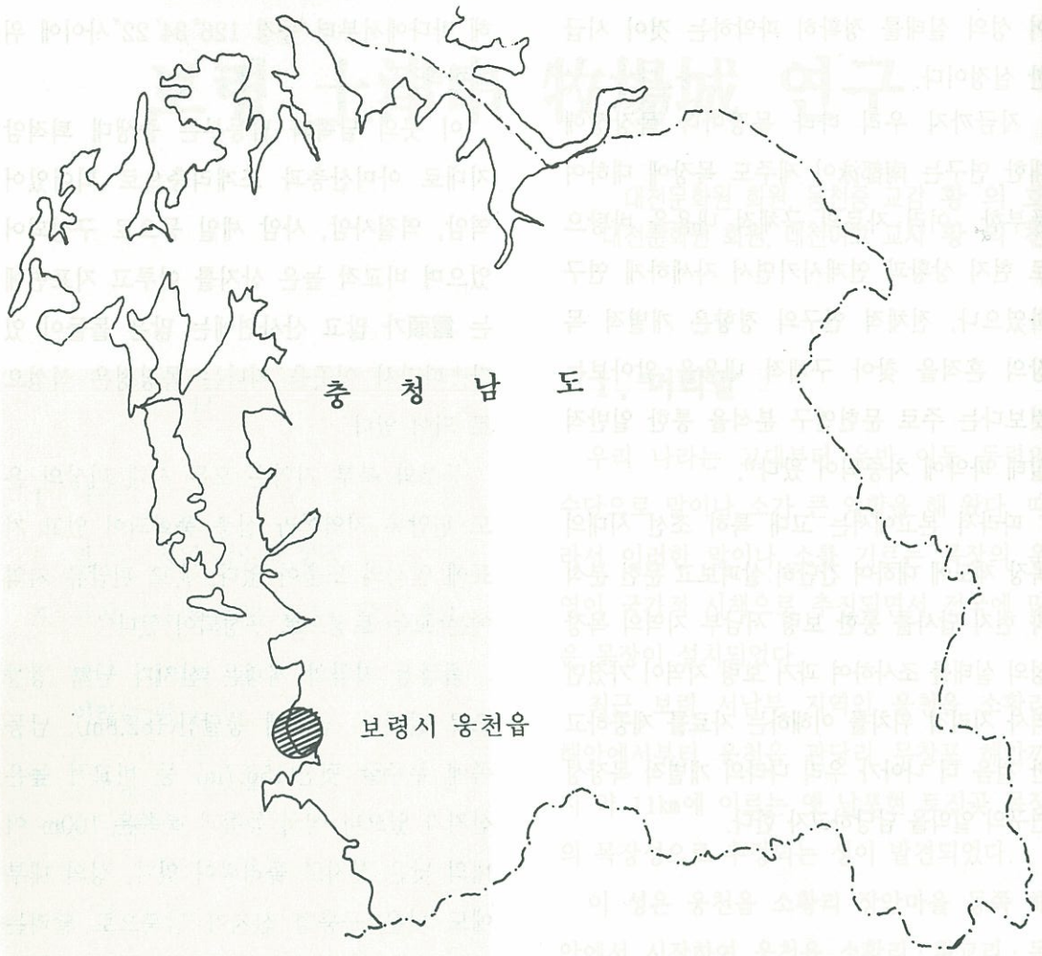
이 곳의 남쪽과 남동부는 중생대 퇴적암 지대로 아미산층과 조계리층으로 되어있어 역암, 역질사암, 사암 셰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높은 산지를 이루고 지표면에는 露頭가 많고 산사면에는 많은 돌들이 있다. 따라서 이곳을 지나는 목장성은 석성으로 되어 있다.

동부와 북부 지역은 모두 시대 미상의 운모 편암류 지역이라 심층 풍화되어 있고 지표에 암석의 노출이 없다. 운모 편암류 지역에는 모두 토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장성 지역의 지형은 산지가 남북 방향으로 달린다. 남쪽에 통달산(182.8m), 남동쪽에 부주굴 뒷산(156.7m) 등 비교적 높은 산지가 있으나 성의 동쪽과 북쪽은 100m 이내의 낮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성의 내부에도 낮은 구릉성 산지가 남북으로 달리는데 낮은 구릉이라 목초지를 조성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목장성 내부의 평지는 크게 둘로 나누어

1) 南都泳, 「朝鮮時代 濟州道 牧場」, 「韓國史研究」4. 한국사연구회, 1969
南都泳, 「韓國 馬政史」, 한국마사회, 1997
崔永鎭, 「朝鮮時代 京畿道 牧場考」, 「畿田文化研究」1집, 인천교대 기전문화 연구소, 1972
崔永鎭, 「조선전기 축산에 관한 연구」, 「인천교대 논문집」, 7집2호, 1972
姜晃熙, 「한국 축산사 비고」, 「農林論輯」, 13집, 고려대 농과대학, 1971
高昌錫, 「元代의 濟州道 牧場」, 「濟州史學」, 창간호, 제주대학교, 1985



〈연구 지역〉

진다. 하나는 동쪽 부분에 남북 6㎞ 정도로 길게 형성된 평지로, 낮고 평평하며 하천도 흐르고 있어 목초지를 만들기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 또 하나는 남서쪽 해안에 나타나는 데 이 곳은 사구로 둘러싸이고 해수가 드나드는 석호와 염생 습지가 넓은 지역이다. 따라서 산록 주변부만 목초지로 이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목장의 최남단에는 사구로 막혀 해수가 들어오지 않은 석호가 있어 수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목장의 최북단에는 무챙이라고 불리는 천혜의 포구가 있는데 목장성은 이 포구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지역은 우리 나라 중부 지방의 서해안이기 때문에 내륙 지방이나 북부 지방에 비하여 겨울에 온화하고 여름에 비교적 서늘하여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하다고 하겠다.

Ⅲ. 우리 나라 목장 및 목축업 발달 개요[2)]

《삼국지》魏志 東夷傳 扶餘條에서 부여에는 馬加 牛加 狗加 猪加라는 가축 이름을 딴 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고, 《삼국지》 魏志 東夷傳 濊條에는 다른 씨족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이전인 부족연맹체 국가 단계였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시대에서부터 목장이 설치되고 목축업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장이나 목축업은 삼국 시대에 들어와서도 산업 · 외교 · 국방 · 교통 · 식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계속 성행하였고 통일신라에까지 이어졌다.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신라 · 태봉 · 당의 제도를 참작하여 전국 목장을 관할하였으나 성종 때부터는 중앙에 典牧司를 설치하여 전국 목장을 관리하였다. 이어서 현종 16년에는 牧監(牧監直)과 奴子의 계층 조직을 갖춘 목장 조직을 만들었다. 奴子는 우마를 목양하여 번식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신분은 미천하였고, 그 役은 평생 벗어날 수 없었으며,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각 목장에 배정되었던 군인이나 장교들이었던 牧監은 奴子를 관리하고 목장의 호랑이나 도둑을 잡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목사 - 목감 - 노자의 목장 관리 체계는 원간섭기인 충선왕 때 전목사가 해체되고 사복시(司僕寺)가 설치되어 전국 목장을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고려 시대 전국 목장의 수는 고려사

2) 남도영, 앞의 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에 10개로 나오는데 龍讓(지금의 황해도 黃州), 銀川(황해도 白州), 羊蘭(지금의 경기도 開城), 左牧(경기도 貞州), 懷仁(지금의 충북 淸州), 常慈院(경기도 見州), 葉戶院(경기도 廣州), 江陰(지금의 경기도 강화도), 東州(지금의 강원 철원), 西(황해 洞州)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려 초의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 중기에 들어오면 말 생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목마장 건설이 서남 도서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원나라의 세력 하에 있던 충렬왕 때는 원나라가 일본 정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서남 도서 지방에 대규모의 목마장을 마련하고 産馬改良에 힘쓰기도 하였다. 이 때 섬에 설치한 목마장을 특별히 도거(島)라고 하였다. 고려 시대 국립 목장 또는 귀족 고관들의 사립 목장 실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에는 무신의 세력이 강하였으므로 국영 목마장 이외에도 무인 고관들의 사유 목마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全時代의 목장 수는 자세히 전하는 기록이 없어서 명백히 알기는 어려우나 삼국사기에는 신라 시대는 174개소였고, 조선 시대는 여러 기록에 의하여 폐목장까지 포함하여 약 209개소였으니 이것을 토대로 고려 시대 목장을 추측하면 고려 시대는 170여 개에 달하는 목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목장의 주요 飼料는 패(稗-벼와 유사한 화본과 식물)와 豆(콩)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재래종 馬인 鄕馬가 질이 좋지 않아 외래종 馬인 胡馬(大馬)를 주로 사육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건국 초기부터 국방상의 이유로 産馬産業과 産馬改良[3]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태조 때는 箭串牧場이 서울 휘경동·면목동 일대에 설립되면서 말 증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국에 약 159개소의 국립 목마장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목장 관리 제도는 경국대전에 명시되었다. 즉 兵曹의 外廳인 사복시가 전국 목장을 관리하고 각 도의 목장은 雌馬 100匹과 雄馬 15匹로서 1群을 삼고 매 群마다 群頭 1명, 群副 2명(목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임명)과 목자 4명을 배정하고 群 위에는 종 6품의 監牧官을 두어 목장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규정은 목자 1명이 25필 내외의 말을 사육하지만 실제로는 각 목장에는 상당히 많은 목자들이 있었다[4]. 다시 말하면 한 목장에는 대략 암말 100필, 수말 15필, 도합 115필 정도의 말을 사육하였다. 이들 말을 4명의 목자가 각각 암말 25필과, 수말 3~4필씩 나누어 관리하고 그 위에 2명의 群副가 목자 2명을 감독하였다. 다시 그 위에 牧場長 격인 群頭가 한 목장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다시 감목관의 지시를 받았다. 감목관은 관찰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지방 수령이 겸임하였다.

목자는 조선 시대 국립 목장에 소속되어 賤役인 말 소의 생산을 담당하는 16~60세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牧子位田이 주어지고 근무 성적에 따라 쌀·포목 등의 포상과 함께 群頭 群副 등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역은 고된 것이었고 종신토록 역을 면할 수 없었다. 또한 세습직으로 자손에게 세습되었고 거주 이전과 타직으로의 전직이 허용되지 않았고 상부 지배자 즉, 감사·감목관·사복시의 點馬別監들의 수탈을 당해야 하였다. 목자가 직책상의 과실이나 사고 또는 목장 말에 대한 부정을 저지르면 규정에 의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조선 시대 목장의 수는 세종실록지리지에 53개소, 동국여지승람에 87개소, 목장지도에 200개소, 증보문헌비고에 209개소, 반계수록에 123개소, 대동여지도에 114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분포는 전라도가 가장 많고 대부분이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순이다 이것은 조선 시대 목장이 육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목장이 대부분 섬이나 바다에 뾰족하게 내민 육지인 串에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목장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니, 선조 27년에는 목장 40여 개가 폐지되고 屯田 내지는 牛場으로 개편되었고, 인조 효종 때는 전국 목장이 119개만 남겨졌고 숙종 때는 73개의 목장이 墾田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목장의 감소에 대하여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목장의 재건을 주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Ⅳ. 연구 지역의 성이 土津串牧場城이라는 증거

1. 문헌적 검토

보령 서남부 지역의 목장성으로 추정되는 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8년 8월16일 정축조(1426년 丙午年)에

충청도 감사와 절제사가 경차관(敬差官)과 합동하여 계하기를

"도내에 있는 서산(瑞山)의 다리관(多利串)·흥양(興陽)·토진(土津)·맹관(孟串) 등 네 개의 목장(牧場)을 친히 답사하며 살펴보니, 자못 불편한 점이 있어, 위의 목장의 말들을 합쳐 방목(放牧)할 수 있는 곳을 탐문하여 보니, 홍주 구역 안에 있는 대산관(大山串)은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고, 목장을 축조하는 공역도 편이(便易)하게

3) 조선왕조실록 세종15년 5월8일 (경신)조에는 경상도 玉龍淵, 溫之淵, 전라도 懸島 등지에는 전설의 용이 있는 곳이라는 말에 따라 감사로 하여금 목장을 쌓아 순백색 암말을 골라서 들여보내 시험하게 하였다는 국가의 산마개량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4) 『牧場地圖』1663년 許穆이 지음, 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 이 목장지도에 의하면 태안 梨山串牧場의 목자는 157명, 서산 大山牧場은 488명, 면천 倉宅串 牧場은 6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되었으니, 청하건대 대산관에 거주하는 백성을 다리관·토진·맹관 등지에 자원에 따라 이주(移住)하도록 하고, 추수를 기다려 네 군데의 목장의 말을 대산관으로 옮겨 방목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를 병조에 내리었다. 병조에서는 청하기를,

"아뢴 대로 땅이 얼기 전에 목장을 축조하고, 정미년(丁未年-1427년) 춘등점마별감(春等點馬別監)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여 큰말은 대산관에 방목하고, 작은 말은 흥양관(興陽串)에 방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3년 3월28일 임진조(1431년)에

병조에서 아뢰기를

"소는 국가에 있어 그 용도가 심히 큰 것이온데, 관에서 이를 길러 번식하지 않는 것은 실로 궐전(闕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고을에 황소와 암소를 배정하여 국고의 요두(料豆)로 길러 번식하게 하고 회계(會計)에 실려 사복시(寺僕寺)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아뢴대로 하라 하고, 이내 본조와 사복시 제조에게

명하기를,

"목장으로 할 만한 곳을 의논해 찾으라."

하여, 지난 정미년에 혁파한 목장을 상고한 바, ····충청도 당진현(唐津縣)의 맹관(孟串), 태안군(泰安郡)의 다리관(多利串), 남포현(藍浦縣)의 진관(津串)····등은 모두 소를 놓아기를 만한 곳이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옛 목장(牧場)이 1이다. 토진곶(土津串)에 있다. 둘레가 16리 34보인데, 안의 토장(土場)이 8리 40보요, 석장(石場)이 7리 36보요, 목장(牧場)이 1백18보이다. 다만 도랑물(渠水)만 있고, 또 띠(茅)와 고사리 풀만 있다.····

위 기록에 의하면 세종 초기까지 남포현 토진곶에 진관목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5]. 현재 과거 남포현에 해당하였던 보령시의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에서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내민 육지인 곶(串)은 웅천읍 소황리 황교리 죽청리 관당리 일대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석성, 토성으로 연결된 약 11㎞에 이르는 성이 있으니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토진곶 목장의 목장성이 분명하다. 그리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목장은 대부분 섬이나 바다 쪽으로 내민 육지인 곶에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곳 웅천 서부 지역은 일치되는 곳이다. 섬은 별도의 목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이도 방목이 가능하고, 串은 사방중 한쪽 면만 막으면 방목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토진곶 목장의 사용 시기는 위의 기록에서 세종8년(1426년)에 津串牧場의 말(馬)을 서산 대산목장으로 옮기자는 논의와 함께 이듬해인 정미년(세종9년 1427년)에 그대로 시행했다고 하므로 1427년에 폐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세종 13년(1431년) 津串牧場은 1427년에 함께 폐장되었던 다른 목장들과 함께 우목장(牛牧場)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폐지된 고목장(古牧場)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牛牧場으로서의 기능도 오래가지 못하고 세종 초기에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토진곶 목장의 설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시대부터 조선 세종 때의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진곶 목장은 고려 시대 대량의 말을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토진곶 목장이 있는 남포현은 백제 시대부터 웅천천 하구를 이용하여 서해안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로 알려졌으며, 고려 시대는 남포현 치소가 웅천천 하구인 현재의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목장의 관리나 말의 운반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 토진곶 목장은 가운데 평야에 水草가 무성했을 것이고, 그 수초 사이에 물이 있으며, 특히 통달산 끝자락의 조그만 석호는 좋은 식수의 공급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야산에도 풀이 풍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토진곶 목장이 폐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위의 세종 8년(1426년)의 기록에 의하면 말을 옮기는 이유를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불편한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목장의 울타리로 쌓은 성벽의 길이가 길어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그에 따라 호랑이 등의 맹수가 자주 침범하며[6] 도적이 쉽게 접근할 수있다는 약점이 있었을 것이다[7]. 그리고 말이 낮은 곳의 성벽을 넘어 주변 민가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는 문제점도 상당했을 것이다[8]. 그러다 보니 성벽의 보수 문제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9]. 이것은 토진곶 목장의 폐지 이후에 설치된 다른 목장의 울타리인 성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토진곶 목장의 성벽 길이

5) 세종실록에 土津串·津串으로 표기되고 국역본에는 토진곶·진관으로 번역되었으므로 토진곶으로 통일한다.

6) 조선왕조실록 태종 17년 12월4일(을유)조에는 목장의 호랑이와 도적을 잡을 때는 군사를 동원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 16년 12월 22일(을축)조에는 병조에서 전라도 백야곶 목장의 호랑이, 표범을 순천 부사 등이 군인을 거느리고 잡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27년 5월28일(신축)과 세조12년 5월4일(갑술)조에도 목장의 호랑이 문제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7) 조선왕조실록 세종13년 3월14일(무인)조에는 목장 안에서는 사렵(私獵)을 금하고, 신고하여 체포하게 한 자는 포상한다는 기록이 있다.

8) 조선왕조실록 정종1년 8월 19일(병진)조에는 목장의 방목으로 인하여 주변 백성들의 피해가 크다는 기록이 있다.

9) 조선왕조실록 세조12년 5월4일(갑술)에 충청도 點馬別監 林重이 아뢰기를 "지금 도내의 목장을 살펴보니 목책(木柵)과 토원(土垣)이 모두 낮고 튼튼하지 못하여 범과 표범이 쉽사리 들어가서 말을 해치게 되니, 청컨대 범을 잡은 사람은 도적을 잡은 예에 의하여 상을 주도록 하소서"하고 있다.

는 위 세종실록의 기록대로 총 15리 184보인 데 비하여, 홍주 흥양곶 목장(興陽串牧場)은 둘레가 49리 339보이지만 성벽의 길이는 불과 토장(土場)이 1리 94보, 목장(木場)이 1리 65보이다10). 서산 대산곶 목장(大山串牧場)은 둘레가 90리 170보이지만 성벽의 길이는 토장이 1리 297보, 목장이 2리 270보이다11). 이러한 불편 점에도 불구하고 세종 13년(1431년)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여 牛牧場으로 다시 부활되었으나, 풀과 물이 좋지 않아 결국 완전히 폐장되었다[12]. 이것은 아마도 馬牧場이 폐장된 후 5년 후에 牛牧場을 다시 설치하였지만 그 동안 목자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아 水草가 나빠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도랑물과 띠풀과 고사리 풀만 있다고 한 것을 보아도 알 수있다. 고사리 풀이나 띠풀은 가축의 사료용 풀로서는 부적합한 것이다[13].

조선 초기 남포 토진곶 목장에서 사육되었던 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둘레 49리 339보의 흥양목장이 437필, 둘레 90리 170보의 대산목장이 942필, 둘레 40리의 원산도 목장이 100필[14]의 말을기른 것으로 볼 때 100-200필 정도의 말을 기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토진곶 목장이 설치된 지역은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15] 목자만 거주하게 하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진관목장 지역도 목장 설치 이후에는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였을 것이고 조선초기에 목장이 폐지되면서 주변의 백성과 서산의 대산목장 설치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이주 정착하여 농경지를 개척하면서 현재의 마을을 이루어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전설에 의한 증거

연구 지역의 성에 관하여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한다. 하나는 축성에 관한 전설로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사람이 남매를 두었는데 아들이 서울에 과거보러 올라가자 그 동안 딸에게는 빗자루로 쓸어 토성을 쌓으라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속으로 아들이 먼저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딸이 먼저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다른 하나는 성의 용도에 관한 전설로 먼 옛날 군마를 키우던 성이며 성 안에서 무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무술장터'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것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 소를 몰고 마을 뒷산에 오르면 목장성이 한눈으로 내려다 보였다. 당시는 민둥산이라 멀리에서도 성의 윤곽을 한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때 필자의 큰아버지[16]께서는 늘 "저 성은 옛날 군마를 키우던 성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전설에서 전자는 우리 나라 성에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오누이 전설'이며 후자는 성의 용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지역의 성이 옛 목장 성임을 나타낸다.

3. 성의 규모에 의한 증거

일반적으로 방어를 위한 성은 산정 부분이나 산의 계곡 부분을 둘러싸는 소규모의 성이며, 읍성의 경우도 수 백m 또는 수km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연구 지역의 성은 11km에 이르러 방어를 위한 성이나 읍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규모의 방목지를 필요로 하는 목장을 둘러싸는 목장성이 분명하다.

4. 축성 방법에 의한 증거

1) 성의 폭

본 연구 지역의 성폭은 상당히 좁다. 현존하는 토축 구간의 하부폭은 4~6m에 불과하여 상부가 침식되어 퇴적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보다도 더 좁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아있는 부분의 상부폭이 가장 좁은 곳은 180㎝에 불과하다. 석축 구간에 있어서는 더욱 좁아지는데 황교리 광암 마을 서쪽 급경사 구간에는, 남아있는 하부폭이 180㎝에 불과하다. 하부폭이 이 정도면 상부폭은 1m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의 폭이 좁은 것은 높지 않았다는 증거도 되므로 본 연구 지역의 성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든 담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능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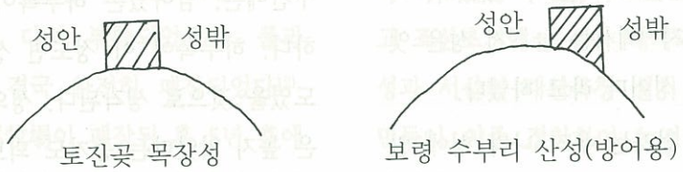
본 연구 지역의 성이 목장 성이라는 증거는 산능선의 석축 부분에서 더 뚜렷하다. 보령 지역에 있는 비교적 큰 포곡 식 산성인 수부리 산성이나 성동리 산성도 산 능선 부분을 이용해서 쌓았으나 축성 방법이 본 연구 지역의 성과는 전혀 다르다.

수부리 산성이나 성동리 산성에서는 능선의 중앙에 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능선의 중앙에서 성밖 쪽으로 치우쳐 성을 만듬으로써 공격해 오는 적에게는 급경사의 곤란함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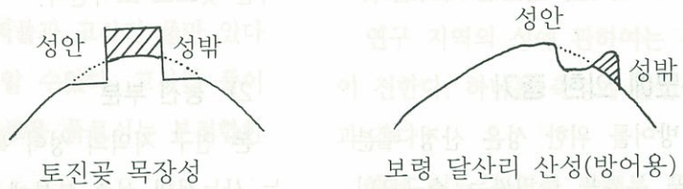
10) 세종실록지리지 홍주목조.
11) 세종실록지리지 홍주목조.
남포현의 진관목장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주위 둘레가 16리 34보이며, 토장 목장 석장 등의 성벽 총 길이는 15리 184보이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에 당진 맹곶 목장은 둘레가 21리, 태안 다리곶 목장은 둘레가 29라고만 나와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목장의 성벽 길이도 길었던 점이 관리하기에 불편한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세종실록지리지 태안군조, 당진현조.
13) 조선왕조실록 태종14년 10월18일(무자)조에 '전라도 진도(珍島)목장의 풀이 모두 띠(茅)이므로 말이 먹지 못하여 파리하였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
14)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홍주목조.
15) 조선왕조실록 태종15년 1월21일(경신)조에는 강화도에 새 목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이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세종7년 11월8일(계묘)조에는 강화도 목장 안의 거주자를 인근의 폐목장으로 이주시키고,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자는 목장안에서 田土에 담을 쌓고 그대로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6) 黃憲周(1911~1970), 목장성 인근 웅천읍 구룡리 화망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생활함.

고 내부에 있는 아군에게는 평지의 이로움을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 지역의 성은 능선의 중앙에 성을 쌓아 성 안팎으로 평지가 형성되었다. 이것도 본 성이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성이 아니라 단지 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담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토축 구간에서도 본 연구 지역의 성은 주변의 흙을 떠올려 쌓아 양쪽에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황률리 산성이나 달산리 산성의 경우에서는 산정 부분의 흙을 깎아내어 축성하였다. 성 양쪽에 넓은 평지가 형성되면 아군과 함께 적군에게도 지형의 유리함을 제공하여 방어용 성으로는 부적당한 것이다.



축성 방법 개념 비교(石築)



축성 방법 개념 비교(土築)

3)산봉우리 부분

수부리 산성이나 성동리 산성의 경우 산봉우리 부분에서는 방어의 유리함을 얻기 위하여 산봉우리 부분을 성으로 둘러싸 성을 쌓았다. 수부리 산성의 경우 산봉우리를 둘러싸기 위해서 수십m의 성벽을 밖으로 내어 쌓았다. 그러나 본 연구 지역의 경우는 어떤 곳에서도 산봉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없다. 황교리 舊馬梁鎭城이 있는 산봉우리, 황교리 광암마을 동쪽 산봉우리, 황교리 부주굴과 노천리 사이의 산봉우리, 죽청리 잠나무굴과 구룡리 사이의 매봉재 산봉우리에서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매봉재 봉우리에서는 성이 봉우리에 오르지 않고 봉우리 밑으로 통과하여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것은 방어에 유리한 산봉우리를 성 밖으로 하여, 성 안이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이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성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봉우리를 통과하여 성을 쌓는 것보다 봉우리 아래의 급경사 면에 성을 쌓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데도 봉우리 아래로 쌓은 것은 산봉우리를 성 안으로 포함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매봉재 산봉우리는 근래까지 구룡리·죽청리 마을 사람들이 가뭄 때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마을 공동체 신앙의 의식 장소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성안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地名에 의한 증거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연구 지역의 목장은 '津串' 또는 '土津串'이다. '串'은 육지가 바다쪽으로 돌출한 부분에 붙여진 이름으로 남포현 해안에서 '串'으로 불려질 만한 곳은 연구 지역밖에 없다. 통달산 부분이 돌출하고, 무성굴 마을 동쪽에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이 경제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통달산 남록과 구마량진성이 있는 부분은 목장성 밖으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곳은 목장성 설치 이전이나 목장 운용 기간에 어떤 해안 방어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17] 이 방어 시설 때문에 '鎭串'으로 불린 것이 '津串'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목장을 설치할 때의 鎭은 통달산 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의 鎭城은 토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土鎭串' 또는 '鎭串'을 '土津串' '津串'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舊馬梁鎭城 옆 마을을 '석진개'라고 부르는 것으로 입증된다. 舊馬梁鎭城이 석성으로 수축되었으므로 '石鎭'이라 불렸고 '石津'이라 표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Ⅴ.성의 실태

1. 위치의 특색

1) 목장으로서의 입지 조건

전투용 말은 광활한 지역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방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17) 현재의 舊馬梁鎭城이 石城으로 축조(1510)되기 이전인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는 충청우도 都萬戶가 남포현의 구정(龜井)에 머무른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세종 이전이나 고려 시대에도 이곳에 수군기지인 鎭이 있었을 것이다.

말을 방목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의 거주가 많지 않고, 농경지가 많지 않은 넓은 방목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포현 지역에 관하여 세종실록지리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18].

本百濟寺浦縣, 新羅改今名, 爲西林郡領縣, 高麗顯宗戊午, 移屬嘉林縣任內, 復置監務, 洪武十三年庚申, 因倭寇, 人物四散, 庚午始置鎭城, 招集流亡, 本朝太祖六年丁丑, 始置鎭, 兵馬使兼判縣事.

〔역〕 본래 백제시대(百濟時代)에는 사포현(寺浦縣)이었다가 통일신라(統一新羅) 때에는 현재의 이름인 남포현으로 고쳐 서림군(西林郡)[19]관할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高麗) 현종(顯宗) 무오(戊午:1018)에 가림현(嘉林縣)[20] 관할로 옮겨 다시 감무(監務)를 두었다가, 홍무(洪武)[21] 13년 경신(庚申: 1380)에 왜구(倭寇)의 침입으로 주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니 경오년(庚午年: 1390)에 처음으로 진(鎭)을 설치하고 성(城)을 쌓아 떠돌아 다니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조선태조(朝鮮太祖) 6년 정축(丁丑: 1397)에 비로소 진병마사겸판현사(鎭兵馬使兼判縣事)를 두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남포현 지역은 통일신라, 고려에 이르는 동안 독립된 행정 구역을 가지지 못하고 오늘날의 서천이나 임천에 속한 행정 구역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황폐화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농경지 면적이 적고 주민의 거주가 적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포현 지역에 말을 방목하는 목장을 만들기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하겠다.

목장을 설치하기 위한 자연적인 조건을 보면 우선 지형이 낮은 산지로 되어있어 성내의 전 지역을 초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성을 쌓기도 편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소황리나 황교리 지역은 중생대 퇴적암으로 되어있어 돌을 구하기 쉬운 이점이 있어 석성을 축성하기 알맞다. 그 외에 심층 풍화된 운모편암 지역도 산능선이 발달하여 손쉽게 토성을 수축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리한 점은 해안이라 바다 쪽은 성을 쌓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 이것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목장 지역이 섬이나 반도 등을 이용한 곳이 많다는 것과 일치한다.

목장에는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 안인 웅천읍 소황리 통달산 서쪽 해안에는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호수(潟湖)가 있다. 통달산 서쪽의 골짜기가 사구로 막혀 형성된 이 석호는 물이 빠지는 출구도 없이 언제나 맑은 물이 고여 있다. 우기에는 수위가 올라가고 건기에는 수위가 내려가지만 가물어도 수심이 1m 이상은 유지한다. 또한 목장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6㎞에 이르는 하천이 있어 언제라도 말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목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풀이다. 본 목장 지역은 통달산(182.8m)과 부주굴뒷산(156.7m)의 산이 있지만 모두 낮은 산지로 되어있어 목초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목장 안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6㎞의 하천을 따라 넓은 평지가 이어져 좋은 목초지가 될 수 있다. 또한 해안이라 겨울이 비교적 따뜻하고 여름도 무더위가 덜하여 목초 재배와 말 사육에 유리한 조건이다.

2)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

본 목장성의 남쪽 부분은 축성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쌓은 것이 명백하다. 즉 소황리와 황교리의 남쪽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면 광암마을 동남쪽 해안에서부터 성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면 바다를 이용하여 2~3㎞의 성을 쌓지 않고도 더 넓은 목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급한 통달산의 중간을 통하여 구마량진성 북쪽으로 험준한 지형에 2~3㎞의 성을 쌓은 것은 통달산 남쪽과 구마량진성 부근을 성으로 포함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성의 동남쪽 부분에 옛 마량성(馬梁城)인 구진성(舊鎭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해안 방어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구마량진성은 조선 중종(1510년)에 石城으로 축성되었지만[22] 그 이전에도 어떤 형태로든 방어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성의 규모

성의 길이를 1: 5000 지형도에서 측정하여 본 결과 11㎞였다. 이는 경사를 무시한 수치이므로 실제는 이보다 더 길 것으로 여겨진다. 성의 길이에 관하여 세종실록지리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23].

古牧場一,在土津串, 周回十六里三十四步內, 土場八里四十步, 石場, 七里三十六步, 木場一百十八步, 只有渠水, 又有茅蕨草.

〔역〕 예전 목장했던 곳(古牧場)이 토진곶(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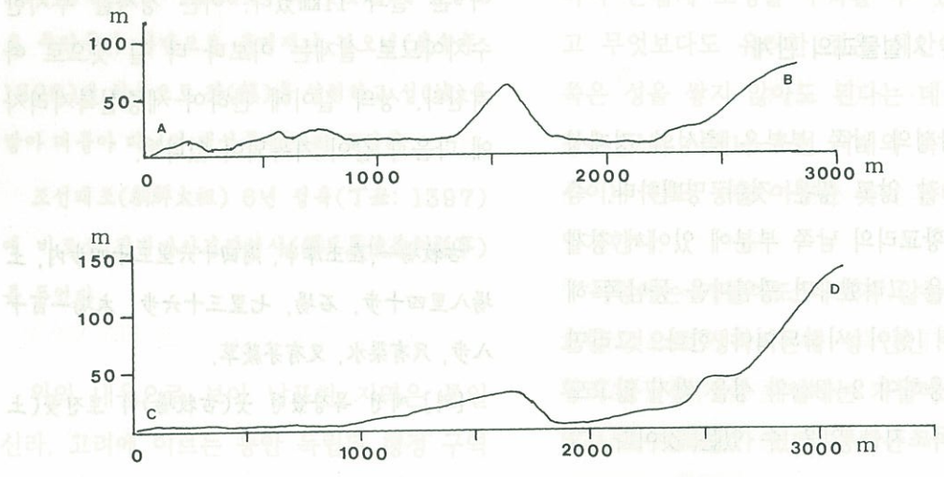
18) 송하순, 「世宗實錄地理志의 保寧縣·藍浦縣 條 譯解」『大保文化』, 第2號, 大保文化硏究所, 1992.
19) 서림군(西林郡): 충청남도 서천군의 백제 시대 이름으로 설림군(舌林郡) 또는 남양(南陽)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서림군으로 고쳤다.
20) 가림현(嘉林縣):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林川面)의 고려 시대 지명.
21) 홍무(洪武): 중국 명나라 태조(明太祖)의 연호로 서기 1368~1398년이다.
22)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조.
23) 송하순, 앞의 글.

津串)에 한 군데 있는데 둘레가 16里 34步이다. 그 안에 토장(土場)이 8里 40步, 석장(石場)이 7里 36步, 목장(木場)이 118步인데 도랑물(渠水)이 있을 뿐이고 도토리나무·고사리(茅蕨) 같은 것이나 우거져 있다.

위의 기록에서 목장성의 총 길이는 16리 34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世宗一等量田尺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약 12㎞이다[24]. 1:5000 지형도에서 경사도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한 길이 11㎞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정확하다고 하겠다. 또한 토장, 석장, 목장의 길이를 합한 里步數는 15里 184步인데, 총 둘레를 16리 34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1리가 150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축성 재료별 비율을 계산해 보면, 토장 50.7%, 석장 44.4%, 목장 4.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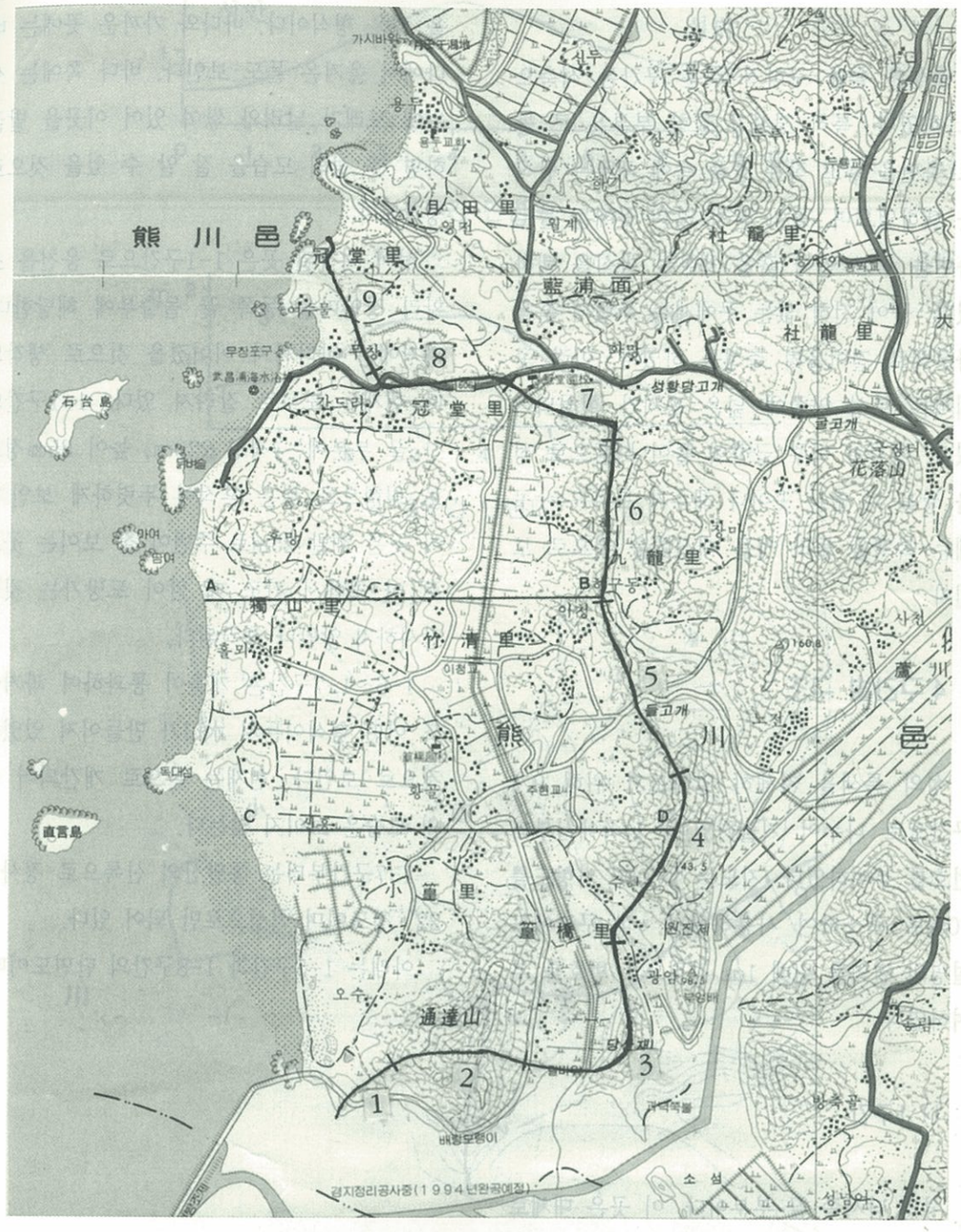
성 안의 면적은 1:50000 지형도에 1㎠의 방안을 그려 측정한 결과 약 14.5㎢이다.

성의 높이는 무너지고 침식되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토축 구간에서 가장 높이 남아 있는 구룡리 마차울~죽청리 큰무술 구간이 235㎝이고, 석축 구간에서 가장 높이 남아있는 노천리 가라티~황교리 부주굴 구간이 146㎝이므로 최대 높이는 235㎝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말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수직의 벽을 만들기는 석축 구간이 유리하기 때문에 석축 구간이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석축 구간의 축성 방법도 성의 안쪽을 정교하게 수직으로 쌓고 성의 밖은 정교하지 않게 쌓은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토진곳 목장성의 횡단면도

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0, 탐구당, 1990, pp 540~541.
세종19년의 頃畝法. 1尺=99.36㎝, 1步=5尺, 1里=150步, 따라서 16里34步=약 12㎞.



토진곳 목장성의 전체 형태(1:50000×0.8)

3.축성 재료

축성은 돌을 구하기 쉬운 구간은 석축으로 하였다. 특히 경사가 급한 부분은 큰 돌로 측면을 쌓고 작은 돌을 속에 채우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돌이 흔치 않은 곳에는 돌로 측변을 쌓고 안에 흙을 채우는 방식을 택하였다. 돌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주변의 흙을 가운데로 걷어올려 축성을 하였다. 이런 곳에서는 토성 양쪽에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경사가 아주 급하여 돌이나 흙으로 성을 쌓을 수 없는 곳이나 해수가 드나드는 곳에는 목책을 둘러 성을 대신했을 것으로 보인다.

4.구간별 구조

성의 특색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9개 구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남쪽에서부터 번호를 부여하였다. 지도는 1:5000 지형도를 70%로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각 구간에도 설명의 편의를 위해 1㎝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1) 1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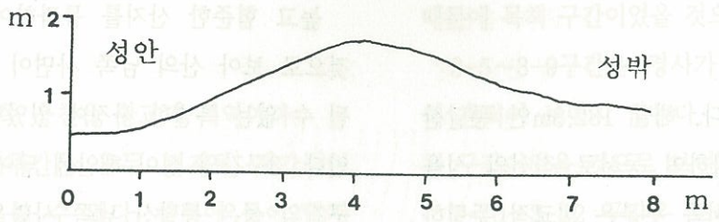
성의 남서쪽 끝 부분이다. 이 곳은 대체로 하부폭 4~5m, 상부폭 2.3m, 높이 1m 정도로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 축성 방법은 양쪽 벽은 돌을 이용해서 쌓고 가운데는 흙을 채운 형식이다. 바다와 가까운 곳에는 바다에서 옮겨온 돌도 보인다. 바다 쪽에는 성위에 모래가 날려와 쌓여 있어 이곳을 발굴하면 옛 성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이 시작된 곳은 1-1구간으로 웅천읍 소황리 장안마을 동쪽 끝 돌출부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바다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도로로 잘려져 있다. 1-1구간의 산 끝 부분에는 직경 220㎝, 높이 35㎝정도로 원형으로 쌓은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 곳은 해발 25m로 주변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 곳에서 간조 때 말이 도망가는 것을 감시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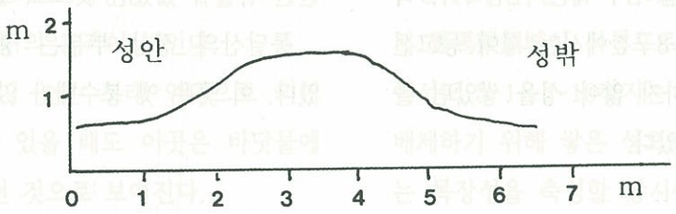
1-6~1-7구간은 개울이 통과하여 과거에도 어떤 형식이든지 水口가 만들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논으로 개간되어 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7구간부터는 통달산의 산록으로 경사가 22° 정도이며 석성으로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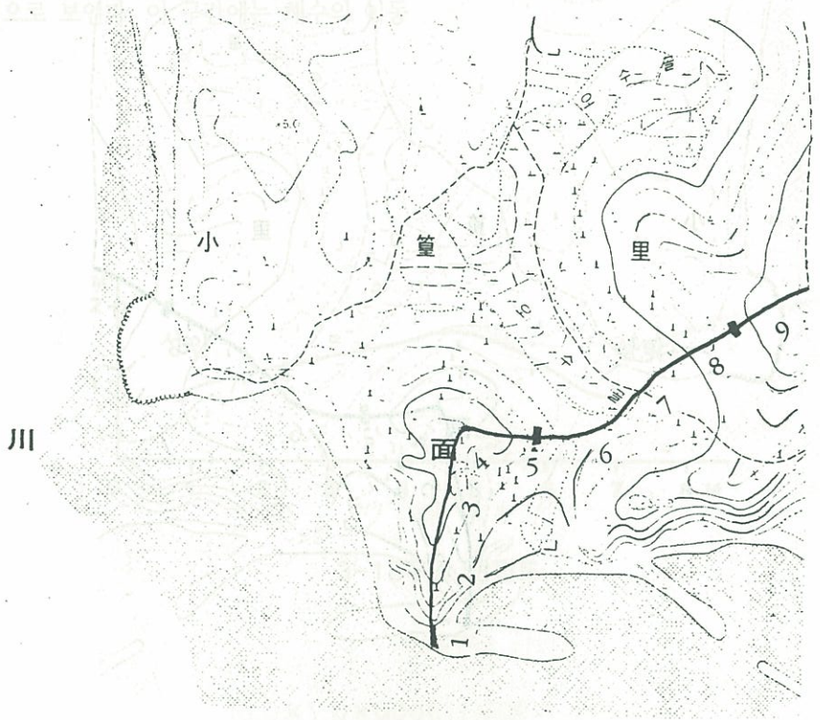
아래는 1-5구간과 1-8구간의 단면도이다.



1-5구간 단면도



1-8구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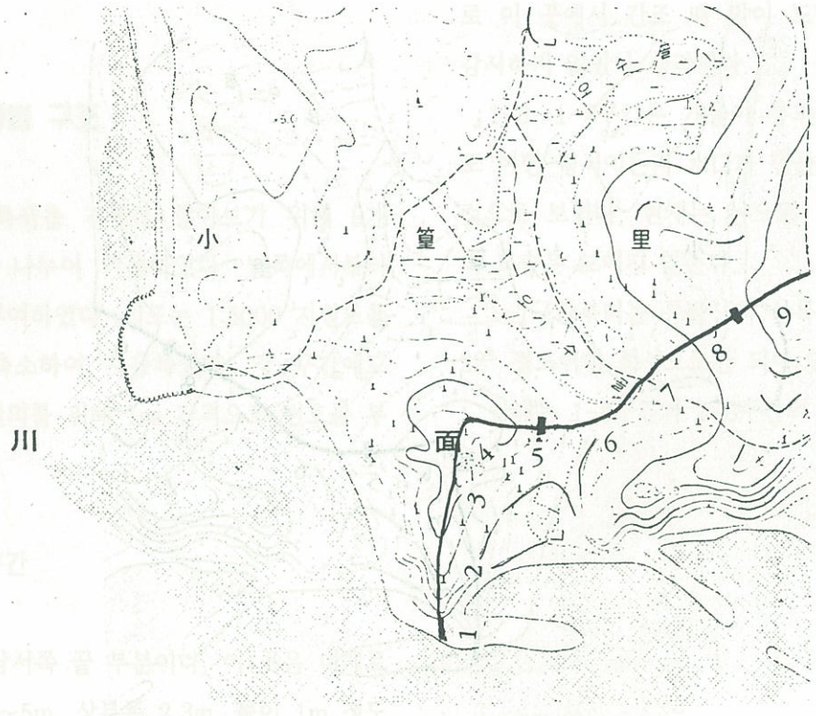
1구간 지형도(1/5000×0.7)

2) 2구간

통달산 구간이다. 해발 182.8m인 통달산 정상 부근을 통과하여 동서로 직선의 성을 쌓았다. 정상의 서쪽 부분은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으나(2-1~2-7), 동쪽 부분은 경사가 31° 정도로 급하여 훼손이 심하다, 특히 경사가 급한 2-8구간에서는 성이 등고선과 수직으로 교차하지 않아 성을 쌓았던 돌들이 널리 흩어져 있다.

높고 험준한 산지를 통과하여 성을 쌓은 것으로 보아 산의 남쪽 사면이 성안에 포함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구간의 성이 해안에 닿아 있어, 1~2구간의 성은 통달산 남쪽 사면을 성에서 배제하기 위한 성이다. 아마도 해안 방어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달산의 정상 부분은 성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곳은 옛 봉수대가 있던 곳이다.



2구간 지형도(1/5000×0.7)

3) 3구간

성의 동남쪽 웅천읍 황교리 지역이다.

3-1~3-3구간은 모두 경지로 개간되어 성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주변에 돌이 많지 않아 토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3~3-5구간은 현재 간척지 제방인데 제방의 서쪽 부분은 과거 사취의 흔적이 보인다.

따라서 주변이 높은 모래 언덕으로 되어 있다. 목장성이 있을 때도 이곳은 바닷물에 침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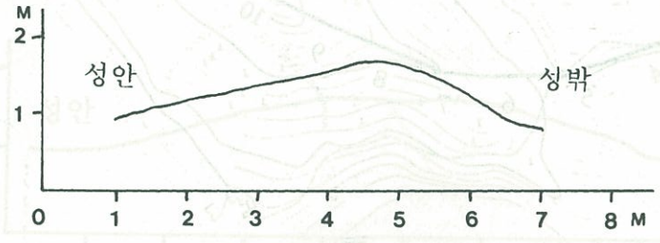
3-4~3-5구간은 현재는 제방과 수문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해수가 통과하는 곳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에는 해수의 이동 때문에 목책 구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5~3-9구간은 경사가 매우 급하고 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경사가 급하여 목책 구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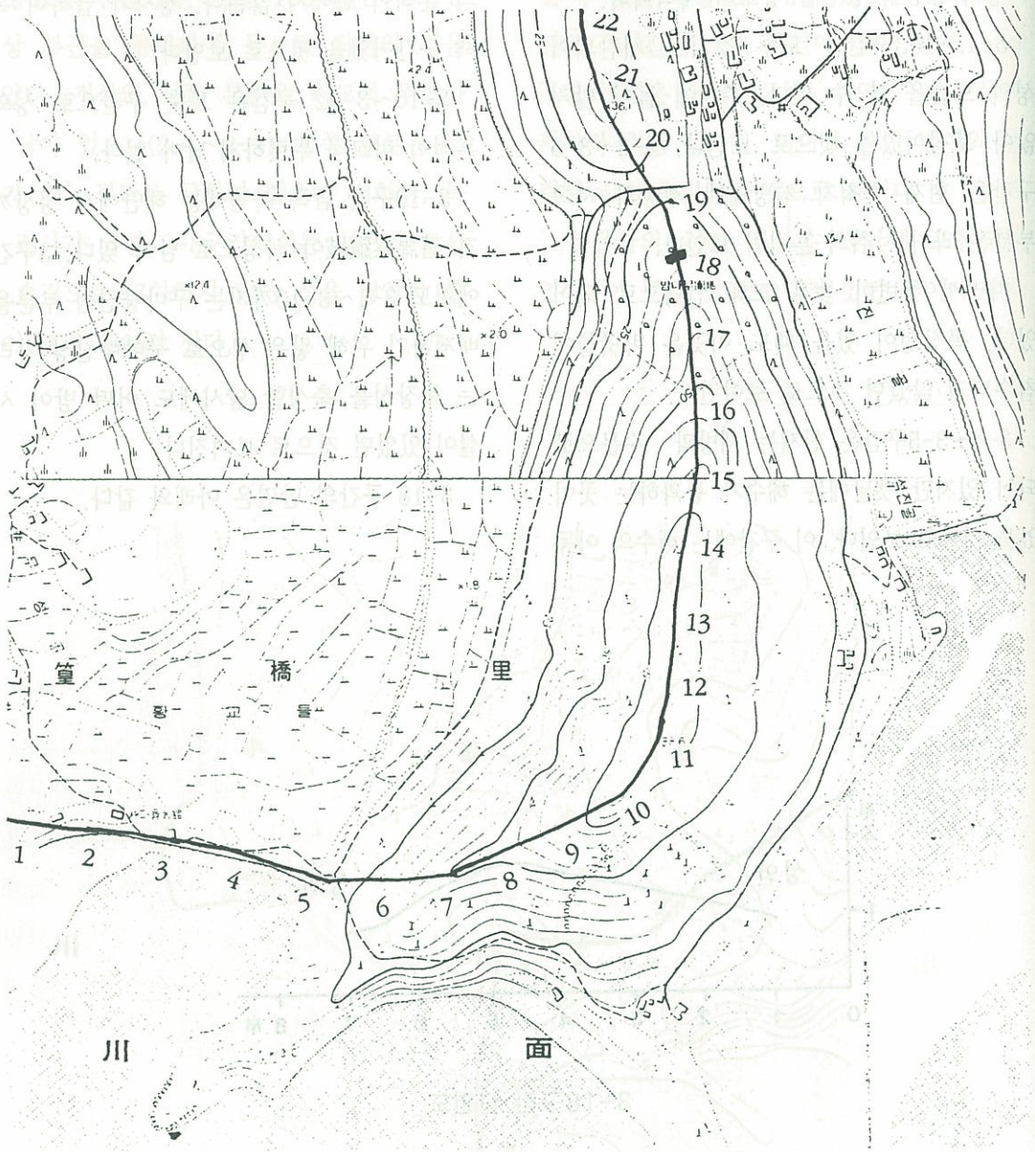
3-10~3-22 구간은 토축 구간으로 성의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

3-10구간 남쪽 사면에는 해안에서 정상까지 舊馬梁鎭城이 석성으로 남아 있다. 3구간에서도 3-1~3-10까지는 구마량진성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구마량진성 자리는 목장성을 축성할 당시에도 어떤 방어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18 구간의 단면은 아래와 같다.



3-18구간 단면도



3구간 지형도(1/5000×0.7×0.8)

4) 4구간

4구간은 황교리 광암마을을 통과하고 황교리와 노천리 사이의 산 정상 부분을 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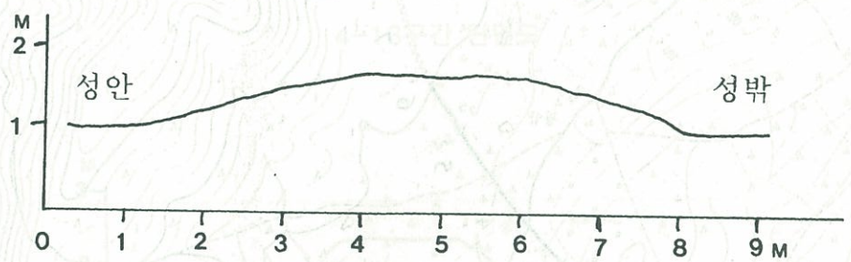
4-1~4-6구간은 토축 구간, 나머지는 석축 구간이다. 4-1, 4-2구간에서는 지표면의 침식으로 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4-3, 4-4구간은 경지로 개간되어 성의 흔적은 없다. 다만 4-5구간에서는 토성이 남아 있어 도로로 이용된다. 마을에서는 '성뚝'이라고 부른다.

4-6구간부터는 급경사 면에 석성을 축조하였다. 급경사 면이라 훼손이 심하여 돌무더기만 보인다. 정상 부분인 4-10구간까지는 좁게 축조하여 하부폭이 180㎝에 불과하다. 말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든 담장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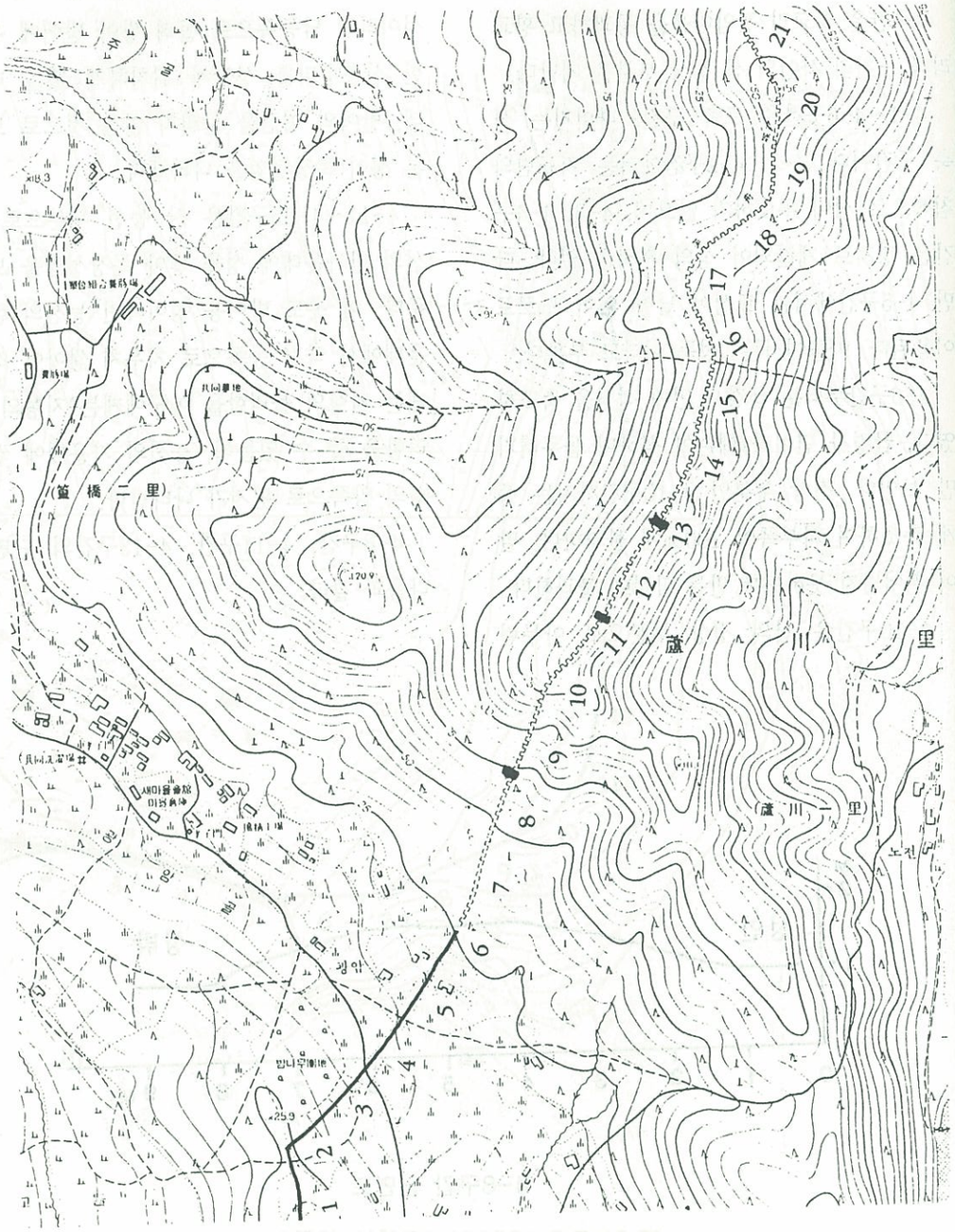
4-10구간은 산의 정상 부분으로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다. 만약 본 성이 방어용 성이라면 남동쪽으로 돌려 쌓아 방어에 유리한 산봉우리를 성안에 위치하게 했을 터인데, 방어의 이점을 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 성이 목장성임을 나타낸다.

4-11~4-22구간은 산 능선 부분으로 능선의 한가운데에 성을 쌓아 목장성임을 보여준다. 이 곳도 방어용 성이라면 능선의 한가운데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쌓아야 적에게는 지형의 불리함을 아군에게는 지형의 유리함을 줄 수 있는데, 능선의 가운데에 쌓아 성의 양쪽으로 평지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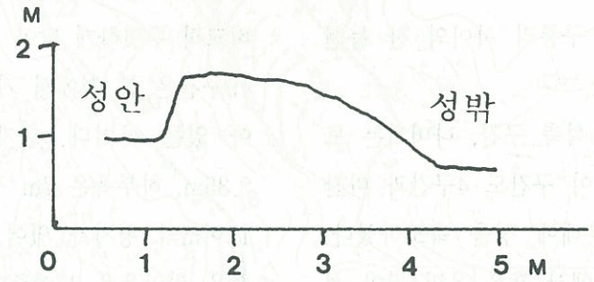
4-8구간, 4-11구간, 4-13구간의 단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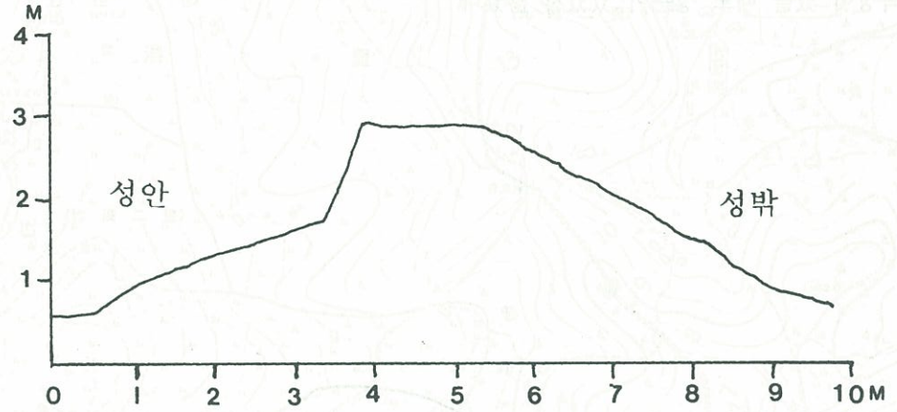
4-8구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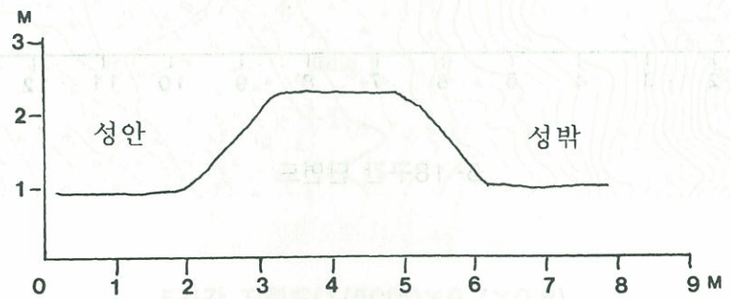
4구간 지형도(1/5000×0.8)



4-11구간 단면도



4-13구간 단면도



5-9구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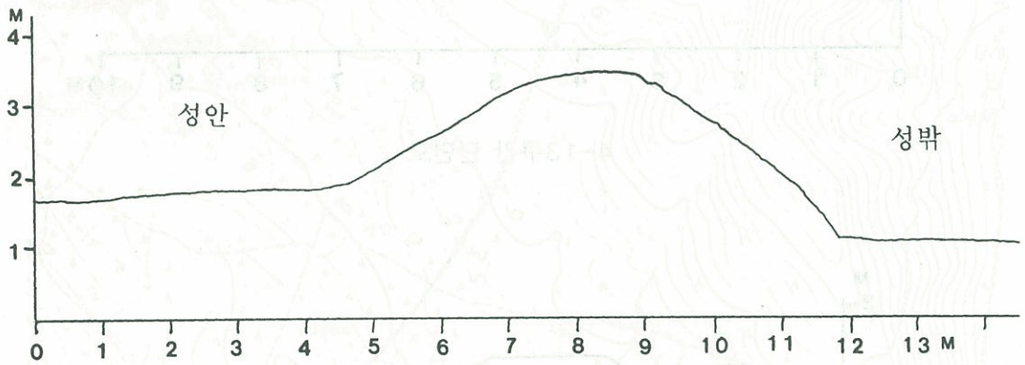
5) 5구간

웅천읍 죽청리와 구룡리 사이의 산 능선을 지나는 구간이다.

5-1~5-5구간은 석축 구간, 나머지는 모두 토축 구간이다. 이 구간도 4구간과 마찬가지로 능선의 가운데에 성을 축조하였다. 토축 구간에는 양쪽에서 흙을 올려 쌓아 성 양쪽에 평탄면이 나타난다.

5-11구간은 돗고개로 불리는 큰 고개이다. 목장이 있을 때도 성문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5-11~5-22구간은 모두 토축 구간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 특히 5-18~5-19구간은 본 성에서 가장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남아 있는 높이는 2.35m, 하부폭은 7m 정도이며, 성 양쪽으로 10여m의 평지가 있어 주변의 흙을 퍼올려 성을 쌓았음을 보여준다. 성 주변의 평지는 밭으로 이용된다. 5-9구간과 5-18구간의 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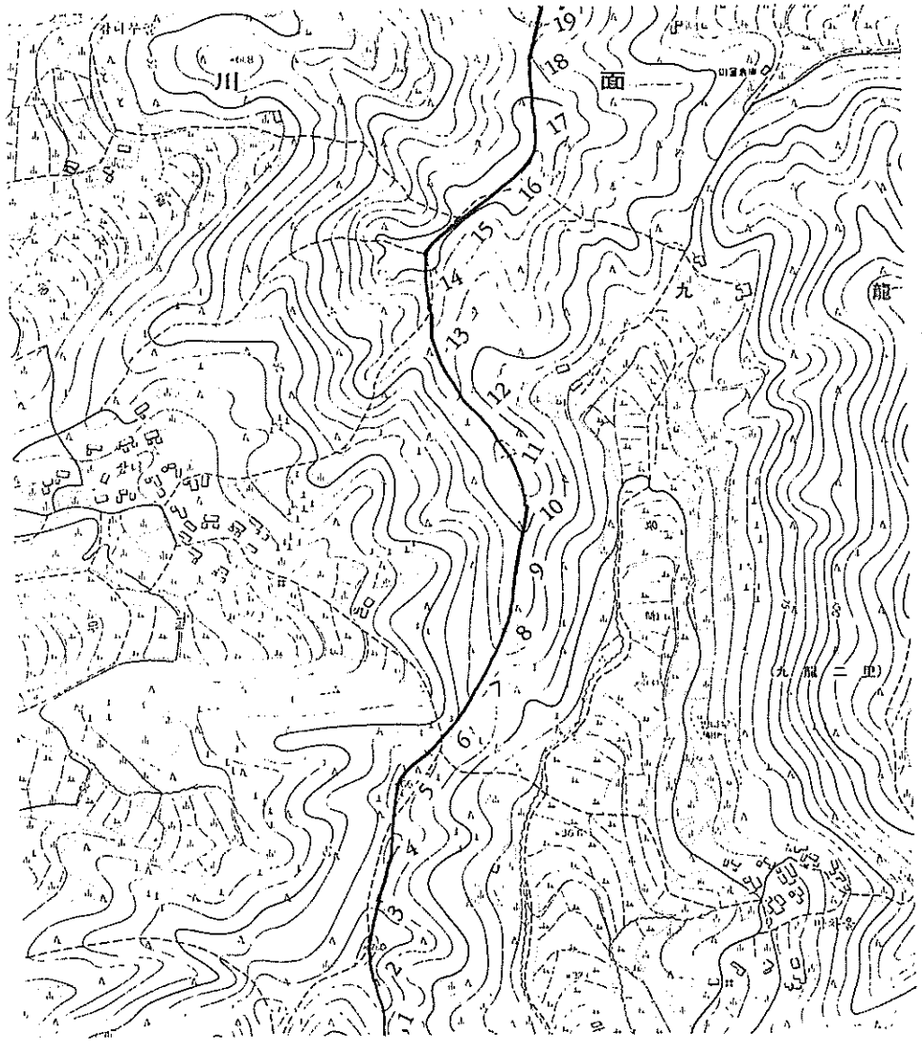
5-18구간 단면도

5구간 지형도(1/5000×0.7×0.8)

6) 6구간

웅천읍 죽청리 장터 마을과 구룡리 마차울 마을 사이의 낮은 산 능선을 통과하는 구간이다. 모두 토축으로 되어 있다. 6-1~6-6에 이르는 구간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반면, 6-6~6-19구간은 심하게 침식을 받아 흔적이 보이지 않은 곳이 많다.

6-6구간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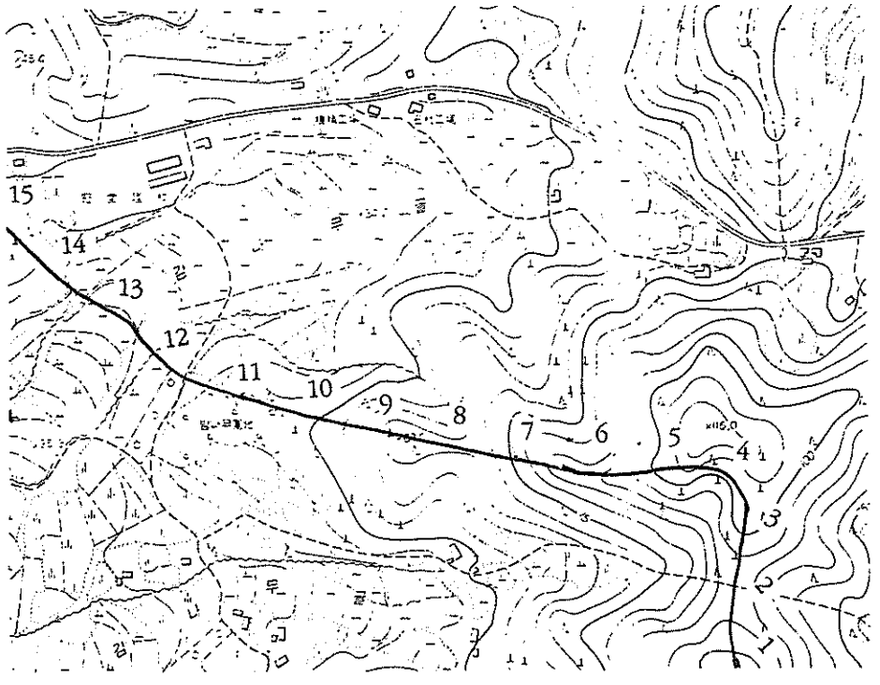


6구간 지형도(1/5000×0.7×0.8)

7) 7구간

목장성의 동북쪽 부분으로 웅천읍 죽청리의 북쪽 지역이다. 모두 토축 구간이다.

7-1, 7-2구간은 침식으로 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고 7-3~7-5구간은 성의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다. 7-6~7-9구간은 침식으로 흔적을 찾기 어렵다. 7-10~7-11구간은 산록의 평탄한 부분이라 침식을 받지 않아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다. 7-12~7-14에 이르는 구간은 들을 지나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하천이 통과하기 때문에 하천에 어떤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목책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관당초등학교 서쪽인 7-15구간은 침식으로 약간의 흔적만 보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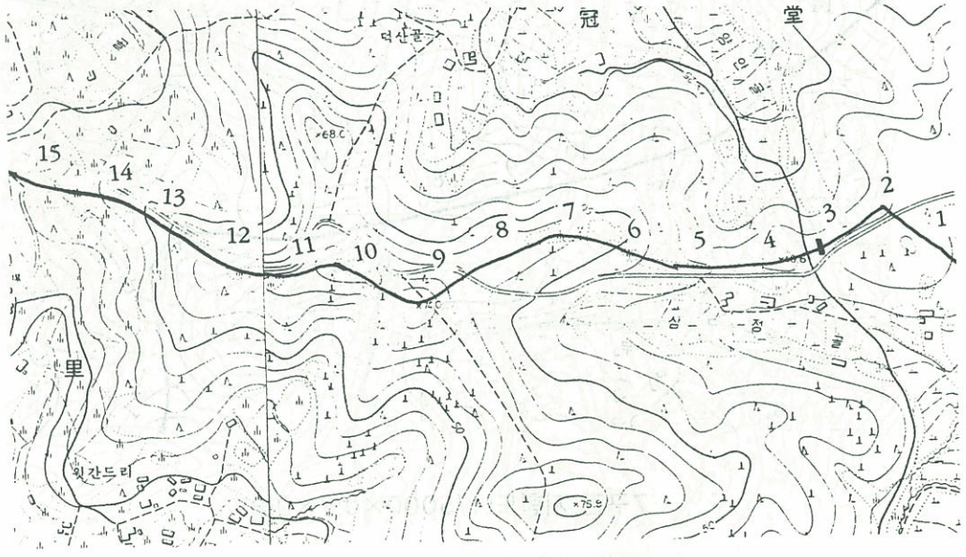
7구간 지형도(1/5000×0.7×0.8)

7-4구간에서 산의 정상을 통과하지 않고 정상 밑으로 지난 것도 이 성이 목장성임을 나타낸다. 방어용 성이라면 방어의 이점이 있는 산 정상(116.0m)를 포함했을 것이다.

7-10구간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통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굴조사하였다.

8) 8구간

웅천읍 죽청리와 관당리의 경계를 이루는 낮은 산 능선을 지나는 구간이다. 모두 토축 구간이다. 관당초등학교 옆으로 올라온 성은 606번 도로를 건너 직각으로 꺾여 서쪽으로 달린다. 이 부분에서 일부는 웅천~무창포간 606번 도로 개설로 훼손되고 8-3부분만 뚜렷한 흔적이 보인다.



8구간 지형도(1/5000×0.7×0.8)

8-3~8-4 사이의 4거리는 마을 주민들이 지금도 북문재라고 부른다. 목장이 있을 때 이 곳이 북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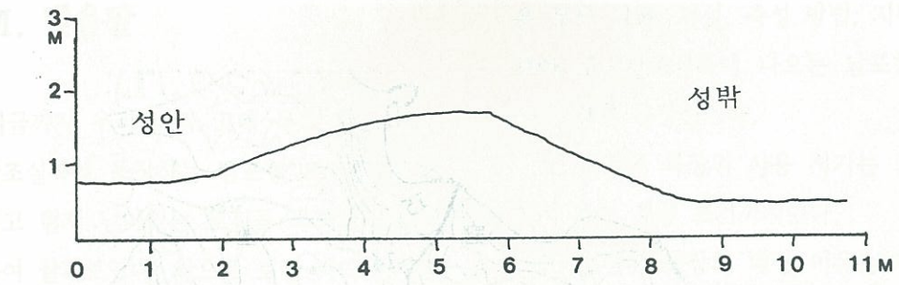
8-4구간은 근래까지 완전한 형태의 토성이 남아 있었으나 주유소의 건설로 훼손되었다.

8-5~8-7구간은 침식으로 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8-8구간에는 뚜렷한 토성의 흔적이 있었으나 최근 묘지가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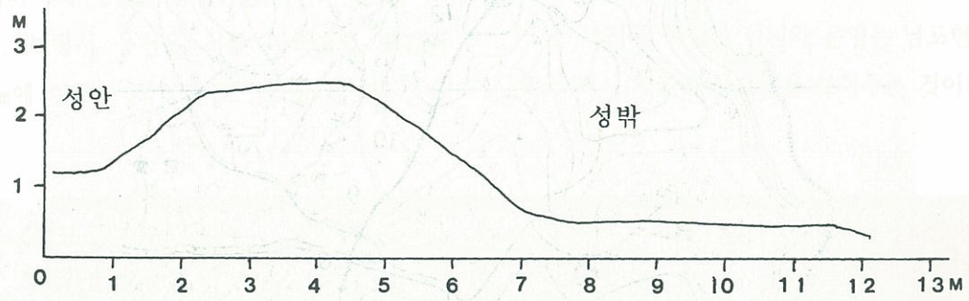
8-9~8-10구간은 비교적 뚜렷하게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웅천~무창포간 도로 개량 공사로 훼손될 처지에 있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8-11~8-15 구간은 웅천~무창포 도로 개설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8-3구간의 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8-3구간 단면도



9-4구간 단면도

9) 9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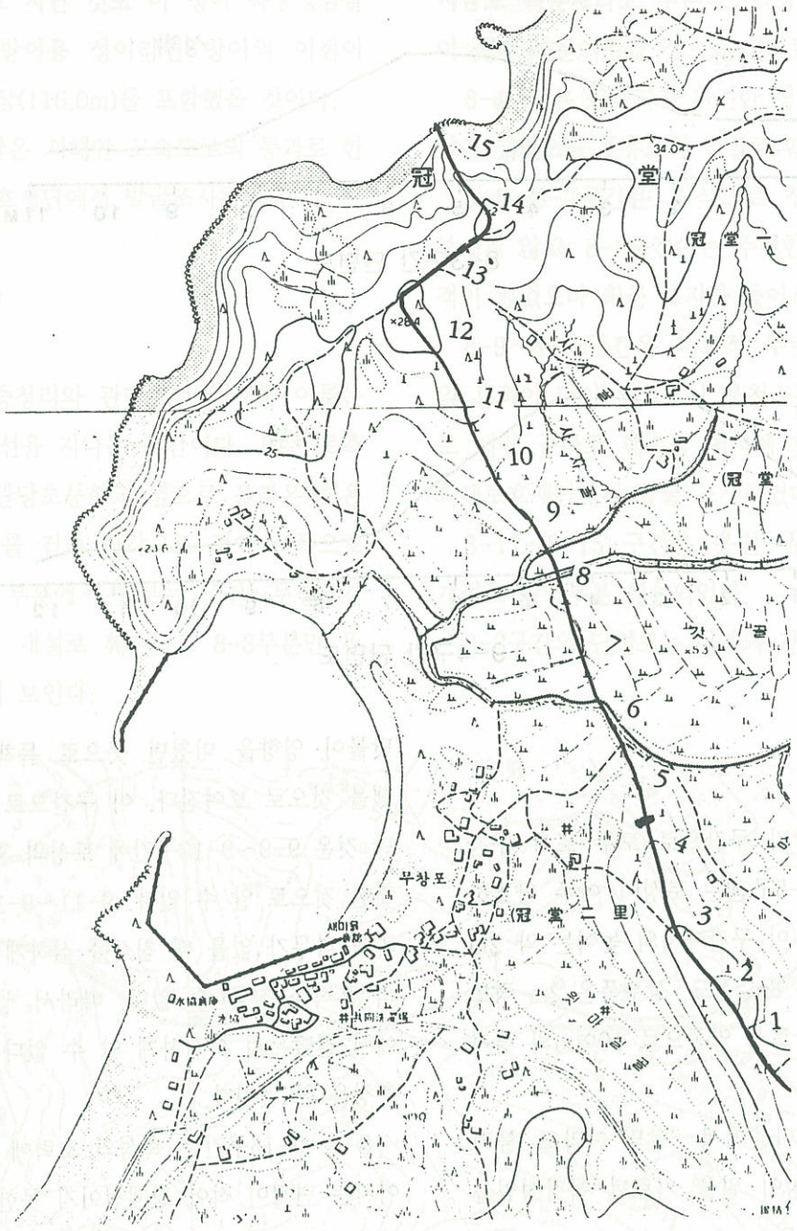
웅천읍 관당리 구간으로 모두 토축 구간이다. 9-1~9-5구간은 토성이 아주 양호하게 남아 있다. 이 구간에서의 높이는 약 2m 정도, 하부폭은 8m 정도, 상부폭은 2m 정도로 남아 있다. 토성 양쪽으로 10여m의 평지가 있다.

9-6구간은 마을에서 '말밑'이라고 불려 연구 지역의 성이 말을 기르던 목장성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9-6~9-9구간은 평지로 현재는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일부 구간에는 과거에 바닷물이 영향을 미쳤던 곳으로 목책 시설을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구간으로 성이 지난 것은 9-9~9-10구간에 토성의 흔적이 뚜렷한 것으로 알 수 있다. 9-11~9-15구간은 과거 나무가 없을 때 침식을 심하게 받아 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성이 어디에서 끝났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림은 추정을 한 것이다.

9-6~9-15구간은 축성의 노력에 비해 얻어지는 면적이 적어 경제적이지 못한데도 축성한 것은 '무챙이'라고 불리는 천혜의 포구를 성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4구간의 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9구간 지형도(1/5000×0.7×0.8)

Ⅵ.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 나라 고대 목장 제도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남포현 토진곶 목장,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토진곶 목장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 보령 지역의 주민들과 전문학자들의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웅천읍 서부 지역에서 발견된 11㎞에 이르는 석성과 토성으로 된 긴 성벽은 문헌 기록, 전설, 축성 방법, 지명 등으로 보아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남포현의 토진곶 목장의 목장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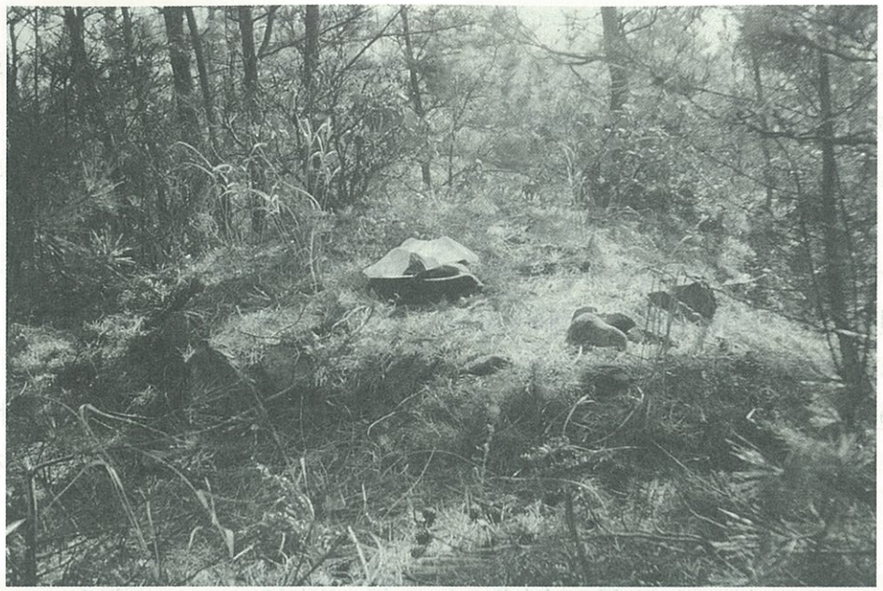
2. 토진곶 목장의 사용 시기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세종 초기까지이다.

3. 토진곶 목장의 폐장 이유는 긴 성벽으로 인한 관리상의 불편함과 水草가 나쁘고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4. 토진곶 목장의 설치와 운영은 남포현 지역의 역사 지리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문헌〉

朝鮮王朝實錄
東國與地勝覽
輿地圖書
姜冕熙,「한국 축산사 비고」,『농림논총』13집, 고려대 농과대학, 1971.
高昌錫,「元代의 濟州道 牧場」,『濟州史學』창간호, 제주대학교, 1985.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1990.
南都泳,「朝鮮時代 濟州道 牧場」,『한국사연구』4. 한국사연구회, 1969.
南都泳,『韓國 馬政史』, 한국마사회, 1997.
保寧郡誌編纂委員會,『保寧郡誌』, 1991.
保寧文化研究會,『保寧文化』제7집, 1998.
보령시,『保寧의 地名』,1998.
宋河淳,「世宗實錄地理志의 保寧縣 · 藍浦縣 條 譯解」,『大保文化』
제2호, 대보문화연구소, 1992.
崔永鎭,「朝鮮時代 京畿道 牧場考」,『畿甸文化研究』1집,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1972.
崔泳鎭,「조선전기 축산에 관한 연구」,『인천교대 논문집』7집 2호, 1972.
許穆,『牧場地圖』,1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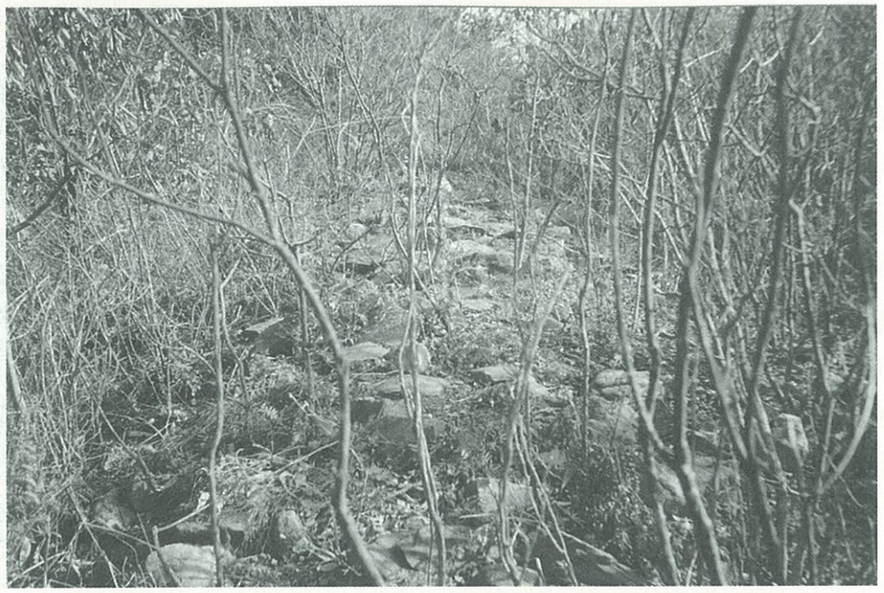


1-1구간의 감시초소(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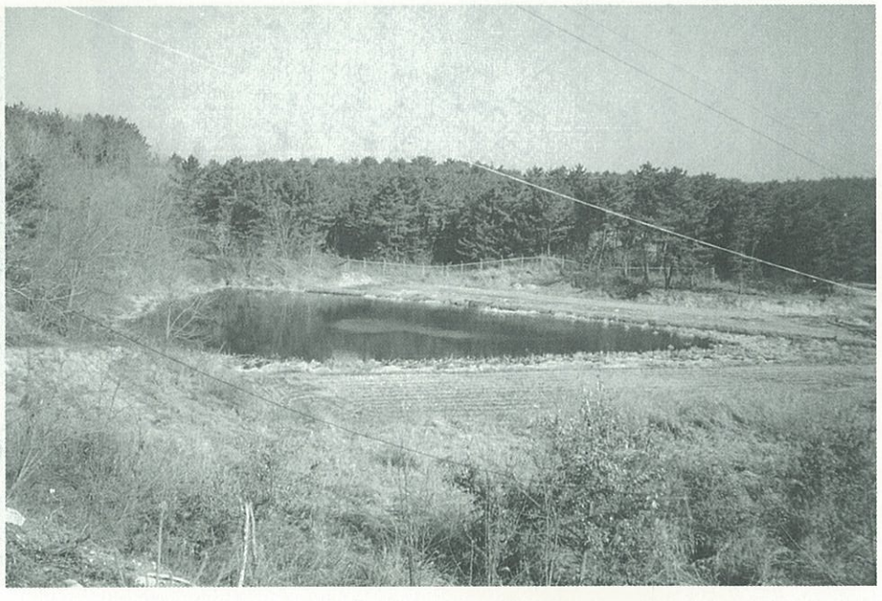
1-1구간 성의 끝 부분

1-4구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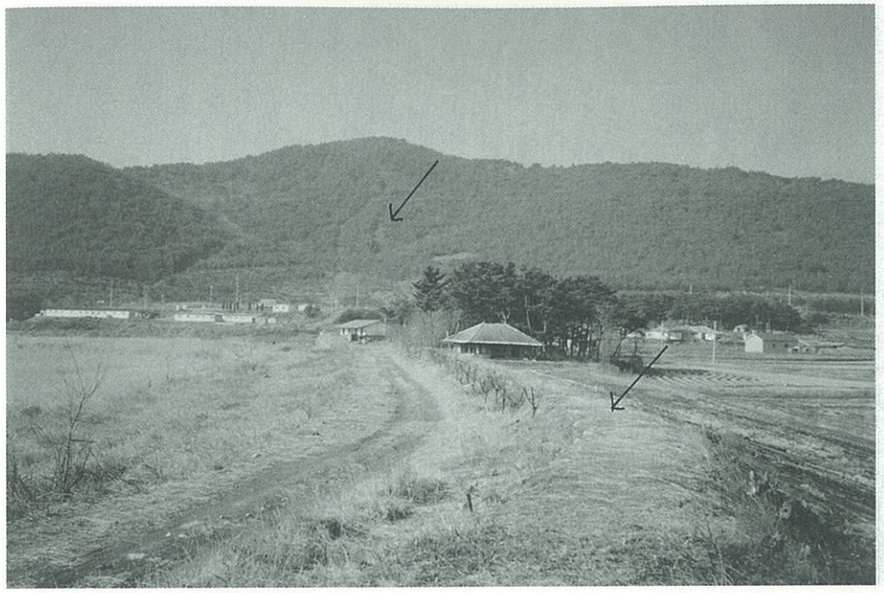
1-5구간 모습



1-8구간 모습



1구간 성안에 있는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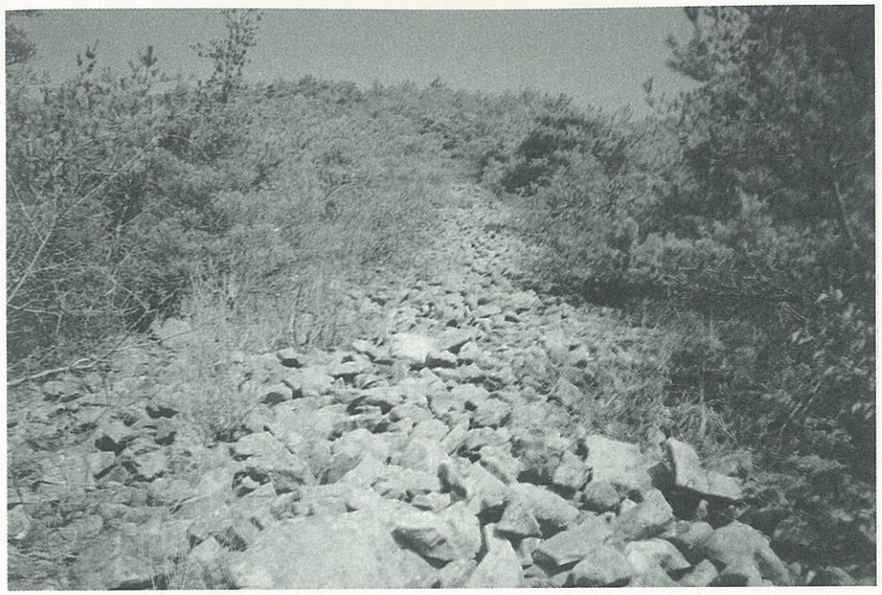


2구간 동쪽 사면과 3구간의 해수가 통하던 곳

2구간 동쪽 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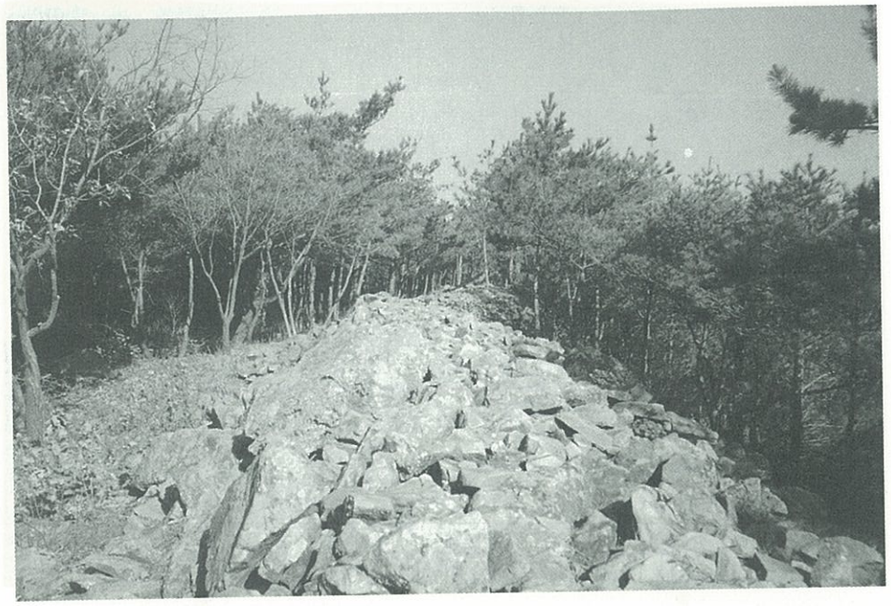
3-18구간 모습

4구간의 성둑과 석성 구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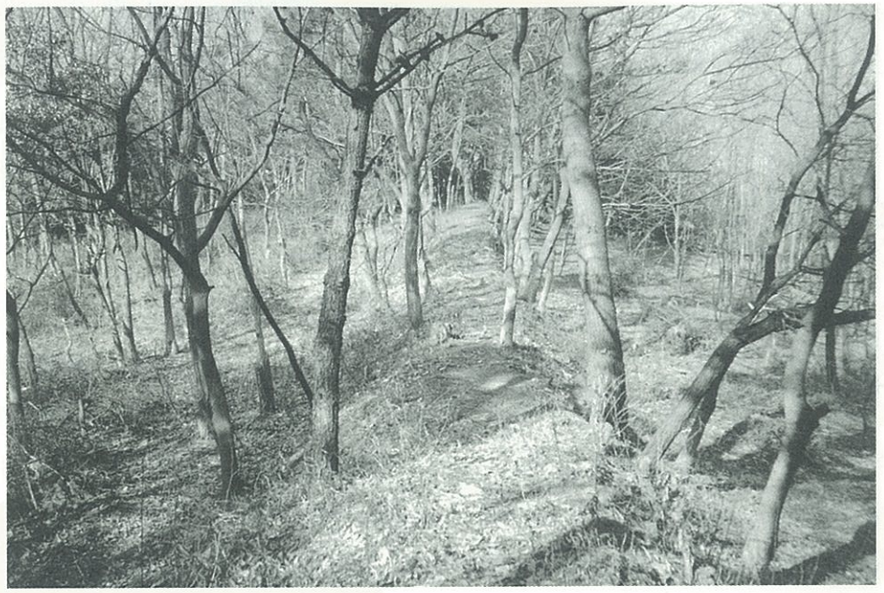
4구간의 급경사면 모습

4구간 급경사지의 석축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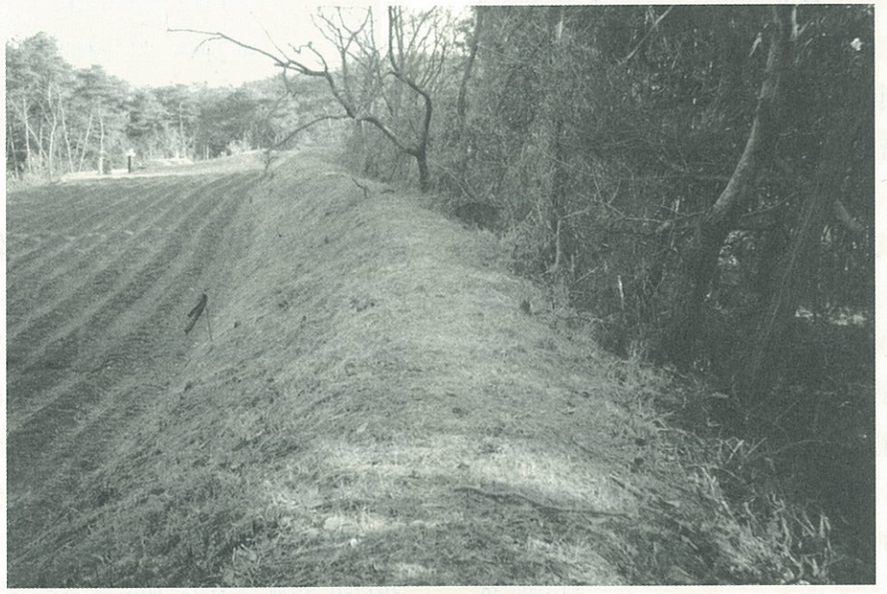


4구간의 산능선 모습

4-13구간 모습



5-9구간 모습



5-18구간 모습

8-3구간 모습

百濟佛教의 傳來經路와 그 聖地造成에 대하여

- 瑞泰地域을 中心으로 -

태안향토문화연구소장 **박 춘 석**

〈 目 次 〉

1. 序 論
2. 百濟의 佛教傳來 經路
3. 瑞泰地域의 佛教文化
4. 瑞泰地域의 磨崖佛像
5. 伽倻山의 聖地造成
6. 結 論

1. 序 論

瑞泰(瑞山 · 泰安)地域은 본래 半島의 地形으로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海上 交通이 발달하여 大陸 文化를 받아들이는 先進地域의 役割을 담당한 關門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海洋性 氣候에 降雨量이 비교적 알맞아 營農에 好適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無限한 天然 資源의 혜택을 받아 住民들의 생활이 餘裕 있고 따라서 인심이 醇厚하여 살기 좋은 곳이므로 일찍부터 先住民의 문화가 生成한 지역이기도 하다.

新增 東國輿地勝覽의 泰安 郡編 客館 申叔舟의 記文에 따르면, 「泰安郡內의 토지가 肥沃하여 禾麻가 풍부하며 魚鹽의 이익이 있어 沃區로 일컬어 왔다」라는 記事가 엿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泰安地域 住民들의 생활이 比較的 여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瑞泰地域은 일찍부터 古代 國家의 興亡 盛衰에 따라 그 版圖도 여러번 바뀌어지니 文化 樣相도 多樣하게 展開되어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오늘날 瑞泰地域의 古代文化 遺跡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零細한 편이다. 특히 佛教文化의 遺跡을 제외하면 극히 微細한 편이다.

이는 地域史 연구의 未盡한 탓도 있겠지

만, 다른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半島的 地形에서 오는 이유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반도적 지형의 특징은 일찍 발달한 大陸文化를 수입하는 데는 先進的 役割은 하지만, 일단 받아들인 문화의 定着은 內陸 깊숙이 흘러들어 그 곳에서 꽃이 피는 것이다.

이같이 瑞泰地域은 일찍 先進文化를 접할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의 그 흔적은 매우 稀少한 편이다.

물론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발견된 遺跡과 遺物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이것은 애초부터 學術的인 硏究 過程을 거쳐 合理的으로 出土된 것이 아니라, 山地 開墾과 農地 整理 등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므로 대부분이 파손되고 또한 유적의 규모를 알 수 없어 學術的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못하는 것이 큰 흠이라고할 수 있다.

2. 百濟의 佛敎傳來 經路

紀元前 5세기에 印度의 釋迦牟尼에 의해 創始된 佛敎가 그 뒤 中國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 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찍 4세기의 高句麗에서부터 시작된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의 小獸林王 二年(372)에 前秦의 符堅이 중(僧侶) 順道를 파견하여 佛像과 佛經을 들여온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2年 뒤인 374년에 중 阿道가 들어왔으며, 또 이듬해인 소수림왕 5년(375)2월에는 고구려에서 最初로 肖門寺라는 절을 세우고(創建), 중 順道를 이 절에 駐在시켰다. 이어 伊弗蘭寺를 지어 이곳에는 阿道를 머물게하니 이것이 海東佛法의 시초라고 기록되어있다.

다음은 百濟國에 불교가 들어오는 데, 그것은 고구려보다 12년 뒤인 枕流王 1년(384)9월에 東晋으로부터 들어 온 印度의 僧侶 摩羅難陀에 의해 비로소 百濟國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385년 2월에는 漢山에 절을 創建하고 이곳에 10명의 승려를 배치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新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신라는 고구려보다 무려 155년 뒤이고 백제보다는 143년 뒤인 法興王 14년(527)에 異次頓의 殉敎로 인하여 비로소 佛敎를 合理的으로 수용(公認)하여 포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三國遺事에 의하면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기에 앞서 이미 100여년 전인 訥祗王(417-458)때에 墨胡子가 고구려로부터 신라의 一善郡(지금의 善山?)에 있는 毛禮의 집에 와서 傳敎한 일과, 또한 炤知王(479-500)때 高句麗로부터 阿道 승려가 3명의 부하를 데리고 毛禮의 집에 와서 傳道했다는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新羅에서는 불교를 公認하기 이전에 이미 불교가 國內에 들어와 民間에서 신앙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三國에 불교가 傳來된 과정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百濟國에 佛敎가 傳來된 그 經路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大陸쪽의 經路를 살펴본다면 우선 高句麗 領地를 통해 內陸을 거쳐 百濟國으로 전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麗濟關係의 對峙狀態로 볼 때 이 같은 事實이 가능할 수 있을런지 이 점에 대하여 깊이 고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百濟는 近肖古王 26년(371)에 왕이 몸소 太子와 더불어 精兵 3만명을 이끌고 高句麗의 平壤城을 공격하여 고구려 故國原王을 戰死 시켰으며, 다시 4년 뒤인 近仇首王 元年(375)7월에는 高句麗가 百濟의 北邊에 침입하여 水谷城을 陷落시키고, 또 이듬해인 376년11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북변을 다시 침입하였다.

그리고 百濟의 近仇首王은 在位 3년(377)에 스스로 軍隊 3만명을 이끌고 다시 평양성을 침공하고, 이어 동년 11월에는 高句麗가 다시 百濟를 侵略하는 등, 서로 번갈아가며 激戰이 전개되는 渦中에서도 佛敎는 우선 高句麗에 전래되고, 이어 12년 뒤에 百濟에 불교가 전래되었다.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가 10여년 사이에 激烈한 攻防戰이 5 6회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불교가 고구려 영지를 통해 내륙으로 백제에 전래될 수 있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고찰된 바 없으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어 놓고, 다음은 海洋쪽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海洋이라면 우선 西海岸을 들 수 있는데, 百濟 枕流王 元年(384)2월에 불교가 들어오고, 이듬해(385)에 漢山에 절을 짓고 10명의 僧侶를 두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漢江口를 통해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百濟 佛敎는 漢山에서 90여년 信仰되어 오다, 마침내 文周王 元年(475)에 高句麗의 침략으로 인하여 漢山이 陷落됨으로서 百濟는 부득이 熊津(지금의 公州)으로 遷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漢山時代의 백제 불교는 마침내 終幕을 내리고 말았다.

西紀 385년 百濟가 漢山에 절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寺名과 그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시기는 高句麗와의 싸움이 자주 일어났고, 또한 護國 佛敎로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時期었으므로 크게 발전은 못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이 百濟 佛敎의 漢山 時代를 潛伏期로 본다면, 聖王代의 泗 時代는 화려한 꽃을 피운 極盛期로 보아야 할 것이다.

百濟國에 불교가 最初로 들어온 지역을 살펴보면, 그것은 內陸보다 海洋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그 곳은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드시 西海岸의 漢江口와, 泰安半島

를 들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를 一 二期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보다 合理的일 것이다. 3세기 初葉 태안반도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된 시기를 第一期, 그리고 4세기 末葉 漢山에 전래된 시기를 第二期로 볼 수 있다.

여하간 백제 불교 문화의 극성기는 사비 시대인데, 이는 熊津으로 遷都와 함께 따라 온 漢山의 불교 문화와, 일찍 3세기 초엽 泰安半島에 流入되어 발전하여 오면서 內陸으로 깊숙이 전파되어, 마침내 泗 時代에 이르러 兩大 佛教文化가 합류하여 찬란한 백제 불교 문화의 黃金 時代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3. 瑞泰地域의 佛教 文化

앞에서도 언급했드시 百濟 佛教 文化의 極盛期는 泗 時代의 聖王 때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찍 泰安半島를 통해 들어 온 불교 문화가 泗 城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百濟國에 불교가 들어오는 것은 枕流王 元年(384)의 이전에 이미 泰安半島를 통해 仇首王 9년(222)에 傳來되었음을 알 수 있다.

百濟 時代의 태안지역에 세워진 寺刹을 살펴보면, 우선 泰安의 鎭山인 白華山의 支脈 興住山에 건립된 興住寺가 있는데, 이 절이 百濟 仇首王 9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불교를 公認하기 전에 이미 寺刹을 이 지역에 세웠다고 하기보다는, 民間에서 불교가 信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合理的일 것 같다.

이 興住寺는 現存하는 寺刹이지만 지금의 건물은 지난 1983년에 新築한 것으로서 百濟의 建築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백제의 건물이 오늘까지 남아 있을 리 없다. 16년전 圓通殿 건물을 허물고 大雄殿으로 改築할 때 上樑文이 발견 되었는데 그 末尾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設立不知再重修永樂十九年
三重修康熙二十九年
四重修道光十一年
五重創大韓光武十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創建 年代는 未詳이나, 再重修에서 五重創까지는 햇수(年代)가 明記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1983년에 다시 新築하였음으로 이를 六重創으로 보면 평균 112년 간격으로 한 번씩 重修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再重修를 실시한 永樂十九年(1411)으로부터 100여년을 遡及하여 보면 興住寺의 創建年代를 高麗 末葉으로 짐작해 볼 수도 있으나, 실은 이 흥주사는 본래 百濟의 절터(寺址)에 再建된 것으로 推定된다.

新羅의 佛教가 公認되기 이전의 100여년 전부터 이미 新羅 國內에서 信仰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百濟도 例外가 아니어서 불교 公認 이전에 이미 國內에 流入되어 信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泰國寺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태국사는 泰安郡 近興面의 安興城 內에 現存하는 寺刹로서 10여년 전에 신축한 건물이다.

一說에 의하면 百濟의 武王 34년(633)에 創建된 절이라고도 하나, 이를 實證할 수 있는 史料를 찾을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 泰國寺는 본래 근흥면의 芝靈山에 創建되었던 것인데, 朝鮮朝의 초기에 지금의 장소로 옮기어 새로 지은 것이 오늘까지 그 命脈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瑞山地域에 建立되었던 百濟時代의 寺刹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雲山面 新昌里의 象王山 기슭에 위치한 開心寺를 들 수 있다. 이 절은 忠南 四大 名刹의 하나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創建 年代는 義慈王 九年(649)으로 되어 있다.

象王山神의 啓示를 받아 創建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百濟 建築 藝術의 極致를 이루었던 大伽藍으로 이름난 寺刹이었다.

그 뒤 統一新羅의 憲康王(809-825) 時代는 800명의 修道者를 양성한 名刹이었는데, 壬辰倭亂 때 日本人들이 放火하여 燒失 된 것을 그 후 다시 復元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때 大雄殿 건물이 國寶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格下되어 寶物로 관리중에 있다. 또한 이 開心寺에 있는 佛經 板本은 한글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評價되고 있다.

다음은 天藏寺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천장사는 高北面 長要里의 燕岩山에 자리한 寺刹인데, 이는 百濟의 武王 34년(633)에 建立된 것이라고 전하여지고 있다.

이것은 泰安의 泰國寺의 創建 年代와 같은 데, 역시 천장사도 百濟의 武王 때에 지은 것으로만 口傳되어 내려올 뿐, 이에 대한 입증 資料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어서 다음은 普賢寺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이 절은 雲山面 龍賢里의 象王山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인 데, 廢寺된 지 이미 오래되어 그 實體는 알 수 없으나 百濟時代에 建立되었던 절이라고만 口傳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文殊寺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절은 雲山面 胎封里의 象王山에 위치한 現存하는 사찰이다.

지금의 건물이 百濟時代의 것은 아니지만 그 基壇의 造成 形式이 百濟의 技法과 類似하다 하니, 이는 百濟時代에 建立된 절이 廢寺(燒失?)된 뒤 高麗時代에 들어와 그 터 위에 다시 新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現存하는 건물로 推定해 보면 高麗(極樂寶殿)와 朝鮮時代(尋劍堂)의 것이 共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3세기 초엽에서 7세기 중엽에 이르는 사이에 泰安과 瑞山地

域에 建立되었던 百濟時代의 여러 寺刹을 살펴보았을 때, 역시 瑞泰地域이 百濟 佛敎文化의 先進地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세기에 彫像된 磨崖佛을 통하여 이를 실증할 수 있으니, 다음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瑞泰地域의 磨崖佛像

우리나라 磨崖佛像의 嚆矢인 泰安 磨崖三佛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磨崖三佛은 태안의 鎭山인 白華山의 太乙庵 옆에 있는 巨大한 自然 岩壁에 彫像된 佛像을 일컫는 것이다.

이 岩壁에 彫刻된 磨崖三佛의 排列 狀態를 살펴보면, 中央에 菩薩立像을 위시하여 그 左側에 藥師如來立像과 右側에는 釋迦如來立像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앙의 보살입상이 오히려 矮小한 편이다.

이 磨崖三佛의 생김새는 中國 六朝 時代의 彫像 形式과 매우 恰似한 技法으로서 6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推定해 볼 수 있는데, 크기는 左右 脇侍佛의 높이가 각각 2미터이고, 中央의 菩薩立像은 1.3미터로서 花崗巖에 彫像된 것이다.

그런데 이 磨崖三佛을 흔히 磨崖三尊佛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呼稱이다.

佛敎에서 말하는 三尊이란, 이른바 釋迦三尊. 彌陀三尊. 藥師三尊을 일컫는 것으로서, 곧 釋迦三尊이란 中央에 釋迦如來를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의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을 아울러 일컫는 것이고, 彌陀三尊이란 阿彌陀佛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勢至菩薩과 觀世音菩薩을 指稱하는 것이며, 그리고 藥師三尊이란 衆生을 疾病에서 구해 준다는 부처로서 藥師如來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日光菩薩과 月光菩薩을 함께 일컫는 것이다.

이같이 三尊이란 本尊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脇侍佛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左右의 협시불보다 중앙의 本尊像이 格이 높고, 또한 坐像이건 立像이건 간에 협시불보다 커야 이를 三尊이라 呼稱하는 것이다.

實例를 들면 益山의 胎峰寺에 있는 石造三尊佛. 榮州 可興里의 磨崖三尊佛. 그리고 서울의 澗松美術館에 所藏된 金銅三尊佛함등이 典型的인 三尊佛인 것이다.

이 같은 脈絡에서 볼 때 泰安 磨崖三佛은 중앙불이 本尊이 아닌 菩薩像이며, 그리고 脇侍佛로 좌측에 藥師如來立像 우측에 釋迦如來立像으로 되어 있으니, 그 排列부터가 모순이며, 또한 中央佛이 협시불보다 矮小하니 이는 앞에서 例示한 三尊佛과는 거리가 매우 먼 異例的인 형식이다.

이 같은 이유에 泰安 磨崖佛은 三尊佛이 아닌 「泰安 磨崖三佛」 또는 「泰安 磨崖佛」이라고 부르는 것이 佛敎 用語上이나, 또는 學術的인 側面에서 볼 때 가장 合理的이고 또 妥當하다고 본다.

여하간 磨崖佛이 泰安의 白華山 自然 岩壁에 造成됨으로서 泰安半島가 우리나라 佛敎彫像 美術의 先進 地域으로 浮上되었고, 따라서 百濟 彫像術의 發祥地임을 實證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마애불은 石窟寺院 經營의 최초의 작품으로서 泰安이 우리 나라 석굴 사원의 歷史의 장을 열어 준 由緖 깊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백제의 彫像術이 泰安에서 進一步 발전하여 瑞山市 雲山面에서 아름다운 石彫藝術의 極致라 일컫는 국보 제84호로 지정된 「瑞山 磨崖三尊佛」을 이룩하여 놓고, 다시 內陸으로 깊숙이 전파되어 百濟 泗 時代의 佛敎文化의 찬란한 꽃을 피운 것이다. 泰安 磨崖三佛은 지난 1966년 2월 28일 寶物 제432호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중에 있다.

다음은 瑞山 磨崖三尊佛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하는데, 서산의 마애불도 역시 三尊 形式은 아니다.

앞에서 言及한 대로 三尊佛이라면 중앙에 釋迦如來가 있으니, 그 좌우에는 당연히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이 脇侍佛로 配列되어 있어야 三尊佛이 되는데, 이 서산마애불은 중앙에 釋迦如來立像과 좌측에 觀音菩薩立像, 그리고 우측에 彌勒半跏思惟像으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三尊 形式의 배열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서산마애불도 태안마애불 계통으로 여겨지는데, 그 조성 연대는 태안마애불보다 약 2~30여년 뒤지는 6세기 末葉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은 마애불상과 脈絡을 같이하는 百濟金銅如來立像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금동여래입상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지난 1968년에 瑞山市 雲山面의 龍賢里에 있는 普願寺 절터에서 出土된 것인데, 크기는 전체의 높이가 9.5㎝. 몸통의 폭 2.6㎝. 그리고 머리의 길이가 肉를 포함하여 2.5㎝로 이루어졌다.

이 金銅如來立像의 肉·手印·通肩衣 기타 등등이 앞에서 언급한 瑞泰地域의 磨崖佛像과 類似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찰해 볼 때 태안마애불과 서산마애불의 조상술의 바탕이 이 금동여래입상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磨崖佛 彫像術의 流入 이전에 이미 鑄造된 金銅如來立像이 傳來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금동여래입상의 鑄成 時期를 正光 年代의 諸佛에서 起因된 것으로 본다면 역시 520년 이후의 造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金銅如來立像이 百濟國에 들어오는 것은 그 이후로 보는 것이 당연 할 것이다.

5.伽倻山의 聖地造成

이 가야산(678)은 瑞山, 洪城, 禮山, 唐津 등 4개 郡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名山이다.

그런데 이 산을 伽倻山이라 부르기 전에 이미 象王山이라 呼稱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도 開心寺에는 「象王山 開心寺」라는 현판이 덩그렇게 걸려 있다.

湖山錄에 따르면 「山에 두 이름이 있으니 하나는 象王山이라 하고, 또 하나는 伽倻山이라 하는데 象王山이란 이름은 당시의 사람들은 잘 부르지 않고 오직 伽倻山이라고만 불렀다.

伽倻山이란 본래 佛書에서 由來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山에 두 이름이 있음을 살펴보았으나 본말을 알 수 없었다.

東國通鑑과 輿地勝覽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百獸中에서 오직 코끼리가 王이라 칭한 것 같으나, 이는 당시의 有力한 자에 대한 呼稱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新羅와 百濟가 戰爭으로 혼란할 때에 누군가가 國號를 盜名하여 雄據하면서 자칭 王이라 칭한 것 같으나, 당시의 史記가 兵火에 流失되어 後世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일을 알 수 없다.」

「象王山在郡東三十里海美地界山有二名一名象王山一名伽倻山其象王之名時

人不言專以伽倻稱之考於佛書其伽倻之名本自佛書中來也一山兩名皆有所據而其

事蹟本末則亦無據而名也東國通鑑輿地勝覽皆無考見而獨於比山象王宮殿臺沼輦

路 石斷瓦破礎積在於林中而宛然如昨則不知其出於何代建都立國於此山也意者

百獸之中惟象有力雄於獸中則以象稱王爲號者不過當時有力者之稱羅濟戰爭之日

號盜名持力據險稱王稱國而其一時史記則失於兵火無傳於後世故其當時之事無

得以考也具不 中歲因人」

위와 같이 象王의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伽倻는 佛書에서 由來된 것이라 했다. 또한 앞에서 言及했드시 伽倻山에 앞서 象王山이라 부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伽倻」는 「象」의 異名이며 象王은 부처, 즉 釋迦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伽倻와 象王은 同義語임을 알 수 있다.

일찍 泰安半島에 流入된 佛教는 일단 기틀을 다지면서 瑞山地域으로 전파되어 그 곳에서 활기차게 발전하며 象王山을 중심으로 一大 佛教 聖地를 建設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위의 湖山錄에 따르면 象王山에는 宮殿, 樓臺, 연못, 輦路, 石, 瓦片, 柱礎 등이 숲속에 쌓여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큰 建物이 있었음을 端的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象王山에는 伽倻寺를 비롯하여 文殊寺. 普賢寺. 開心寺. 鳳頭庵. 龍子庵. 鷲臺庵 등 무려 100개에 가까운 많은 寺刹이 亂立相을 이루고 있었다.

一說에 따르면 象王山에 절이 100개가 넘으면 모두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特히 山名을 象王山이라 命名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言及했듯이 象王이란 곧 釋迦牟尼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 釋迦如來를 중심으로 左側에 文殊寺, 그리고 右側에 普賢寺를 건립한 것은 典型的인 釋迦三尊을 象徵的으로 排列해 놓은 것이다.

本尊인 釋迦如來를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에 脇侍佛로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을 排列한 셈이 되는데, 이 같은 特異한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상왕산을 중심으로 佛教 聖地를 조성 중이었으나, 羅濟 戰爭의 兵火로 인하여 그 계획이 水泡로 돌아간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象王山을 뒤에 伽倻山으로 改名한 것은 佛教 成道의 땅인 佛陀伽倻(Buddha Gaya)를 이룩하여 第二의 佛教 聖地를 건설하려는 野心에 찬 佛教 信仰의 最高의 聖地였음을 알 수 있다.

6.結 論

佛教가 우리 나라에 傳來되어 公認된 과정을 살펴보면 高句麗(372), 百濟(384), 新羅(527)의 순으로 되어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은 高句麗에 佛教가 들어오기 이전에, 百濟의 仇首王 九年(222)에 이미 西海岸의 泰安半島를 통해 泰安地域에 불교가 유입되어 民間에서 信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50년이 지난 서기 372년에 비로소 高句麗에 佛教가 傳來된다. 이 150년이란 기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다. 新羅에서 불교가 공인(527)되기 이전의 100여년 앞서 民間에서 信仰되고 있었음을 참고해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考察해 볼 때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고구려가 아니라 百濟임을 알 수 있다.

第一次로 3세기 初葉 泰安半島에 傳來된 불교는, 이 지역에서 漸次的으로 발전하면서 內陸을 향해 우선 瑞山地域으로 전파되어 갔다.

또한, 뒤이어 6세기 초엽에 이르러 金銅如來立像이 泰安半島에 流入되므로서, 이를 바탕으로 泰安磨崖佛과 瑞山磨崖佛을 彫像해 놓고, 마침내 瑞山의 伽倻山에 第二의 佛陀伽倻(Buddha Gaya) 聖地를 建設하면서, 한편으로는 內陸 깊숙이 傳播되어 百濟 泗 時代의 佛教文化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그리고 第二次로 漢江口를 통해 漢山에 전래된 百濟佛教는 이 곳에서 발전하여 오다 475년 백제가 熊津으로 遷都하면서, 백제불교는 다시 웅진으로 이어져 60여년 발전하다 538년 다시 泗 城으로 천도하자, 이 곳에서 泰安半島에 傳來되어 內陸으로 발전하여 온 佛教文化와 合流하여 드디어 百濟 佛教文化의 찬란한 黃金 時代를 이룩해 놓았던 것이다.

註 ———

1.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肖古王 26年
2 .瑞山郡誌 忠淸鄕土文化社 1975
3. 興住寺 圓通殿 上樑文 1989
4. 李殷昌 百濟文化 公州師大 百濟文化硏究所
5. 上揭書
6. 上揭書
7. 韓여현 湖山錄 筆寫本 1618
8. 諸橋轍 大漢和辭典
9. 涅槃經

충남의 인물 청양문화원

樊巖 蔡濟恭 선생 生涯

蔡濟恭 先生의 家系와 周邊

蔡濟恭 先生의 本貫은 平康이며 字는 伯規요 號를 樊巖이라 했고 諡號는 文庸公이라. 先生은 肅宗 四六年(西紀一七二十)에 태어나서 正祖 二三年(西紀 一七九九)에 돌아가셨으니 享年 八十세의 수를 누리었다. 先生의 生地는 洪州九峰山下魚在洞이니 지금의 靑陽郡 化成面 九在里이요 그 先代는 竹州에 살았고 관직으로 출사할 때에는 청파동에 살았다. 先生이 서울에 올라와 살던 곳은 吳先運과 姜樸이 살던 약현이었다. 先生의 詩에 「過靑坡舊居」라는 것이 있으니 그 선대가 서울에서 살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濟恭竹州人也」하고 한글과 「竹州吳先子衣履所藏雖草木亦恭敬止況州人乎」이라는 글이 있으므로 先塋이 죽주에 있고, 또 선대가 죽주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영조대왕이 행차중 약현을 지나다가 「蔡公의 집이 어느 것이냐」하고 하문하였으니 樂峴에 산 것을 알 수 있고, 또 徐藥峰 집터를 吳光運이 얻어 살다가 樊巖公이 또한 거기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약현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先生이 洪州에서 성장한 경위는 그의 從祖 五視齊公이 先生의 조부와 함께 肅宗때 政變을 可하여 洪州로 落鄕하여 九峰山 밑에 터를 잡아 살게 된 데서 비롯한다. 祖父의 號가 九峰인 것도 그 까닭이다. 平康 蔡氏는 新羅 부마의 후손으로서 고려에 와서 景平公 松年이 將相을 겸했고 그자에 楨이 平章事로서 平康君에 봉해지고 靖宣公이란 諡號를 얻어 元宗 廟庭에 配享됨으로써 평강 채씨의 家號를 얻었다. 이후 자손이 연이어 관직에 올랐으며 려말에 陽生이 軍器小監으로 있었으나 不事二姓의 정신으로 관직을 버리고 陂臨에 숨어 살았다. 李朝에 들어와서 공의 六代祖에 司憲府執義를 지낸 蘭宗이란 분이 있어 柳文節公 포춘과 道義之交를 맺었다. 子는 弘文館

應敎竹村慶先이고 그 子는 成均進士 贈吏判 忠衍이고 和順懸監 贈吏曹判書振後이며 儒林의 重望이 있었는데 그 분은 太學士 文惠公 湖州先生의 弟이며 공의 高祖이다. 會祖는 同知中樞府事 贈吏曹參判 時祚이다.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一男은 弘文館 修撰 五視齊 明胤이요 二男은 歷翰林京北亞尹에 그친 九峰 成齊이요 三男은 進士楨胤이며 四男은 翰林選 湖堂藝文館 提學으로 그친 希庵膨胤이요 五男은 宏胤이다. 九峰公이 四男을 두었는데 맏이가 待講院文學 膺萬이요 아우가 膺一이니 즉 樊巖의 父親이라 膺일의 字는 敬彦으로서 늦게 진사가 되고 음仕로서 두 고을을 살았으니 萬秩로서 敦寧府都正과 同知府事를 지냈고, 특히 知中摳府事로 제수되고 子貴로서 贈領議政으로 追敍되었다. 三男은 贈通訓大夫司僕寺正膺鍾이요 四男은 贈通訓大夫司僕司正 膺八이다. 妃는 贈正敬夫人廷安李氏로서 贈吏曹判書 萬成女이니 延陸君 二憂堂 萬元의 姪女요 또한 廷元府院君 海淵光庭의 五代 孫女이다. 敬彦은 五視齊公에게 글을 배워 학문도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다. 天下百家書를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니 큰 학사였고, 또 「退溪集」을 읽고 또 읽어서 尊信했고 朱子學徒로서 시종했다. 일찌기 南藥泉 문하생인 조국진이 문집 서문을 지어 보냈는데 南相國이 그 서문을 보고 문장에 감탄했다고 하며 後生이 可畏라고 칭찬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文名 있는 西堂 李德萬 마저도 敬彦의 文才에 감탄했다고 하며 菊圃姜樸도 늘 말하기를 경언이 크게 등용되지 않음을 개탄했다고 한다. 敬彦이 追著과 詩文이 많았으나 樊巖公의 再從伯恭이 편집한다고 하다가 요절하는 바람에 그 유고를 逸失해버리고 말았다. 樊巖 先生은 이러한 숨은 선비의 아들로서 자랐고 또 藥山 菊圃와 같이 기상이 높고 절의가 있는 문전에 출입하면서 학문과 인격을 닦았다. 十五歲 때에 이미 鄕試에 及第하였다고 十八歲 때에 藥山宅에서 菊圃恭이 굽어서 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詩를 지으라 하니 선 자리에서 「縱成曲 當前障不妄升騰向上心」이라고 글을 지어 바쳤다. 두 분이 그 詩才에 감탄해서 칭송하였다고 하니 이때부터 그의 문재는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先生의 元配位는 贈貞敬夫人同福 吳氏 直長 弼運女이며 大宗伯竹南竣의 後孫이며 先生의 스승인 약산 吳光運의 再從姪女이다. 부인은 계묘생으로 辛未月에 卒하니 無育으로 十九歲에 생을 마쳤으며 繼配는 貞敬夫人 安東權氏進士 尙元女이니 忠景公 克禮之의 後孫이다. 모두 無育해서 伯從祖修撰明胤의 孫縣監 敏恭의 子弘遠을 양자로 삼았다. 홍원은 문과에 급제했으며 文名이 있어 承旨를 지냈으며 「嶺南人物考」의 安東篇 집필자이다.

先生의 出仕 그 行蹟

先生은 二四歲 때 庭試 文科에 及第하여 처음 承文院權知副正字에 임명되어 官界에 발을 들여 놓았다. 二八歲 때(英祖) 二三年에 翼陵別檢이 되고, 또 假注書로 經筵에 참여했으며 翰林會圈에 불참했으나 왕의 특명으로 二圈을 더하여 수석 藝文館儉閱이 되었다. 그 후 순조롭게 승진해서 三一歲 때 (英祖)二六年에 陞六을 해서 成均館典籍이 되고 다시 禮曹佐郎 司憲府待平 史曹佐郎 司동正言을 거쳐 특명으로 玉堂에 올라 弘文館校理가 되었다. 이때 영조대왕은 옹주의 병이 위독하여 視病하러 갔다가 옹주가 다음날에 죽으니 슬퍼서 환궁할 줄도 몰랐다.

이때 先生이 연이어 환궁해야 한다는 劄文을 올려 결국 이에 좇아서 환궁하였다 한다. 이때에 英祖大王이 하루는 세자(思悼世子)에게 왕위를 물려 주겠다는 교서를 내리고 세자에게 교유하기를 「료아詩를 배운 일이 있느냐? (육아詩는 詩經에 있는 글로서 兩親을 保護하고자 하나 그 길이 없어 슬퍼하는 詩) 세자가 진정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눈물로써 소해보라 그러면 讓位의 傳敎를 거두라」고 했다. 그래서 세자가 엎드려 눈물로 왕명의 還收를 청하여 선생이 나아가서 조금도 거짓이 없는 효심으로 원하는 것이니 왕명을 거두어 달라고 奏達하였다 한다. 이렇게 참마음으로 양 전하에 충성을 다해서 더욱더 英祖大王의 신임을 얻었다. 이때에 선생은 또 사도세자의 효심은 하늘이 내려 주신 것이라고 감탄하며 大王과 세자 사이에 틈이 가지 않도록 온갖 힘을 기울였다. 三十四歲 때 湖西암행어사로 뽑히고 이듬해에 北評使가 되고 여름에 玉署로 소환되었으며 어명으로 세자侍講이 되어 사도세자와의 깊은 관계가 여기서 또한 맺어졌고 가을에 修撰 東學敎授가 되었고 겨울에도 특명으로 司憲府執義가 되어 요직을 맡게 되었다. 三六歲 때 逆獄問事郎이 되었다. 이해 二月에 羅州掛書의 변이 있었고 三月에 趙泰求, 金一鏡등의 逆律을 追施했고 五月에 討逆庭試卷에 또한 變書 사건이 있었다. 무사히 問事郎의 임무를 마치고 특명으로 승정원 同副承旨 左副承旨 兵曹參議 등으로 순조롭게 승진해 올라갔다. 이듬해(英祖)三二年에 伊川府使로 내려갔으나 부사로서도 많은 治功을 남겼다. 平安監司가 이천부사는 참으로 청백한 지방관이라고 칭찬했다. 三八歲 때 (英祖) 三三年에 司諫院 大司諫으로 옮겨지고 御著書 편찬위원으로 임명되고 이듬해에 左承旨가 되고 다시 漢城府右尹을 거쳐 都承旨와 承文院提擧가 되었다. 이때에 狀獻世子가 대리 聽政을 한 지 이미 十年이 지났는데 세자가 영민하고 일에 밝아서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매우 엄했다. 이때 金尙魯 洪啓禧 등 逆臣들이 여러가지로 자가들 소행에 위급이 오고 의심이 가서 세자가 만일 후일에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내외로 세자를 중상 모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때에 先生은 大王과 세자 사이를 옳게 인도하여 잘 보필하려고 백방으로 주선하던 중 가을 어느 날 밤에 英祖大王의 비망기를 正院

에 내려보냈는데 참으로 귀에 담을 수 없는 일이었다. 廢世子를 모르고 있던 중 先生은 다음날 새벽에 입시하여 奏達하기를 「내리신 傳敎는 신하로서는 받들지 못하겠다」고 하고 신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폐세자의 어명을 받들 수 없다고 했다. 大王이 대노하여 일어서는 것을 앞을 가로막고 御衣를 받들고 눈물로써 거두어 들일 것을 호소하니 왕의 노여움이 조금 풀어지면서 어명을 거둬들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金尙魯 洪啓禧 당인은 先生을 모함하기 시작하였다. 四一歲때 (英祖 三六年)에 대사헌이 되고 다시 都承旨가 되었으나 겨울에 경기도 觀察使로 옮겼다. 이 때에 藥山 菊圃 二公과 같이 허묵의 연보를 편찬한 실학자 李익을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찾아보았다. 다시 이듬해에 工曹參判과 禮曹參判으로 물러났다. 이듬해 英祖 三八年에 大夫人 喪을 당하여 服中에 있었는데 이때 윤五月 後參日에 大王이 창덕궁에 드시고 세자를 폐하시고 賜死시키니 先生은 居喪中이지만 창덕궁 앞에서 부복 호소하기를 拾日동안이나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四四歲(英祖 三九年) 때 脫服했으므로 다시 刑曹參判, 大司憲 承文院 提調를 거쳐 가을에 開城留守로 옮겼다. 유수가 된 지 한 달도 못 되어 官費를 줄이는 긴축책을 써서 예산을 여유 있게 하였으며 몇 달 동안에 은 수천냥을 저축해서 긴급 구호 재원을 마련하였고 五삭이 지나니 그 칭송하는 백성의 소리가 옆 지방에까지 번졌다. 곧 이어 藝文館提學兼 官等司同知와 春秋館事에 임명되고 이듬해에 合郡하여 安岳郡守가 되었다가 몇 달 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니 居喪中이라 관직을 떠났다.

이 때에 영조대왕이 懿昭暮에 갔다 오는 길에 藥峴(現 서울 복래동)을 지나면서 蔡公 집이 어디쯤 있느냐고 하문했다고 하니 영조대왕이 번암 선생을 지극히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四八歲(英祖 四三年) 때 脫喪을 하여, 곧 都承旨로 부르시고 嘉善大夫로 승진시키고 이어서 禮曹參判으로 옮기게 했다. 그러나 번암이 왕이 측근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대당의 묘략은 그치지 않았다. 四四歲에 姜趾煥이 先生을 공격했으나 도리어 삭직당하고 말았다. 이 때 도리어 先生을 都承旨로 임명하니 先生은 이를 사양하고 잠시 반대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三水 府使로 임명 되었다. 부임차 北靑에 당도하니 다시 소환되어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

이듬해인 英祖 四五年에 다시 承文院提調로 내직에 올라와 도승지 호조참판이 되고 특진하여 資憲大夫가 되어 漢城府判尹이 되었다가 英祖 四六年에 특히 內局提調가 되고 병조판서를 거쳐 예조판서 겸 掌苑提調 제堰堂上 常帶內局으로 있었고 대왕이 彰義宮에 행차할 때에는 扶교 陪行하였으니 군신간에 신임이 두터웠다. 특진으로 正憲大夫가 되었다가 다시 用値宿勞로서 崇政大夫가 되었으며 특히 判義禁이 되었다. 또, 각중에 호조판서에 임명되기도 했다. 英祖 四八年에 특명으로 다시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가 世孫 石寶客이 되어 世孫 敎育과 보호에 힘을 기울였고, 겸해서 貢弔堂上經延廳知事 弘文館提學이 되고 다시 이조판서로 승진했다. 세손(뒤에 正祖)과의 관계는 이 때에 깊어졌다. 五五歲(英祖 五十年) 때 여름에 평안감사로 임명되었다. 평안도로 내려보내면서 御筆로서 開西心馳豫戀曷勝이라 여덟 자를 써 주었다. 또, 王世孫께서도 약을 내려 주어 위로하였다. 감사 재직중 예산을 절약하여 民債를 탕감해 주어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다. 평안감사는 돈 버는 자리로 이름이 있었으나 先生은 淸百으로 이름이 났고 오직 乙未年에 종조되는 希庵蔡彭胤의 문집과 菊圃姜樸의 문집을 간행하여 사회의 칭송을 들었다.

希庵과 菊圃는 모두가 당대 일류 시인으로서 이름이 있었으나 모두 失勢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遺集을 낼 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 특명으로 다시 소명되어 병조판서와 內局提調가 되었다가 갑자기 左參贊으로서 社稷提調가 되었다. 이 때 先生은 閤外 사람으로서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聖上이 재워 五拾軍에 항상 患中에 계시니 대리 聽政을 請啓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으나 대신들은 좌우를 살피면서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과연 이 해에 세손이 대리 聽政을 하게 되었다. 이듬해 英祖 五二年 先生 五七歲 때 三月에 英祖大王이 승하하니 正祖大王이 왕위에 올랐다 新王은 先生을 六行六王御製校正에 임명하고, 또 差行狀襄輯堂上에 임명하고 崇祿大夫로 올리면서 예조판서와 형조판서로 임명했다. 이 때에 사도세자로 追崇하여 眞宗大王으로 하고 莊헌으로 追上하는 한편 英祖와 孝章世子를 이간시킨 김상로, 홍계희 등 일당을 逆律로써 다스렸다. 新王이 말하기를 선대왕이 나의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祖孫의 의리를 보존케 한 것은 오직 蔡公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하여 특히 신왕은 先生을 신임하시고 獄이 일어나자 선생으로 하여금 判金吾使로 삼아 獄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左參贊提學으로서 國葬都監에 임명하고 英祖輓章拾律을 製造케 했다. 國葬을 치른 후 輔國으로 승진되고도 漢城判尹兼 知春秋館事가 되고, 또 判中 樞府使로서 遠接使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규장각 제학이 되었다.

丁酉年(正祖 一年)에 逆獄이 일어나 선생으로 하여금 병조판서를 삼아 다스리게 했다. 그러나 이 때 洪國榮이 戚臣으로 권세를 부리니, 뭇 벼슬아치들이 그 밑에서 아첨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오직 선생만이 洪國榮의 교만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에 선생은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물리쳤다.

이해 가을에 홍계희가 호위군관과 공모하여 창경궁에 몰래 잠입해서 정조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逆誅되어 그 자손들이 심야에 변을 일으키려고 하므로 대

왕은 특히 선생을 불러 宮城을 지키는 守宮大將에 임명하였으니 대왕께서 위험할 때에는 선생에 의지함이 이와 같이 했다. 무술년 정조 二年에 陣謝使로 燕京을 다녀왔다 가는 길에 평양을 들르니 남녀 노소 물론하고 선생을 환영함이 대단했고 酒菓를 바치는 군중으로 길을 메웠으며 때마침 가뭄 때에 비가 내렸으므로 蔡安使雨라고 기뻐했다고 한다. 이렇게 번암 선생을 사모한 것은 왕년에 선생이 평안감사로 있으면서 善政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淸나라 군주가 선생을 만나보고 동국의 위인이라고 칭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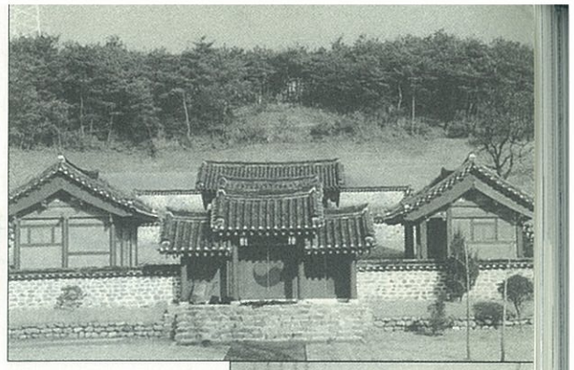
이 때 이미 洪國榮의 누이동생으로 빈을 삼아 입궁했는데 이 때에 洪國榮의 추천으로 宋德相이 이조판서가 되어 인사권을 남용하였으며, 또 徐命善이 정승으로 있으면서 홍국영의 비위를 맞춰 주고 있었다. 선생은 이 판국이 잘못됨을 알고 홍국영에게 아첨하지 않을뿐 아니라 한때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물러앉았다. 正祖 四年 선생 六十歲 되던 경자년에 마침내 홍국영이 득죄하여 물러 앉았고 宗德相이 또한 처형됨에 따라 예조판서, 병조판서, 奎章閣提學, 호조판서 등을 지냈으나, 이해 가을에 대사간 조시위, 대사현, 김문수, 이명식 등이 연이어 공격하고 모함하였으나 이는 모두 영상으로 있는 서명선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생은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변명할 것은 변명하고 항소할 것은 항소해서 항상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 선생은 노량진 三湖에 나와 살았으나 대왕은 약도 내리시고 반찬과 햅쌀도 내려 주셔서 대왕이 선생을 생각하는 마음 잊지 않았다. 그래서 예조판서, 한성판윤, 공조판서 등의 관직을 내렸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대왕은 密府를 親授하여 조정의 공격을 피하라는 뜻에서 병오년에 平安兵使로 임명했다. 兵使로 있는 동안 선생에 대한 조정 대신의 공격은 그 칠줄 몰랐다. 겨울에 삭직 당했다가 정미년 봄에 환경하여 密府를 親納하니 知中樞府使로 임명했다. 이 때 선생은 사양하였으나 引見慰論하였으므로 부득이 받게 되었다. 무신년 봄에 어필로써 선생을 右議政에 임명하시니 특별한 성은을 입었다. 선생은 경연에 나아가서 六代 政策을 제시하였다. 즉, ① 皇極을 세울 것 ② 당론을 물리칠 것 ③ 의리를 맑게 할 것 ④ 賓墨을 증별할 것 ⑤ 믿음을 근심해서 ⑥ 권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니 대왕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마침내 우의정에 취임하였다. 이 때 조덕린의 伸寃과 其子進道의 削料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선생은 모두 풀어 주었으니 영남 사람들이 수십년 만에 비로소 분이 풀리어 과거에 응시하는 기풍을 일으키게 하였다. 조덕린 부자는 김상로와 홍계희의 비위를 거슬렸기 때문에 득죄한 것이다. 형조판서 윤기동이 김상로와 홍계희를 비호하고 조덕린 부자의 伸寃을 반대하다가 도리어 삭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겨울에 藥房都提調入院當直을 拜命했고, 또 耆社에 들었다. 기유년 가을에 좌의정으로 승진했다.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수원에 있는 사도세자 陵號 永祐園을 개호해서 顯隆으로 삼고, 그 공사를 맡는 總理使를 겸했다.

이듬해 다시 좌의정에 중임됐으며 景慕宮都提調를 겸했다. 이해에 聖詞가 탄생하니 원자의 호를 지어 바쳤다. 이 해에 또 천주교가 국내에 만연하였으나 선생은 이를 탄압으로써 응징할 것이 아니라 正學을 扶植하면 자연 소멸된다는 의견이었고, 또 대왕에게도 그렇게 대처할 것을 上啓했던 것이다.

壬子年(正祖 一六年 西紀 一七七二年)에 柳星漢이란 사람이 先世子를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으므로 선생은 이를 공박상소했고 또 이때 영남 士林들의 萬人소가 있어 明義를 밝히고 선세자의 誣死를 밝혀 바로잡으라고 했다. 이때 尹九宗은 대사헌으로서 柳星漢을 징토하지 않고 도리어 景宗政事에 언급함으로서 선생께선 尹九宗은 경종의 逆臣이요 柳星漢은 선세자의 역신이라고 劄字를 올리니 대왕이 선생의 劄字를 받아들이어 의리에 맡는 批旨를 내렸다. 이해 겨울에 잠시 判中樞府使로 물러앉았다가 그 해 다시 五月에 특명으로 영의정으로 승진되었다. 이 때 辟派 거두로서 좌의정에 있던 金鍾秀와 대립 되었으나 정조대왕은 끝까지 선생을 신임하였다. 영의정을 그만둔 뒤에도 다시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여 己未年(正祖 二三年 西紀 一七九九年) 八十세의 고령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정승으로 있었으니 실로 10년 獨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장기간 정승 자리에 앉아서 정치



를 바로잡는 데 힘을 써왔다. 정조 十二年에 특명으로 우의정으로 승진된 후 十一年 동안 정승으로 있으면서 領相 없이 우의정도 지내고 좌의정도 지냈으며 右相이나 左相 없이 領相 자리에도 있었으니 선생의 十年 獨巳이란 말은 이러한 데서 나온 말이다. 正祖 二三年 西紀 一七九九年, 正月 一八日에 임종하고 三月 二六日에 龍仁 餘北洞에 장사지내니 會葬人은 한없이 많으려니와 영남의 十餘書院의 儒生들이 葬地에서 道會를 열어 賻義金을 내고 祭物을 차려 儒林葬으 지냈으니 근세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涓館하는 말에는 市民들이 門政內外에 몰려들어 哀哭하는 사람이 수천명에 달했고 상여를 메고 會葬하겠다는 사람이 成群했다고 하니 선생의 五十年 國家 奉仕에 덕이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다.

先生의 著書로 樊岩文集이 있어 史學硏究에 큰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先生의 影堂이 化城面 九左里 東台에 復元되어 있다.

이 상 재

월남 이상재 선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월남 선생이 우리 고장 충남 서천군 한산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 개그를 통하여 대중을 시원하게 하듯 당시 이상재 선생도 암울한 시기를 위트로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독립협회는 서재필을 비롯하여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등 근대 사상과 개혁 사상을 지닌 진보적 지식인들이 그 지도부를 형성하였고, 신간회는 이상재 등 지식인 30여 명의 발기로 서울에서 발족하였으며(1927)"라고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다.

♣ 이상재 선생 일화

▷ "동경으로 이사 가시오"

통감부 시대에 조선미술협회 창립 식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식장에는 통감 이등박문을 비롯하여 일인들의 고관들과 이완용, 송병준 등 매국노들이 모두 모였다. 선생께서도 참석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맞은편 자리에 이완용과 송병준이 앉아 있는 지라 갑자기 비위가 사하였던 것이다.

"대감네도 동경으로 이사 가시오" 라고 하니 이, 송, 두 사람이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영감, 별안간 그게 무슨 말씀이오?"하였다. 선생은 태연히 "대감들이 나라 망하게 하는데는 천재니까 동경으로 이사 가면 일본이 또 망할 것이 아니오" 라고 하였다. 이, 송 두 사람은 물론 일본인들에게 아첨 잘하던 사람들도 모두 얼굴이 파랗게 질리게 하였다.

▷ "감기는 대포로 못 고치나"

일제 시대에 조선군 사령관 우도궁(宇都宮)이란 자가 명사를 초대하여 연회를 베푼 일이 있었다. 선생도 기독교 청년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는데 그 날 우도궁은 감기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이에 선생은 "아니 감기는 대포로 못 고치오?" 라고 하여 모두 웃음판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일본 군국주의를 비유함에 그 이상의 말이 또 어디 있었겠는가, 우도궁도 쓴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고 한다.

▷ "너는 호강을 하니?"

어떤 청년이 옥중에서 나온 선생을 노상에서 뵙고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라고 위문의 말씀을 하니 선생은 물끄러미 그 청년을 바라다보시다가 "그럼 너는 호강으로 지내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셨다. 이 말의 뜻은 일제 시대에 우리의 처지는 옥내 옥중의 구별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 "내가 청년이 돼야지"

하루는 선생께서 어떤 청년을 상대하여 장기를 두시며 담소하시는 모습을 때마침 찾아온 노인 친구 분이 보고 "여보게, 젊은 사람들하고 너무 상없이 굴면 버릇이 없어지지 않겠나" 라고 걱정을 하였다. 이 말에 선생은 "여보게, 그럼 내가 청년이 돼야지, 청년더러 노인이 되라고 하겠나. 내가 청년이 되어야 청년이 청년 노릇을 하는 걸세." 이래서 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때나 청년들과 함께 지내고 노시는 것을 가장 기쁘 여기시었다.

♣ 이상재 선생의 주요 경력

(李商在 1850~1927)

• 1867년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汚吏들의 매관 매직 행위 때문에 낙방거사가 되었다.

• 1880년 박정양의 집에서 개인 비서일을 보았다.

• 1881년 박정양의 추천으로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조준영, 김옥균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신사 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유길준, 윤치호, 안종수, 고영희 등 26명과 함께 일본에 갔다.

• 1884년 신관제에 의하여 개설된 우정국 총국의 총관 홍영식이 그를 주사로 임명하였으나, 그 해 12월 갑신정변의 실패로 낙향하였다.

• 1887년 청나라가 우리 나라와 미국이 직접 우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국서의 수교를 방해하였으나, 이상재는 청국 공사와 단판을 벌여 박정양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국서를 전달하게 하였다.

• 1896년 내각총서와 중추원 1등 의관이 되고, 다시 관제 개편에 따라 내각 총무국장에 올라 탐관오리의 구축 등 국운을 바로잡기에 힘썼다.

• 1896년 7월 서재필, 윤치호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하였으며,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

민공동회의장, 또는 사회를 맡아보았다. 만민공동회가 종로에서 개최되었을 때 斥外, 황권 확립 등의 6개 조항을 의결, 두 차례 상소문을 올렸다.

• 1927년 2월 15일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른바 민족의 단일 전선을 결성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과 투쟁할 것을 목표로 신간회를 조직할 때 여러 번 사양 끝에 창립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그 해 4월 7일 사망하여 사상 초유의 성대한 사회장으로 치러졌고 한산 선영에 안치하였다.(현재는 양주에 이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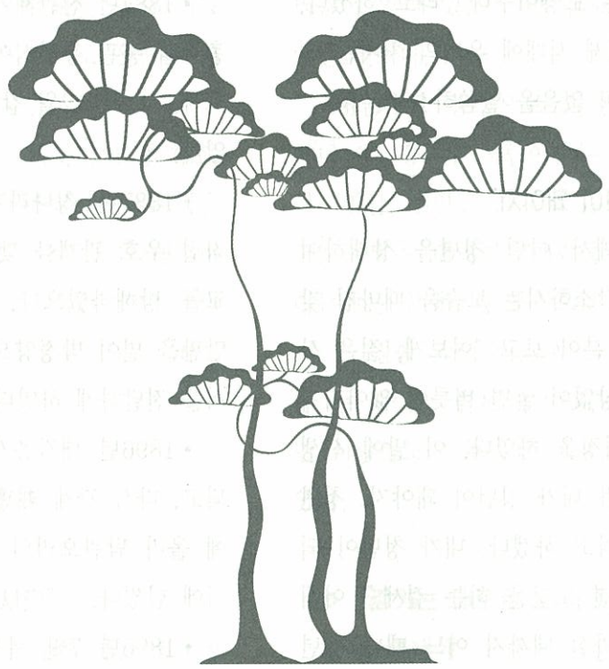
♣ 주요 유적

•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에 이상재 선생의 생가(안채와 사랑채)가 있다.

• 유물 전시관 : 1991년 선생의 유품을 전시하기 위해 생가 옆에 건립하였다.

• 동상 : 한산중학교 교정에 있음.

• 추모비 : 1975년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돼지고개에 세움.



충남의 향토사 연구

82年 前 日本人들의 教育用 冊子 發見

청양문화원장 안 종 일

우리 나라를 日本은 侵略했다. 그리고 倍達의 血統을 이어오는 우리 民族이 固有한 傳統的 教育을 탄압하고 抹殺政策까지 세우는 한편 普通學校(國民學校)用 이른바 諺文綴字法을 만드는 것과 같이 朝鮮語法 및 會話書를 만들고 활용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82年 前에 이들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歷史 앞에 우리는 이 모두를 늦게나마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日本은 소위 大正6年 6月 15日자로, 다시 말해서 1910年 8月 29日 경술 합방 후 8年째 되던 1917年 6月 15日자로 당시 朝鮮總督府編○으로 된 이 冊子를 통해 비교 평가하고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이를 紹介하기로 했다. 그 당시 定價 四十七錢으로 朝鮮總督府 庶務部 印刷所에 印刷가 되고 朝鮮語 日本(國語)用 字比較例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人事 ② 性行 ③ 身體 ④ 衣食 ⑤ 建築 ⑥ 器具 ⑦ 慶弔 ⑧ 交際 ⑨ 職業 ⑩ 經濟 ⑪ 天文地理 ⑫ 文書 ⑬ 時 ⑭ 雜, 그리고 千字文(右의 訓左의 音) 등으로 됐다.

① 人事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食口	家族	同生	弟
一家	親類	四寸	從兄弟
三寸	叔父	內外, 南主	夫婦
同氣	兄弟	男便	夫
內子, 內相, 室人	妻	根地	身元
親舊	朋友	形勢	家計
文章	學者	凡節	生計
先輩	儒者	議論	相談
保人	保證人	是非	爭論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一手	名人	擧動	行幸
一色	美人	出入	外出
年歲	年分	改差	更迭
同甲	同年	失手	失錯
壯元	優等	到任	赴任
傳掌	引繼	平生	一生
團束	取締	違錯	行違
行下	頭	變通	融通
求乞	托鉢		
軍號	合圖		
號令	叱咤		
登狀	連署出願		
呈狀呈訴	訴訟		
對答	返答		
作伴	同伴		

② 性 行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未練	愚鈍	知覺	常識
多情	親切	氣運	氣分, 力
昧沒	無情	無顔	赤面
義面	廉恥	吐說	自白
念慮	心配	弄談	冗議
辭讓	違慮	妄發	妄言, 失言
所願	所望	客說, 客談, 客言	資言
固執	剛情	發明	辯解
大忌	終惡	作亂	惡戲

③ 身 體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病身	不具者	腫氣	腫物
病, 身病, 憂患	病氣	判數	盲人
親患	親の病	疫疾	天然痘
兒患	子の病	調理, 調攝	養生
內患	妻の病	快差	全快
感氣, 外感, 毒感	風邪	差度	輕快
運氣, 染病	熱病	方文	處方書
滯症	胃病	誤死	變死
怪疾	虎列剌	沒死	全滅

④ 衣 食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綢緞	絹物	殼屬殼食	殼物
白木, 佈木	木綿類	點心	晝飯
唐木, 廣木, 西洋木	金巾	空心	食前
木花	綿	吐手	腕貫
去核	綿	床	御膳
毛物	毛皮	口味	食慾
掌甲	午袋	沈宋	漬物
丹粧, 成赤	化粧	土醬	味噌
干	油		
甘草	唐辛		
燒酒	燒酒		
南草	煌草		
上草	上等 煙草		
葉草	葉煙草		
切草	刻煙草		
洋刀	靴下		
進支	御飯		

⑤ 建 築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閭閣	民家	大門	門
貰家	貸家	二層	二階
亭子	別莊	層台, 層久台	階段
家垈	屋數	壁石	練瓦
假家	露店	移舍, 搬移	轉宅
行廊,廊下	長屋	濬練	設計
舍廊	客間	都給	請負
壁장	押入	家役, 役事	普請
門	戶	看役	工事監督
房	部屋		
廁間	便所		

⑥ 器 具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沙器	瀨戶物	坐鍾	置時計
冊床	机	醒鍾	日醒時計
簇子	掛物	刻針	分針
懸板	額	冊匣	本箱
卦鍾	柱時計	硯滴	水入
板	算盤	帳幕	天幕
燈盆	カソチラ	油彩	合羽
燈皮	ホヤ	空席	幕
平袋	鞄	六穴砲	ビストル
雨傘	傘	鐵丸	彈丸
尾扇	鬪扇	環刀	刀
千里鏡	望遠鏡	駕馬, 轎軍	駕籠
名御	名刺	木板	盆
名帖	印判	客竹	客用, 煙管
圖章, 圖署, 套署		登床	踏臺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祇迎	奉迎		
祇送	奉送		
迎接	出迎		
餞送, 餞別	見送		
言約, 相約, 約條	約束		
退定	延期		
問議	承合		
作別	訣別		

⑦ 慶 弔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致賀	慶賀	生辰, 生日	誕生日
吉事	婚姻	內艱	母, 死
納彩, 納幣	結納	大祥, 大朞	三周忌
賻儀	香典	小祥, 朞	一周忌
還甲	還曆		
忌故	命日		
外艱	父, 死		
生產	出產		
得男	男子誕生		
得女	女子誕生		

⑧ 交 際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相從, 追遂	交際	祇送	奉送
人事	煥拶	迎接	出迎
尋訪	訪問	餞送, 餞別	見送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顔面	面識	祇送	奉送
交接	交際	迎接	出迎
膳物	進物	餞送, 餞別	見送
圭角, 氷炭	不和		
通寄, 寄別	通知		
祇迎	奉迎		

⑨ 職 業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生涯	職業	熱水	料理人
冊肆	本屋	沙工	船頭
長木種	材木屋	客主	問屋
福德房	家屋周旋者	酒幕, 旅閣	宿屋
家僧	家屋周旋者	乾材局, 藥局	藥種屋
居間	仲買	役夫	人夫
醫員	醫者	募軍	人足
農軍	農夫	木手	大工
作人	小作人	泥匠	左官
石手匠	石工		
蓋瓦匠	屋根屋		
砲手	銃獵者		
兵丁	兵士		

⑩ 經 濟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場	市場	着色	見本
典當鋪	質屋	散賣	小賣
典當	質	邊利	利息
典物	質物	本邊	元利
典執	質入	重邊	高利
褓負商	行商	輕邊	低利
物件	品物	出債	借金
方物	小間物	投金, 投本金	株金
見樣	雄形	投票, 投本票	株券
役價	質錢	金錢	金貨
家貰	家賃	銀錢	銀貨
食債, 食償	下宿料	紙錢, 紙貨	紙幣
船價	船賃	加計	打歩
路需, 路資, 路費	旅費	直錢	現金
都賣	御賣	口文	口錢
公拍	競賣	질價	질賃
同事	共同商賣	渙錢	篤替
都中	組合	時勢	上場
財物	財產	外上	掛賣
手標, 於音	手形, 割札	登記	書出
結錢, 稅納	租稅	放賣	販賣
浮費, 所費	費用		
本錢, 本金	元金, 資本		
本金, 本價	原價		
去來, 興成	取引		
淸帳	皆濟		
相計, 計除	差引		
支援, 支給	支拂		
會計	勘定		

⑪ 天文地理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日氣	天氣	山所	墓地
尾星	慧星	東山	庭園
天動	雷	快石	庭石
地動	地震	沙汰	山崩
石假山	築山	田畓	田烟
汰	貯水	畓, 畓土	田
防築	提防	田, 田地	畑
沙場	砂原	防川	土午
溫井	溫泉	水道	下水
局內	境內		
外方	地方		
下陸	上陸		
花草	植木		
實果	果實		

⑫ 文 書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冊, 書冊	本	登記	書留
長數, 冊張數	枚數, 頁數	文字	熱子
致富冊	帳面	冊歷	歷
冊衣	表紙	休紙	反古
周紙	卷紙	印朱	印肉
片紙	手紙	交字	熱語
答狀	返書	掌記	賞品目錄
通文	回章	物目	送狀
封奪	狀袋	手票, 手記明文	證書
文書, 文券, 文氣	證券		
家券	家屋, 賣買證		
鑄字	活字		
井間紙	罫紙		

⑬ 時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來日	明日	空日	日曜日
再明日	明後日	半空日	土曜日
三明日	明後後日	午正	正午
再昨日	一昨日	上午	午前
三昨日	一昨昨日	下午	午後
上年	昨年	間束	明方
再昨年	一昨年	食前	朝, 朝飯前
後年	明後年	去潘	先般
來後年	明後後年	今番	今般
來頭	將來		
日間	近日		
暫間	暫時		

⑭ 雜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雜鬼	惡魔	不可不	是非
文具	空文	大端, 大段	大層
馬上技	曲馬	居半	大槪
雜技	賭博	次ㅁ	追ㅁ
等分	等級	恒茶飯	常に, 尋常
艱難, 苟且	貧乏	左右間	兎角
每事	萬事	亂雜	亂
各色, 各項	種ㅁ	所聞	噂
丁寧	屹度	工夫	稱古
始作	開始	理致, 涇渭	理屈
乃終	終	緣古	事故
設或, 設使, 假使	假令	層折	故障
眼界	眺望	事勢, 形便	都合
求景	見物	狼狽	失敗
間或	間ㅁ	揖酌	推察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朝 鮮 語	日 本 (國 語)
滿發	滿開	至境	境遇
曲折	仔細, 委曲, 理由	相考	調査
形便	有樣, 都合	査實	取調
裏許, 內坪	內容	摘拔	拔書
的實, 分明	確實	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終	
中路, 路上	途中	定價金四十七錢	
窮究	工夫, 硏究	大正日六年六月十三日印刷	
		大正六年六月十五日發行	
毁妨	妨害	朝鮮總督府	
牌	群		
沒數	全部		
與受	授受		
空行, 虛行	無駐足		
運數	運		

홍성문화원

성삼문(成三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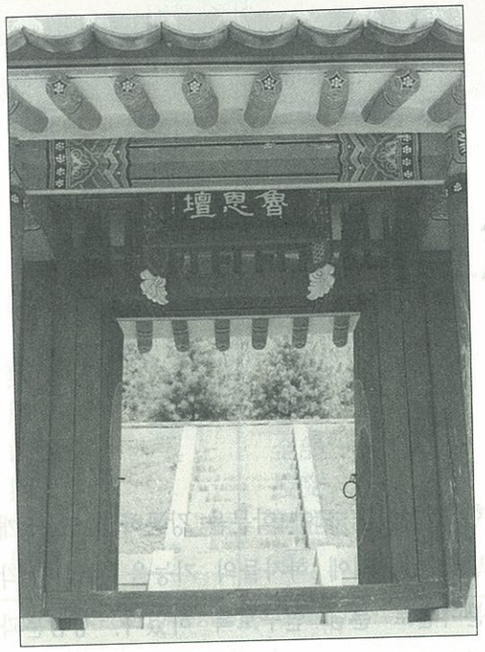
창원인(昌原人) 성삼문(成三問)의 자는 근보(謹甫)이요,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라 하였다.

아버지 도총관(都摠管) 성승(成勝)과 어머니 박씨(朴氏)의 장자로 홍북면(洪北面) 노은리(魯恩里) 적동(赤洞) 외가(外家)에서 출생하였다. 해산할 때에 공중으로부터 「낳았느냐」라고 묻는 소리가 세 번 있었다 하여 이름을 삼문(三問)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어려서부터 천자(天姿)가 단정하고 총명하며 성품이 강직하더니 세종 무오년(戊午年)에 문과(文科)에 합격하고 정묘(丁卯)년에는 중시(重試)에 장원(壯元)하여 벼슬이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세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가 되었는데 앞으로 크게 등용될 인물로 조정에서는 물망(物望)이 높았다.

세종은 궁내에 집현전(集賢殿)을 두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나라 안에 있는 우수한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강론하고 연구 개발하는 동시에 학자들의 기능을 살리어 각 분야별로 분담 연구토록 하였다. 성삼문과 신숙주(申叔舟) 등은 어학과 음운(音韻)을 연구토록 하여 성삼문은 명나라의 한림학사(韓林學士) 황찬(黃瓚)이 귀양가 있는 요동(遼東)을 열세 번이나 왕래하면서 음운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였다. 이리하여 사성(四聲)을 연구함으로써 세종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를 크게 보필하였다.

경오(庚午)년 2월 18일 세종이 승하(昇遐)하고 문종(文宗)이 대위(大位)에 오른 후에도 선왕의 뜻을 이어 집현전 학사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입직(入直)하는 학사들에게는 때때로 주효(酒肴)를 하사할 뿐 아니라 내시에게 명하여 금구(襟具)를 하사하여 학사들로 하여금 감읍(感泣)케 하였다. 그러나 문종이 보위(寶位)에 오른 지 2년 되는 임인(壬寅)년 5월 14일에 승하(昇遐)하고 12세밖에



노 은 단

안 되는 단종(端宗)이 보위를 계승케 되었다. 고명(顧命)을 받은 신하중에 한 사람인 우사간(右司諫) 성삼문은 어리신 왕이라 할지라도 군신(君臣)의 도리는 밝혀야 한다는 뜻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백의(白衣)로 근정전(勤政殿)에 나시여 군신들의 조하(朝賀)를 받으실 것을 상주(上奏)하고 문종 재세시(在世時)에 때때로 탁고(託孤)하시던 선왕(先王)의 은총에 보답하기에 충성을 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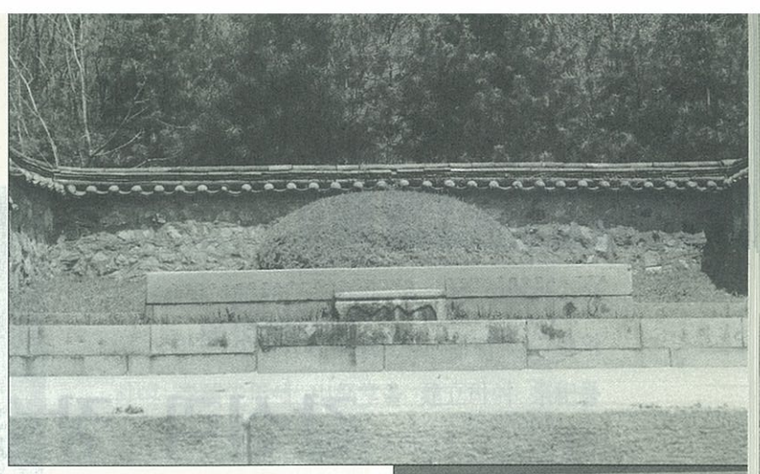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은 비범한 인물로 단종이 즉위한 후 신숙주(申叔舟), 정인지(鄭麟趾), 권람(權擥), 한명회(韓明澮) 등을 모사(謀士)로 하고 역사(力士)인 홍윤성(洪允成), 양순정(楊順汀)으로 고명대신(顧命大臣)인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정본(鄭本)을 죽이고 아우인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을 유배하였다가 죽이고 영의정(領議政)이 되어 국정은 물론이요, 병권(兵權)까지도 한 손에 장악하고 단종이 재위한 지 3년이 되는 을해(乙亥)년에 왕위를 찬탈(簒奪)하고 노산군(魯山君)이란 이름으로 영월(寧越)로 추방한 다음 그 해 윤 6월 16일 선위(禪位)의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다. 예조승지(禮曹承旨)로 국보(國寶)를 보관한 성삼문은 통곡을 금치 못하고 여러 차례 자결할 것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자결하는 용기로 단종의 복위(復位)를 위하여 사력(死力)을 다할 것을 결심하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병자(丙子)년에 명나라의 사절을 초청하여 대연(大宴)을 베푸는 자리에서 거사할 것을 결심한 복위파(復位派)는 성승, 유응부, 박정 등 운금이 하수(下手)하기로 하였으나 연회장소가 협착하다는 이유로 운금은 칼을 가지고 왕을 시위하는 관직의 입장이 허락되지 아니하여 다음 기회를 기다리던 중 김찬이란 자가 이 사실을 밀고하여 사실 전무가 탄로되었다. 세조는 대경 실색하여 즉시 성삼문을 친국(親鞫)하기 시작하였다.

세조의 힐문(詰問)에 삼문은 태연히 웃으며 「그대의 말이 모두가 옳다」하고 시인하자 세조가「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라고 꾸짖자 삼문이 「고성으로 고주(故主)를 복위(復位)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도리인데 배반이란 무슨 말이오? 내 일찍 죽고자 하였으나 죽는 것보다는 거사를 하는 것이 도리어 합당한데 거사 전에 발각된 것이오」라고 대답하였다. 세조는「너는 내가 주는 녹(祿)을 먹고 나르 따르지 아니하니 그것이 배반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꾸짖자 삼문은 「나는 진사(進士)가 주는 녹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을 적몰(籍沒)하여 보면 알 것이오」라 하였다. 세조가 대로하여 작형(灼刑)을 명하고 불에 달군 쇠로 전신을 단근질하나 추호도 안색의 변함이 없이 태연하였다.

세조 옆에 시립한 신숙주를 바라보며 「전일에 너와 내가 집현전에 있을 때 원손(단종을 말함)을 친히 안으시고 유신(儒臣)들을 돌아보시며 과인이 백세(百歲) 후에 경등(卿等)은 이 아해를 잘 보호하여 달라고 하시던 옥음(玉音)이 지금도 귓가에서 쟁쟁하거늘 너는 홀로 잊었느냐?」고 하니 신숙주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고 한다. 세조가 삼문의 인품과 재질이 아까워 여러 사람을 옥중(獄中)에 보내어 전향(轉向)하도록 설득하였으나 끝끝내 거부하고 사형장(死刑場)으로 끌려 가면서도 태연할 뿐 아니라 「너희는 현주(賢主)를 만나 태평하게 살라. 나는 지하에 가서 선대왕을 뵈오리라」 하고 형장에 도착하여 감형관(監刑官)인 김명동(金命童)의 입회하에 처형되었다.

그 당시 아우되는 삼빙(三聘), 삼고(三顧), 삼성(三省)과 아들 맹첨(孟瞻), 맹평(孟平), 맹종(孟終), 헌택(憲澤)과 어린 손자들도 다 같이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그 후 그 집을 적몰(籍沒)하니 창고에는 녹미(祿米)만이 쌓여 있는데 녹미를 받은 날자가 기록되어 있고 방에는 짚자리가 깔려 있을 뿐, 아무런 자산이 없었다고 한다.


노은단(내부)

성산문선생 영정

그가 형장으로 끌려가 최후로 남긴 절명시(絶命詩) 한 편이 전한다.

回頭日已斜 擊鼓催人命
黃泉無客舍 今夜宿誰家

그 후 영조(英祖) 무인년에 조정에서는 이조판서(吏曹判書)의 추증(追贈)이 있었고 시호를 충문(忠文)이라 하였다.

예산문화원

갈신리 장승제

〈갈신리 장승제 조사 개요〉

1) 소재지

충남 예산군 대흥면 갈신리 1구

2) 형태와 위치

예산읍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대률 방면으로 10분쯤(4Km) 가다 보면 도로변 우측으로 하갈신리란 조그만 마을이 있다.

이 마을 뒤편에는 금봉산이 마치 마을을 감싸듯 둘러쳐 있고 앞으로는 조그만 시냇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54호에 200명 정도가 살고 있으나, 이 마을도 역시 젊은 사람들의 이농 및 출향으로 대개 노인들이 다수였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마을 입구에 아름드리 고목(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이곳에 장승과 솟대를 세웠으나 고목이 1992년 6월에 원인 모르게 죽어 베어버렸고 금년에는 장승제를 지내며 마을회관 옆으로 장승을 세웠다.

장승은 약 50년생 소나무로 깎아 만든 원통형으로 방향은 동남방간을 향했으며 머리 부분과 눈·목이 음각으로 파여 있고 머리에는 탕건을 쓴채 귀는 한 자가 넘는 큰 편이며 눈은 타원형으로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며 인자하게 생겼고, 허연 이에 긴 수염의 소박한 모습은 딴 곳에서 보아온 어느 형태의 장승보다도 순수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3) 장승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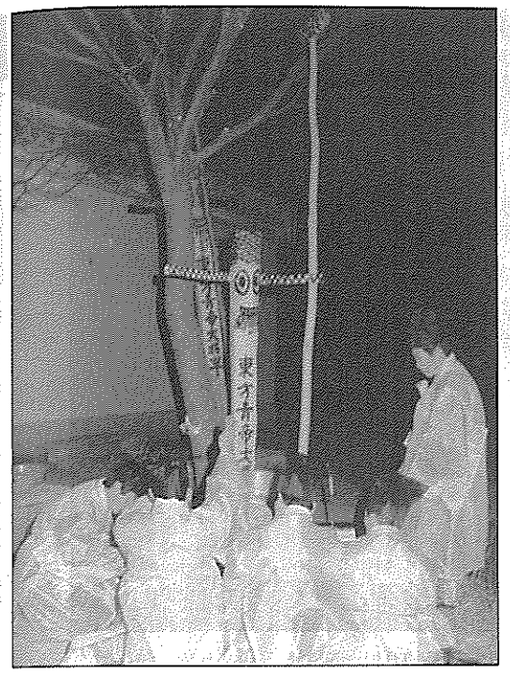
동방청제대장군(東方靑帝大將軍)

높이 : 215cm

둘레 : 68cm

4) 제작 년대 및 유래

장승제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산제당 상량문에 써 있는 글로 보아 약 370년 전으로 추측된다. (숭정원후오대한광



하당(본당:本堂)에서 장승을 바꿔 세우고 장승제를 지내는 광경

무칠년계묘중건 : 崇禎元後五大韓光武光武七年癸卯重建) 본제의 유래는 조선조 인조대왕 10년 때부터 상당, 중당, 하당을 설정하여 지내왔으며 상당은 마을 뒷산 금봉산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지내며 중당은 마을의 서방에(아름드리 소나무 3그루가 있었음), 하당은 본제로서 장승이 서 있는 곳에서 지내게 된다.

지금의 산제당 계곡을 올라가다 보면 커다란 절터가 있으며 일명 이곳 지명을 절골이라 부른다.

이곳 골짜기에 매어둔 우마살상을 시작으로 하여 밤마다 洞內까지 내려와 살상이 빈번하여 알고보니 大虎의 짓임을 알자 걱정이 태산 같았다. 설상 가상으로 원인 모를 병이 유행하여 병사하는 자가 부지기 수였다. 이에 당황한 동민들은 祝願祭를 지내기로 합의하여 崇禎午年에 山祭堂을 建立하여 祭祀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은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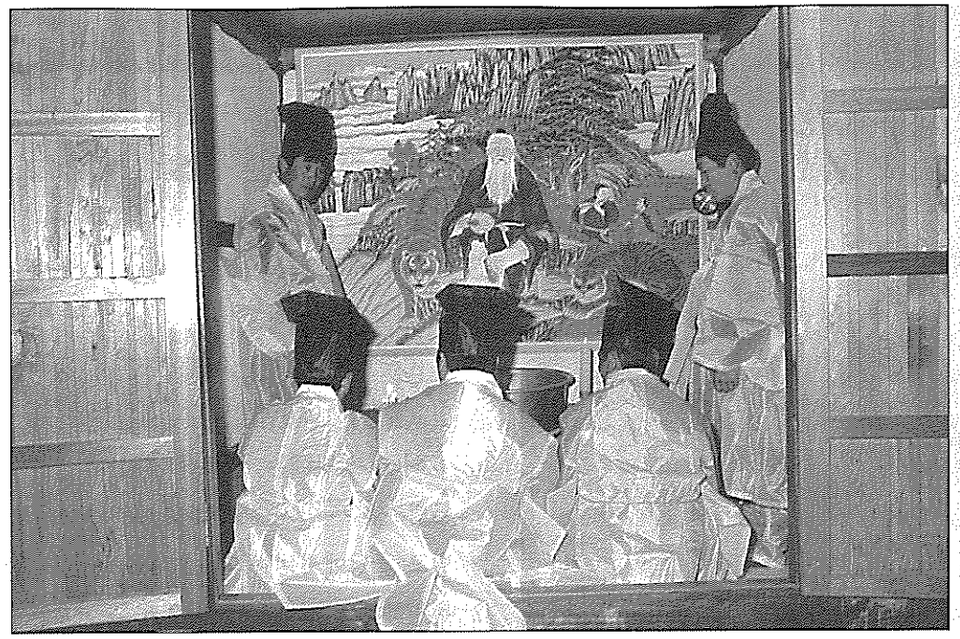
山祭堂은 光武 七年(1903년)에 중건한 바 있고 서기 1989년에 다시 재건하였다.

이곳 상당에는 금봉산 산신께 1년 내내 무병 장수·안가 태평하고 농사 대풍하기를 빌고 중당에서는 풍재·수재·화재를 없도록 축원하며 하당에서는 마을로 들어오는 악귀와 재난을 막아달라는 축원제로 一名 장승제라 한다.

〈 由 來 〉

지금부터 368년 전 숭정(崇禎) 5년 조선 인조 10년(1632)부터 산제를 지내왔다. 제사는 상당(上堂), 중당, 하당으로 삼당을 설정하여 상당은 북방 금봉산 아래 산제당에서, 중단은 본동의 서방 당산에서, 하당은 동남방으로 마을 입구에서 매년 장승제를 지낸다.

유래와 원인을 알아보면 지금의 산제당계곡, 일명 절골로 불리우고 있는(예전에 이곳에 절터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절골에 매어둔 우마살상을 시작으로 밤마다 마을까지 내려와 살상이 빈번하여 알고보니 큰 호랑이의 짓임을 알자 마을 사람들의



상당(산신당 : 山神堂)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광경

근심이 태산 같았다. 설상 가상으로 원인 모를 병이 유행하여 병사하는 자가 부지기 수였다. 이에 당황한 동민들은 축원제를 지내기로 합의 1632년에 산제당을 건립하여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이 산제당에서 금봉산 산신령께 일년 내내 무병 장수·안가 태평하고 농사 대풍하기를 빌고 중당에서는 풍재·수재·화재를 추구하는 서방 수위신께 축원하고 하당에서 서 있는 장승에게는 마을로 들어오는 악귀와 재앙을 막아달라는 축원제를 올려 이른바 장승제라 칭하였다.

본 행사를 행하기 위하여 매년 정초에 정일을 택하여 생기 복덕을 보아 제주(祭主)와 제관을 선발하여 봉사자로 정하고 제례 준비에 들어간다.

제일에는 동민이 총동원하여 농악을 치고 제당을 청소하며 한쪽에서는 장승목을 베어다가 장승 제작을 한다.

그 후부터는 부정을 피하고 출타를 금하며 몸을 청결히 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집안에 등불을 켠채 조용히 밤을 지샌다.

도화주는 제물을 가지고 술시경(저녁 7~8시경) 상당제를 시작으로 하여 묘시경(새벽 6~7시경)에 하당제를 마지막으로 장승제를 끝마치게 된다.

이렇게 산제를 지낸 후부터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어 태평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태안문화원

황도 붕기 풍어제

현재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는 황도 붕기풍어제는 안면읍 황도리에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어제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속으로 '붕기'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만선의 배에 다는 기를 말하는 것으로 긴 대나무 장대에 대나무를 쪼개서 묶은 다음 종이를 잘라 감은 후 끝에 붉고 푸른 종이꽃을 만들어 늘어지게 만든 기를 말한다.

황도(黃島)는 태안군 안면읍에 속한 섬으로 지금은 안면도와 연륙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농경지가 밭으로 되어 있어 보리가 익으면 누렇게 보인다고 해서 『황도』라고 불리워졌다.

♣ 풍어제의 유래

이 풍어제의 유래는 아주 오랜 옛날 짙은 안개가 자욱한 어두운 밤에 출어를 한 황도리 어선들이 항로를 잃고 표류할 때 지금의 황도 당산에서 밝은 불빛이 귀로를 밝혀 모두 무사히 귀항할 수 있었다. 황도의 어민은 이 때부터 황도 당산이 자신들을 보살펴 준 신성한 곳이라 하여 이곳에 당집을 짓고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황도 붕기풍어제의 유래가 되었다. 이 때 모시는 신으로는 진대(뱀신)였으나 17세기 말엽에 임경업 장군이 어로신(魚撈神)으로 등장하면서부터 황도 당집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차츰 어업의 다양화와 원양 어업의 진출 등으로 보다 더 많은 신을 모시게 되었는데 군황을 중심으로 장군, 성주, 사해용왕, 오방장군 등의 제신(諸神)을 모시게 되었으며 어로신으로는 역시 임경업 장군이 주신이었다. 그 뒤 1945년 조국 광복 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미신 타파 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에 의해 진대(뱀신화상)가 소각되었는데 이 때 임장군상도 제거

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며 오늘날에는 게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당집에 봉안된 신은 군왕 중심으로 성주, 사해 용왕장군, 삼불, 사해 오방장 등이 있다.

이는 1980년 4월에 복제된 것이다.

붕기풍어제는 매년(음력) 정월 초이틀부터 초사흘에 전 주민이 참여하여 1년간의 풍어와 마을과 어선의 평안과 무사를 기원하는 이 마을의 최대 의식으로 제의식을 주관하는 제주는 음력 섣달보름날 선출하는데 1년간 부정하지 않은 남자를 선출하되 선출된 사람은 거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출을 삼가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목욕 재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근신해야 한다. 특히 이날 제물로는 동쪽에서 구한 부정타지 않은 소를 잡아서 사용하며 돼지는 뱀과 상극이라는 점에서 이 마을에서는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당제날은 검정색 두루마기를 입은 선주들이 각자 선원 한두 명을 대동하고 제당에 올라가 제의식을 진두 지휘하며 일사 불란하게 솔선 참여하는데 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의 절차

소 잡기

제물을 구입하는데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소를 구입하는 일이다. 소는 상인이 부르는 대로 절대 깎는 법이 없으며 반드

시 숫소여야 하고 뿔이 반듯하고 털은 흔털 등 잡털이 없는 한우로 미리 깨끗한 집을 물색하여 적당한 집을의 것을 맞추어야 한다. 구입해 온 소는 더 이상 소라 불리지 않고 지태라고 불리우며 지태는 당주네 집에서 제지내기 전까지 깨끗한 것만 먹인다.

소를 잡을 때는 당집의 바깥 벽을 벗어난 곳에 마련되어 있다. 소는 반드시 바른쪽으로 쓰러트려야 하고 소가 죽기 전에 음매 하고 여러 번 울수록 마을의 운수가 좋다고 한다. 소가 숨을 거두면 목을 따서 조그만 통에 피를 받는다.

피고사

소의 뒷다리를 제외한 12부위의 살을 떼어서 피고사 제물을 준비하는데 피고사의 제물이 모두 진설되면 당주와 화주무당이 당으로 들어간다.

당오르기

본격적인 제물을 준비하여 당에 오르는데 당에 오를 때는 술동이를 인 당주와 화주가 가장 앞서고 그 뒤에 만신이 서고 그 뒤에 제물을 진 지게, 무당 풍물패, 마을 풍물패, 뱃기, 붕기, 마을 사람 순으로 선다. 당에 오르는 동안 당주 이하 제물을 진 사람들은 물건을 내려놓거나 쉬거나 해서는 안 되며 당집에 이르기 전 금줄이 쳐진 곳에 도착하면 상을 놓고 부정풀이를 한다.

본제

부정풀이가 끝나면 원당과 산제당을 구분해서 제물을 올린다. 제물을 올리기 전 원당에는 길지를 12개 걸고, 산신당에는 3개를 건다. 제물이 모두 올라가면 굿을 하면서 흥을 돋구다가 12시경이 되면 제를 지내는데 제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무녀가 나와 본격적인 열두거리 굿을 한다. 굿거리는 이튿날까지 계속되며 날이 새서 새벽이 되면 당주가 미리 마련해 둔 고기를 각 배에 나누어 주는데 각 배의 선원 중 한 명은 구럭(짚으로 꼬아서 만든 얼맹이)을 가지고 당에 오른다. 제숙은 큰 배부터 작은 배 순으로 나누어 주는데 제숙은 받는 순서와 관계 없이 줄달음쳐서 자기 배로 내려가 제숙 고사를 지낸다. 이 때 배에 피워 둔 숯불에 구운 고기를 제물로 삼아 고사를 지내는데 제를 먼저 지내야 기분이 좋고 돈도 많이 번다 하여 경쟁하듯 달려 내려가는 것이다.

당내리기

아침 9시 경이 되면 선주들을 위한 한 차례의 비손이 이어지고 당에 올라 길지를 바꾸는 작업을 하며 무당이 선주를 호명하면 미리 준비해 둔 꽃반과 뱃기를 들고 당안으로 들어간 선주를 앞에 두고 무당이 비손을 한다. 그 후 당내리는 순서는 기, 선주, 떡시루, 횃불, 풍물패, 선원, 무당패 순으로 배를 향한다. 배에 도착하면 기를 배의 이물에 꽂고 '당맞이 고사'를 지낸다.

요왕제

당을 내린 후 선주들이 결산회를 보는 동

안 무당패와 아녀자들이 주축이 되어 선창, 장벌, 연육교 순으로 요왕제를 지내며 끝이 난다.

본 황도 붕기풍어놀이는 1977년 제1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래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① 붕기타령

어야디어차 어시렁댓구나
허허어이 헤에이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한산 세모시 백포장 치고
황해도 손귀경 장화만 드러라
허허어이 헤에이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암에 수에 발마추어 놓고
50발 그물이 둥덩실 나떠나
허허어이 헤에이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연평바다 들어오는 조기
양주만 남기고 다 잡아 실었다
허허어이 헤에이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옥동도화 만사춘하니
가지가지 봄빛이 왔다
허허어이 헤에이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이물때 고작에 후기를 하고
허미대 고작에 장화발 늘여라
허허어이 헤에이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연평바다에 들어오는 조기
우리 배망자로 다 잡아 실었다
허허어이 헤에이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아짝저짝 막걸리장사
한잔을 먹어도 톱톱이 걸기다
허허어이 헤에이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뱃전에 아주머니 신수가 좋아
술통이 밥콩이 뒤집어 이고
허허어이 헤에이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칠산 연평 다불어 먹고
어안도바다와 농잔안친단다
허허어이 헤에이 어어으어어
에헤헤에헤 헤에요

붕기타령은 당제를 지낼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고기잡이 갈 때나, 또 만선이 되어 돌아올 때에도 뱃머리에 붕기를 달고 이 노래를 부른다.

당진문화원

기지시 줄다리기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인 기지시줄다리기는 그 규모면에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것과 같이 세계 최대의 줄이며 공동체 의식 중에 최고의 줄다리기 축제이다.

음력 매 윤년 3월 초순경(대제) 매년 음력 2월초(소제)에 행사되고 있는 기지시줄다리기는 조상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민속 행사로 실시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재난 예방과, 향토 방위, 주민 단합, 애향 애국심의 배양과 전통문화의 전승에 의의를 두고 행하여 지며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 문화재 지정

-1973. 12. 26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35호
-1979. 7. 3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제2호
-1982. 6. 1 문화공보부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1983. 6. 25 당진군 제1호 사회단체 기지시줄다리기 보존위원회(집행위원회) 등록
-1986. 11. 1 문화공보부 제352호 중요무형문화제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지정
-1989. 10. 31 문화재 전수회관 준공

• 다른 지역 문화재 행사 참여

-1979. 10. 16 공주 백제문화재(공산성)
-1976. 10. 17 대전 백제문화재(공설운동장)
-1981. 6. 28-7. 2 KBS 주관 국풍 81 참가 (서울 여의도)
-1985. 11. 2 학생의 날 행사(효창운동장)에 줄 제작 참여
-1987. 10. 30 충청남도 도민체전 공개행사 참여(대전)
-1992. 9. 1 충청남도 도민체전 식전 행사 참가(공주)
-1999. 3. 1 전통민속 대보름 맞이 문화대축제 행사에 줄 제작 참여(국립민속박물관)
-2000. 2. 20 남북통일 기원 국민연합 기지시줄다리기 재현(국립민속박물관)

위와 같이 기지시줄다리기는 많은 문화재 행사에서 기지시줄다리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러 지역에 전파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에 사용되고 있는 줄은 제작할 때도 그 규모를 말해 주고 있다.

줄에 사용되는 볏짚은 약 30,000속 소요되며, 연 500명이 (25명×20일 소요) 제작하여 길이는 암·숫줄 200m씩 총 400m이며 두경은 1.8m나 된다.

무게도 약 40t이다.

기지시줄다리기 참가 인원도 약 20만 명(줄다리기 약 5천명, 관중 195천 명)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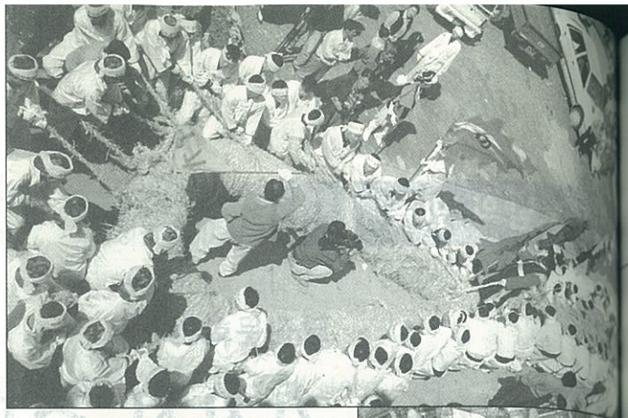
기지시줄다리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이나 고증은 없고 지금부터 약 400년 전부터 시행되었다고 전설로만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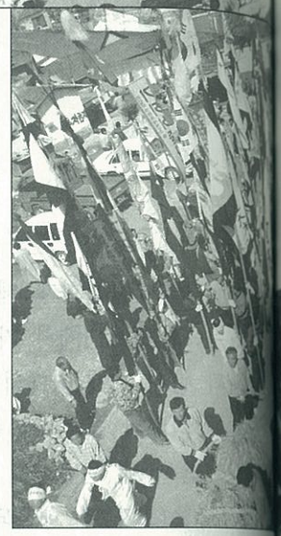
기지시줄다리기는 축원 행사로 당제, 용왕제가 있으며, 농악대회, 씨름대회, 그네뛰기, 궁도대회, 연날리기대회, 시조경창대회, 널뛰기대회, 윷놀이대회, 민요경창대회, 새끼꼬기 등을 민속 행사로 하고 있다.

줄다리기의 시조는 부녀자로 시발되었으며 삼베, 짚, 늑다리, 칡넝쿨 등으로 꼬아 소규모로 다렸다고 한다. 줄을 다리는 것은 베를 짜서 마전을 하는 것으로 양쪽에서 다려서 마전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옛부터 줄다리기하는 장소는 흥자골이라 한다.

지면이 평평하고 장방형이어서 아주 안성맞춤이다. 그 후 점차 마을은 평온해 지고, 재난이 방지되고, 환은 진압되고, 주민들은 기쁨을 되찾고, 그 효과가 점점 크게 나타났으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노소가 다같이





인지 전지로 합심하여 내려왔다. 때로는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중단되면 또다시 큰 재난이 발생하여 동요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다시 복원을 하고 이렇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줄다리기는 옛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수백 년이 지나도 이어져 내려오는 기지시줄다리기는 이런 면을 잘 보전하여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 후손 대대로 물려 주어야 할 전통 문화이다.

21세기는 정보 산업, 생명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의 시대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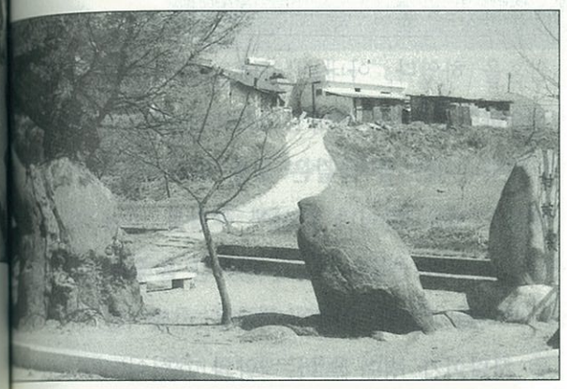
2001년에 개최되는 기지시줄다리기 문화제를 확대 개발하여 세계 속의 줄다리기 축제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적인 홍보 활동으로 중앙 정부에서 육성 지원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제 축제로 발돋움해야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다.

충남의 전설

아우내문화원

사사처(射蛇處)의 전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3대 대첩의 하나)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기골이 장대하였으며 병정 놀이를 좋아하고 언제나 대장이 되어 지휘하였다.

8살 때 길가에서 병정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때 마침 원님 행차가 있어 수행원이 길을 비키라고 하자 "한 고을 사또가 감히 진중을 통과 할 수 있느냐"고 호령하면서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원님이 말에서 내려 장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큰 재목이구나"하면서 길을 비켜 지나갔다 한다.

9살 때 일이다. 백전부란 입구는 백전천(지금의 병천천)이 굽이 돌아 흐르고 있었는데 이 백전천가에 물에 잠긴 바위가 있고, 그 속에 큰 굴이 하나 있었으며 이 굴 속에는 큰 이무기 뱀이 살면서 수시로 출몰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고 가축에 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이 때 장난꾸러기 소년 김시민은 이무기 퇴치를 궁리하였다. 뱀은 뽕나무 활에 쑥대 화살로 쏘아 잡는다고 고사를 읽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개울가로 가서 이무기 뱀을 나타나게 한 후 활로 쏘아 없애버린 곳으로써 장군의 출생지인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백전부락 어구에는 700~800여 년생 느티나무와 거북바위가 있는데 이 곳이 활로 이무기 뱀을 쏘아 맞춘 곳이라 하여 사사처(射蛇處)로 전해져 오고 있다.

성환문화원

남산 바위와 도영지(倒影池)

직산의 남산 바위 밑에 도영지라는 못이 있다. 이 못에는 남산 바위가 거꾸로 비쳐 산과 못이 함께 하는 조화된 경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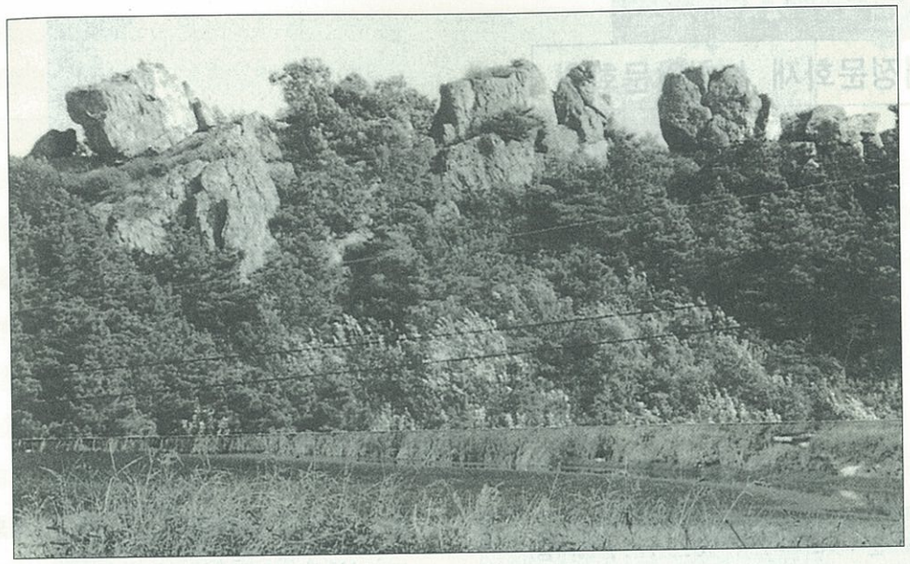
직산 남산 밑에는 옛날에는 벌판이었다. 아직 전장으로 개간되지 않은 땅이 많았다. 이 때 얼굴은 못 생겼지만 신체가 건강한 사나이가 직산 남산 밑에 와서 벌판에 수전(水田)을 일구었다.

일구어진 땅에는 곡식이 풍요하게 결실하였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몇해 안가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나라에 세곡을 많이 바쳐 충성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사나이가 자꾸 부자 되기를 바랬다. 여러 사람이 부자 되기를 기원하니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천석군의 부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추남이라 선득 배필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람이 성실하고 재산이 부유한지라 짝이 되겠다는 여인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였다. 아내는 자태도 곱고 행실도 정숙하여 부잣집 마나님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사나이는 꿈과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다. 재산도 날로 불어나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듯싶었다. 이런 세월이 얼마간 흘러갔다.

그러나 이 두 부부의 행복을 시샘이나 하듯 사나이가 병이 들어 백약의 효험이 없었다. 병이 점점 깊어져서 드디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내는 남편이 일구어 놓은 전장(田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에 묘를 썼다. 묘를 쓰고 나니 3일 동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 날이 개인 후 산을 바라보니 전에 없던 큰 바위가 솟아 있었다. 하도 신기하여 올라가 보니 사나이 묘는 없어지고 바위가 새로 솟은 것이다. 아내는 바위가 남편의 화신이라 믿고 바위를 향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웬일인지 사나이가 죽은 후 가뭄이



와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더니 풀잎조차 말라 버렸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근심에 젖어 시름없이 지냈다. 이 때 스님 한 분이 오더니 남산에 솟아 있는 바위의 상을 보니 워낙 부자의 상이라 재물이 모두 바위로 물리니 들녘에는 흉년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 대책을 물으니 스님은 "저 바위가 널리 은혜를 베풀어야 풍년이 들어 윤택하게 될 터인데 바위는 움직일 수 없어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지 못합니다. 바위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방법을 물으니 "산 아래에 못을 파서 물을 고이게 하면 바위가 비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바위가 아래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 못을 팠다. 못을 파고 물이 고이니 산의 바위가 물 속에 비쳤다. 그 때부터 풍년이 들어 온 마을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되찾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못이 하도 고마워서 모두 모여 들여다보니 바위 그림자가 거꾸로 비쳤다. 그 때부터 이 못을 도영지(倒影池)라 불렀다. 그림자가 거꾸로 섰다는 뜻이다.

물 속에 비친 모든 그림자는 거꾸로 비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정서가 윤택한 예사람들은 도영지 전설을 형성하여 착한 본보기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그 사나이는 원래 바위의 화신이기 때문에 얼굴이 거칠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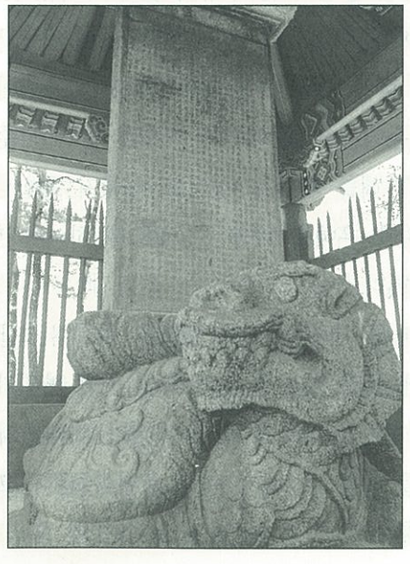
지정문화재 / 천안문화원

봉선홍경사갈비
(奉先弘慶寺碣碑)

※구　분 : 국보 7호 (1962. 12. 21 지정)
※소재지 : 천안군 성환읍 대흥리 319-8
※규　모 : • 지대석-175×250(㎝)
• 기단석-165×200(㎝), 높이 15㎝
• 비신받침-130×53(㎝)
• 비신-96×21(㎝), 높이 188㎝
• 이수-120×37(㎝), 높이 55㎝
• 총높이-280㎝
• 자수-937자
※서　체(書體) : 해서

①현황(現況) : 이 사적갈(寺蹟碣)은 귀부와 이수를 갖추고 있는 비(碑)의 형식이다. 귀부는 지대석(地臺石)과 한돌로 되어 있는데 귀갑 무늬와 어룡 모습의 머리를 오른편(서쪽)으로 돌리고 있는 점이 특이하며 목이 길고 비좌(碑座)는 귀갑 위 중앙에 장방형(長方形)으로 복연(伏蓮)과 앙연(仰蓮)으로 새겼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석은 정남향이다. 비석을 받치고 있는 귀부의 머리는 서향(西向)했고 발가락을 다섯 개씩 조식했다. 귀부가 에는 테두름 안에 구슬 무늬가 조식되어 있고 귀부의 꼬리는 뒷면에 길게 동쪽으로 서리고 있다. 비신 받침의 아래에는 앙연(仰蓮)을 측면 6겹, 전·후면 3겹을 조직했고 그 아래 복연(覆蓮)을 조각했다. 비신 전면의 외주(外周)는 두 줄의 테두름 사이에 당초문을 조각하였고, 상단에 「봉선홍경사갈기(奉先弘



寺碣記)」라 횡(橫)으로 篆刻하였다. 비문(碑文)은 2.4㎝의 해서(楷書)로 25행(行)이 종서(縱書)되어 있는데 이는 최충이 찬한 것을 백현례가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비신의 양측면에는 두 줄의 테두름 속에 그 슬문을 조식하고 가운데 忍各紋이 있으며 뒷면에는 글씨가 없다. 이수의 조각도 매우 생동감 있게 처리되었으며 화강암이고 전체 높이는 2.8㎝이다.

• 비문 내용

이 곳은 옛 직산현(稷山縣)의 땅으로 부근에 마을도 주막도 없으며 갈대가 우거지고 도적들의 출몰이 심하여 길손을 매우 괴롭혔다. 고려 현종은 좌우양가도승통(左右兩街都僧統) 형긍(逈兢)에게 「나의 아버지 안종(安宗)께서 왕자의 신분으로 불법을 독실히 받들었으며 백성을 위한 사업을 성취하려 하시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나는 그 뜻을 받들어 이 곳에 사찰을 지어서 길손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또 불법을 선양하고자 하니 대사(大師)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명하였다.

형긍(逈兢)은 왕의 명을 받고 대사 득총(得聰), 대덕(大德), 장림(藏琳)과 함께 시주를 거두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종은 다시 병부상서지중추원사(兵部尙書知中樞院事) 강민첨(姜民瞻)과 중추부사(中樞府使) 김맹(金猛)등을 별감사에 임명하여 함께 공사하게 하였으며 국가의 물자도 소비하지 않았고 농

민의 바쁜 일손을 뺏은 일도 없이 모든 역군들이 힘과 정성을 다하여 현종 7년(1016) 가을에 시작하여 현종 12년(1021)에 준공을 보였다.

법당의 건물과 대문, 행랑 등 모두 200칸에 달하며 불상과 여러 보살의 탱화, 종 등 모든 기구가 완성되는 나라에서 사찰의 이름을 봉선홍경사(奉先弘慶寺)라고 내려 주었다.

또 사찰의 서쪽에 80여 칸의 여관을 짓고 광연통화원(廣緣通化院)이라 이름 짓고 겨울에 거처할 온돌방과 여름에 거처할 마루를 갖추었으며 식량 마초를 충분히 비축하여 길가는 길손들의 편의를 제공할 뿐아니라 의지할 곳 없는 무리들에게 휴식처가 되게 하였다. 이는 안종(安宗)께서 생존시의 염원을 실현시킨 것이며 현종이 자비로운 뜻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문신(文臣)에게 사실을 기록하라 하시니 그 시말을 적어 역사의 자료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한림학사(翰林學士) 내사사인(內史舍人) 최충(崔沖)이 글을 짓고 국자승(國子承) 백현례(白玄禮)가 글씨를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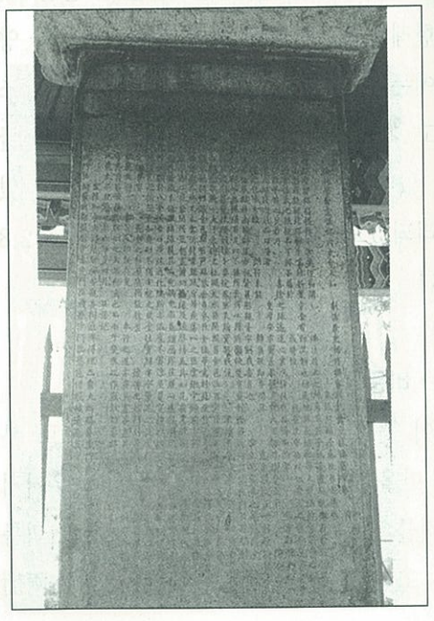
• 弘慶寺碣記 原文

翰林學士宣議郎內史晳人知 制誥廉史館撰

官賜紫金魚袋臣崔沖奉 敎撰

奉議郎國子丕臣白玄禮奉 敎書并篆

『臣謹按內典云招提者謂招引提携十方英俊弘團佛法居止之所焉又莊子說蓮攄而視仁義晉書論逆旅以濟公私今之於稜山縣成歡驛北路一牛鳴地新置寺舍者郎其類也 初是地無長短之亭人煙隔絶有蒲之澤劫賊頗多 雖岐路之要衝實往來之艱梗不可終否屬施 盛時惟 我聖上守位以仁秉文之德干戈戚揚 皆偃之矣禮樂刑政畢修位矣 若乃喜捨之緣通追之業求諸往代無得而踰嘗詔佐右兩街都僧統通眞光敎圓濟弘道大師臣何競而曰皆者皇考 憲景孝懿英文大王初九潛身大千歸命 每覽法華之妙說 深喜中道之化城 方欲效行 未能勳業朕卽善繼其志 永觀厥成一則救濟征人莫憂於險地一則招携緇侶載轄於法輪師宜力視贊襄躬親胥宇副我書貞之命主其慮事之權競受綸言便圖經始縱九廻而無倦須百足以不優所貴同心用將俊爰有廣利證玄大師賜紫沙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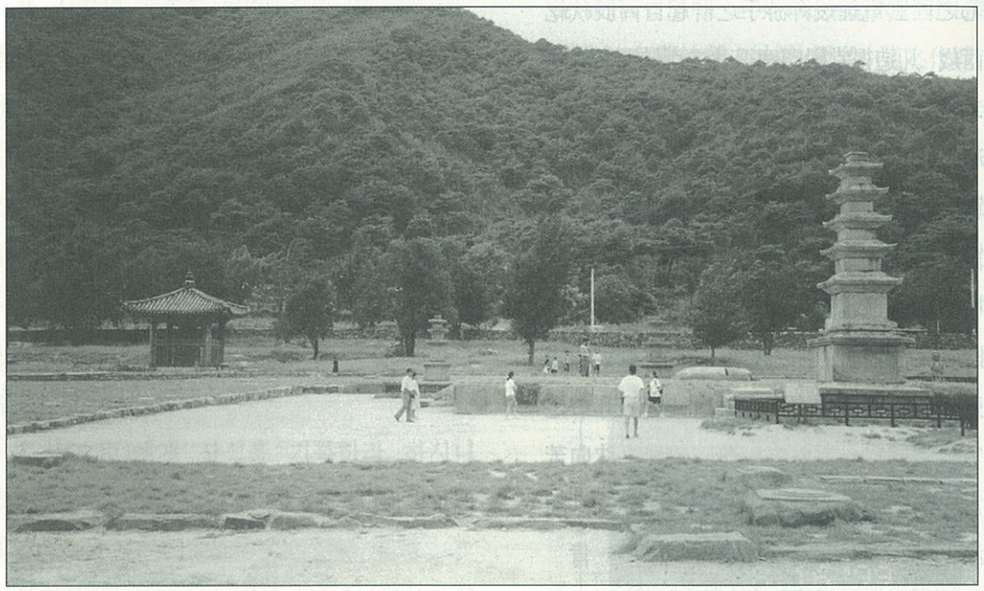


臣得聽靜慮修眞悟理大德賜紫沙門臣藏琳等競扶願穀枚卜要途蒸然來斯實興我役 上續差推誠致理翊戴功臣金紫興綠大夫兵部尙書知中樞院事兼太子太傅上柱國天水縣開國男食邑三百戶臣姜民膽中樞副使中大夫秘書監兼 太子賓客柱國宜春縣開國男食邑三百戶賜紫金魚袋臣金猛等爲別監使於是事諧共理謗絶宣驕疵徒奪於農時程物免煩於公陶人施瓦木客供材雪鋸風斥蜂聚蕩心之匠雲電鍾焂奔游手之群起自丙辰秋紀于辛酉歲 凡造得堂殿門廊得共二百餘間所値塑量諸功德像及鍾磬盖具如見在其數寔繁乃勅賜額爲奉先弘慶寺 莫不功由鳩勞若飛來像殿經樓麗異而宛疑兜率銅塔莊嚴而遙認爛陀旣當三寶勃興實可千燈相續 又於寺西對立客館一區計八十間號曰廣緣通化院斯亦溫盧冬密凉室夏寬積以糧貯之抹施躬急說伯之義漿 防備盜奸列陣瑠之樓鼓夫如是則不獨方袍之衆虛往實歸亦令足之徒宵盤書憩終見證眞之境蔑聞焚坎之沈向苦非酌古沈今先皇之弘願 隨機說敎崇彼佛之妙門則兼濟之仁幾乎而息 於權興有旨祖述無 肯之功旣存矣奉行之道亦廣矣盡善盡美念玆在玆今則申命儒生碑書盛事 臣思避繰吻學淺嚼筋雖長鄕形以之文無能爲也而小子斐然之作敢焉略述端倪聊裨實錄時 聖上御之十八戴太平紀曆之第六年夏四月 日謹記』

奉 宣權知寺主圓慧智廣普觀善辯通濟得理三重大師賜 紫沙門臣彦崇都監解行無垢大師賜紫沙門臣郎崇副都監副寺主沙門臣慧延僧殷妙邏遠義玄奉謙等奉

지정문화재 / 대천문화원

성 주 사 지



〈성주사지 전경〉

♣ 문화재 개요

- 지 정 별 : 국가 사적지
- 지정번호 : 제307호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4 일원
- 면　　적 : 11,800평(39,008㎡)
- 지 정 일 : 1984년 8월 13일
- 소 유 자 : 국유
- 관 리 자 : 보령시

♣ 연 혁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산을 등에 지고 평탄한 지대에 약 1만여 평의 옛날 절터가 있는 데 이 절터를 성주사지(聖住寺地)라고 부른다. 삼국사기, 또는 삼국유사를 보면 성주사(聖住寺)는 백제 법왕에 의해서 초창된 오합사(烏合寺)를 지금의 성주사라 한다.

1960년부터 출토되는 비편(碑片)으로 보아 여기 절은 신라 문성왕대(文聖王代-46代)에 당(唐)나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무염국사(無染國師)를 맞아 오합사를 크게 중창(重創)한 본당(本堂)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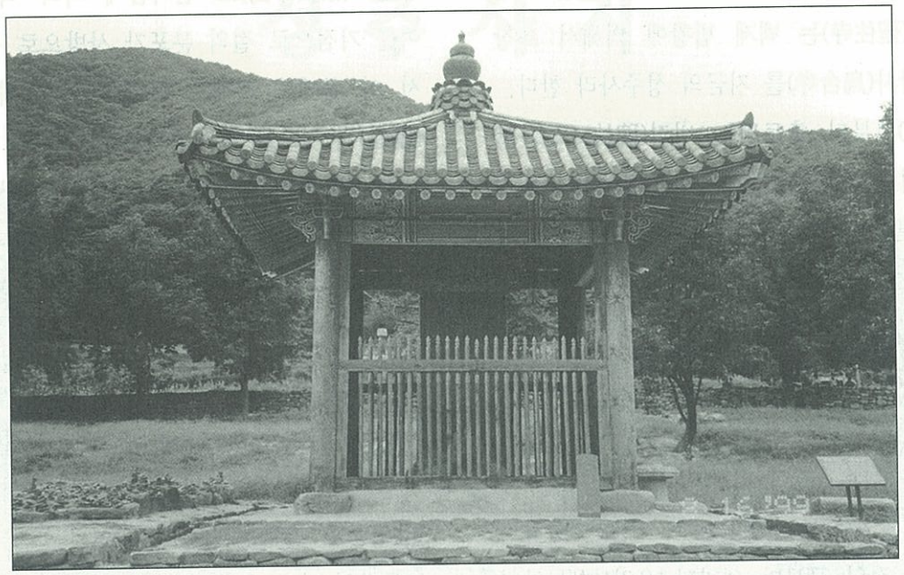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까지는 큰 절로서 불교계(佛敎界)에서도 손꼽히는 절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 25년(1952년)에 왜구들에 의해서 소실됨으로 그 면모가 사라진 절이다. 절의 규모가 얼마나 웅장(雄壯)하였는가는 지금 남아 있는 사찰의 흔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도 국보 제8호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朗慧和尙白月○光塔碑)와 보물19호인 5층 석탑, 보물 20호인 중앙 3층 석탑, 보물 47호인 서 3층 석탑이 있고, 그 외에도 동 3층 석탑, 석계단, 석등, 석물 입상(立像) 등이 있다. 성주사는 불교문화(佛敎文化)가 우리 나라에 들어옴에 따라 서해지방(西海地方)에 자리잡은 큰 절이었다. 신라 무열왕 8세 손인 무염 국사가 불교에 입문하고 당나라에 건너가서 불교를 익히고 돌아와 자리한 절이다.

그를 성인(聖人)이라 하여 성주사라 하였다 한다. 그 전에도 절의 처음은 백제(百濟)의 법왕(法王) 때 이미 오합사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선 불교가 산동(山東)에서 태안반도(泰安半島)로 건너옴에 따라 백제 부여를 기점으로 절의 분포가 사방으로 생기면서 이 곳에도 서해로 면(面)하여 일찍 창건(創建)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그 후 신라의 무염 국사 낭혜 스님이 머무르면서 절이 크게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주사는 그 후 더욱 번창하여 신라 경순왕(敬順王)이 찾는 절이기도 했었다. 불교가 더욱 번창한 고려시대엔 불문의 성주사이기도 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왜적(倭敵)의 침입(侵入)으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소실된 참으로 아까운 사찰(寺刹)이다. 지금도 불교문화의 많은 유물(遺物)을 간직하고 있다.

성주사지는 사적지 제307호로 지정되어 있다.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이 비(碑)는 신라(新羅) 진성여왕(眞聖女王) 4년에 건립(建立)되었으며, 현재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지내(聖住寺址內)에 위치(位置)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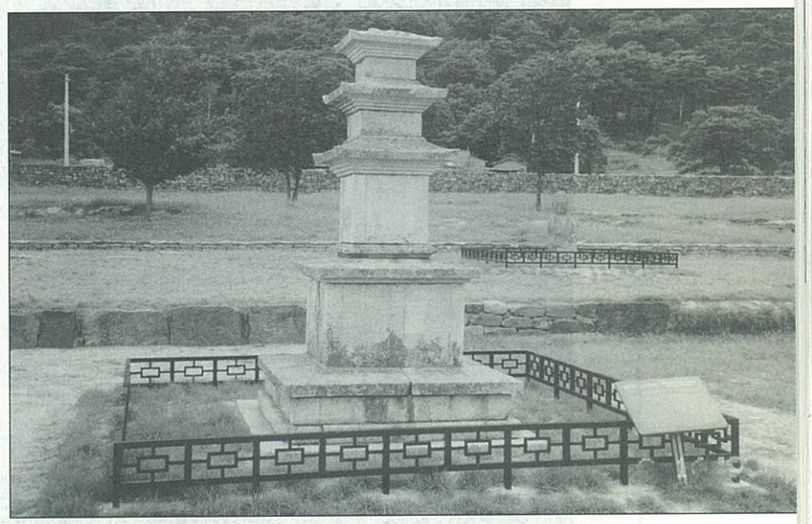
신라 무열왕(武烈王)의 팔대 손(八代孫)이고 진골(眞骨)인 무염 국사(無染國師)의 높은 불덕(佛德)을 빛내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무염 대사(無染大師)는 신라 충장왕(衷莊王) 2년(801년)에 출생하여 일찍부터 불교(佛敎)에 뜻을 두고 법성 선사(法性禪師)에게 수학(修學)했으며 헌덕왕(憲德王) 때에 당(唐)에 건너가 30년간 불도(佛道)를 닦다가 문성왕(文聖王) 7년에 귀국하여 오합사(烏合寺)에 몸담으니 많은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로 예견(豫見)하였던 바 만인이 그를 성인이라 칭하게 되었다.

그를 위하여 오합사 자리에 새로 성주사를 창건(創建)하니 후에 그를 성주대사(聖住大師)라고도 불렀다 한다.

비는 그의 시호인 낭혜와 그의 높은 불덕을 빛내기 위해 탑호(塔號)를 백월보광이라 하여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라 하였다 한다.

탑문은 당시 대문장가(大文章家)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이 지으시고 글씨는 신라말에 유행하던 구양순체(歐陽詢體)로 뛰어난 명칠(名筆)인 고운의 종제(從第)인 최인곤이 썼다. 탑문은 돌로 되어 있으며 귀부에 일부 손상이 있을 뿐이다. 높이는 4.55m 탑신(塔身) 높이는 2.52m이고 탑의 폭은 1.5m이다. 국보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주사지 서 3층 석탑



♣ **문화재 개요**

- 지 정 별 : 보 물
- 지정번호 : 제47호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80-4
- 수　　량 : 3층탑 1기
- 지 정 일 : 1963년 1월 21일
- 소 유 자 : 국 유
- 관 리 자 : 보령시

♣ **연　　혁**

성주사 창건시 통일신라때 세워진 삼층탑으로 원형보존 되고있다.

금당지 뒤에 나란히 서있는 3기의 섭탑중 서쪽에 위치하며 이중 기간에 세운 것과 판석형태에 갑석과 그리 높지 않은 탑신석으로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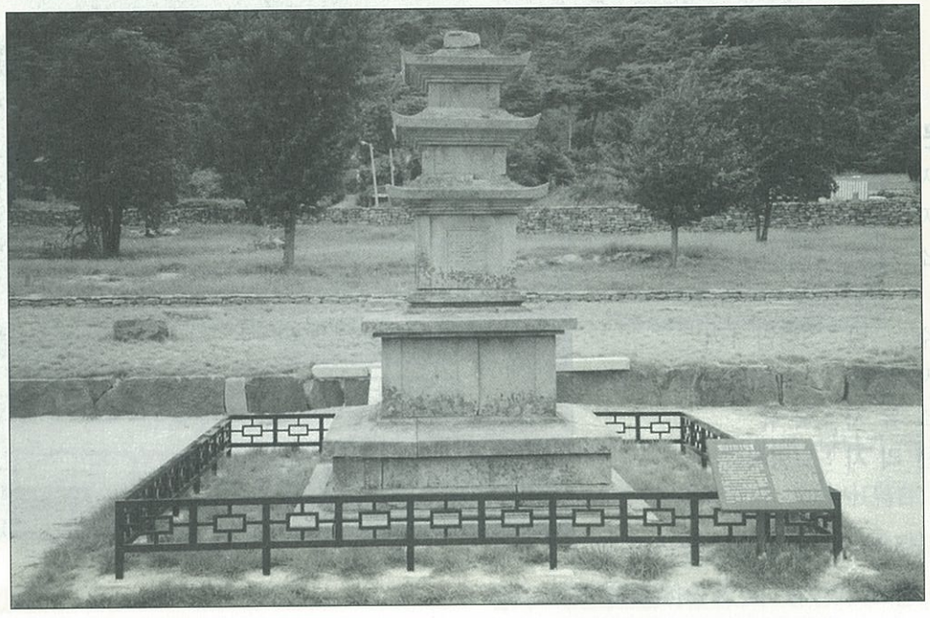
해인사에 있는 성주사 사적기에 성주사탑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91년 조사시 조선시대에 옮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9세기 통일신라말 조성, 신라탑 양식을 보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성주사지 중앙 3층 석탑

♣ **문화재 개요**

- 지 정 별 : 보 물
- 지정번호 : 제20호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80-4
- 수　　량 : 3층탑 1기
- 지 정 일 : 1963년 1월 21일
- 소 유 자 : 국 유
- 관 리 자 : 보령시



♣ **연　　혁**

성주사 창건시 통일신라 때 세워진 3층탑으로 원형 보존되고 있다.

금당지 뒤에 나란히 서 있는 3기의 섭탑 중 중앙에 위치하며 화려하고 선이 날카롭다. 이중 기단 위에 세운 것은 5층탑과 같으나 장중하고 안정감이 있다.

해인사에 있는 성주사 사적기에 성주사탑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91년 조사시 조선시대에 옮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9세기 통일신라 말 조성, 신라탑 양식을 보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충남의 문화 축제

서산문화원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Ⅰ. 축제 개요

축　제　명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기　　간		2000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일　　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장　　소		서산시 해미면 소재 해미읍성 내
주　　최		서산문화제위원회
주　　관		서산문화원
후　　원		서산시
기획·연출	총 괄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개발연구소
	부분연출	(주) 아트 카오스
축제장 구성		• 관아체험 구역　• 옥사체험 구역 • 군영체험 구역　• 장터체험 구역 • 민속공연 구역　• 민속공연 구역 * 총 6개 구역
행 사 구 성		• 관아체험(마당극 '그 때 그 사연을 아십니까', 판결 게임, 신분복식체험, 이순신 장군 퍼레이드 출발지) • 옥사체험(죄인압송행렬, 형틀체험, 옥중체험, 종교극 해미의 사도, 해미읍성 성지순례 출발지) • 군영체험(군장전시) • 장터체험(엽전 환전소, 점집, 전통음료 판매소, 포목점, 한의원, 주막, 특산물 판매소 등, 각설이 걸립) • 민속공연(박첨지 놀이, 달구놀이, 지점놀이) • 민속경연(투호 던지기, 지게짐 달리기, 물동이 달리기) • 기　　타(수문장 교대식, 소달구지 타기, 성곽 풍물놀이)
방문객 특화 서비스		• 안내 특화 서비스 : 축제 가이드 시스템 • 교육형 특화 서비스 : 각 구역별 역사자료 및 역사문제

2. 축제 내용

1. 관아체험 구역

1) 마당극 '그 때 그 사연을 아십니까'

- 시간 : 1일 4회(소요시간 15분)
- 개요 : 조선시대 해미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현령과 육방이 들어주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마당극 형식으로 꾸밈
- 진행순서 : ①출연진 등장 ②핀마이크 설치 ③행사고지 멘트 ④나발수의 시그널 ⑤재판극 시작 ⑥퇴장

2) 판결게임

- 시간 : 1일 4회(소요시간 30분)
- 개요 : 과거의 생활사에 관련된 문제를 사회자가 출제하면 관람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표시장소)로 이동하며 답을 맞추는 게임, 최종 생존자에게 경품 제공.
- 진행순서 : ①나발수 시그널 ②안내 멘트 및 집객 유도 ③○× 문제 출제 ④이동시간 마감 시그널은 나각으로 ⑤최종 생존자에게 경품 제공(진행요원이 경품 준비).

3) 신분복식체험

- 시간 : 상설운영
- 개요 : 양반, 중인, 평민, 장군, 군졸, 의원 등 조선시대 각 신분에 맞는 의상을 준비해 두고 원하는 체험자가 해당 복장을 입으면 안내원이 해당 의복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원하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이순신 장군 군영 퍼레이드에 참가할 사람은 접수를 받아 동참의 기회 제공.
- 진행순서 : ①신분체험 참가 방법에 대한 안내(접수 요원이 구두로)
  ②원하는 신분에 해당하는 복장 찾아 줌(의상 보관실에서 진행요원 2명)
  ③체험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자신의 옷은 접수처에 보관
  ④착복한 옷을 설명 요원이 설명해 줌
  ⑤사진촬영(원하는 경우)
  ⑥옷 갈아 입고 접수처로 해당 복장 반환

4) 이순신 장군 퍼레이드

- 시간 : 1일 3회 (소요시간 30분)
- 장소: 행렬구간[출연진 대기실(퍼레이드팀) → 동헌 앞 집결(퍼레이드팀+체험자) → 장터지나서 성 한 바퀴 → 동헌 앞 해산]
- 개요 : 해미읍성이 이순신 장군이 부임했던 곳임을 알릴 수 있는 이순신 장군 퍼레이드에 체험자 참여
- 진행순서 : ①퍼레이드팀 대기실에서 동헌내 신분체험 장소까지 이동
  ②신분체험 장소에서 참여객을 동참시켜서 출발
  ③취타대 연주
  ④장터를 지나 한 바퀴 행렬
  ⑤참여객 다시 신분체험 코너에서 의상 반환

2. 옥사체험 구역

1) 죄인압송 행렬

- 시간 : 1일 3회(소요시간 30분)
- 장소 : 압송루트(출연진 대기실 → 관아 → 장터 → 호야나무 → 옥사터)
- 개요 : 조선시대의 죄인들이 형장에서 소달구지를 타고 유배지로 유배를 떠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장터체험 코너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돌을 죄인에게 던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
- 진행순서 : ①소품 셋팅 ②출연진 준비 ③나발 시그널 ④압송 ⑤종료 나발

2) 형틀체험

- 시간 : 1일 3회(소요시간 20분)
- 개요 : 조선시대 형장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에 참가, 형집행 및 형벌을 체험할 수 있게 함
- 진행순서 : ①셋팅 ②사회자 멘트 ③출연진 등장 ④나각 시그널 ⑤시연 ⑥체험 ⑦체험자 경품 증정 ⑧종료 나각

3) 옥중체험

- 시간 : 1일 3회(소요시간 20분)
- 개요 : 간이 복원된 옥사 3칸을 방문객들이 들어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옥중 체험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옥에서도 옥중극이 펼쳐진다.
- 진행순서 : ①셋팅 ②사회자 멘트 ③출연진 등장 ④나각 시그널 ⑤시연 ⑥체험 ⑦체험자 경품 증정 ⑧종료 나각

4) 종교극〈해미의 사도〉

- 시간 : 1일 3회(소요시간 20분)
- 개요 : 천주교 박해지였던 현장을 기리기 위한 종교극
- 진행순서 : ①셋팅 ②사회자 멘트 ③출연진 등장 ④나각 시그널 ⑤시연 ⑥체험 ⑦종료 나각

5) 성지순례 탐방 프로그램

- 시간 : 상설
- 개요 : 호야나무 - 자리개질 고문 맷돌 - 생매장터 - 옥사터등 순례 탐방 프로그램을 배치 천주교도들의 순례 탐방 유도

3. 군영체험 구역

1) 군장전시

- 시간 : 상설
- 개요 : 해미읍성에 군사 시설로 사용되었던 점을 살려 조선시대 군사 무기류를 전시하는 공간 마련

4. 장터체험 구역

- 시간 : 상설운영
- 개요 : 조선시대 장터 분위기 재현하는 세트장을 만든다. 장터의 모든 상인은 전통복을 입고 판매.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충족시켜 주는 장터재현
- 특산물 장터 : 생강한과, 어리굴젓, 관광 기념품 판매
- 주막 : 막걸리, 전통주, 전, 빈대떡 등 판매
- 전통음료 : 수정과, 매실차 등 판매
- 엿 : 엿가위 돌리기 시연 및 엿 판매
- 떡 : 떡메치기 시연 및 떡 판매
- 땔감 : 나무를 쌓아놓고 전시도 하며 통나무 쪼개기, 지게 지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약방 : 무료 한방진료
- 옷감 : 각종 옷감전시
- 방물 : 갓, 곰방대, 참빗, 효자손, 부채 등 전시
- 점집 : 사주팔자, 궁합 등을 봐 주는 점집 운영
- 각설이걸립 : 1일 5회(소요시간 30분) 장터의 신명을 돋구는 각설이패의 놀이마당, 장소/ 장터 앞 길가

5. 민속공연 구역

- 시간 : 1일 2회(소요시간 60분)
- 장소 : 출연자 대기실 앞마당, 민속공연장
- 개요 : 해미를 중심으로 서산 지역의 각종 민속공연 실시의 장
- 공연내용 : 박첨지놀이, 해미면 달구놀이, 지점놀이

6. 민속경연 구역

- 시간 : 각 읍면동 경연마당 - 1일 2회 시합, 놀이마당 - 상설운영
- 장소 : 대형 그네 앞
- 준비사항 : 시합 경기시 지역민 참여, 개방형 놀이도구 준비
- 개요 : 해미를 중심으로 전래놀이 체험의 장
- 경연내용 : 봇짐 달리기, 지게 짐 달리기, 물동이 달리기, 투호 던지기

7. 기타 행사

1) 수문장 교대식

- 시간 : 1일 4회 (6월 3일 개막식 앞서 10:50분 추가 시연)
- 개요 : 성문을 지키는 수병 교대식

2) 소달구지 타기

- 시간 : 상설운영
- 장소 : 구간/진남문 → 옥사체험 구역 → 진남문
- 개요 :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행사장 이곳저곳 둘러보며 동심에 빠져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 운영방법 : 전문 소몰이꾼이 엽전을 받고 원하는 체험자를 수레에 싣고 행사장을 돈다. 체험자는 환전소에서 돈을 엽전(이용권)으로 교환 후 소몰이꾼에게 엽전을 주면 이용 가능

3) 성곽 풍물놀이

- 시간 : 1일 6회(소요시간 30분)
- 장소 : 서편 성곽 위

Ⅱ.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의 주요 성과

"처음 개최된 축제임에도 대규모 방문객 유치와 높은 관광객 비율로 관광축제화"

1) 이틀간 약 15만 명의 방문객 유치

접근도의 약점과 축제장의 낮은 인지도에 의해 당초 1만여 명의 방문객을 예상하였으나 개최 당일 약 8만 여명의 방문객을 비롯하여 이틀간 서산시 인구에 버금가는 약 15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장기적인 축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방문객 수치는 충청남도에게 수년간 개최된 관광축제 및 지역 축제와 비교하여도 매우 주목할 만한 방문객 수치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99년도 충남지역에서 개최된 축제의 방문객 비교

축 제 명	기간(일)	방문객 수(명)		
		연 인 원	지역주민	관광객(국내)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2	150,000	101,250	48,750
보령머드 축제*	4	385,000	42,000	343,000
천안 삼거리 문화제	5	60,000	58,500	1,000
칠갑문화제	4	50,010	35,000	1,500
매헌문화제	2	50,000	30,000	17,500
기지시 줄다리기	2	15,000	12,000	3,000
만해제	2	10,000	8,995	1,000

※ 자료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1999)
※ 주 : 외국인 방문객 수는 표시하지 않음.
특산물 축제는 제외함.
*표는 문화관광부 지정 '99년도 문화관광 축제임

금번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는 충남지역의 2일간 개최되는 축제와 비교할 때 방문객 수에서 최고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년간의 개최 경험이 있는 충남의 타지역 축제와 비교할 때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의 집객은 매우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2) 전체 방문객 중 32.5%에 달하는 관광객 비율로 관광축제 또는 전략적 육성 축제로 발전 가능성 확인

금번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는 관광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광객 비율면에서 전체 방문객 15만 명을 추정할 때 약 32.5%인 4만8천750여 명이 서산 이외 지역에서 방문하였다. 특히, 조사 결과 관광객 중 대체로 가족 단위의 비율이 78.2%에 달하여 축제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에서 타 축제와 비교할 때 관광객의 비율 역시 월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1987년부터 개최된 천안 삼거리문화제와 비교할 때 5일간의 개최 기간임에도 총 방문객 6만 명 중 관광객이 1천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는 관광객 모객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축제기간 중 비교적 높은 방문객 소비 지출로 투자대비 생산적 축제로 평가"

1) 1억4천5백만 원의 투자로 약 7억5천만 원의 전체방문객 지출 유발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써 축제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는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1억4천5백만 원의 소예산으로 개최한 축제로써 조사결과 전체 방문객 총 지출 규모가 약 7억5천만 원으로써 투자대비 5배의 높은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번 축제의 경우 관광객의 비율이 32.5%로 비교적 높아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가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는 특산물 소재의 축제와 달리 역사라는 무형의 소재로 개최하는 축제로 축제상품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는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표 2] '99년도 충남지역에서 개최된 축제의 예산과 지역경제파급효과

축 제 명	기간(일)	예산(백만원)	지역경제파급효과(백만원)
천안 삼거리문화제	5	185	25
태안 군민의 날 축제	2	136	136
매헌문화제	2	115	440
기지시 줄다리기	2	28	17
만해제	2	50	50

※ 자료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1999)
※ 주 : 특산물 축제는 제외함.

[표 2]를 참고할 때 충남지역의 지역 축제의 경우 예산대비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보면 축제의 생산적인 면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번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2) 축제를 통하여 6월 중 서산지역 관광 시즌화 계기 마련

금번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중 관광객 5만여 명 유치(총 방문객 15만 명)는 서산시의 6월 관광 비수기를 성수기로 전환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축제기간 중 관광 성수기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축제장 주변 음식점과 서산시 중심가의 일부 식당들은 2일간 평소보다 약 2.5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소매점과 숙박시설 등의 판매액을 고려할 때 해미면을 중심으로 서산시는 축제 특수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태안이나 인근 온천 지역인 덕산, 예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관광지로써의 매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축제기간 중 새로운 관광 시즌을 창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장소 전략과 대학생 자원봉사단 참여 활성화에 의한 성공적인 지역 축제의 모범사례"

1) 기존 역사 문화유적지의 활용 극대화로 장소 전략의 성공

금번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의 최대의 강점은 무엇보다 장소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성곽과 비교적 잘 조성된 성내의 초목, 실제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된 호야나무와 동헌 등은 애초 해미읍성 자체의 관광 자원으로써 충분한 잠재성이 있었으나 단순한 유적지로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해미읍성이라는 '하드웨어'에 축제라는 생동감 넘치는 소프트웨어가 접목되면서 '살아 있는 성'으로 전환되었고 일시에 대규모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특히, 금번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는 소예산 축제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강점을 갖는데, 그 중 장소적 이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반시설 투자비를 크게 절감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역사를 소재로 전개하기위한 장소로써 성곽, 동헌 등은 별도의 시설비가 필요 없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관광 축제의 경우 축제를 위하여 축제 장소내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련 전시관을 짓거나 축제

기간 중 공간 조성을 위하여 입구 조형물, 대형 무대 설치, 주제 반영을 위한 상징물 등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는 이미 주제반영을 위한 축제공간이 이미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1억4천5백만 원의 소예산 축제가 가능하였던 요소라고 하겠다.

2) 지역 자원봉사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예산 축제, 방문객 만족도 향상

금번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의 또 하나의 강점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서산 지역의 대학교인 한서대 학생들과 배재대학교 재학생 160여 명으로 구성된 안내요원, 진행요원, 공연 엑스트라 요원들의 활동은 인건비 절감에 따라 예산 한계 극복, 축제의 순수성 부각,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 축제 운영의 안전성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사전 준비와 현장 투입에 일반 연기자를 활용할 경우 인건비의 지출이 상당액 예상되었으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다. 한서대학교의 자원봉사자들은 옛 복장을 착의하고 사전 홍보 길놀이, 축제 프로그램의 공연 배역 등에 투입되어 성실한 운영을 해 주었고, 배재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은 한 달 전 부터 진행·안내 요원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진행과 친절한 방문객 응대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시도하였다. 특히, 소예산으로써 비교적 미흡한 시설로 인한 방문객 만족도의 저하가 예상되었으나 비전문가임에도 안내 요원들의 각 프로그램을 안내·설명은 시설의 미비를 극복하고 축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 도우미를 활용할 경우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비교적 높은 인건비가 소요되나, 금번 축제에 참가한 지역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늦은 시간까지 방문객을 응대함으로써 방문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지역 대학생 자원봉사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축제의 운영상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및 일반 성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는 통제 및 관리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금번 축제에서 시도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준비 기간부터 실행 종료까지 이탈 및 불평 없이 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축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였다. 금번 축제 결과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또 다른 장점은 업무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 비해 빠르며, 활동적이라는 것이다. 단기 교육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의 새로운 축제 운영 모델 창출"

금번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 관 주도형 축제가 주도를 이루어 온 국내 지역 축제들 가운데 민간 전문가 주도형 축제운영 모델의 성공을 꼽을 수 있다. 해미읍성 축제의 주요 추진 조직은 서산문화원의 축제 개혁의지와 지역주민 참여 유도 등. 지역 축제 전문 개발연구소의 기획·연출과 역사 재현 등의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관련 이벤트 대행사의 3각 구도와 서산 시청의 축제 배후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축제 개발과 기획, 홍보, 연출을 대학연구소가 수행하였으며 이벤트 대행사의 시설, 장비, 소품을 중심으로 일부 프로그램 연출, 서산문화원의 축제개발 의지와 한서대학교와 각종 지역단체의 축제참가유도 및 각종 축제 지원 및 지자체(서산시 문화관광과)의 행정·예산, 시설지원 및 상인 통제가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어 금번과 같은 생산적인 축제를 개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 추진 조직은 모범 사례로 꼽는 몇몇의 관광축제 조직에서도 아직 실행하지 못한 이상적인 조직으로써 대개 비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관련 담당 공무원이 기획과 실행을 함으로써 많은 시행 착오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번 축제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인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은 민간 전문인의 장점이 크게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지역 축제의 관람형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점을 그간의 축적된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배치를 하였다. 기존의 축제 운영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형식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 전문인 주도형의 축제 추진조직 구도의 장점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축제 개발과 기획, 연출이 민간 전문인이 주도하면서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담당자는 본연의 전문적인 부문인 지역단체 섭외, 교통, 방문객 편의 등 행정 지원에 보다 충실할 수 있었다.

"시간 전력과 매체 전략의 성공에 의하여 축제 관광 상품으로써 해미읍성의 전국적 노출"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개최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화제성 부각을 위한 보도자료 준비 및 PR 전문가와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지상(紙上)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축제기간 중 대규모 방문객의 유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제거리가 되는 보도 자료

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총 14회 이상의 전국 및 지방단위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었고 결과적으로 홍보예산 절감과 방문객 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축제 정보 매체에 대한 조사결과 실제로 신문에 의한 방문이 전체 방문객 중 37.4%에 달해 신문을 통해 사전 기사 홍보가 매우 효과적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신문보도에 의한 방문객 유치가 1위로 부각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써 대체로 유명한 관광 축제의 경우 그간 축적된 지명도에 의해 구전(口傳)이나 TV 매체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는 초창기 축제임에도 신문 등에 축제를 노출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 전략의 성공은 초기 기획단계부터 매체의 선정과 노출 시기의 선택에 있어 세밀한 조사가 수반되어 가능하였다. 매체의 신뢰도와 비용면에서 신문이 가장 적절하였으며, 아울러 축제 기간의 설정에 있어 6월 초순의 경우 타 축제와 개최 시기상 경쟁을 회피할 수 있어 매체의 집중을 쉽게 유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축제 예정일로 되었던 2000년 6월 10일을 6월 3일로 앞당기는 판단이 축제시기 결정에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되었는데, 6월 10일은 정치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이슈에 의해 부각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10일 이후는 기상불안정으로 우천 등 기상으로 인한 애로 사항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시기 전력과 매체 전략의 성공으로 해미읍성은 무명의 유적지에서 축제가 있는 생동감 넘치는 관광지로 부각되었으며 방문객은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로 인하여 차기 축제는 물론 향후 지속적인 해미읍성 방문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7]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의 지상(紙上) 홍보 실적

지역구분	신 문 명	시 기	횟 수
전국단위	중앙일보	5.20 / 5.31	총 16회 이상 (사전 14회) (사후 2회)
	경향신문	5.24	
	세계일보	5.25	
	한국경제	5.25	
	동아일보	5.30	
	서울경제	5.31	
	스포츠서울	5.31	
	스포츠조선	5.31	
	일간스포츠	6.2	
지방단위	중도일보	5.16	
	대전일보	5.20 / 6.5 / 6.6	
	대전매일	5.23 / 6.3	

"방문객 지향형 축제의 성공적 사례"

1)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의 높은 만족도와 방문객 지향형 프로그램 운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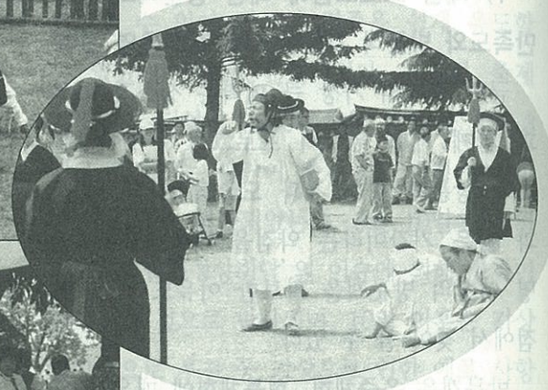
금번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장소적 특성과 함께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이라는 점이 방문객 평가 결과 도출되었다. 소예산과 짧은 기간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1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확보한 이유도 바로 이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방문객은 옥중체험, 형틀체험에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축제기획 당시부터 핵심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기존 해미읍성의 천주교 박해의 성으로써 고통과 슬픔이 '역발상 아이디어'로써 축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관광 매력 요인으로 부각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타 모든 프로그램들도 역시 7점 척도상에서 중간 점수인 4.0을 훨씬 웃도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최저 반응을 얻은 장터체험도 4.72로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어 체험 지향형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유추된다.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상 기획 초기부터 방문객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대체로 축제 방문객은 공연 프로그램에서 15분에서 20여 분 이상 머물러 관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약 20분씩 1일 수회 반복 운영함으로써 방문객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공연관람, 또는 관람 후 체험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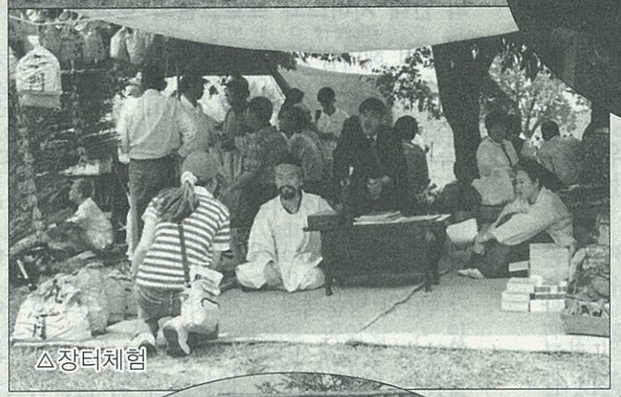
2) 역사 유적지로써 자녀동반 가족 대상의 안내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

금번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에서 새롭게 시도된 방문객 지향형 서비스 전략 중 무엇보다도 '축제가이드' 시스템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존 지역 축제에서는 기획된 바 없는 획기적인 시도로써 특히 교육적 목적이 큰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과 단체 학생 방문객의 호응이 있었다. 방문객 10~20여 명을 단위로 하여 축제의 내용 및 해미읍성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과 각 프로그램의 실시 시간대에 맞추어 이동하면서 참여 및 관람 방법을 안내하는 '현장 순환형 안내 서비스'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중·초등학생 대상의 교육 서비스로써 프로그램 기획상 구분된 각 구역별로 역사적 배경을 담은 설명과 축제와 관련하여 간단한 역사 퀴즈로 구성된 전단을 배포하여 학부모층에 인기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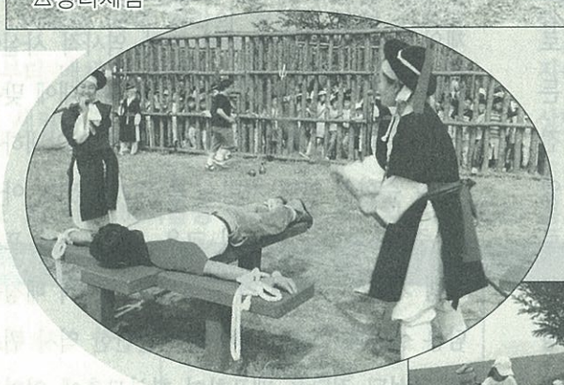
△형틀체험



△관아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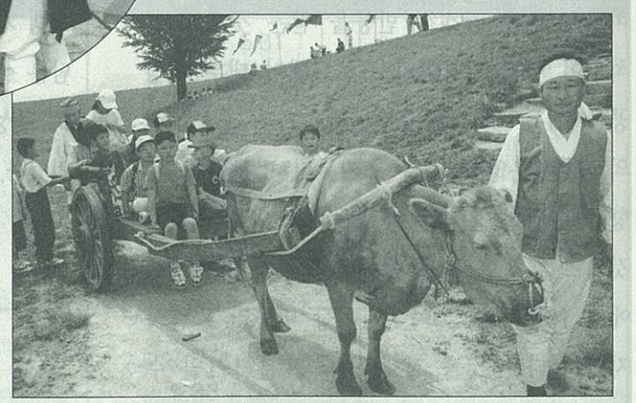


△장터체험



△형틀체험

△중교극(혜미의 사도)



△소달구지 타기

충남의 문화 축제

논산문화원

논산 딸기 축제

1. 행사의 목적

본 행사는 논산시 전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지역 특화 작목인 청정 딸기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딸기 농사에 수고한 지역 주민을 위로하는 한편, 전체 시민의 단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획, 시도 되었다.

전통적인 내포 평야의 중심인 논산 지역은 천혜의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30여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재배되어온 청정 딸기는 맛, 당도, 색깔, 향기 등에서 단연 그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산의 상징적 과일이다.

논산의 딸기는 전국 수확량의 13%, 충남 수확량의 57%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딸기야 말로 논산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이후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지역 문화제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인 축제 문화를 육성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 축제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딸기의 작황이 가장 왕성한 시점에 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논산 청정 딸기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구매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 행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 행사 개요

○기간 : 2000년 4월 22일~23일 (2일간)

○장소 : 논산공설운동장, 충남체고

○주최 : 논산시

○주관 : 한국예총 논산지부

3. 행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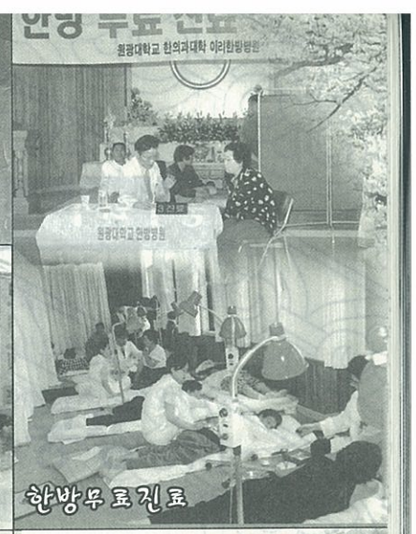
♣ 첫째날 행사(4.22)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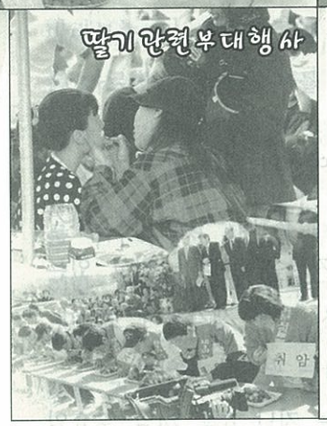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추 진 팀
축구대회(준결승)	09:00~11:00	공설운동장	도의새마을과
게이트볼대회	09:00~18:00	충남체육고	도의새마을과
논산사랑 열린결혼식	11:30~12:30	공설운동장특설무대	복지여성과
고무신 멀리던지기 및 즉석 장기자랑, 초청가수 축하공연	12:30~15:50	〃	세 무 과
청소년 댄싱대회	15:00~17:00	〃	〃
씨티즌 프로축구단 싸인볼 증정 및 축구결승	17:00~17:40	〃	〃

♣ 둘째날 행사(4.23)일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추 진 팀
식전행사(지와바리시연)	09:20~09:50	공설운동장	건 설 과
개회식 • 패러글라이딩 축하공연 • 오색 고무풍선 날리기 • 논산시민대상 • 딸기유공자시상	10:00~10:30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특설무대	자치행정과
육군의장대 시범	10:30~10:50	공설운동장	기획감사담당관실
노성두레풍장시연	10:50~11:10	〃	회 계 과
육상경기(일반부 30대 400m계주)	11:10~11:40	〃	도로교통과
딸기품평회	11:40~12:40	〃	농업기술센터
딸기가공식품경진 및 딸기 선별포장	〃	〃	〃
딸기판매전	11:10~17:00	〃	농 정 과
딸기관련부대행사(5종),딸기얼굴페인팅	11:10~12:40	〃	농업기술센터,문화공보담당관실
딸기쥬스 시음회 및 딸기 ○,×퀴즈대잔치	〃	〃	〃
딸기도전 내가최고(딸기 먹기 경기)	〃	〃	〃
가족이 함께 하는 훌라후프대회	12:40~13:50	〃	축 산 과
에어로빅 시범	13:50~14:00	〃	지 적 과
싸인볼증정(한화이글스, 현대걸리버스)	14:00~14:20	〃	문화공보담당관실
육군음악연주회 및 즉석 테크노댄스	14:20~15:20	공설운동장특설무대	기획감사담당관실
시민 노래자랑	15:20~17:30	〃	문화공보담당관실
한방 무료진료	10:00~17:00	공설운동장	보 건 소
카스맥주, 선양소주 무료시음	11:00~17:00	〃	문화공보담당관실
향토음식축제	〃	〃	〃
전통놀이마당(널뛰기광장)	〃	〃	산 림 과
논산 전통먹거리장터 운영	〃	〃	문화공보담당관실

4. 딸기축제 관련행사





5.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① 축제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딸기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논산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가까이에 있는 관촉사의 미륵불과 양촌면의 성삼문 사당 및 묘소, 탑정호 유원지, 계백장군 묘소, 강경포구 등을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② 딸기아가씨 선발 대회를 부활시킴으로써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미의 사절이자 딸기 홍보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6. 총 평

새 천년 맞이 시민 대화합의 한마당인 논산딸기 축제는 행사를 주관하는 측과 딸기 농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치루어진 완성도 있는 축제였다. 또한 단순히 즐기는 축제에서 벗어나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토양에서 유기 농법을 이용하여 전국 제일의 딸기의 맛, 당도, 향기를 자랑하는 논산 신선 딸기 생산에 임한다는 면모를 보여 줌으로써 축제의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 준 행사였다.

문화칼럼

공동체와 함께 하는 풍류 문화

안 용 산
(시인,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를 맞이 하여 우리는 풍류를 찾아 떠났다. 그것도 자동차가 아닌 배를 타고, 지금은 우리가 잊고 있는 풍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았다. 결과는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산문화원에서는 지난 6월 24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밤 늦도록 강물 소리에 젖어 시와 노래 그리고 춤이 하나로 어우러진 판을 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도시동인회와 함께 판을 열었다. 이 놀이판의 이름이 '금강풍류전 2000'이고 이 자리에는 시인으로 나태주, 권선옥, 김완하, 양문규, 이봉명, 안현심 시인 등 충남, 충북, 전북, 대전에 거주하는 금강권의 시인들과 금산의 김환식, 곽영두 시인 등이 참여를 하여 금강이라는 주제로 시를 쓰고 낭송을 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시인 뿐만 아니라 평소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시를 낭송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구경꾼이 아닌 주인이 되는 자리도 되었다.

또한 이 시대의 노래꾼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장사익씨도 참여를 하여 모두 함께 하는 노래도 불렀는데 장사익씨는 처음에 좌도시 동인들의 시 작품을 노래로 불러 이제는 우리 시대의 노래꾼으로 성장을 한 소리꾼으로 금산의 문화 현장에 자주 나타나는 단골이 되었다. 이 노래판에는 장사익씨 외에도 금산에서 활동하는 노래 모임 '풍각쟁이'의 흐드러진 노래와, 또 공주에서 활동하는 이걸재 시인도 참여를 하여 신명이 살아 있는 소리판을 엮었다.

시와 노래 사이를 메워 주는 춤판도 대전에서 활동하는 복성수씨와 신명풍무악 단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모든 사람을 들썩거리게 하였고 이러한 분위기에 질세라 금산 출신으로 대전에서 활동하는 일강 전병택씨가 일필휘지로 휘호를 쓰고 있었다. 이른바 금강 풍류라는 명제로 하얀 종이 위로 꿈틀거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용강서원 강당이었다. 금산농악보존회들의 처음과 뒷풀이 마당을 통하여 모두 하나가 되는 놀이판도 열려 시간과 공간이 새로 태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리를 우리는 풍류판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우리가 공연이라고 하면 관객과 연희자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존재하는 이른바 서양식 공연으로 하나가 아닌 둘로 존재하는 공연 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양식을 우리는 그 동안 문화이고 예술이라고 하여 추종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가면 졸고야 만다. 왜냐 하면 이러한 양식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익숙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그 동안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품위라는 이름으로 아는 체를 하여야 하였고 억지로 참여를 하여야 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라는 해석학적인 방식으로 보면 조화가 아닌 부조화이며 생성이 아닌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조화며 갈등이라고 보는 이 서양식의 공연을 두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서양이라는 생활 양식과 철학에서 보면 즉, 서양의 상식으로 보면 그 공연 방식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공연이 졸음이 아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방식이 혼란스럽고 전위적인 공연으로 보일지 모른다.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고 그들은 판소리를 무슨 전위적인 음악으로 평가를 하였다는 것을 보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소리와 몸짓이 그들에게는 전위적인 몸짓과 소리로 바라보는 이 해석학적인 차이를 두고 시비를 가르거나 우열을 가를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식을 버리고 서구화를 추구하면서 상실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다. 어차피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되어 가는 세계화의 추세로 이 세계사적인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면, 그 세계화와 우리 정체성을 상생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계를 흔히 세방화라고 한다. 가장 지역적인 개별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계인이 이해를 하는 보편성을 획득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역동적인 문화 양식을 이제 획득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윤이상으로 대표되는 음악의 성과와 백남준으로 대표되는 미술의 성과를 두고 그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정치적인 자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문화에서는 자치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우리

는 중앙이라는 허구의 그림자만을 모방하는 몰개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 문화 변별성을 추구하여야 할 지역의 축제나 행사가 가장 소비적인 행사로 전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바로 정치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속품이거나 하위 개념이 아니다. 문화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요 삶의 무기로 살아나야 하는 것이다. 정치 속의 문화가 아니라 문화 속의 정치가 되어야 하고 문화 속의 경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것이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삶의 가치인 것이다. 문화 마인드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금강풍류전이라는 행사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바로 우리 지역 문화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곳에 있었다. 금강이라는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용강서원이라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오늘이라는 문제 의식을 화두로 풀어본 놀이판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문화라고 판단을 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서원은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서원은 과연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아니, 관념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아직도 유교적인 순종과 이기 철학이라는 관념으로 서원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단절된 우리의 삶을 두고 어떻게 세방화라는 절대 절명의 시대 정신을 확보할 수 있는가. 우리는 금강풍류전을 통하여 이러한 단절과 관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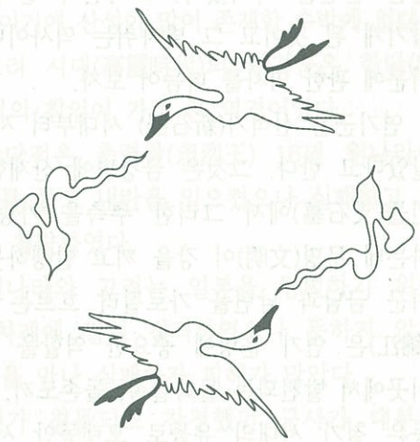
풍류는 무엇이던가. 풍류는 조선 시대 양반들이 즐기던 고급스런 문화 장치였던가. 아니다. 풍류는 바로 우리 선인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삶의 방식이었다. 이 풍류 정신은 우리 선인들이 자연인인 나와 사회적인 나, 그리고 우주적인 나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풍류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양반들만의 유희가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의 생활 속에서도 퍼렇게 살아 있던 몸짓이었다. 이것은 일노래와 풍장, 풍물, 두레에서 문화가 아닌 생존의 방식으로 존재한 우리 민족 모두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풍류는 우리가 지금 분석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문화가 아닌 살아 남기 위한 처절하고 장엄하게 살아 숨쉬는 삶의 양식으로 이해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풍류를 찾아 우리는 금강에서 확인하였다. 더 이상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닌 우리라는 양 날개를 펼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쓰는 날갯짓을 힘차게 펼쳤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창출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나비효과'를 삶의 공간으로 불러내어 달아부치고 맺어내어 풀어 갈 것이다.

나비효과라는 것은 기상학자가 분석한 것으로 북경의 나비 한 마리 날갯짓이 태평양을 지나 미국에 이르면 커다란 폭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다.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몸짓도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말한다. 이것은 사소한 현상에서 의문을 갖고 추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던 거대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창조의 세계인 것이다. 이 나비의 작은 몸짓이 바로 문화이고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풍류의 정신이다.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바람은 바로 인간의 몸짓이 아닌 신의 떨림인 것이다. 신의 떨림은 바로 우리 인간이 보다 나은 세계로 향할 때, 그것도 온몸으로 염원을 할 때 오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개별적인 관계가 아닌 우주와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떨림인 것이다. 이 떨림에는 바로 분석적인 가치로는 해석할 수 없는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고 또, 우주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날갯짓인 것이다.

이 바람의 날갯짓이 문화로 살아나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는 세방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 혼란을 우리는 과감하게 혼돈으로 전환을 시켜 창조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세계는 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화적인 사람이 아니다. 풍류 문화는 날갯짓으로 상징되는 창조적인 삶을 말한다.



문화갈럼

연기군(燕岐郡)의 역사(歷史)와 문화(文化)

조치원문화원장 장 영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역사(歷史)의 시작이요, 문화(文化)의 시작이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곳에 있을 것이고 그것은 발전을 의미한다.

사람이 태어나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이고 그 발자취는 역사이며 연기군에 관한 역사를 더듬어 보자.

연기군은 신석기(新石器)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그것은 금강변에 산재한 고인돌(支石墓)에서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문명(文明)이 강을 끼고 발생하듯 연기군 금남과 남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금강(錦江)은 연기 문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돌화살촉, 돌손도끼, 돌칼 등은 철기 시대의 유물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왔음을 짐작케 한다.

공주군(公州君) 석장리(石壯里)의 구석기(舊石器) 유적이 가까운 곳이며 금강으로는 중류의 위치가 연기군이고 보면 연기군은 어류를 채취하여 먹고 살기에 적당한 지역이었다.

조치원읍 신안리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돌화살촉으로 보아 미호천(美湖川) 흐름은 현재 조치원 일대를 경유하여 흘렀음을 짐작케 하고 고속전철 공사중인 충북 강외면 중봉리 일대에서 선사 유물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초기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짐작케 한다.[1]

선사시대에 이어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연기군은 백제국(百濟國)에 속했다.

백제는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것은 물론 이웃나라[2]까지 전해 준 문화 선진국이었다.

1993년 12월 12일 부여에서 발굴된 봉래산 용봉 향로는 세계인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다. 그렇게 훌륭한 유물이 일찍이 발견된 예가 없다는 투로 온갖 메스컴은 열을 내어 보도했지만 우리 연기군은 왠지 씁쓸했다.

1960년대 동국대학교 황수영 교수에 의해 연기군 일대의 사찰(寺刹)에서 석불비상(石佛碑像) 7개가 발견되었다.

이들 비상(碑像)은 비암사(碑岩寺)에서 전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흩어져 땅 속이나 암자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황수영 교수에 의해 조사되어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었는데 각각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 중 계유명 전씨 아미타불(癸酉銘 全氏阿彌陀佛)은 좌우측에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이는 부여에서 출토된 봉래산 용봉 향로와 동일한 모습이므로 주목해야 한다. 이들 유물의 조각된 모습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백제 예술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계유명 전씨 아미타불(癸酉銘 全氏 阿彌陀佛)을 비롯한 석불비상은 백제가 멸망 후 10여 년 후에 만들어졌다. 아니, 만들기를 10년 걸렸을 지 모른다. 이들 비상이 왜 연기에서 발견되었을까?

연기군의 향토 사학자들은 비암사와 비암사 출토 석불비상의 존재는 이 곳이 주류성(周留城)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봉래산 용봉향로가 백제권 개발을 외칠 때 발견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연기군의 석불비상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1960년대 의·식·주 해결이 급선무일 때 발견되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소장되어 있는 곳도 연기군 연화사(蓮花寺)에 2점, 신안사 출토 1점[3], 공주박물관 1점, 청주박물관 1점, 동국대학교 1점이 흩어져 소장되어 있으니 보통 푸대접이 아니다.

석불비상의 중요성은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것과 연기에 터를 잡고 비암사란 절을 지었으며 비상(碑像)이라 불리우는 것이다.

비암사는 금이산성(金伊山城) 뒤에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 보면 운주산(雲住山)에는 산성이 두 개 있는데 금이산성(金伊山城)과 이성(李城)이 있다고 쓰여 있다.

또한, 전의 동쪽에 고산산성(高山山城)이 있고 이들 산성은 백제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연기군에는 산성이 많다. 시대별로 외침을 막기 위해 중요한 지역임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금강과 차령산맥을 끼고 있는 지리적인 면과 백제의 고도인 웅진성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이기에 산성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고려 시대(高麗時代)의 연기군은 합단(哈丹)적의 침입이 가장 큰 역경이었다.

합단적은 충렬왕(忠烈王) 16년 원나라에 반기를 들고 내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고려로 침략하였다.

원나라와 고려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진격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태풍을 만나 실패하자 피해가 많았다.

배가 침몰되고 참전했던 군사가 대부분 물에 빠져 죽었으며 정벌에 쓰일 군수 물자는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 준비했기 때문에 합단적의 침입은 커다란 위기였다.

조기에 막지 못한 고려는 결국 충렬왕[4]이

1) 1994년 충북대학교 이융조 교수 발굴
2) 일본
3) 1994년 임영수 발견

강화도로 피신을 해야 했고 합단적은 유유히 남으로 남으로 내려왔다.

연기 정좌산(正左山)에 머무른 합단적은 수만의 금은 보화와 미인을 약탈했다. 연기 정좌산에서 주둔하면서 목표는 공주 웅진성(公州 熊津成)을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으리라.

당시 고려의 삼장군인 한희유(韓希愈), 김흔(金忻) 인후는 목천(木川)에서 한밤중에 출발하여 동이 틀 무렵에 정좌산에 도착 기습공격을 가하자 죽은 시체가 공주 금강까지 30여 리 널려 있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을 연기대첩(燕岐大捷)이라 하는데 합단적을 연기에서 물리치지 못했다면 고려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조선 시대의 연기군은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 중 비암사(碑岩寺)의 수모는 가장 큰 손실인데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인해 연기의 토산품이 사라졌다.

비암사는 충청도에서 가장 큰 절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현재 비암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괴불에 쓰여 있는 문석에 의해 알 수 있는데 이곳에는 사찰에서 양성했던 승병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비암사는 큰 규모의 절로서 동·서·남·북에 건물이 있고 가운데 보존이 있어 5절로 구성될 정도로 큰 규모의 절이었는데 임진왜란시 왜병과 이 곳 승병과의 싸움에서 승병이 패하자 건물 모두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간신히 극낙보존[5](極樂寶尊)과 돌로 된 3층 석탑[6]만이 전해 내려온 것이다.

임진왜란은 비암사를 불태운 것과 비암사 근처에 있는 도공들을 모두 잡아갔다. 당시 연기와 전의의 토산품은 도자기였다.

도자기 중 분청사기를 많이 구워냈는데 왜병들에게 도공이 끌려가면서 연기의 도자기는 맥을 잇지 못하고 가마터만이 흙 속에 묻혀서 오늘에 이른다.

연기군의 도요지는 서민용보다는 관아에 납품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그릇 중앙에 쓰여 있는 예빈시, 인수부, 사선서는 궁궐의 중요한 기관명으로 이들 기관에 납품했던 도자기가 바로 연기에서 만들어졌다.

동면의 동진뜰에서는 영규대사에 관한 중요한 일화가 전한다. 영규대사가 계룡산에서 청주산성으로 가기 위해 이 곳을 지날 때 관군들이 앞을 다투어 도망치고 있었다. 영규대사는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어 도망가는 관군을 향해 내리치며 평소에는 나라의 녹을 받아먹던 놈들이 난리가 나니 제일 먼저 도망친다고 호통을 치자 도망가던 관군이 멈추어 합심하여 싸운 결과 청주산성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처럼 시대별로 연기군은 많은 문화 유적이 산재하며 이들 문화 유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은 물론 후손에 물려 줄 중요한 유산인 것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이처럼 역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며 역사를 기록할 줄 알기 때문이다.

4) 충렬왕 17년
5) 도지정 기념물 제 79호

문화칼럼

우리 민속 예술의 대표인 농악 그 원류의 기능을 찾자!

청양문화원장 안 종 일

농악은 우리 민속 예술의 대표적인 예술로 보고 있다.

농악놀이는 기풍과 당굿을 하는 정월부터 시작하여 7월에 호미씻기와 1년간의 농악 속에 풍년가가 한 해의 피땀 흘린 보람을 담고 협화를 이루는 농악으로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유한 예술품이라 하겠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고유한 전통 예술인 농악은 아득한 옛날 삼한 시대부터 가락마치 장단과 율동 속에서 그 생동의 율동적인 타음은 협화와 협동을 바탕으로 전승되고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삼한 시대부터 시작한 농악은 본래 생산 현장에서 율동적 타음으로 토착 신앙의 의식 음악인 무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장구한 역사 속에 고유한 우리 농악은 어떻게 해서 농악의 본래 기능은 무엇인가 알아 보면서 우리 고장이 타악기의 합주는 소리를 가중케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네 개의 타음이 하나로 이루어져 더욱 생동감을 주며 협화와 평등 속의 음악임을 알아보기로 한다. 본래 한국 농악이 원류를 보면 두렁쇠를 모체로 하고 있다. 논두렁과 논두렁이 생산 현장에서 율동과 타악으로 신명을 돋구는 사물놀이를 말한다.

난장쇠는 놀음마치들이 난장을 터서 놀며 흥을 돋구며 두둘기는 쇠, 그리고 비나리 쇠는 가가 호호를 방문하며 고사와 덕담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걸립패들이 비나리쇠 이밖에 뜬쇠는 완전 직업적인 농악이 잡이 들로 구성된 눈요기 거리며 상업적인 농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농악이란 이름 자체가 농촌에 생산 현장에서 생동감 속에 피어났던 협동심을 바탕으로 이루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통 예술의 대표적인 농악은 삼한 시대는 풍물이라 했고 삼국 시대는 풍장, 고려 시대는 매구, 오늘날의 농악이란 이름은 조선 시대 중기부터라고 전해 온다.

이러했던 농악의 원류(源類)를 알아봤을 때 기본 악기로 꽹과리, 징, 북, 장고를 사물이라 한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고유한 민족 예술이 대표적으로 전통을 이루고 있는 농악의 가락마치 장단을 보면 웃다리 농악을 비롯 좌도 농악, 우도 농악 등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꽹과리가 기본을 때리는 맥박이라면 북은 심장이 고동과 같이 뛰고 여울지는 징소리는 내뿜는 호흡에 비유되고 있다. 따라서 장고가 꽹과리, 징, 북을 매만져가며 도드락거리면서 마침내 사물은 하나의 흐름을 이룩하는 것이어서 이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농악은 이루어질수가 없다. 이와 같이 알뜰한 농악의 발달사속에 우리 고장이 농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래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민속놀이를 통해서 선인들의 지혜를 추려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농악 민속놀이 속에는 우리 선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꾸려온 생활과 멋, 모든 정신이 깃들어져 있고 깨뜨릴 수 없는 문화로 응고되어 있어,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농악은 또한, 둔전병들이 군악으로도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평야를 중심으로 발달한 경기 농악과 그 속에서 유랑 집단인 남사당패의 기예력이 합해진 웃다리 농악 노령산맥을 끼고 발달한 좌도 농악, 그리고 넓은 호남의 들에서 생겨난 우도 농악, 태백산맥의 맥을 따라 이룩한 영동 영서의 농악, 이어서 천안의 홍타령 농악등을 들 수 있는데 각기 그 지리적 조건에 적합하게 알맞은 진법이나 가락이 생겨났다고 볼 때 우리 고장에서는 이 중 웃다리 농악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의 흐름속에서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면히 그 맥을 오늘 날까지 이어져 왔음을 더욱 긍지와 자랑을 안고 있다. 우리는 가일층 민속 예술이 대표라고 보아지는 아름답고 멋있는 농악을 본래의 원류를 다시 정성을 다하여 찾고 전승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2000년도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 명단

충청남도지사 표창

- **심 화 영**(한국예총 서산지부)
- **김 종 우**(한국예총 논산지부)
- **황 선 경**(한국예총 홍성지부)
- **이 만 우**(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
- **길 일 기**(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 **전 제 숙**(천안문화원)
- **박 무 연**(성환문화원)
- **홍 덕 유**(서천문화원)
- **조 병 린**(예산문화원)
- **김 익 환**(청양문화원)

한국예총회장 표창

- **정 동 희**(한국예총 보령지부)
- **양 동 주**(한국예총 아산지부)
- **한 창 표**(한국예총 천안지부)

한국예총 충청남도지회장 표창

- **김 월 순**(한국예총 천안지부)
- **김 영 구**(한국예총 부여지부)
- **백 종 희**(한국예총 예산지부)
- **박 재 길**(한국예총 공주지부)
- **박 병 용**(한국예총 보령지부)
- **황 옥 순**(한국국악협회 충남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표창

- **김 병 모**(금산문화원)
- **조 병 희**(예산문화원)
- **임 호 달**(홍성문화원)
- **강 인 식**(태안문화원)
- **김 천 수**(조치원문화원)
- **박 영 숙**(당진문화원)

제44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

◐ **일시 : 2000. 11. 24(금) 10:30**

◐ **장소 : 충남도청 대회의실**

◐ **문화상의 취지**

우수한 연구 ·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향토문화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그 공적이 뚜렷한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수상자의 노고에 치하 격려하고 신지방 문화 창조에 기여

◐ **연혁**

- 1957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문화상 창설
- 1969년(13회)부터 충청남도로 이관
- 1999년까지 43회에 걸쳐 236명의 수상자 배출

예 술 부 문

田 興 秀

1938. 11. 5 生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3
한국고건축박물관장

♣ 약력

• 1953. 1	신암재건중학교 졸업
• 1955~1959	덕산 향리 스승인 대목장 김중희 선생으로부터 전수사사
• 1983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기능보유(목공 제608호)
• 1990~1999	(사)한국문화재 기능인협회장
• 1993~1998	문화재기능인 작품전(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등) 4회 개최
• 1998. 10	한국고건축박물관 건립
• 1999. 1~현재	(사)한국문화재 기능인협회 상임고문
• 2000. 8	국가지정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제74호 대목장)

♣ 공적 개요

- 1955년부터 한국 고건축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고건축문화재 보수 및 사찰 건립 기능과 비법을 전수 발전시켜 오면서 창덕궁, 동대문, 남한산성 등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복원수리, 마곡사, 수덕사, 법주사 등의 대웅전, 법당, 종각, 일주문 등 120여 동의 사찰을 건립, 전통문화유산 전승 보전에 심혈을 기울여 옴.
- 1998년 국내 최초로 평생 모은 사재 100억원을 들여 덕산 향리에 한국고건축박물관을 건립 전시, 관광객에게 독창적인 전통건축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헌신 기여함. 특히 1999년 예산군 (사)효행장학회 설립 발기시 2,000만원을 출연하여 경로 효친 및 선행을 실천하는 초 · 중 · 고 · 대학생 30명에게 매년 장학금 지급.

문 학 부 문

朴 敬 洙

1930. 8. 20 生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죽촌리 186
소설가, 수필가

♣ 약력

• 1943	서천 한산초등학교 졸업
• 1952	문교부 중등학교 교사자격 검정고시 합격
• 1983	금아, 마산, 조금초등학교 교사
• 1953	잡지사 「사상계」 입사 편집기자로 활동
• 1953. 7	국토건설본부 간사, 건설부 공보비서
• 1959~60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중앙신학교 강사
• 1975~현재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서림문학회 고문

♣ 공적 개요

- 1955년 『사상계』 소설 현상 공모에 「그들이」 당선, 문단에 등단 이후 50여 년동안 장편소설인 「흔들리는 산하」, 「동토」등 8편과 단편소설「碑」, 「화려한 귀성」등 50여편의 수필, 「가난한 장남의 기쁨」 등 100여편을 동아, 전남, 영남일보, 신동아, 현대문학, 월간문학지에 발표하는 등 작품 소재가 주로 농촌을 배경으로 한 많은 작품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농민, 고향 작가로 중앙과 지방문단을 풍미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향토서정 작가임.
- 2000. 5월에는 서천 한산모시관내에 지역 출신의 신석초 시비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시비건립기를 작성하는등 시비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는 등 우리 고장 문인 선양 사업에 앞장서 왔음.

교 육 부 문

崔 承 起

1926. 3. 11 生
충남 천안시 구성동 293-21
쌍용APT 1동 506호
대한삼락회 충청남도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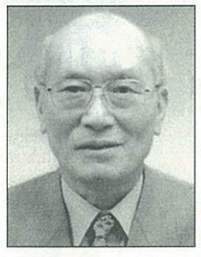
♣ 약력

- 1945. 3 천안농업중학교 졸업
- 1952. 3 국학대학 법문학부 국문과 졸업
- 1952. 2~71. 3 천안농고 · 대전공고 교사, 충남교육위원회 장학사 한밭중 · 충남공고 교감
- 1971. 3~80. 8 복수중 교장, 대전시교육청 학무과장, 서천고 · 홍성고 교장
- 1980. 9~91. 8 천안시 교육장, 천안여고, 유성중 · 천안 중앙고 교장
- 1995. 9~98. 8 충남교육위원회 의장
- 1996.11~현재 대한삼락회 충남도지회장

♣ 공적 개요

- 1952년부터 천안농고 교사로 교육계에 몸담아온 이래 광복 후 학교 교육 정초기와 6 · 25 혼란기에 황폐화 된 교육환경 재건과 민족성 교육에 앞장서 오면서 문맹퇴치 및 국가위기 극복정신 함양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히 충남교육위 장학사, 한밭중 · 충남공고 교감 재직시 중등학교의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 교과별 연구협의회를 운영 현장학습 교육 혁신에 기여함.
- 천안시교육장, 천안여고, 중앙고교장 등 재직시에는 학생 학력 신장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서실 연중 무휴 개방과 학생 탐구력 지도로 서울 명문대 등 상급학교 진학률을 매년 30% 이상 향상시키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함.
- 충남교육위원회 의장 피선시에는 원만한 지방교육 자치로 인사 행정의 공정, 예산 운용의 적정, 공교육의 충실 등 학교 교육 내실화에 주력함

지역사회계발부문



徐 仁 順

1932. 10. 2 生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73-64
합덕대건노인대학장

♣ 약력

- 1959. 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57. 4~72.12 조선일보 기자
- 1983. 9~93. 3 당진 솔뫼 피정의 집 관리사
- 1990. 4~현재 합덕 대건노인대학장
- 1997. 9~현재 한서대학교 사회교육원 합덕교육원 분원장

♣ 공적 개요

- 1983년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김대건 신부 탄생 유적지인 솔뫼 성지내 피정의 집 관리자로 年 수천명씩 찾는 성지 순례단을 위해 주변 청소부, 보일러공, 정원사로 궂은 일을 도맡아 자신을 희생하며 참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회 봉사자임.
- 1990년 합덕대건노인대학을 설립 개설하여 제6회에 걸쳐 졸업생 300명 배출 및 재학생 150명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앞장서 왔으며, 한서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여성지도자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 지역 여성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
- 사회봉사 모임인 작은 카네이션회를 구성, 사비로 봉사 회원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 불우한 무의탁 노인 35명을 선정, 매주 5회씩 호호 방문 배달해 주면서 집안 청소와 빨래 봉사를 실천하는 등 외롭고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지역 노인들을 위로 격려해 오고 있음.

체 육 부 문

姜 容 鎬

1934. 6. 18 生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681
서초삼익APT 1동 1105호
충청남도 체육회 부회장

♣ 약력

- 1957. 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 졸업
- 1962. 3~1972 보성고 체육교사, 대한씨름협회 경기이사 겸 기술지도분과위원장,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
- 1973~현재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강사
- 1976. 2 단국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졸업(석)
- 1997. 3~98.10 한국민속씨름연맹 수석부총재 겸 총재대행
- 1999.11~현재 재경홍성군민회 명예회장

♣ 공적 개요

-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62년 보성고 체육 교사를 시작한 이래 40여년을 중 · 고 · 대학 강단에서 교육자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쳐왔고, 주요 논문 및 연구 저서 30여편을 발간하는 등 학계 및 체육계 발전에 최선을 다한 공로자임.
- 1990년 충남 체육회 부회장 겸 실무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대전광역시 분리 이후 열악한 충남 체육의 재도약을 위해 스포츠 과학화로 우수 선수 발굴 관리 및 체육인 경기력 향상에 헌신 노력함.
- 제79회 전국체전시 야구, 럭비, 농구등 단체 5종목에서 동메달 획득으로 전국체전 참가 사상 3위 입상의 쾌거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충남 체육의 상위권 유지에 커다란 공헌을 함.

2000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table>
<tr><th>사업
순위</th><th>사 업 명</th><th>세 부 사 항</th><th>사 업 내 용</th><th>비고</th></tr>
<tr><td>1</td><td>문화원 종사자
실무 교육</td><td>• 일시: 2000. 11. 29
• 장소: 천안문화원
• 대상: 도내 17개 문화원
사무국장 및 회계
담당 간사</td><td>향토문화 창달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 문화원 종사자들의 사업기획 능력 배양과 업무 능률 제고를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td><td></td></tr>
<tr><td>2</td><td>향토사 연구
활성화</td><td>• 일시: 2000. 11. 7
• 장소: 부여문화원
• 대상: 향토사연구위원
문화원장, 문화원
임원 및 종사자</td><td>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국사 정립과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문화원당 1편 이상의 사료 연구 논문을 응모 받아 5편을 시상하고 이중 우수작 3편은 세미나를 개최함
<table>
<tr><th>성 명</th><th>제 목</th><th>등급</th></tr>
<tr><td>박춘석</td><td>백제불교의 전래 경로와 그 성지 조성에 대하여</td><td>우수</td></tr>
<tr><td>이정우</td><td>천안지역 월경지 연구</td><td>우수</td></tr>
<tr><td>황의호
황의천</td><td>보령 토진곳 목장성 연구</td><td>우수</td></tr>
<tr><td>신상찬</td><td>서산지방의 미륵불</td><td>장려</td></tr>
<tr><td>임영수</td><td>연기군 서면 용암리의 강다리</td><td>장려</td></tr>
</table></td><td></td></tr>
<tr><td>3</td><td>밝고 건강한
충남 가꾸기</td><td>• 일시: 2000. 10월~11월
• 장소: 충남 도내 문화원
• 대상: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의 중요함과 바른 예법을 주내용으로 하는 생활글을 공모하여 시상</td><td>충청남도 특수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선비의 고장, 예절의 고장 충남을 바로 알려 밝고 건강한 충남 가꾸기 사업에 동참하고 생활에 있어 예절의 중요함과 바른 예법을 주내용으로 하는 몸소 실천한 생활글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내 문화원에서 공모하여 시상함.</td><td></td></tr>
</table>

<table>
<tr><th>사업
순위</th><th>사 업 명</th><th>세 부 사 항</th><th>사 업 내 용</th><th>비고</th></tr>
<tr><td>4</td><td>문화원 운영
실태 보고대회</td><td>• 일시: 2000. 10월~12월
• 대상: 도내 17개 문화원
• 방법: 문화 기반시설 관리 평가서를 취합 책자로 발간</td><td>지방 문화원의 발전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문화원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여 상호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지방 문화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방 문화원의 활동을 진작시킴.</td><td></td></tr>
<tr><td>5</td><td>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td><td>• 일시: 2000. 10. 21
• 장소: 서산시 해미읍성
• 대상: 충남 도내 문화예술인 및 출향 문화예술인</td><td>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의 창의성과 21세기를 바르게 이끌어 갈 충남 문화예술인들이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역할을 다짐하기 위해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와 한국예총 충남도지회의 공동으로 개최함.
특히 이번 예술인대회는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로 널리 알려진 해미읍성에서 개최하였다.</td><td></td></tr>
<tr><td>6</td><td>충남문화
4집 발간</td><td>• 일시: 2000. 10월~12월
• 대상: 도내 17개 문화원
• 규격: 4×6배판
• 수량: 1,000부
• 내용: 문화원 활동상황
지역문화 칼럼</td><td>충남도지회가 출간하는 『충남문화』는 본 지회의 년간 활동 상황과 회원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 · 발굴 · 연구 상황, 그리고 충남도의 문화시책 등을 수록 간행하여 회원과 각 지회 및 문화원, 향토연구소, 개인, 필요 기관에 배포.</td><td></td></tr>
<tr><td>7</td><td>향토축제 개선을
위한 연수회</td><td>• 일시: 2000. 12. 21~22
• 장소: 대천 동백관
• 대상: 시 · 군 축제 담당자, 임원, 사무국장, 축제 주관단체 대표자 등.</td><td>도내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 축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앞으로의 축제 방향을 모색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 프로그램 및 제도 개선 사례 등을 발표 문화관광 산업 축제로 보완 발전시킴.</td><td></td></tr>
</table>

△충남 문화예술인대회

△향토사 연구 활성화

△향토축제 개선을 위한 연수회

△문화원 종사자 교육

2000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천안문화사랑 홍보물 교체	• 규모: 30평 • 장소: 천안역 역사내 • 기간: 2. 10~2. 20	천안역 역사내 문화홍보관으로 설치된 천안문화사랑의 홍보물을 2001년 전국체전의 붐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소개 및 도시현황, 천안CIP 소개 등으로 교체 천안의 예술 작품(서예, 서양화, 한국화, 디자인 등) 교체	
2	유명 작가와의 독서생활화 만남	• 일시: 2. 25(18:00) • 장소: 문화의 집 • 참여인원: 60명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출신 작가인 안수환 시인, 윤성희 평론가를 초청 독서감상법 및 글 쓰는 방법 등을 소개	
3	2000 문화학교	• 기간: 4월~12월 • 과목: 12개 과목 • 수강인원: 400여명	요일별 개별강좌 기타, 다도, 실내악, 한문, 사진 등 12개과목 유적지순례(6월 13일) - 여주 신륵사, 목아불교박물관 등	
4	수채화 교실	• 기간: 4월~12월 (매주 월, 화요일) • 수강인원: 50명	소묘, 데생, 수채화 초급 및 중급 과정 야외 스케치 및 전시회 관람 등 년 1회 작품전 실시	12. 28 ~30 작품전
5	시창작 교실	• 기간: 4월~12월 (매주 금요일) • 수강인원: 25명	예술강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론, 수사론, 문장론 등 시창작 강의 년 1회 시집 발간	
6	여류시인 김부용 추모제	• 일시: 4.23(11:00) • 장소: 광덕산 운초 묘역 • 참석: 100여명	다례, 헌시낭독, 시세계 조명 강의 등 문인협회, 향토사연구회, 문화가족, 회원, 천안차인회 회원 등 100여명 참석	
7	향토문화자료특집7 -천안문화유적 CD-ROM제작	• 자료명: 천안문화유적 총람 CD-ROM • 발행일: 2000. 3 • 제 작: 1,000매	천안의 문화유적을 CD-ROM으로 제작 - 천안시의 역사 및 국보, 보물 등 지정·비지정 문화재, 각종 문화유적을 컴퓨터로 검색해 볼 수 있도록 CD-ROM으로 제작	
8	내고장문화 알리기사업 -천안 문화유적 총람CD-ROM	〃	〃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9	어머니합창단 운영 -제7회 정기연주회	• 일시: 6. 16(19:00) • 장소: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 참여인원: 1,000여명	천안문화원 노래사랑 문화가족 어머니합창단(레이디스 싱어즈)의 일곱번째 정기연주회 단원 60명, 성악가 특별출연 매주 토요일 오전 합창연습, 영상음악감상	
10	"천안문화" 30호 발간	• 발행일: 6. 25 • 발행부수: 1,000부	향토문화 정보지로서 상반기 천안지역 문화예술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11	한국사진 작가협회창립 10주년 기념 초대전	• 기간: 7. 8~14(6일간) • 장소: 문화원 전시실	한국사진작가협회 천안지부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천안문화원 개원 4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초대전 개최	
12	개원 46주년 기념식	• 일시: 7. 10(10:30) • 장소: 강당 • 참여인원: 300여명	기념식(기념사, 축사, 유공문화예술인 표창, 사업보고, 지역문화선언문 낭독, 문화원 송가 합창 등), 리셉션 등 실시 기관, 단체장, 일반시민, 문화예술인 등 참석	
13	"화미회" 수채화전	• 기간: 7. 10~15 • 장소: 문화의 집 • 참여: 회원 11명	수채화교실 수강생 중 중급 과정을 이수한 11명으로 구성된 '화미회' 두 번째 작품전	
14	글짓기 교실	• 일시: 7. 21~29 (10:30~12:30) • 대상: 초등학교 3~6년생 • 인원: 50명 수강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50명 수강 작문지도, 독서지도, 원고지 작성법 등 강의	
15	향토축제 개선사업	• 일시: 7. 27(14:00) • 장소: 문화의 집	향토축제(천안삼거리문화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토론회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위원 등 30여명 참석	
16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학 축전 (여름밤의 반딧불의 추억)	• 일시: 8. 12(16:00~21:00) • 장소: 태조산 청소년 수련원 • 참여인원: 800여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봉숭아꽃물들이기, 문학(시창작)강의,시화전, 시낭송, 가족 동요부르기, 실내악연주, 퍼포먼스, 나팔꽃 동인 초청공연 등 1,2부로 나누어 실시	
17	꽃꽂이 교실 (작 품 전)	• 강의일시: 매주 금요일 • 작품전:9. 29~10. 1 • 장소: 문화의 집 • 출품인원: 30명	매주 금요일 오후 실시하고 있는 꽃꽂이 교실 수강생 30여명의 생화, 드라이소재를 이용한 생활, 예술 꽃꽂이 등 작품 전시	
18	제30회 학생 글짓기 · 사생 대회	• 일시: 10. 1 (10:00~17:00) • 장소: 천안삼거리공원 • 참여인원: 600여명	초 · 중 · 고생 대상(학교별 글짓기 · 사생부문 각 5명씩 추천 받아 실시) 당일 심사 후 시상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9	향토사료관 시설확충공사	• 기간: 10. 25 완공	향토사료관 시설 확충 공사 전시대 및 사료관 시설 보강 등 원장실 이용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20	문화정보 안내편람제작	• 기간: 11월초 발간	문화원 이용 안내 및 시설 현황 사업 내용 및 지향점 소개 각종 공간 활용 방안 제고	
21	향토문화자료 16집 "실록속의 천안인(上)" 발간	• 발행일: 11. 10 • 발행부수: 1,000부	조선왕조실록 속에 나타난 천안인을 발췌 수록	
22	한마음 실내악단 제7회 정기 연주회	• 일시: 11월 16일(19:00) • 장소: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부설 한마음 실내악단의 제7회 정기연주회로 클래식, 외국민요, 가곡 등 연주 및 특별출연 등 90분간 실시 단원 30명으로 구성 매주 화요일 오전 연습	
23	향토사연구소 운영 "향토연구" 제11집 발간	• 발행일: 11. 20 • 발행부수: 1,000부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정기 회지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연구 논문 수록	
24	"천안문화" 31호 발간	• 발행일: 11. 30 • 발행부수: 1,000부	향토문화 정보지로서 하반기 천안지역 문화예술 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25	2000 오늘의 천안미술전	• 기간: 12. 12~17(6일간) • 장소: 전시실 • 출품인원: 70여명	천안지역 최대의 미술전으로 천안지역 작가(서양화, 한국화, 서예, 공예, 디자인, 조각 등)를 초청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여 실시 신청 접수 후 70여점 전시	
26	향토사료 조사 · 수집사업	• 기간: 년 중	문헌(고문서 등) 및 유물 등 각종 자료 및 원고 수집	
27	영상문화교실	• 기간: 11월~12월	영상자료(DVD, VCD, CD-T, CD 등)구입	

△유명 작가와의 독서 생활화 만남

△천안문화사랑 홍보물 교체

△개원 46주년 기념식

△향토축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꽃꽂이 전시회

△어린이 글짓기 교실

△어머니 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여류시인 운초 김부영 추모제

△청소년 문학축전
–여름밤의 반딧불의 추억

△제30회 학생 글짓기 · 사생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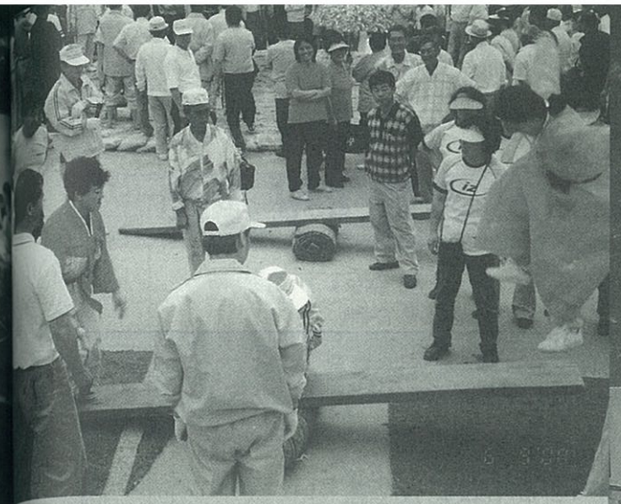
2000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단오절민속놀이 경 연 대 회	• 일시: 6월 9일 • 장소: 아우내 장터 • 참석인원: 1000명	• 목적: 전통민속놀이의 보존 • 내용: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 국악단, 풍물패 초청 공연	
2	「대 록 지」 국역	• 일시: 12월 • 발행처: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량: 500부	• 목적: 지역 향토사의 정립을 위한 사료 연구 • 내용: 대록지 국역본 책자 발간	
3	「우리고장문화」 17호 발간	• 일시: 12월 • 장소: 아우내문화원 • 발행부수: 500부	• 목적: 향토사료의 체계적인 정립 • 내용: 향토사료집 발간	
4	유관순열사 추모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일시: 10월 12일 • 장소: 유관순 열사 사적지 • 참여인원: 256명	• 목적: 유관순 열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창작활동 기회 부여 • 내용: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맞아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5	내 고장 문화인물 발 굴	• 일시: 12월 • 장소: 아우내문화원 • 발행부수: 500부	• 목적: 조병옥 박사에 관한 전기 발행 • 내용: 전기 발간, 각 문화원, 기관 등에 배포	
6	풍물놀이 강습회	• 일시: 12월 • 장소: 각 면소재지 • 참여인원: 180명	• 목적: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기회 제공 • 내용: 강사 초청 풍물강습회 개최	
7	문화유산 현장 답사	• 일시: 12월 • 장소: 경주 • 참석인원: 50명	• 목적: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기 위한 계기 제공 • 내용: 문화유적지 테마 기행	
8	전입주민 초청 「우리고장문화 알리는날」 운영	• 일시: 10월 25일 • 장소: 독립기념관, 광덕사 • 참여인원: 80명	• 목적: 향토 문화 이해와 애향심 고취 • 내용: 향토 유적지 기행	
9	꽃꽂이 강좌	• 일시: 10월~12월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여인원: 연 250명	• 목적: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기회 제공 • 내용: 강사 초빙 꽃꽂이 강좌 개설	
10	청소년 문화 강좌	• 일시: 10월 26일 • 장소: 한국직업훈련원 • 참여인원: 500명	• 목적: 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 • 내용: 컴퓨터 강좌 개최	
11	장승제 보존	• 일시: 2월 18일 • 장소: 성남면 봉양리 • 참여인원: 150명	• 목적: 사라져가는 장승제의 보존 및 전승 • 내용: 장승제 재현	
12	작은 도서관 운영	• 일시: 상시 • 장소: 아우내문화원 • 참여인원: 무제한	• 목적: 학습 기회 제공 • 내용: 상설 도서관 개설 운영	

△단오제 개회식 광경

△단오제 풍물놀이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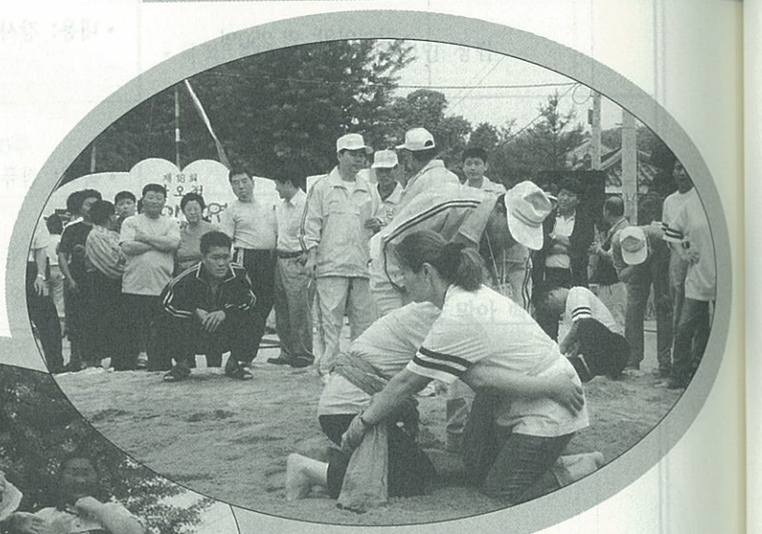
△단오제 그네뛰기 경기 광경



△단오제 널뛰기 경기 광경

△장승제 광경

△꽃꽂이 교육 과정



△단오제 씨름 경기 광경

△단오제 장기자랑 광경

△유관순 열사 추모기념 백일장 광경

△유관순 열사 추모기념 사생대회 광경

2000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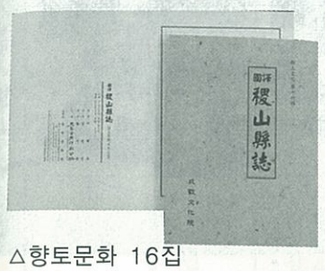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향토문화 16집 발간	• 발행: 2000. 9. 2 • 발행부수: 1,000부 (4×6배판 418쪽)	직산 현지 번역	
2	제10회 내고장고적순례	• 일시: 2000. 5.30 7.6 8.1 8.3 8.7 8.9 8.11 • 장소: 천안시 일원 • 참석인원: 315명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유적지 답사를 통한 애향심 고취	7회
3	컴퓨터교실	• 일시: 2000. 8. 24~9.4 • 장소: 울트라킹 PC방 • 참석인원: 200명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화 사업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	10회
4	여성취미교실 (꽃꽂이강습)	• 일시: 2000. 8.16 8.22 8.29 9.5 9.19 9.26 10.5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140명	생활 꽃꽂이 지도 수강생 작품 전시회 (10.28 성환배 축제 時)	7회
5	노인교양강좌	• 일시: 2000. 3월~11월 • 장소: 성환노인학교 • 참석인원: 1,800명	건강한 노인 생활 및 레크레이션 강좌	30회
6	시창작교실	• 일시: 2000. 8.10~10.6 (매주 수,목,금요일)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480명	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글짓기,시창작 등의 운율,수사법,작문 등	24회
7	향토사교실	• 일시: 2000. 9.7~12.28 (매주 목,금요일)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400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 바로 알기 강의 및 현장 답사	20회
8	한문교실	• 일시: 2000. 7.27~10.7 (매주 목,금,토요일)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480명	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 한자 과정	24회
9	서예교실	• 일시: 2000. 7.26~8.9 (매주 월-금요일)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400명	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궁체 지도	20회
10	제3회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2000. 10.9~11 • 장소: 천안시 문예회관 • 참석인원: 900명	내 고장 출신의 미술 작가의 작품을 전시 (28작품)	1회
11	백제문화 탐방 (2000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2000. 5.13 5.20 5.26 • 장소: 청주,서산,부여 • 참석인원: 150명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흔적을 찾아서 탐방	3회
12	내 고장 자랑 글짓기	• 일시: 2000. 10. 28 • 장소: 천안시 문예회관 • 참석인원: 230명	관내 초 · 중 · 고교생 대상으로 내 고장 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시상-12월 2일 예정
13	애향의식 고취 그림그리기	• 일시: 2000. 10. 28 • 장소: 천안시 문예회관 • 참석인원: 275명	관내 초 · 중 · 고교생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공모, 시상	시상-12월 2일 예정
14	경로 효친 휘호대회	• 일시: 2000. 10. 28 • 장소: 천안시 문예회관 • 참석인원: 66명	관내 초 · 중학생 대상으로 경로 효친에 관한 서예대회	시상-12월 2일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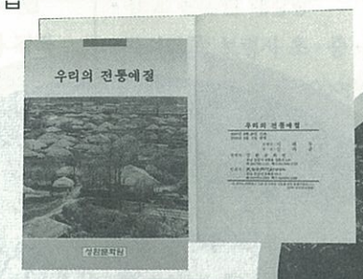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5	입상 작품집 발간	• 발행: 2000. 11. 25 • 발행부수: 500부 217작품(국판 칼라)	글짓기,그림,휘호대회 입상 작품집 발간	
16	세시풍속 윷놀이	• 일시: 2000. 2. 24 • 장소: 본원 • 참석인원: 8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친목 도모	1회
17	시민음악회	• 일시: 2000. 10. 28 • 장소: 천안시 문예회관 • 참석인원: 5,000명	시민 화합을 위한 음악회	1회
18	국악의 대향연	• 일시: 2000. 10. 28 • 장소: 천안시 문예회관 • 참석인원: 800명	충남국악단 초청 공연	1회
19	우리의 전통 예절 발간	• 발행: 2000. 9. 5 • 발행부수: 500부 국판 155쪽	우리 고장의 제례 및 관습 등을 수록	
20	천안의 향토축 제3집 발간	• 발행: 2000. 12. 15 • 발행부수: 500부 (4×6배판)	내 고장의 특산물인 성환 배, 거봉 포도의 관광 상품화 전략 수록	예정
21	전입 주민 우리 고장 알리기	• 일시: 2000. 11.3 11.11 11.17 • 장소: 천안시 일원 • 참석인원: 150명	우리 고장으로 전입 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자 유적지를 중심으로 탐방 홍보	3회

△음악회

△꽃꽂이 교실

△컴퓨터교실


△향토문화 16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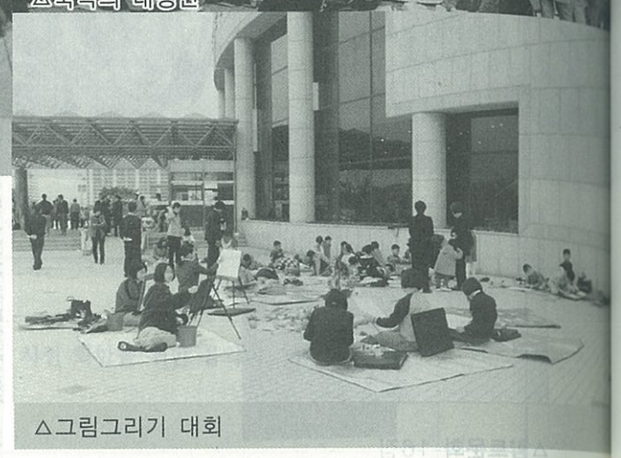
△우리의 전통예절 발안

△제10회 내 고장 고적 순례

△전입 주민 우리 고장 알리기

△윷놀이 대회

△국악의 대행연



△그림그리기 대회

△노인 교양강좌

△시창작 교실

△청소년 어울마당-문화유산 탐방

△서예교실

△향토 작가 초대전

2000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한내 12간 돌다리 밟기 민속축제	• 일시: 2000. 9. 29 • 장소: 대천천 한내돌다리 현장 • 참석인원: 단체, 기관장 및 지역주민 2,000여명	우리 고장에서 내려오는 전통민속 다리밟기 재현 전통민속 재조명	
2	우리문화 한아름강좌	• 일시: 2000. 11~12월 • 장소: 보령시 초·중·고 • 참석인원: 315명	향토사, 전통예절, 문화유적 탐방, 공예교실 순회 교육	
3	청소년 문화 강좌	• 일시: 2000. 8. 7~12 • 장소: 문화원 대강당 • 참석인원: 보령시 초·중·고 학생 300여명	방학기간 중 향토사, 전통예절, 사회교양, 지역인사 특강 등 청소년 사회교양 교육 실시	
4	취미교양강좌	• 일시: 2000. 1~12. 30 • 장소: 문화사랑방 • 참석인원: 지역주민 600여명	• 한국화교실 • 서예교실 • 사군자교실 • 공예교실 • 건강교실	
5	미술·서예·백일장 실기대회	• 일시: 2000. 3월~11월 • 장소: 성환노인학교 • 참석인원: 1,000명	청소년 미술·서예·백일장 실기대회 개최 및 시상	
6	전입주민 초청 우리 문화 알리는 날 운영	• 일시: 2000. 12. 16 • 장소: 문화원 대강당 • 참석인원: 타지에서 전입한 보령 시민 200여명	지역 문화유적 및 향토문화 소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7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문화유적 순례 대행진 • 일시: 2000. 6. 5 • 장소: 광주비엔날레 • 참석인원: 100여명	•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문화유적 순례 대행진	
		•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 대행진 • 일시: 2000. 8. 13 • 장소: 보령시 관내 유적지 • 참석인원: 보령시 초·중·고 학생 300여명	•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 대행진	
8	문화원 회원 작품 전시회	• 일시: 2000. 12. 16~18 • 장소: 문화원 소강당 • 참여인원: 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 200여명	• 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 서예, 한국화, 공예, 사진 등 문화예술 작품 전시	
9	보령 문화유적 총람 CD롬제작	• 일시: 2000년	• 보령의 문화유적 총람 CD롬 제작	
10	보령의 고인돌 책자 발간	• 일시: 2000년	• 보령의 고인돌 조사 연구집 책자 발간	
	보령의 민속품 어구류 등 향토 사료 수집	• 일시: 2000년	• 보령의 옛 민속품, 어구류 등 향토사료 수집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청소년 순례대행진)

△한내12간 돌다리밟기

△한내 12간 돌다리 밟기

△청소년 문화강좌

△청소년 문화강좌

△미술, 서예, 백일장 실기대회

△문화유적 순례대행진(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취미 교양강좌

△취미 교양강좌

2000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향토축제 개선 사업	• 일시: 7월 13일 • 장소: 서산시청 회의실 • 참석자: 100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토축제 개선사업에 부응하고 해미읍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실시된 제8회 서산문화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 분석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킴.	
2	해미읍성 성돌이 발굴 및 시연	• 일시: 12월 9일 • 장소: 음암면 탑곡리 마을회관 • 참석자: 마을주민, 일반인 100여명	한국의 대표적 인형놀이인 박첨지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음암면 탑곡리에서 박첨지놀이를 포함한 탑곡리 대동굿 전체를 발굴하여 이를 시연하고 지역의 전통 민속을 계승발전시킴.	
3	전입주민 문화 알리는 날 운영	• 일시: 1월~12월 • 대상: 일반 전입 주민	충청남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전입 주민을 초청,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유래 및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따라 고향길」 책자를 배부하여 전입 주민들이 서산을 빨리 이해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도움.	
4	향토사료수집	• 일시: 1월~12월 • 장소: 서산을 중심으로 백제권역	1999년 사업에 이어 백제토기 사료를 중심으로 향토사료를 수집함.	
5	지육교실 운영	• 일시: 연중 • 대상: 초 · 중학생 • 장소: 지육교실 강의실	지식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학교 교육 외에 영재 교육에 필요함을 인식하고 개성과 능력과 특성을 살려 저마다의 소질과 소양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	
6	문화의식 순회강좌	• 일시: 3월~10월 • 장소: 15개 읍면동 회의실 • 대상: 문화가족 • 회수: 15회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겨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 의식을 제고하는 각 읍면동 순회 강좌를 실시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7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 일시: 3월~10월 • 장소: 해당학교 • 대상: 초 · 중 · 고교생 • 회수: 26회	문화관광부의 특수 시책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예술을 접하고 익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함.	
8	서산의 백제사 조사연구사업	• 일시: 6월~12월 • 내용: 조사연구서 발간	서산과 관련된 백제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사에 있어서 서산의 중요성과 대중국 선진문화 유입 경로에 위치해 있어 문화적으로 선진지임을 밝힘.	
9	문화유적 현장학습	• 일시: 10월 10일~11일 • 장소: 경주일원 • 대상: 문화가족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호 의식과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경주 문화 엑스포에 동참함.	
10	문화대상 시상	• 일시: 12월 19일 • 장소: 서산시 문화회관 • 수상자: 이은우(향토사)	향토 문화 예술 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 고장의 명예와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	
11	노년의 사회적 책무 실천운동	• 일시: 12월 13일 • 장소: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 참석자: 150여명	노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현실을 대비하고 노인들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줌으로써 노년기에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함.	
12	문예창작활동 및 범국민 책읽기 운동	• 일시: 12월 14일 • 장소: 문화사랑방 • 내용: 석화(중국연변방송국)외 1인 초청 강연 • 참석자: 부석고등학교 250여명	서산 지역이나 인근에서 활동 중인 문학인과 동호인들이 문학적 감성을 펼쳐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상호간에 교류를 촉진시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책읽기 운동을 진작시킴.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3	우리 고장의 환경실태 체험	• 일시: 12월 11일 • 장소: 서산 A · B지구 및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 • 참석자: 부석고등학교 250여명	산업 사회와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우리고장에서도 환경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현실을 직시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원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의 환경 관련 시설물 및 오염 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움.	
14	이달의 문화 인물 기념행사	• 일시: 매월 실시 • 장소: 해당 장소 • 회수: 9회	정부가 지정하는 이달의 문화 인물의 업적을 가리고 숭고한 뜻을 조명해 보는 행사를 매월 실시함.	
15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행사	• 일시: 12월 14일 • 장소: 서산시 문화회관 • 참석자: 1,000여명	정부가 매년 지정하여 그 의미를 기리는 행사로 새로운 예술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이 새로운 창작 의욕을 가지고 본연의 창작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리 · 짓 발전소'를 초청 공연함.	
16	문화사랑방 운영	• 일시: 연중 • 장소: 지역 문화학교 강좌, 미술전시회, 회의장, 연극 연습 장소 등	정부가 설치해 준 문화사랑방을 문화 애호 동호인들이 만남과 행사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 음악 감상, 강의, 회의장 등으로 널리 활용함.	
17	작은 도서관 운영	• 일시: 연중 • 대상: 일반 시민 및 회원	정부가 지정한 작은 도서관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신간 도서 구입, 문화원간 서적 교류 및 각종 자료 구비 등을 통해 내실을 확충해 가며 지식정보 제공의 산실로 활용함.	
18	싸이버 문화관 운영	• 일시: 연중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soback.kornet21.net/~culinfo	문화원 고유 역할 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정보통신 체계를 활성화 하고 각종 지역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 문화 및 지역 정보 센터로 운영함.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9	전시 홍보 활동	• 일시: 연중 • 장소: 각급 기관 및 사회 단체의 해당 장소	정부가 보급하는 자료와 각종 문화예술 관련 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전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요청에 따라 순회 강연도 실시함.	
20	향학관 운영	• 일시: 연중 • 취전된 학자수: 108명	전국 대학, 또는 학술 기관에 재직하는 서산 출신 학자들의 저서, 논문, 작품 등을 수집, 고향에 소장하고 향토 고유의 도서관 및 기념관으로 유지 계승하며 서산 문화원의 연속 사업으로 추진함.	
21	스산의 숨결 발간	• 일시: 연중 • 대상: 문화원 회원 및 기관 • 발행부수: 월 2,200부	문화원의 소식지인 '스산의 숨결'을 36면 2,200부를 발간하여 회원 및 출향인사, 전국 문화원 등에 보급하여 향토 문화 교양지, 향토 사료지로 발전시킴.	
22	제2회 청소년 문학제	• 일시: 10월 8일 • 장소: 서산시 문화회관 광장 • 대상: 초 · 중 · 고생 550명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학을 접함으로써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백일장을 개최하고 우수 작품을 선정 시상함.	
23	지역문화학교	• 일시: 연중 • 대상: 주부 및 일반인 • 장소: 문화사랑방, 강의실	정부가 지정한 지역문화학교로 2000년도에도 한지공예교실, 기타교실, 플룻교실, 전통무용교실, 수채화교실, 퀼트교실, 종이공예교실 등을 개설하여 300여명의 수강생이 문화 예술적 정서를 함양함.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24	새해 다짐대회	• 일시: 1월 3일 • 장소: 현대예식장 • 참석자: 300여명	새해를 맞이하여 각계의 인사들이 한데 모여 새해 인사와 이 고장 발전과 도약, 그리고 화합을 다짐하는 신년 하례식을 가짐	
25	출향 작가와의 만남	• 일시: 2월 28일 • 장소: 문화사랑방 • 참석자: 150여명	작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저자의 책 속에 들어 있는 진실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옳바른 독서법과 독서의 저변 확대를 기함.	
26	4월의 문화 인물 기념행사	• 일시: 4월 26일 • 장소: 대전 국립과학관 • 참석자: 5개 초등학교 250명	문화관광부의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인 4월의 문화인물(화담 서경덕) 기념 행사를 문화관광부의 요청으로 시행함.	
27	6월의 문화 인물 기념행사	• 일시: 6월 28일 • 장소: 서산시 문화회관 • 참석자: 800여명	문화관광부의 특수시책 사업인 6월의 문화인물 사업을 문화관광부의 지정에 따라 시행하고 국악인으로서 금하 하규일 선생의 업적을 홍보, 선양함.	
28	7월의 문화 인물 기념행사	• 일시: 7월 25일 • 장소: 서산시 문화회관 • 참석자: 500여명	문화관광부의 특수시책 사업인 7월의 문화인물(위당 정인보) 사업을 문화관광부의 요청으로 개최함.	
29	서산출신 정예 작가 초대전	• 일시: 12월 23일~29일 • 장소: 서산시 문화회관 전시실 • 대상: 이종구 외 7인	서산출신 출향 작가들의 우수작품 전시로 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고향과의 유대를 통하여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며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 제고와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 더불어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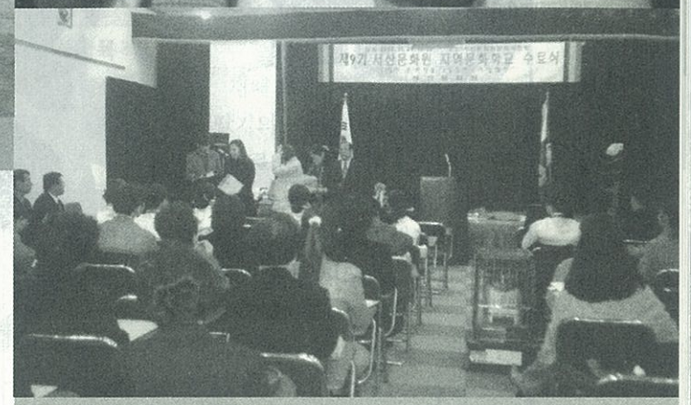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30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 일시: 6월 2일~4일 • 장소: 해미읍성 • 참석자: 15만여 명	정부의 향토축제 개선 시책에 따라 문화관광산업축제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킴.	
31	서산시민을 위한 음악회	• 일시: 11월 6일 • 장소: 서산시 문화회관 대강당 • 참석자: 800여명	우리 지방 유일의 대학인 한서대학교가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1회 서산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공동으로 개최함.	
32	청소년 상담실 운영	• 일시: 5월~12월 • 장소: 서산시 문화원	서산시 청소년상담실을 문화원에서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창달에 이바지함.	
33	지역현장 선진생활 문화 강연회	• 일시: 12월 2일 ~2000년 12월 31일 • 장소: 해당장소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품위 있는 문화국민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전국문화원연합회의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현장 선진 생활문화 강연회를 개최 하였음.(6회)	

△청소년 문학제 시상식

△우리고장의 환경실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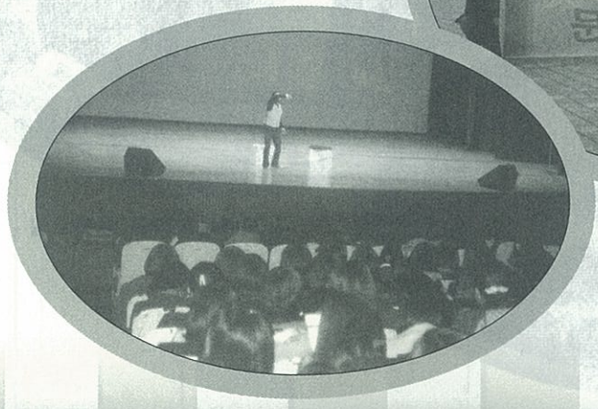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사물놀이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평가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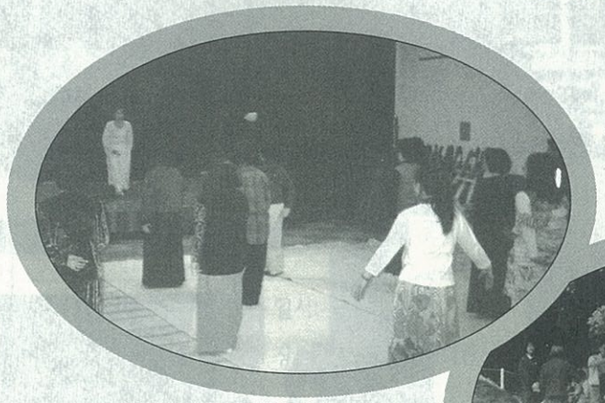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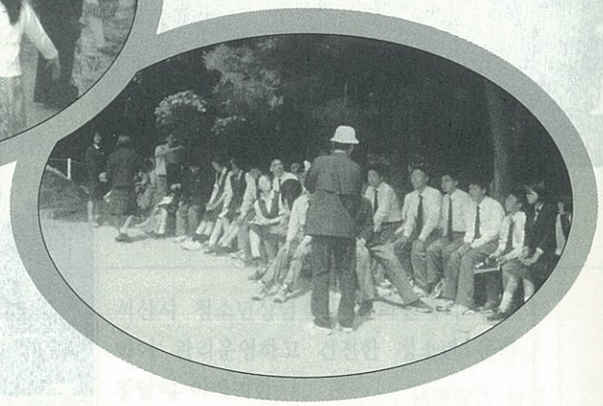
△문화유적 현장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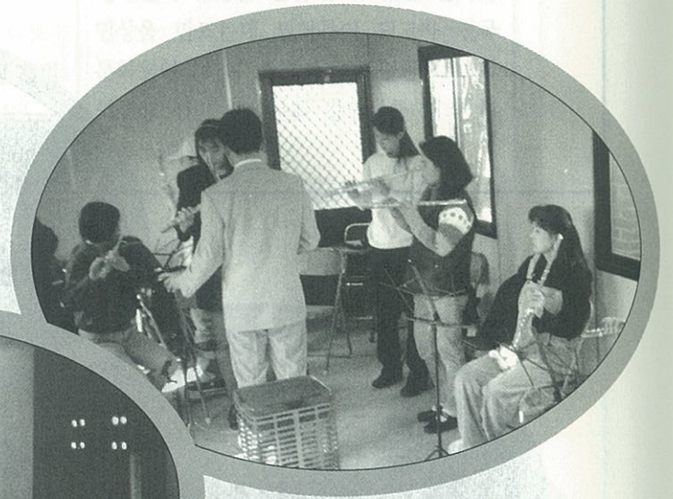
△새로운 예술의 해 기념 행사



△지역문화학교 무용교실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테마유적답사



△지역문화학교 플룻교실

△6월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2000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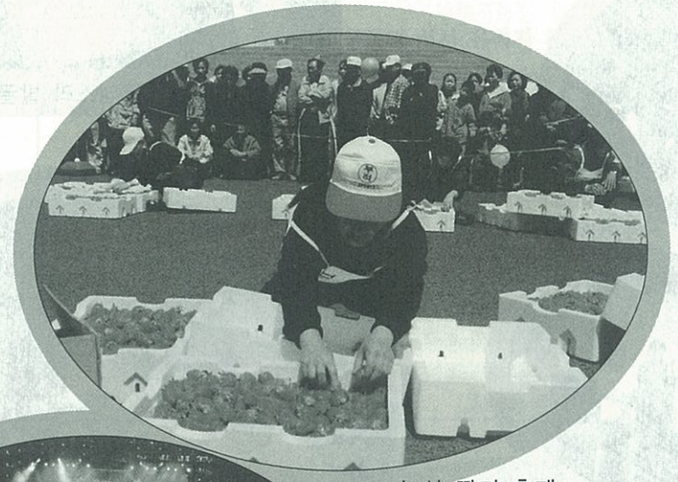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논산 딸기축제	• 일시: 2000. 4. 22 ~4. 23 • 장소: 논산 공설운동장 • 참석인원: 3만여명	◎ 사업목적 논산시 전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지역 특화 작물인 청정 딸기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딸기 농사에 수고한 지역 주민을 위로하는 한편, 전체 시민의 단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획 시도됨. ◎ 사업내용 • 축구대회 (준결승) • 게이트볼대회 • 논산사랑 열린결혼식 • 청소년 댄싱대회 • 육군의장대 시범 • 노성두레 풍장 시연 • 육상경기 • 딸기 품평회 • 딸기 가공식품 및 딸기 선별 포장 • 딸기 판매전 • 딸기쥬스 시음회 및 딸기 O,X 퀴즈 대잔치 • 딸기 도전 내가 최고(딸기 먹기 경기) • 에어로빅 시범 • 향토 음식 축제 • 논산 전통 먹거리 장터 운영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2	여성문화학교 운영	• 일시: 2000. 6. 5 ~8. 1 • 장소: 논산 문화사랑방 • 참석인원: 1,020명	◎ 사업목적 논산 관내 주부들이 취미 생활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임 ◎ 사업내용 • 장구 강습 • 종이접기 강습 • 요리 강습 • 지점토 강습	
2	중.고생 및 전입 주민 유적지 답사	• 일시: 2000. 5. 26 2000. 7. 14 • 장소: 논산 문화유적지 • 참석인원: 130명	◎ 사업목적 관내 중.고생 및 전입 주민들이 내 고장 문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임. ◎ 사업내용 • 돈암서원 답사 • 개태사 답사 • 쌍계사 답사 • 성삼문 묘 답사 • 계백장군 묘 답사 • 견훤 묘 답사 • 강경 옥녀봉 답사 • 이삼장군 고택 답사 • 충령사 답사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4	상월면 대명리 두레소리 발굴시연	• 일시: 2000. 7. 11 • 장소: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마을회관 • 참석인원: 500명	◎ 사업목적 농촌에서 농사일을 할 때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상호 협력과 감찰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농신제 • 두레공사 • 논메기 작업 • 두레싸움	
5	논산사랑 푸른음악회	• 일시: 2000. 9. 23 • 장소: 논산 공설운동장 • 참석인원: 1만여명	◎ 사업목적 논산의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열린 축제의 한마당으로써 논산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개막식 및 불꽃 축제 • 에어로빅 시범 공연 • 연예인 초청 가수 공연 (백지영 외 10팀) • 풍물단 공연 • 댄싱 공연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6	제4회 강경 전통 맛깔젓 축제	• 일시: 2000. 10.14~10.15 • 장소: 강경 금강유원지 • 참석인원: 3만여명	◎ 사업목적 논산시 강경읍 지역의 전통적인 특산물인 각종 젓갈류를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도하는 한편, 주민과 상인들의 대동 단결을 위해서임. ◎ 사업내용 • 민속공연 • 민속경기 • 시민화합 한마당 • 기타 부대행사	
7	문화 창달과 논산 3대 정신 순회 강연	• 일시: 2000. 9. 25~10. 26 • 장소: 논산 관내 17개 중학교 강당 • 참석인원: 7,000명	◎ 사업목적 논산 3대 정신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화합과 단결로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 하는 활기찬 새 논산 건설과 논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임. ◎ 사업내용 ※ 논산 3대 정신의 정립 배경 • 선비정신 • 충효정신 • 협동정신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8	2000. 초.중.고 글짓기. 그리기. 서예실기대회	• 일시: 2000. 10. 28 • 장소: 논산 시민회관 및 논산 문화사랑방 • 참석인원: 1,500명	◎ 사업목적 청소년들에게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창작 의욕을 왕성하게 해 주며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임. ◎ 사업내용 • 제15회 청소년백일장대회 • 제15회 청소년사생대회 • 제11회 서예실기대회	



△논산 딸기 축제

△논산 사랑 푸른음악회

△논산 딸기 축제 일환

△제4회 강경전통 맛깔젓 축제

△상월면 대명리 두레소리 발굴 시연

△상월면 대명리 두레소리 발굴 시연

△문화 창달과 논산 3대 정신 강연회

△전입주민 유적지 답사

△여성문화학교-퀼트 수업

△여성문화학교 지점토 수업

△중 · 고생 유적지 답사

2000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천내배 걸립굿 발굴 조사	• 판형: 4×6배판 • 부수: 1,000부 • 조사지역: 제원면 천내 마을	천내배 걸립굿 발굴 보고서 발간	
2	금산의 선사 유적지 지표조사	• 선사 유적 지표 조사 • 조사 지역: 금산의 전지역 • 1차 조사: 금강 수계 지역	금산의 선사 유적지 지표 조사 용역 의뢰 (한남대 백제박물관)	
3	금산 문화예술 무크지 '삶꽃' 발간	• 판형: 4×6배판 • 부수: 1,000부 • 대상: 금산 문화가족 및 금산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모두	금산의 역사 문화인, 민속, 시, 소설, 수필 등	
4	금산 산꽃 축제 조성을 위한 조사 보고	• 대상: 금산의 송계 조직 분포 및 유형	금산의 산악 문화의 진행적인 마을 연합 두레인 송계를 통하여 산꽃 축제로 발전 방향 도모	
5	금산 문화학교 운영	• 일시: 3월~8월 • 장소: 금산문화원 • 강좌수: 8개 강좌 • 참여인원: 195명	가야금, 금산풍물, 공동체 놀이문화, 문예창작, 서예강좌, 판소리.민요강좌, 한국화 강좌 등을 통하여 생활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 교육과 평생교육 구현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6	금산농악단 운영	• 일시: 3월~12월(10회) • 장소: 금산 군내 자연마을 • 참여인원: 2,200명	• 각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풍물마당」인 삼골농악경연대회 개최 • 각 마을에 금산농악 전수 • 금산농악 강습(대학생)	
7	인삼골합창단 운영	• 일시: 1월~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600명	• 매주 목요일 「군민과 함께 하는 도레 모임」개최 • 정기발표회 1회 개최	
8	2000 장동 달맞이 축제	• 일시: 3.1~3.2 • 장소: 금산읍 양지리 장동마을 • 주최: 금산문화원 • 주관: 금산농악보존회 장동마을민속보존회 • 참여인원: 15,000명	• 달과 불, 그리고 풍물을 주제로 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마을 축제로 육성 • 인삼, 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 축제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9	2000 금강민속 축제	• 일시: 7.29~7.30 • 장소: 부리면 평촌리 • 주최: 금산문화원 • 주관: 물페기농요전승보존회,금산농악보존회, 농바우끄시기보존회,소리모임,풍각쟁이,금산민속연보존회, 나아내풍물단 • 참여인원: 13,000명	• 금산농악판굿,물페기농요,농바우끄시기 등 공연 • 금산의 민속체험마당 (농바우끄시기,돌무돌리기,풍물놀이,민요부르기) •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 만들기 마당 • 금산의 토속 음식과 특산물 판매	
10	2000 금강풍류전	• 일시: 6. 24. • 장소: 금강 일원 • 주최: 금산문화원 • 참여: 300명	• 금강의 소리, 몸짓, 노래, 시, 서예, 미술 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술 창출	
11	2000 금산문화 예술제	• 일시: 10. 26~10. 28. • 장소: 청산회관 • 주최: 금산문화원 • 주관: 좌도시동인회,금동인회,금묵회,풍각쟁이,나아내풍물단 • 참여: 500명	•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종합문화예술제로 시낭송회, 미술 전시회, 서예 전시회, 나아내풍물단, 소리와 민요 공연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2	제26회 충청남도합창경연대회 참가	• 일시: 11월 2일 • 장소: 연기군 • 참가인원: 45명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인삼골합창단이 금산을 대표하여 참가	
13	2000 산안산벚꽃축제	• 일시: 4. 29~30 • 장소: 군북면 산안리 • 주최: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16,000명	글쓰기, 그리기대회, 산중음악회 천년나무 심기 등 숲과 꽃을 주제로 한 축제	
14	금산사랑 문화사랑 자연사랑 운동	• 일시: 9월~10월 • 장소: 금산군 일원 • 대상: 전입자 주민 및 금산 방문객	금산에 전입하였거나 금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산 문화를 소개하여 애향심 고취 문화유적 답사 실시	
15	큰기 올리기 및 지신밟기	• 일시: 2.6~7 • 장소: 금산군 일원 • 참여인원: 400명	설날을 맞이하여 문화원 사무식으로 큰기 올리기를 한 후 각 기관과 가정을 방문, 한 해의 풍년과 무사 태평 축원	
16	청소년 생태 문화캠프	• 일시: 9.23~24 • 장소: 옛 제원면 (금강초등학교) • 참여인원: 90명	청소년들에게 자연 생태 체험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함	
17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7.30~10.29(2회) • 장소: 부리면 평촌, 경주 • 참여인원: 200명	청소년 여가 활동과 탐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금강 탐사 기행과 신라 문화 유적기행 실시	
18	청소년 동아리 활동	• 일시: 1월~12월 • 장소: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720명	매주 토요일 오후 문화원을 개방 버팀목 문학동인회, 나아내어린이풍물단 운영 및 지도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9	2000 생활문화 예술제	• 일시: 9. 6.~9. 8. • 장소: 청산별관 • 참여인원: 300명	문학가족 동호인 단체인 창현회와 금곡서회 전시회	
20	노영심과 함께 하는 숲속 여행	• 일시: 7월 28일 • 장소: 금강초등학교 • 참여인원: 500명	노영심 초청 자연음악회 공연	

△금강풍류전(장사익 노래)

△금강풍류전(뒷풀이 마당)

2000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제10회 민속 한마당	• 일시: 10. 20(09:00) • 장소: 군민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600명	군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민요, 시조, 노래 등 기타 장기자랑	
2	농악대 운영	• 일시: 3월 ~12월 • 장소: 농악대 사무실 • 참석인원: 50명	사라져 가는 우리 소리(풍물) 전승 및 각종 행사 참여 경연대회 참가	
3	향토사 운영	• 일시: 3월 ~12월 • 장소: 군내 일원 • 참석인원: 23명	사라져 가는 우리 소리(풍물) 전승 및 각종 행사 참여 경연대회 참가	
4	청소년 문화 유적 순례	• 일시: 4월~10월(5회) • 장소: 군내 일원 • 참석인원: 200명	군내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답사 및 강좌	
5	주부 교양강좌	• 일시: 7월 28일 • 장소: 군민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500명	연기 군내 주부를 대상으로 유명 인사 초청강연	
6	노인학교 운영	• 일시: 10월 21일 • 장소: 군민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500명	군내 65세 이상 남녀 노인강좌 및 공연	
7	경로 효친의 달 행사	• 일시: 5월 • 장소: 현충사 및 세심 온천 관광 • 참석인원: 200명	전의 소정 면내 65세 이상 영세 노인 효도관광	
8	경로 효친 웅변대회	• 일시: 5월 20일 • 장소: 군민회관 • 참석인원: 200명	군내 초 · 중 · 고 학생의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를 위한 웅변대회	
9	청소년 유적 답사소감공모	• 일시: 6월 21일 • 장소: 비암사 외 4개소 • 참석인원: 50명	군내 초 · 중 · 고 우수 학생 선발 유적답사 및 교양강좌	
10	군민친선 바둑대회	• 일시: 6월 24일~25일 • 장소: 군민회관 소회의실 • 참석인원: 300명	제12회 충청남도 지사배 바둑왕전	

2000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 업 명	기 간	참석인원	소요예산	비고
1	축제사업 • 향토민속 발굴 • 문화관광 축제 평가분석 • 우리 고장 문화 알리기	 5. 1 ~ 12. 31 5. 1 ~ 6. 30 4. 1 ~ 12. 31	 100부 100부 책 배부	 3,000 5,000 2,370	
2	문화학교 • 동.하계 문화강좌	7. 22 ~ 8. 2 12. 24 ~ 1. 6	300여명	7,317	
3	향토사료조사 • 향토사 연구(서천읍지)	1. 1 ~ 12. 31	800부	12,785	
4	공연(강연)사업 • 사물풍물 경연 국악한마당 • 송년음악회	 6. 12 12. 16	 1,000여명 1,000여명	 3,000 2,499	
5	전시사업 • 중등 미술교사 작품 전시 • 초.중.고 작품 전시	 10. 11 ~ 16 11. 15 ~ 19	 800여명 800여명	 3,017 767	
6	기타사업 • 신년교례회 • 군민친선 바둑대회 • 군민친선 장기대회 • 중.고 경로효친 표창 • 가정사랑 글짓기공모 • 청소년문예 백일장 • 동.하계 사적지 순방 • 아동문예 백일장 • 학생문집 발간 600부 • 지역 환경보존	 1. 4 9. 12 10. 31 5. 13 5. 1 ~ 7. 31 5. 13 8. 6 2000. 1. 7 10. 13 12. 31 1. 1 ~ 12. 31	 300여명 300여명 300여명 19명 12명 150여명 100여명 400여명	 923 2,387 2,559 1,602 1,220 2,365 2,678 4,008 3,669 834	
계				62,000	

사업순위	사 업 명	기 간	참석인원	소요예산	비고
1	축제사업 • 향토민속 발굴 100부 • 문화관광 축제 평가분석 100부 • 우리 고장 문화 알리기	 5. 1 ~ 12. 31 5. 1 ~ 6. 30 4. 1 ~ 12. 31	 50여명	 3,000 5,000 2,000	
2	문화학교 • 동.하계 문화강좌	7. 21 ~ 8. 1 12. 26 ~ 1. 9	300여명	8,000	
3	향토사료조사 • 향토사 연구(서천읍지) 800부	1. 1 ~ 12. 31		10,000	
4	공연(강연)사업 • 사물풍물 경연 국악한마당 • 송년음악회	10월중 12월중	1,000여명 1,000여명	3,000 2,500	
5	전시사업 • 중등 미술교사 작품 전시 • 초.중.고 작품 전시	10월 말경~11월중 10. 11 ~ 16 11. 15 ~ 19	 800여명 800여명	 2,500 1,000	
6	기타사업 • 신년교례회 • 군민친선 바둑대회 • 군민친선 장기대회 • 중.고 경로효친 표창 • 청소년문예 백일장 • 동.하계 사적지 순방 • 아동문예 백일장 • 학생문집 발간 600부 • 지역 환경보존	 1. 3 9. 24 10월중 5. 19 5. 19 8. 3, 2001. 1. 10 10월중 12. 31 1. 1. ~ 12. 31	 300여명 300여명 300여명 17명 50여명 100여명 400여명	 1,000 2,500 2,500 2,000 3,000 3,000 3,500 4,000 1,000	
계				59,500	

△동계 문화 강좌

△동계 사적지 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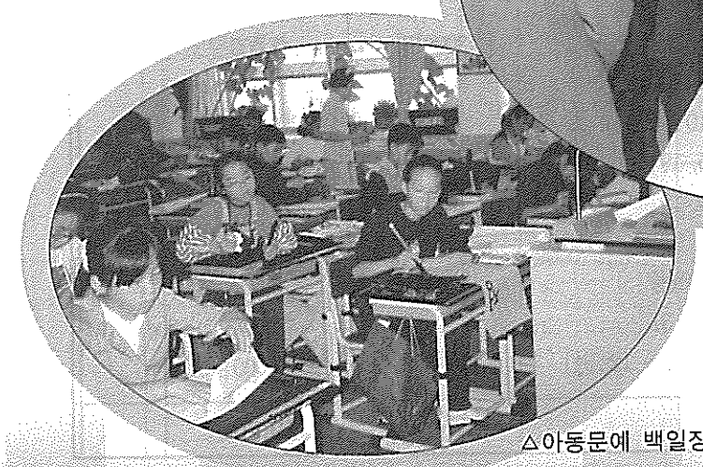
△송년음악회

△초·중·고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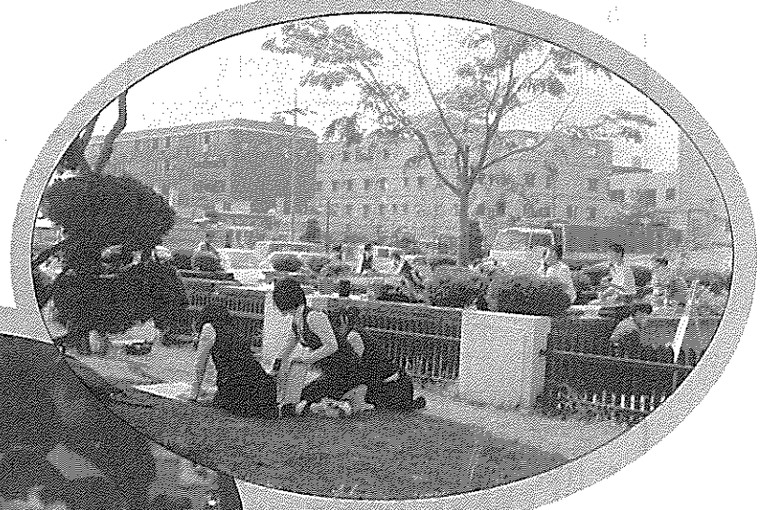
△사물풍물놀이 국악한마당

△중등 미술교사 작품 전시

△신년교례회



△아동문예 백일장



△청소년 문예 백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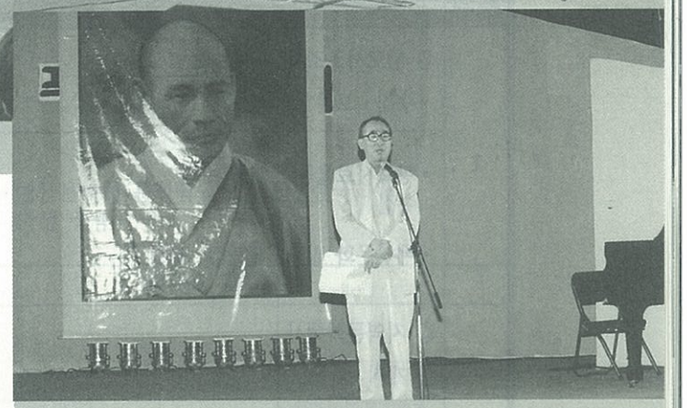
△서천 군민 친선 장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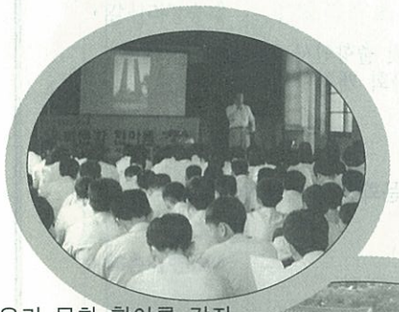
2000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 일시: 2000. 1. 25(화) • 장소: 문화사랑방 • 참석인원:	회원간 친목 도모를 통한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성년의 날 기념행사	• 일시: 2000. 5. 13(토) • 발행처: 푸른쉼터(남산공원) • 참여인원: 200여명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민족 정신을 높이고자 함.	
3	우리 문화 한아름 강좌	• 일시: 2000. 6. 9 19일, 23일, 30일 • 장소: 군내 중·고등학교 • 참여인원: 900여명	홍성의 문화와 역사, 유적 등을 강의하여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가치관의 확립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4	문화유적지 순례	• 일시: 2000. 6. 15(목) • 장소: 공주박물관등 • 참여인원: 50여명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리 전통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함.	
5	고지도 사진 촬영	• 기간: 연중	고지도를 사진 촬영하여 보관	
6	학술세미나 (고은 시인의 문학과 민족 문제)	• 일시: 2000. 7. 15(토) • 장소: 문화사랑방 • 참여인원: 200여명	문화와 우리 민족에 대한 세미나	
7	만해제 (시낭송회 및 작은음악회)	• 일시: 2000. 8. 11(금) • 장소: 푸른쉼터(남산공원) • 참여인원: 2,500여명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 정신과 애국 애족 정신을 거국적으로 확산, 만방에 고취시키고자 제6회 만해제(시낭송회 및 작은음악회)를 갖음	

△2000년 성년의 날 기념행사

△만해제 시낭송회 및 작은음악회


△만해제 작은음악회 및 시낭송회


△우리 문화 한아름 강좌

△문화유적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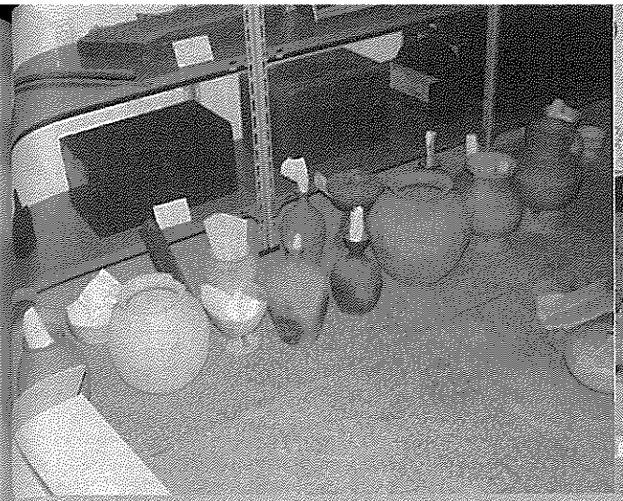
△2000년 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학술세미나(고은 시인의 문학과 민족 문제)

2000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 향토사료조사、수집、보존			
	• 향토사료물품 수집	연중 수집	• 선조들이 사용했던 의식주 및 기타 생활 용품 수집 및 전시	
	• 예산문화 발간	제32집, 33집 (7월) (12월)	•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수집 및 보존 책자 발행	
2	◎ 지역문화행사 개최			
	• 신년교례회	1월 4일 11시 예산 군내 지역인사 및 출향인사	• 예산 군내 및 출향인사 인사록 발간 배부 및 신년인사회 개최	
	• 정월대보름축제	정월대보름 (예산읍 일원)	• 예산 군내 문화단체 대동제(大同祭)	
	• 문화유적지 탐방	인접 군의 문화유적지	• 문화원 회원 및 문화단체, 문화학교 회원 역사탐방	
3	◎ 사회교육활동			
	• 한학 강좌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5시 30명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 서예 강좌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오후·야간	〃	
	• 시조 강좌	매월 3, 8, 14, 21, 25, 말일	〃	
	• 한국화 강좌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 공예 강좌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 발관리 건강 강좌	목요일 10시~12시	〃	
	• 풍수지리 강좌	월요일 10시~12시	〃	
	• 문화학교 학생 작품 전시회	연말 1회	•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서예반, 한국화반 학생 작품	
4	◎ 한고을 한문화 운동			
	• 갈신리장승제	음력 정월 초	• 예산군 대흥면 갈신리 부락제	
	• 조곡리산신제	〃	•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부락제	
	• 교촌리행당제	〃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부락제	
5	◎ 사회교육활동			
	• 청소년 어울마당	월 1회 연 10회 정도	• 예산 군내 초·중등학교 순회마당 및 문예회관 등 에서의 공연마당 개최	
	• 청소년 문화축제	10월	• 예산 군내 중등학교와 연계하여 산업과 학대학 교정에서 추수감사제로 시행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6	◎ 향토민속 발굴			
	• 예산의 문화유적총람 CD-ROM 제작	연중 제작	• 예산 군내문화유적을 영상화함	
7	◎ 문화단체 발표·전시회			
	• 제7회 예산 열린분재전시회	10월	• 추사문화제의 일환으로 시행	
	• 풍물패 아사달 정기공연	11월	• 연중 1회 문예회관 공연	
	• 전통공예 동호인회 추사서화 영인작품 전시회	10월	• 추사문화제의 일환으로 시행	
8	◎ 향토사 축제			
	• 임존성백제 부흥군축제	11월	• 도문예진흥기금 행사를 축제로 발전시킴	
9	◎ 제4회 추사문화제			
	• 제11회 전국 서예백일장		• 추사문화제의 중심 행사로 시행	
	• 제6회 예산군 어린이미술 실기대회		〃	
	• 제2회 예산군 학생서예대전		〃	
	• 제5회 예산군 학생풍물겨루기		〃	
	• 제2회 예산군 학생글짓기대회		〃	



△향토사료실(4.5평)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물품 일부 장면

△예산 군민 대보름큰잔치(200년)축원제 준비 장면

△수업중인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서예반

△조곡리 산신제 영기 게양 행사
– 산신제에 앞서 영기를 게양하여 신령의 하강을 징표함

△예산군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축제를 위한 무대

△예산 열린분우회 분재전시회(예산문화원 앞뜰)

△예산군 문화유적 CD-ROM 제작 (그 1점 소개: 예산 화전리 사면 석불)

△임존성백제부흥군위령제 시행 후 풍물패 아사달 기념공연 장면

제11회 전국서예백일장 휘호대회△

2000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태안 청소년 문화축제	• 일시: 2000. 10. 29. 14:00 • 장소: 태안중학교 체육관 • 대상: 초、중、고등학생 • 참석인원: 300명	• 청소년들의 문화와 표현 수단을 발산시킬 수 있는 축제로 건전한 여가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함. 특히 청소년 스스로 묻고 느끼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축제로 발전시킬 예정임.	
2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 일시: 9. 26. 14:00 • 장소: 태안여자고등학교 교정 • 대상: 초、중、고등학생 • 참석인원: 500여명	• 미술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계발은 물론 올바른 경쟁 의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도록함.	
3	소성백일장	• 일시: 2000. 3. 2.~ 5. 4. • 장소: 태안문화원 • 대상: 초、중、고등학생 • 참석인원: 276명	• 청소년들의 바른 표현력과 문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기킴.	
4	국악한마당 공연 지원	• 일시: 10. 19. 12:00 • 대상: 국악협회 태안지부	•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우리의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민요, 풍물놀이, 각설이타령, 판소리 등	
5	중앙대제	• 일시: 2. 18.(음1. 14.) • 장소: 태안 군청 • 참석인원: 150명	• 국민의 환란、질병을 퇴치하고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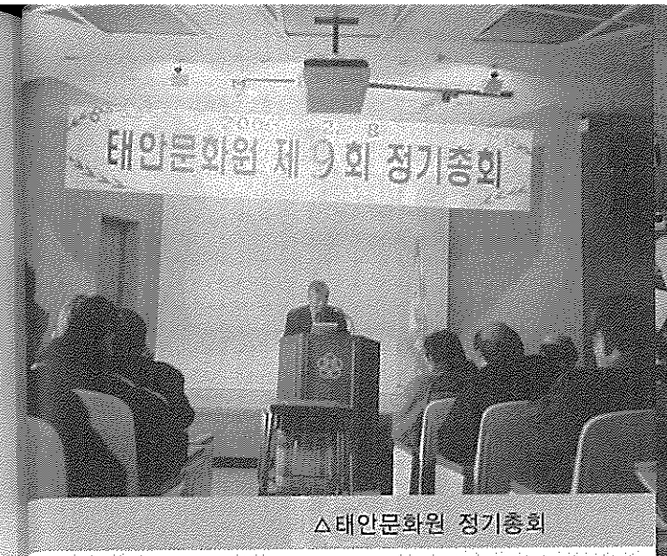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6	태안의 문화 '소성의향기' 6집' 발간	• 일시: 연중 • 대상: 제한 없음 • 참석인원:	• 태안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 활동의 총 집합체로 매년 태안의 문화와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태안의 정신과 문화를 소개함.	
7	주부교양강좌 '구성애의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 일시: 11. 15 15:00 • 장소: 태안 군청 강당 • 참석인원: 500여명 • 강사: 구성애	• 관내 주부들을 위한 교양강좌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의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어머니로써의 역할과 교양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8	주말 영화교실	• 일시: 5. 27~10. 28 매주 토요일 15:00 • 장소: 태안문화원 • 참석인원: 690명	• 군민들과 영화감상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누구나 여가 시간을 이용해 영화 감상을 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열린 군민 공간으로 문화원 강당을 적극 활용함.	
9	영화가 있는 밤	• 일시: 9. 27~10. 20 매주 목·금요일 19:30 • 장소: 태안문화원 • 대상: 제한 없음 • 참석인원: 300명	• 직장인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품성 있고 유익한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함으로써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과 동시에 예술적 감수성을 향상시킴.	
10	고남면 조개부르기제 지원	• 일시: 11. 17 11:00 매주 목·금요일 19:30 • 장소: 고남면 누동리 해변가 • 대상: 고남면 주민 각급 기관장	• 희미하게 전해 내려오던 조개부르기제를 발굴하여 새롭게 발전 계승시킴.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1	흙빛문학 지원	• 일시: 6월, 12월 • 대상:	• 태안 지역의 정신문화 함양과 함께 태안 지방을 홍보하는 순수 문학지 발간	
12	태안문학 지원	• 일시: 6월, 12월 • 대상:	• 태안 군내에서 고장을 지키며 사는 문인들과 출향 문인들의 창작 의욕과 연대의식 고취와 문학을 통한 향토애와 로컬리즘의 구현	
13	향토문화제12집 발간	• 일시: • 대상:	• 고유한 향토 민속 문화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새롭게 소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매년 체계적으로 정리, 발굴하여 우리 지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14	태안여고 길쌈놀이 지원	• 일시: 10. 10 • 대상: 태안여고 • 장소: 태안여고 교정	• 잊혀져가는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	
15	이원면 볏가릿대 놀이 시연	• 일시: 3. 6 • 장소: 이원면 관리 다목적회관 • 참석인원: 150명	• 향토 고유 문화 보존 사업으로 우리 조상들의 삶과 풍속을 재현하고 볏가릿대놀이를 통해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함.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6	백화사진 동우회지원	• 일시: • 대상: 백화사진동우회 회원전	• 문화예술 행사와 전시회 관람 일상 생활 속에서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를 마련함.	
17	이묵회 전시회 지원	• 일시: • 대상: 이묵회 회원전	• 좋은 내용의 글과 글씨의 조화를 통한 작품의 강상과 문학적인 향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전시회 개최	
18	샘골그림모임 전시회 지원	• 일시: 10. 17 • 대상: 샘골그림모임 회원전	• 태안의 바닷가를 소재로 한 작품 전시로 미술 감상과 함께 우리 고장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19	예술태안 전시회 지원	• 일시: 4. 28 • 대상: 예술태안 회원전	• 동양화, 서양화, 소묘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0	국악경연대회	• 일시: 9. 14 15:00 • 장소: 태안중학교 체육관 • 대상: 초、중、고등학생 • 참석인원: 400명	• 우리의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국악에 관심이 많은 지역 청소년들의 실력을 겨뤄보고 배우는 기회를 만듬.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22 문화원활성화시책사업	태안의 문화유적 총람 CD 제작용 자료 수집비	• 일시: 진행중 • 작업: 두레영상사업	• 우리 고장의 문화를 컴퓨터용 영상 CD로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정리함	
	전시실 내부수리、인테리어	• 일시: 진행중 • 작업: 한집디자인	• 문화원의 향토사료를 관람하기에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패널을 제작하고 효율성 있는 배치와 인테리어를 재구성	
	전입 주민 우리 고장 문화 알리기	• 일시: 9~10월 • 대상: 10개 중학교(군내) • 참석인원: 1,000명	• 군내 1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순회 강좌 실시(각 지역별 문화원 이사 출강)전입 주민 자녀 위주로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 낯선 고장에서의 친근감과 애향심, 정주의식을 고취시킴	
	향토민속발굴 (근흥면지 편찬)	• 일시: 8. 7 • 대상:근흥면지 편찬위원	•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면지 발행을 미루어 왔던 근흥면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과 문화에 대한 연구조사 비용을 지원함	
	'시와 함께 하는 태안 팔경' 발간	• 일시: 9. 2 • 대상: 태안문화원 이사	• 태안의 향토축제 개선 방안을 위하여 태안군의 지역적인 특색과 정신 문화를 연구하여 축제 기획의 바탕 자료를 활용 • 태안군 홍보용 책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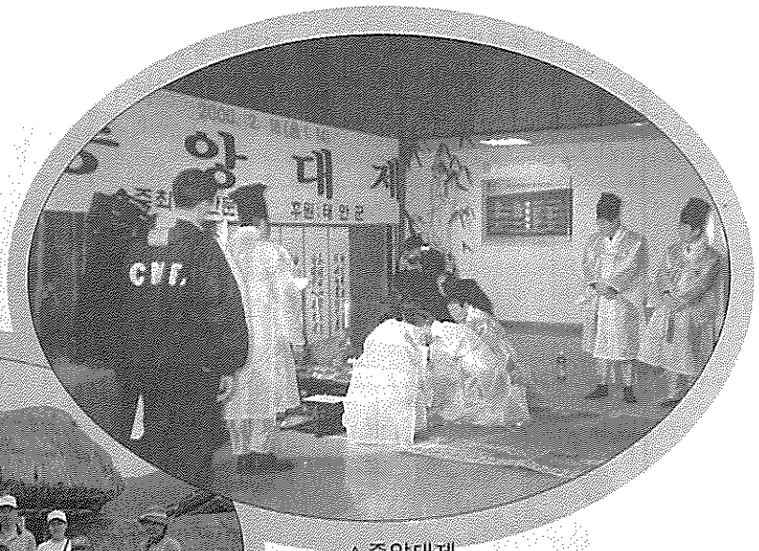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23	향토문화 유적답사	1차 • 일시 : 6. 11 • 답사지 : 태안 유적지 • 대상 : 초 · 중학생 부모님 • 참석인원 : 45명 2차 • 일시 : 6. 16 • 답사지 : 부여 • 대상 : 향토학자 이 · 감사 문화가족 • 참석인원 : 45명 3차 • 일시 : 8. 21 • 답사지 : 태안 유적지 • 대상 : 원이중 이원분교 • 참석인원 : 50명	•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유적 답사를 통해 우리 고장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백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 우리 고장의 문화 유적에 대한 우수성과 역사성을 답사를 통해 체험하여 향토애 고취와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함	
24	문화학교	• 일시 : 4. 3 - 11. 10 • 장소 : 태안문화원 • 대상 : 태안 군민 • 참석인원 : 150명	• 종이접기교실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 • 민요교실 민요를 배움으로써 우리 민족의 심성과 정서를 이해하고 민족의 음악을 습득함 • 바둑교실 바둑을 통한 취미 생활은 물론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인생을 배움 • 서예교실 서예를 통한 지와 덕을 배우고 선인들의 풍류와 멋을 이해함 • 풍물교실 국악 연주의 기초로써 한국인의 정서와 흥을 돋우는 풍물놀이의 연주 기술을 습득함 • 통기타 기타 연주 습득 및 여가 선용	



△태안문화원 정기총회

△학생 풍물경연대회

△주말 영화교실



△중앙대제

△태안 문화유적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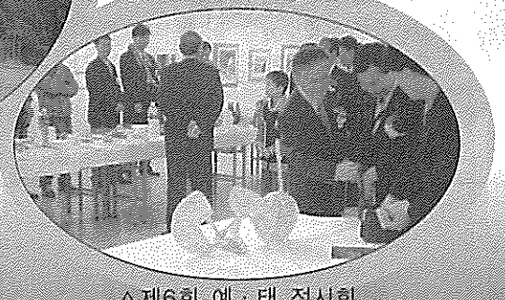
△부모님과 함께 하는 유적 답사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문화축제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이원면 볏가릿대놀이



△제6회 에·태 전시회

2000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	남북통일 기원 국민화합 기지시줄다리기 재현	• 일시: 2000. 2. 20 •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 참여인원: 3000여명	국태 민안과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중요무형문화제 75호 기지시 줄다리기 재현 행사	
2	전통 세시민속놀이 및 정기총회	• 일시: 2000. 2. 21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150여명	문화원 상징물「고향마을」제막식을 비롯하여 정기총회 및 전통 민속놀이 실시함	
3	김동길 교수 초청강연회	• 일시: 2000. 3. 7 • 장소: 당진군민회관 • 참여인원: 200여명	'태평양 시대에 즈음하여 소중히 가꾸어 나아가야 할 우리 문화'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4	한마음실내교향악단 초청공연	• 일시: 2000. 4. 4 • 장소: 대호지면 창의사 • 참여인원: 2000여명	재81주년 대호지 4·4 독립만세 운동 기념 연주회	
5	4·4 기념 학생 백일장	• 일시: 2000. 4. 4 • 장소: 대호지면 창의사 • 참여인원: 2,000여명	4·4 독립만세 운동 기념 학생 백일장 원고접수 및 시상식	
6	문화학교 수지침 봉사대 발대식	• 일시: 2000. 5. 22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50명	당진문화원 수지침 무료 봉사대 발대식 (봉사대원 선서, 인증서 수여식)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7	[청소년 어울마당]청소년 댄스경연대회	• 일시: 2000. 5. 27 • 장소: 당진군민회관 • 참여인원: 700여명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피로를 풀고 마음껏 끼를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8	4·4 정기총회	• 일시: 2000. 6. 13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100여명	대호지 4·4 독립만세운동 결산 총회	
9	당진문화 제16호 발간	• 일시: 2000. 6. 30 • 발행부수: 4,000부 • 배포처: 회원, 기관단체, 출향민, 지역민	지역 주민, 출향인들의 갖가지 장르의 원고 및 당진문화원 상반기 사업 활동을 게재함	
10	화촌 전시회	• 일시: 2000. 6. 17~6. 23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1,500여명	문화원·문화의집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화촌회 미술작품 전시회	
11	김자경오페라단 초청 공연	• 일시: 2000. 6. 24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150여명	문화원·문화의집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김자경 오페라단 초청 공연 '클래식 음악여행'	
12	문화학교 고려수지침	• 일시: 2000. 1. 4~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30명	고려수지침 강좌	
13	문화학교 종이접기	• 일시: 2000. 1. 5~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40명	꽃장식, 취미생활 종이접기	
14	문화학교 일본어	• 일시: 2000. 1. 5~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10명	생활 일본어 회화 강좌	
15	문화학교 스포츠댄스	• 일시: 2000. 1. 7~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60명	쌈바, 자이브 등 강좌	
16	문화학교 한문	• 일시: 2000. 1. 7~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20명	명심보감, 고사성어 강좌	
17	문화학교 서예	• 일시: 2000. 1. 8~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20명	한글·한문 서예 초·중급 강좌	
18	문화학교 가요	• 일시: 2000. 2. 10~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60명	주부가요교실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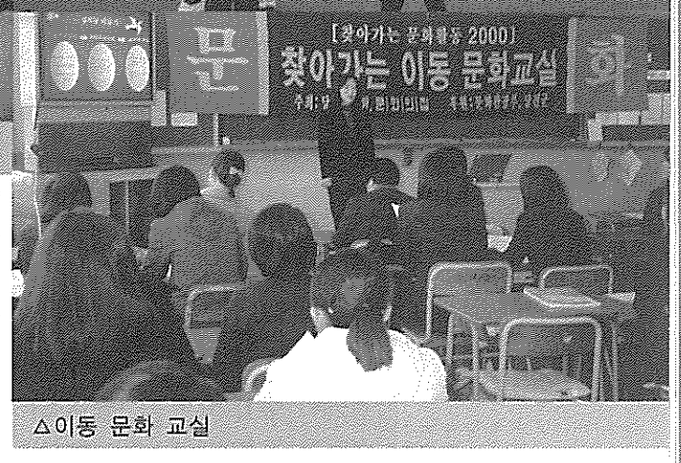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19	문화학교 영어회화	• 일시: 2000. 4. 3~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16명	기초 생활영어 회화 강좌	
20	문화학교 레크리에이션	• 일시: 2000. 8. 8~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20명	레크리에이션 강좌	
21	문화학교 풍수지리	• 일시: 2000. 8. 19~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15명	음 · 양 · 오행 풍수지리 강좌	
22	【청소년 어울마당】 DDR/PUMP 경연대회	• 일시: 2000. 7. 1 • 장소: 호서고등학교체육관 • 참여인원: 400여명	당진 관내 청소년 DDR/PUMP 경연대회	
23	남이흥 장군 문화제 정기총회	• 일시: 2000. 7. 3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150명	제12회 남이흥 장군 문화제 정기총회에서 99 결산 심의 및 2000년도 사업계획 논의	
24	이사회의	• 일시: 2000. 7. 21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15명	문화원 · 문화의집 발전 방향 모색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25	남이흥 장군 문화제 기념 학생 백일장	• 일시: 2000. 9. 22 • 장소: 대호지면 충창사 • 참여인원: 3,000명	제12회 남이흥 장군 문화제 기념 학생 백일장 원고 접수 및 시상식	
26	전통무예 재현	• 일시: 2000. 9. 22 • 장소: 대호지면 충창사 • 참여인원: 3.000명	제12회 남이흥 장군 문화제 전통무예(24반무예, 마상무예, 택견)재현	
27	【청소년 어울마당】 연극공연	• 일시: 2000. 9. 16 • 장소: 당진군민회관 • 참여인원: 600명	극단 〈눈동자〉 '안녕 친구야' 초청 공연	
28	【청소년 어울마당】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 일시: 2000. 10. • 장소: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600여명	청소년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29	【청소년 어울마당】 레크리에이션	• 일시: 2000. 11. • 장소: 합덕읍민회관 • 참여인원: 600여명	당진 관내 청소년 건전 문화 정착 레크리에이션	
30	【청소년 어울마당】 2000년 송년의 밤 열린음악회	• 일시: 2000. 11. • 장소: 당진군민회관 • 참여인원: 1,000명	2000년 송년의 밤 열린음악회 및 불우이웃 돕기 행사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고
31	당진문화 제17집 발간	• 일시: 2000. 12. • 발행부수: 4,000부 • 배포처: 출향인사, 각급 단체, 회원, 지역민	2000년 하반기 당진문화원 활동 사업 및 지역민, 출향 인사들의 갖가지 장르 게재	
32	당진인 수필집	• 일시: 2000. 12. • 발행부수: 2,000부 • 배포처: 출향인사, 각급 단체, 회원, 지역민	출향인과 지역민의 삶의 이야기 모음집	
33	당나루 맥락 제20집 발간	• 일시: 2000. 12. • 발행부수: 1,200부 • 배포처: 출향인사, 각급 단체, 회원, 지역민	'당진마을 금석문' 발간	
34	전입 주민 및 문화예술인 우리 고장 알리기	• 일시: 2000. 10. • 장소: 당진 관내 유적지 • 참여인원: 100명	당진관내 문화유적 탐방	

△김동길 교수 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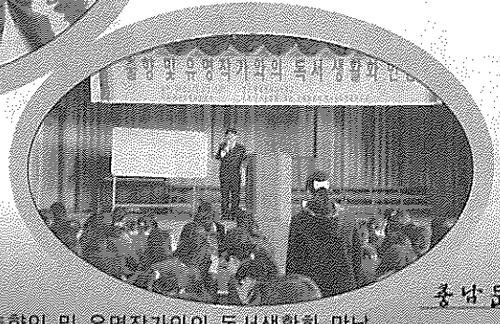
△청소년 어울마당(서해대교 행사 줄넘기 대회)



△이동 문화 교실

△세시민속놀이 및 정기총회시 고향마을 개막식

△정동주장 초청공연


△출향인 및 유명작가와의 독서생활화 만남

△서해대교 개통기념 KBS전국노래자랑

△수지침봉사대 활동

△청소년 어울마당(청소년 댄스대회)

△이동노래방

△서해대교 개통기념(줄넘기 대회)

편 집 위 원

- 김현구 (서산)
- 민병달 (천안)
- 조성민 (아우내)
- 지해두 (성환)
- 이관용 (공주)
- 윤병배 (대천)
- 박노을 (온양)
- 하기수 (논산)
- 신정교 (금산)
- 장 영 (조치원)
- 장영석 (부여)
- 노긍래 (서천)
- 안종일 (청양)
- 이하영 (홍성)
- 이지호 (예산)
- 이갑춘 (태안)
- 민영근 (당진)

忠南文化 2000 〈통권 제4호〉

- 발행일 : 2000년 12월 30일
- 발행인 : 김 현 구
-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356-020 충남 서산시 읍내동 268
  전화 (041)667-0417 팩스 (041)669-4567
- 인 쇄 : 서산인쇄공사
  충남 서산시 읍내동 264-1
  전화 (041)664-0001~3 팩스 (041)666-2404

〈비매품〉

도내 지방문화원 현황

(2000. 11월 현재)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면적(평)	문화가족			전화번호
				원장	사무국장	직원	
계	17개소						
전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서산시 읍내동 268			김현구	한기홍	김영철	667-0417
천안문화원	천안시 성정동 694-9	54. 7. 10	800	민병달	이정우	이은미 정종헌 최강덕 양혜정 민근홍	575-3004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161	조성민	김규생	권선희	564-1022
성환문화원	성환읍 성환리 449-66	68. 1. 25	84	지해두	신광식	김정선	581-2101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 12. 16	303	이관용	정재욱	현대수 장미숙 김설희	852-9005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309	윤병배	이혜실	임형숙	934-3061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동 206-24	64. 11. 24	285	박노을	장기승	정재경	545-2222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268	57. 6. 15	233	김현구	한기홍	김기영 안지현	669-5050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105	하기수	양순모	김현중	732-2395
금산문화원	금산읍 상리 176-43	68. 3. 5	138	신정교	안용산	석현숙	754-2724
조치원문화원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90	장 영	성문경	길말숙	865-2411
부여문화원	부여읍 동남리 722	54. 4. 1	145	장영석	김인권	전혜림	835-3318
서천문화원	서천읍 군사리 176-2	65. 1. 26	300	노긍래	홍덕유	최신희	953-0123
청양문화원	청양읍 읍내리 202-5	65. 2. 11	286	안종일	임두순	김용미 이상화	943-4774
홍성문화원	홍성읍 오관리 412-13	65. 1. 26	150	이하영	김경식	한경원 서정일	632-3613
예산문화원	예산읍 예산리 433	55. 10. 15	145	이지호	김문회	이용남 윤선숙	335-2441
태안문화원	태안읍 남문리 53-11	90. 9. 15	250	이갑춘	정지수	이연숙	674-2192
당진문화원	당진읍 읍내리 529-9	58. 3. 5	70	민영근	김진식	김종선 박효영 김성아	354-2367